

연구 2008-02

여성 흡연과 음주의 요인 및 정책대안

Women's Smoking and Drinking Behavior: Factors and Policy Options

서미경
최은진
김동진
박순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성 흡연과 음주의 요인 및 정책대안

연구보고서 2008-02

| | |
|-------|---|
| 발행일 | 2008년 12월 |
| 저자 | 서미경 외 |
| 발행인 | 김용하 |
| 발행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우: 122-705) |
| 전화 | 대표전화: 02) 380-8000 |
| 홈페이지 | http://www.kihasa.re.kr |
| 등록인쇄처 |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예원기획 |
| 가격 | 9,000원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ISBN 978-89-8187-487-2 93510

머리말

여성과 남성은 신체적인 특징에서의 차이 뿐만 아니라, 건강행위의 차이, 사회적인 적응의 차이 등 많은 차별화된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건강정책의 접근에서 이러한 차이를 인정한 차별화된 접근은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여성의 흡연과 음주, 식습관 운동 등 건강행동에 대한 정책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

건강행동은 주요사망원인인 만성질환의 예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바람직한 건강행동은 만성질환의 예방 및 만성질환에 의한 조기사망의 예방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건강생활습관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인 개입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 경우 여성과 남성의 특성을 인지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여러 가지 건강행동 중 우선적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추세를 보이는 여성의 흡연과 음주관련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여성의 흡연율과 음주율은 증가추세이며, 특히 청소년과 젊은층에서 이러한 현상이 뚜렷하다. 증가세를 보이는 여성의 흡연과 음주의 예방 및 증가세 감소 노력이 필요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여성 흡연 및 음주의 심각성이 인지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 여성흡연율은 중학생 5.7%, 고등학생 17.5%, 20대 여성 18%로 추정된다. 중고생의 흡연율은 남자 중·고등생과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20대여성의 흡연율은 남성성인 흡연율의 절반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세를 보였다. 성인여성 고위험음주율은 2007년도 28.7%로 2005년도보다 약6%포인트 증가하였다. 여자 청소년의 음주율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7년도 우리나라 여자중고생의 음주경험율은 57.5%였고, 현재음주율은 25.7%이었다. 또한 음주청소년의 고위

험음주율은 남자 30.7%, 여자 32.5%로 오히려 여자 고위험음주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여성흡연과 음주문제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1장 서론을 비롯한 제2장 여성흡연의 현황, 제3장 우리나라여성흡연율 및 흡연요인 분석 결과, 제4장 여성흡연예방 및 감소정책 방향, 제5장 여성 음주의 현황, 제6장 우리나라 여성음주율 및 요인 분석 결과, 제7장 여성음주 감소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구성하여 우리나라 여성의 흡연과 음주행동의 현황 및 요인 그리고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 집필에 참여한 본원 서미경 연구위원, 최은진 연구위원, 김동진 선임연구원과 대구가톨릭대학교의 박순우 교수의 노고를 치하한다. 그리고 본 보고서를 세심하게 검토한 이상영 보건의료실장과 김혜련 연구위원에게 감사드린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여성의 흡연과 음주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궁극적으로 여성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를 기원한다.

2008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용 하

목 차

| | |
|--|------------|
| Abstract | 15 |
| 요 약 | 17 |
| 제1장 서 론 | 23 |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3 |
| 제2절 연구내용 | 24 |
| 제3절 연구방법 | 25 |
| 제2장 여성흡연을 현황 | 28 |
| 제1절 여성 흡연을 추이 | 28 |
| 제2절 여성흡연영향요인 | 39 |
| 제3장 우리나라 여성흡연 관련요인 분석 결과 | 63 |
| 제1절 여성흡연을 추정 | 63 |
| 제2절 여성청소년 흡연관련 요인 | 75 |
| 제3절 성인여성 흡연관련 요인 | 123 |
| 제4절 문제집단의 흡연 관련요인 | 150 |
| 제4장 여성흡연 예방 및 감소정책방향 및 과제 | 168 |
| 제1절 여성흡연 현황 요약 및 시사점 | 168 |

| | |
|---------------------------------------|------------|
| 제2절 여성흡연 예방 금연정책의 과제 | 184 |
| 제5장 여성음주의 현황 | 193 |
| 제1절 여성음주율 | 193 |
| 제2절 음주영향모형 및 관련요인 | 200 |
| 제6장 우리나라 여성음주 관련요인 분석 결과 | 214 |
| 제1절 추정 음주율 | 214 |
| 제2절 여성청소년 음주관련 요인 | 215 |
| 제3절 성인여성 음주관련 요인 | 242 |
| 제4절 여성음주 관련요인 요약 | 260 |
| 제7장 여성음주 감소를 위한 정책방향 | 263 |
| 제1절 여성음주 동향 및 시사점 | 263 |
| 제2절 여성 대상 절주정책 | 268 |
| 참고문헌 | 273 |
| 부 록 | 283 |

표 목 차

| | | |
|----------|------------------------------|----|
| 〈표 1- 1〉 |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된 변수 | 26 |
| 〈표 2- 1〉 |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별 흡연율 추이 | 29 |
| 〈표 2- 2〉 | 성별 및 학년별 첫 흡연경험 연령 | 30 |
| 〈표 2- 3〉 | 성별 및 학년별 흡연경험률 | 31 |
| 〈표 2- 4〉 | 성별 및 학년별 현재 흡연율 | 31 |
| 〈표 2- 5〉 | 학교급별 현재흡연율 | 32 |
| 〈표 2- 6〉 | 성별 및 학년별 매일흡연율 | 33 |
| 〈표 2- 7〉 | 성별 및 학년별 매일흡연시작 연령 | 33 |
| 〈표 2- 8〉 | 학년별 금연 의지 흡연자 비율 | 34 |
| 〈표 2- 9〉 | 여학생의 학년별 금연 의지 흡연자 비율 | 35 |
| 〈표 2-10〉 | 우리나라와 외국의 청소년 흡연율* 추이 및 비교 | 35 |
| 〈표 2-11〉 | 우리나라와 일본의 흡연율1) 비교 | 36 |
| 〈표 2-12〉 | 20세 이상 성인의 성별·연령별 흡연율 추이 | 37 |
| 〈표 2-13〉 | 성인여성의 흡연율 추이 | 38 |
| 〈표 3- 1〉 | 여자중학생 흡연율 추이 | 66 |
| 〈표 3- 2〉 | 여자고등학생 흡연율 추이 | 68 |
| 〈표 3- 3〉 | 전문계와 일반계의 흡연율 연구결과 | 70 |
| 〈표 3- 4〉 | 성인여성 흡연율 추이 | 72 |
| 〈표 3- 5〉 | 외국 여성의 흡연율 추이 | 73 |
| 〈표 3- 6〉 | 여성청소년 흡연요인 분석에 사용된 변수 및 내용 | 75 |
| 〈표 3- 7〉 | 제2차 청소년 행태조사 분석대상자 흡연요인관련 특성 | 77 |

| | | |
|----------|--|-----|
| 〈표 3- 8〉 | 청소년의 성별 흡연경험률, 현재흡연율, 매일흡연율, 금연의지율, 금연율 | 79 |
| 〈표 3- 9〉 | 청소년 흡연경험자의 흡연행태 | 80 |
| 〈표 3-10〉 | 청소년 학년별, 학업수준별 흡연경험률 | 81 |
| 〈표 3-11〉 | 청소년 건강상태별 흡연경험률 | 81 |
| 〈표 3-12〉 | 청소년 건강행태별 흡연경험률 | 83 |
| 〈표 3-13〉 | 청소년 가족환경별 흡연경험률 | 84 |
| 〈표 3-14〉 | 청소년 정책환경별 흡연경험률 | 85 |
| 〈표 3-15〉 | 청소년 현재흡연자의 흡연행태 | 87 |
| 〈표 3-16〉 | 청소년 학년별, 학업수준별 현재흡연율 | 88 |
| 〈표 3-17〉 | 청소년 건강상태별 현재흡연율 | 89 |
| 〈표 3-18〉 | 청소년 건강행태별 현재흡연율 | 90 |
| 〈표 3-19〉 | 청소년 가족환경별 현재흡연율 | 91 |
| 〈표 3-20〉 | 청소년 정책환경별 현재흡연율 | 93 |
| 〈표 3-21〉 | 청소년 매일흡연자의 흡연행태 | 94 |
| 〈표 3-22〉 | 청소년 학년별, 학업수준별 매일흡연율 | 95 |
| 〈표 3-23〉 | 청소년 건강상태별 매일흡연율 | 96 |
| 〈표 3-24〉 | 청소년 건강행태별 매일흡연율 | 97 |
| 〈표 3-25〉 | 청소년 가족환경별 매일흡연율 | 99 |
| 〈표 3-26〉 | 청소년 정책환경별 매일흡연율 | 100 |
| 〈표 3-27〉 | 청소년 금연의지자의 흡연행태 | 101 |
| 〈표 3-28〉 | 청소년 학년별, 학업수준별 금연의지율 | 102 |
| 〈표 3-29〉 | 청소년 건강상태별 금연의지율 | 103 |
| 〈표 3-30〉 | 청소년 건강행태별 금연의지율 | 104 |
| 〈표 3-31〉 | 청소년 가족환경별 금연의지율 | 106 |
| 〈표 3-32〉 | 청소년 정책환경별 금연의지율 | 107 |

| | | |
|----------|----------------------------------|-----|
| 〈표 3-33〉 | 청소년 학년별, 학업수준별 금연율 | 108 |
| 〈표 3-34〉 | 청소년 건강상태별 금연율 | 109 |
| 〈표 3-35〉 | 청소년 건강행태별 금연율 | 110 |
| 〈표 3-36〉 | 청소년 흡연관련변수별 금연율 | 111 |
| 〈표 3-37〉 | 청소년 가족환경별 금연율 | 112 |
| 〈표 3-38〉 | 청소년 정책환경별 금연율 | 113 |
| 〈표 3-39〉 | 청소년 흡연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15 |
| 〈표 3-40〉 | 청소년 현재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18 |
| 〈표 3-41〉 | 청소년 금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20 |
| 〈표 3-42〉 | 제3기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대상자 일반적 특성 | 123 |
| 〈표 3-43〉 | 성인여성의 흡연요인 분석에 사용된 변수 및 설명 | 125 |
| 〈표 3-44〉 | 성인의 평생흡연율, 현재흡연율, 매일흡연율, 금연시도율 · | 126 |
| 〈표 3-45〉 | 성인 평생흡연자의 흡연행태 | 127 |
| 〈표 3-46〉 | 성인 인구·사회·경제적 상태별 평생흡연율 | 128 |
| 〈표 3-47〉 | 성인 건강상태별 평생흡연율 | 129 |
| 〈표 3-48〉 | 성인 건강행태별 평생흡연율 | 130 |
| 〈표 3-49〉 | 성인 가족 및 직장환경별 평생흡연율 | 131 |
| 〈표 3-50〉 | 성인 정책환경별 평생흡연율 | 131 |
| 〈표 3-51〉 | 성인 현재흡연자의 흡연행태 | 132 |
| 〈표 3-52〉 | 성인 인구·사회·경제적 상태별 현재흡연율 | 133 |
| 〈표 3-53〉 | 성인 건강상태별 현재흡연율 | 134 |
| 〈표 3-54〉 | 성인 건강행태별 현재흡연율 | 135 |
| 〈표 3-55〉 | 성인 가족 및 직장환경별 현재흡연율 | 136 |
| 〈표 3-56〉 | 성인 정책환경별 현재흡연율 | 136 |
| 〈표 3-57〉 | 성인 매일흡연자의 흡연행태 | 137 |
| 〈표 3-58〉 | 성인 인구·사회·경제적 상태별 매일흡연율 | 138 |

| | |
|--|-----|
| 〈표 3-59〉 성인 건강상태별 매일흡연율 | 139 |
| 〈표 3-60〉 성인 건강행태별 매일흡연율 | 140 |
| 〈표 3-61〉 성인 가족 및 직장환경별 매일흡연율 | 141 |
| 〈표 3-62〉 성인 정책환경별 매일흡연율 | 141 |
| 〈표 3-63〉 금연시도자의 흡연행태 | 142 |
| 〈표 3-64〉 인구·사회·경제적 상태별 금연시도율 | 143 |
| 〈표 3-65〉 건강상태별 금연시도율 | 144 |
| 〈표 3-66〉 건강행태별 금연시도율 | 145 |
| 〈표 3-67〉 가족 및 직장환경별 금연시도율 | 146 |
| 〈표 3-68〉 정책환경별 금연시도율 | 146 |
| 〈표 3-69〉 평생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47 |
| 〈표 3-70〉 현재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49 |
| 〈표 3-71〉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의 현재흡연율 | 151 |
| 〈표 3-72〉 고등학교 3학년 여성청소년의 일반적 특성비교 | 151 |
| 〈표 3-73〉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의 현재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54 |
| 〈표 3-74〉 전문계고등학교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 157 |
| 〈표 3-75〉 전문계고등학교 청소년의 현재흡연율 | 159 |
| 〈표 3-76〉 전문계고등학교 청소년 현재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 160 |
| 〈표 3-77〉 아버지 학력이 낮은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 163 |
| 〈표 3-78〉 아버지 학력이 낮은 청소년의 현재흡연율 | 165 |
| 〈표 3-79〉 아버지 학력이 낮은 청소년의 현재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66 |
| 〈표 4- 1〉 청소년의 흡연경험 관련요인 비교표 | 169 |
| 〈표 4- 2〉 청소년의 흡연율 관련요인 비교표 | 171 |
| 〈표 4- 3〉 청소년의 금연 관련요인 비교표 | 173 |
| 〈표 4- 4〉 성인의 흡연경험 관련요인 비교표 | 175 |

| | |
|---|-----|
| <표 4- 5> 성인의 현재흡연 관련요인 비교표 | 177 |
| <표 4- 6> 고등학교 3학년에서의 현재흡연 관련요인 비교표 | 179 |
| <표 4- 7> 전문계고에서의 현재흡연 관련요인 비교표 | 181 |
| <표 4- 8>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낮은 집단에서의 현재흡연 관련요인 비교표 | 183 |
| <표 4- 9> 청소년의 흡연 관련요인 성별 비교표 | 185 |
| <표 4-10> 성인의 현재흡연 관련요인 비교표 | 187 |
| <표 5- 1> 알코올 관련 위해의 결과 | 202 |
| <표 5- 2>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하루 음주량과 위험도 | 203 |
| <표 5- 3> 과음의 건강피해에 대한 연구요약 | 209 |
| <표 5- 4> 국내 여성음주관련 영향요인 개요 | 213 |
| <표 6- 1> 제2차 청소년 행태조사 분석대상자 일반적 특성 | 216 |
| <표 6- 2> 여성청소년 흡연요인 분석에 사용된 변수 및 설명 | 216 |
| <표 6- 3> 청소년 성별 음주무경험률, 현재음주율, 고위험음주율 | 217 |
| <표 6- 4> 청소년 학년별·학업수준별 음주율 | 218 |
| <표 6- 5> 청소년 건강상태별 음주율 | 219 |
| <표 6- 6> 청소년 건강행태별 음주율 | 220 |
| <표 6- 7> 청소년 흡연 및 음주 관련 변수별 음주율 | 221 |
| <표 6- 8> 청소년 가족환경별 음주율 | 222 |
| <표 6- 9> 청소년 정책환경별 음주율 | 223 |
| <표 6-10> 청소년 학년별·학업수준별 고위험음주율 | 224 |
| <표 6-11> 청소년 건강상태별 고위험음주율 | 225 |
| <표 6-12> 청소년 건강행태별 고위험음주율 | 226 |
| <표 6-13> 청소년 흡연음주 관련변수별 고위험음주율 | 227 |
| <표 6-14> 청소년 가족환경별 고위험음주율 | 228 |
| <표 6-15> 청소년 정책환경별 고위험음주율 | 229 |

| | | |
|----------|---------------------------|-----|
| 〈표 6-16〉 | 청소년 학년별·학업수준별 음주무경험률 | 230 |
| 〈표 6-17〉 | 청소년 건강상태별 음주무경험률 | 230 |
| 〈표 6-18〉 | 청소년 건강행태별 음주무경험률 | 232 |
| 〈표 6-19〉 | 청소년 흡연관련 변수별 음주무경험률 | 233 |
| 〈표 6-20〉 | 청소년 가족환경별 음주무경험률 | 233 |
| 〈표 6-21〉 | 청소년 정책환경별 음주무경험률 | 235 |
| 〈표 6-22〉 | 청소년 현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35 |
| 〈표 6-23〉 | 청소년 고위험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37 |
| 〈표 6-24〉 | 청소년 음주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40 |
| 〈표 6-25〉 | 제3기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대상자 일반적 특성 | 242 |
| 〈표 6-26〉 | 성인여성 음주요인 분석에 사용된 변수 및 설명 | 242 |
| 〈표 6-27〉 | 성인 성별 현재음주율, 고위험음주율, 비음주율 | 243 |
| 〈표 6-28〉 | 성인 인구·사회·경제적 상태별 음주율 | 244 |
| 〈표 6-29〉 | 성인 건강상태별 음주율 | 245 |
| 〈표 6-30〉 | 성인 건강행태별 음주율 | 246 |
| 〈표 6-31〉 | 성인 흡연관련 변수별 음주율 | 246 |
| 〈표 6-32〉 | 성인 인구·사회·경제적 상태별 고위험음주율 | 247 |
| 〈표 6-33〉 | 성인 건강상태별 고위험음주율 | 249 |
| 〈표 6-34〉 | 성인 건강행태별 고위험음주율 | 250 |
| 〈표 6-35〉 | 성인 흡연·음주관련변수별 고위험음주율 | 250 |
| 〈표 6-36〉 | 성인 인구·사회·경제적 상태별 비음주율 | 252 |
| 〈표 6-37〉 | 성인 건강상태별 비음주율 | 253 |
| 〈표 6-38〉 | 성인 건강행태별 비음주율 | 254 |
| 〈표 6-39〉 | 성인 흡연관련 변수별 비음주율 | 254 |
| 〈표 6-40〉 | 성인 현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56 |
| 〈표 6-41〉 | 성인 고위험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57 |

| | |
|-----------------------------------|-----|
| 〈표 6-42〉 성인 비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58 |
| 〈표 7- 1〉 여자 청소년의 음주 관련요인 종합 | 266 |
| 〈표 7- 2〉 성인 여성의 음주 관련요인 종합 | 267 |

그림 목차

| | |
|---|-----|
| [그림 2- 1] 흡연율 및 흡연으로 인한 사망율의 단계별 변화추이 | 28 |
| [그림 5- 1] 월간 음주율의 연도별 추이 | 194 |
| [그림 5- 2] 월1회 이상 고위험음주의 변화추이 | 195 |
| [그림 5- 3] 청소년의 현재 음주율 변화 | 196 |
| [그림 5- 4] 청소년의 중학교 입학전 음주경험율 | 196 |
| [그림 5- 5] 청소년 고위험음주율 | 197 |
| [그림 5- 6] 현음주율의 국제비교 | 198 |
| [그림 5- 7] 고위험음주율의 국제비교 | 199 |
| [그림 5- 8] 알코올섭취장애 및 알코올의존의 국제비교 | 199 |
| [그림 5- 9] 음주로 인한 결과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시스템 | 200 |
| [그림 5-10] 음주관련 폐해의 종류 | 201 |
| [그림 5-11] 인구집단 음주문제의 연속선 | 204 |

Abstract

Women's Smoking and Drinking Behavior: Factors and Policy Options

This study analyzed factors related to smoking and drinking behavior of adolescents and young women that their smoking and alcohol consumption rates continue to increase. Then the study suggested policy plans for the issue. The study methods were as follow: we reviewed several related literatures and analyzed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Behavior Survey and the Korea Youth Risk Behavior Survey.

The result showed that average smoking prevalence for middle school students was 5.7%, for high school students was 17.5% (range from 15 to 20%), for women who are age of 20s was 18% (range from 14.0% to 21.9%) and for adults who are age of 20s was 10%. Smoking behavior of women are related to various factors such as socio-demographic environment, life style and tobacco control policy. For this reason, women-specific and diversified approach is needed for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policy in South Korea.

Alcohol consumption rates for women continues to increase, especially on high risk drinking behavior. The factors that affect high risk drinking behavior are individual factors, social factors and policy factors. Therefore, policy approach for women's drinking behavior should include comprehensive and ecological approach. And it is necessary to make gradual process of the strengthening the policy for drinking behavior.

요 약

1.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여성 중 흡연율과 음주율이 증가하는 집단인 청소년과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흡연과 음주 관련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국내 여성흡연 및 음주관련 문헌에 대한 분석(국회 전자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에 1990년~2008년 사이에 학술지, 학위논문, 보고서의 형태로 발간된 여성흡연 및 음주 관련논문을 고찰)
 - 2차 자료의 분석: 전국단위의 신뢰도가 높은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분석
 - 향후 여성흡연과 음주 예방 및 금연정책 과제 제시

2. 주요 연구내용

- 흡연율
 - 기존논문을 분석하여 하여 추정한 결과는
 - 여성흡연율(“1개월 내 흡연경험”)추정치: 2005년 기준 중학생 5.7%, 고등학생 17.5%(15~20%), 20대 여성 18% (14.0%~21.9%), 20대 이상 성인 10%
 - 여성흡연 경험을 추정치: 중학생 17.6%이상, 고등학생 34.5%~46%, 20대 여성 39.9%~54%, 20대 이상 성인 20%

18 여성 흡연과 음주의 요인 및 정책대안

□ 여성의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여성청소년 현재흡연과 관련 요인

- 여성청소년의 현재흡연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개인적 환경, 학교 및 가정환경, 정책적 환경 모두 관련됨. 소분류 변수 중 담배구입의 용이성, 음주경험여부, 학교에서의 학업수준, 흡입제의 사용경험여부, TV금연홍보 접촉여부, 가정 내 간접흡연여부가 순서대로 OR의 값이 높은 변수임. 여성청소년은 남성청소년에 비하여 우울증, 자살에 대한 생각여부, 건강행태(음주, 운동, 흡입제, 식사습관), 아버지의 학력수준, 부모와의 동거여부와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음.

－ 성인여성의 현재흡연 관련요인

- 성인여성의 현재흡연관련요인은 개인 환경적 변수에 치중되었음. 결혼상태(사별·별거·이혼), 교육수준(낮은 학력수준), 직업(육체노동, 무직, 학생, 주부)이 현재흡연에 관련이 있는 변수이었음. 또한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해본 경험이 현재흡연과 관련이 있는 요인이었음. 성인남성과 비교할 때 성인여성은 성인남성에 비하여 직업, 자살에 대한 생각여부가 더 밀접한 변수로 분석되었고, 연령(젊은 연령),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체격인식, 음주경험과 가정내 간접흡연경험은 성인남성에게서 더 밀접한 변수로 분석되었음.

□ 여성의 흡연 예방 금연정책 과제

- － 여성의 흡연행위는 인구·사회적 환경, 건강습관, 금연정책 등 다각적인 요인과 연관되어져 있으며, 남성은 흡연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종류 및 영향력에서 차이를 보였음.

－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에서의 여성대상 흡연예방 및 금연정책은

- 여성특화적 접근: 성별차별성을 인정한 여성특화적 정책적 접근

이 필요함.

- 다각적 접근: 인구사회, 가족, 정책환경 등 다각적인 접근 정책이 필요함. 그러나 성인여성의 경우 금연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인구사회적 환경의 개선에 역점을 두어야 함.
- 세분화된 접근: 여성에게 특히 인구사회적환경의 중요시되므로, 인구사회적 특성별로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함.
- 모니터링체계의 개선: 이러한 세부집단별 접근에 앞서서 여성흡연에 대한 정확한 기초데이터의 확보가 필요함. 현재조사방식에 응답비밀의 보장, 특정집단에 대한 추가조사 등의 조사방식의 변화 필요함.

□ 여성음주의 현황

-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국민의 알코올 소비량은 계속 증가하여 왔음. 2007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 우리나라 성인의 월간 음주율은 남자 73.5%, 여자 41.5%로 2005년도 조사결과보다 증가하였음.
- 성인 고위험음주는 알코올사용장애 및 알코올의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성인여성의 알코올사용장애 및 알코올의존 유병률은 각각 2.6%, 1.7%(2001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였음. 2007년도 성인여성 고위험음주율은 28.7%로 2005년도보다 약 6%포인트 증가하였음(여성의 고위험음주량은 한번의 술자리에서 5잔(맥주3캔 정도)이상음주를 의미).
- 여자 청소년의 음주율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2007년도 우리나라 중고생의 음주경험율은 남자 59.6%, 여자 57.5%였고, 현재음주율은 남자 29.6%, 여자 25.7%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음주청소년의 고위험음주율은 남자 30.7%, 여자 32.5%로 오히려 여자 고위험음주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음. 현 음주자

의 문제음주율은 남녀 모두 51% 정도로 나타나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짐. 연간 음주예방교육경험율은 전체적으로 31.7%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 여성음주의 관련요인

- 여성청소년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흡연과 동일한 데이터인 2006년도의 제2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분석 대상자 또한 동일함.
-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별로는 남녀모두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음주율이 높았고, 여성청소년의 경우 스스로 비만인 편이라고 응답한 집단에서 음주율이 높았다. 또한,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생각 등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집단에서의 음주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청소년 고위험 음주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유의하게 증가하고, 건강한편이라고 주관적으로 생각할수록 증가하였으며, 격렬한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 초등학교이전 및 중학교 이전 음주경험, 흡연 경험 등이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음. 아버지의 저학력, 부모와 떨어져 자취, 하숙, 기숙사생활을 하는 경우 고위험 음주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류구매 용이성이 높을수록 고위험 음주의 가능성이 높았음.

3.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여성음주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생태학적인 접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는 생태학적 모형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으며 개인과 집단, 조직, 지방(local)정부 또는 지자체, 국가, 국제적 차원에서 다양한 접근전략이 개발되어야 함.
- 점진적인 음주정책의 강화 필요: 효과적인 음주폐해예방정책들을 국제

기구나 전문가들이 제시하지만 지역의 문화와 일반인의 인식에 따라 도입할 수 있는 대책들은 한정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교육홍보와 더불어 수용도가 높은 정책부터 강화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액션 플랜이 필요함.

- 여성 및 청소년 대상 주류광고와 주류 마케팅에 대한 규제 강화: 우리나라에서는 주류에 건강경고문구와 청소년유해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담배와 달리 많은 주류제품에서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음. 주류에 이러한 기본적인 규제와 더불어 주류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청소년들과 같은 취약계층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규제를 강화하도록 해야 함.
-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보건교육과 훈련: 여성음주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개인의 인지적, 태도적, 행동적인 역량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초·중·고등학교부터 체계적인 음주예방교육을 받도록 하고 대학생과 직장인 등은 정기적인 음주폐해예방교육을 받도록 해야 함. 공익광고 등을 통해서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 캠퍼스 절주사업 강화: 20대 청년기의 고위험음주율이 높고 대학생 음주로 인한 사고가 심각하므로 지속적인 음주폐해예방교육과 캠퍼스 내 주류반입 금지 등의 규제가 필요함.
- 직장인의 절주 지원: 지역사회 공공보건기관과 연계를 통해 직장인 음주문제예방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직장인 대상 음주폐해예방사업은 음주운전, 업무 중 음주 등 업무나 생산성 손실과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두고, 미국에서와 같은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임.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젊은 여성의 흡연율의 증가 및 음주의 일상화는 여성 고유의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임신 중의 위험성을 야기할 수 있어, 향후 인구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여성흡연과 음주의 감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성흡연과 음주행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미비하다.

특히 흡연에 있어서 아직 여성의 흡연을 공개하지 않는 문화로 인하여 여성의 흡연율 조사 결과의 신뢰도가 낮으며, 여성 흡연과 관련된 요인에 대하여는 연령, 직업, 결혼, 스트레스, 운동, 음주, 체중조절 등의 다양한 요인과 관련된 것으로 연구결과가 제시되어 지나, 이에 대한 정확한 요인 분석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성 음주와 관련된 요인에 대하여도 연령, 직업, 결혼, 스트레스, 운동, 음주, 체중조절 등의 다양한 요인과 관련된 것으로 연구결과가 제시되어 지나, 이에 대한 정확한 요인분석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여성흡연예방 및 금연정책과 여성음주폐해예방정책의 근거로서 여성의 정확한 흡연과 음주 관련 요인을 분석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여성 중 흡연율과 음주율이 증가하는 집단인 청소년과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흡연과 음주 관련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내용

1. 우리나라 여성 흡연의 현황 관련요인 및 정책 대안 모색

우리나라 여성의 흡연행태 및 관련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와 외국의 외국 여성의 흡연행태 및 관련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를 분석하고, 여성흡연의 행태 및 요인에 대한 연구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여성흡연 행위 및 요인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기존문헌의 결과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흡연실태조사중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청소년건강행태조사(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영양조사(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 흡연요인과 흡연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이 결과에 따른 정부에서의 여성흡연예방 및 금연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2. 우리나라 여성 음주의 현황 관련요인 및 정책 대안 모색

우리나라 여성의 음주행태 및 관련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와 외국의 외국 여성의 음주행태 및 관련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를 분석하고, 여성음주의 행태 및 요인에 대한 연구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여성음주행위 및 요인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기존문헌의 결과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음주실태조사중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청소년건강행태조사(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영양조사(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 음주요인과 음주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이 결과에 따른 정부에서의 여성음주예방 및 절주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제3절 연구방법

1. 국내 여성흡연과 음주 행태 관련 문헌고찰

외국의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와 문화가 다른 결과로 우리나라에 직접 적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국회 전자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에 1990~2008년 사이에 학술지, 학위논문, 보고서의 형태로 발간된 여성흡연 및 음주 관련논문을 고찰하였다.

2. 여성 흡연 및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여성의 흡연 및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2006년도에 실시된 제2차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데이터와 2005년에 실시된 제3기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의 경우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청소년의 흡연 행태를 파악하는데 이용하였고, 국민건강영양조사는 19~39세의 여성만을 따로 분리하여 분석함으로써 젊은 여성계층의 흡연, 음주 행태를 파악하는데 이용하였다.

2005년도에 제1차 조사가 수행되고, 2006년도에 제2차 조사가 수행된 청소년 건강행태조사는 전국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조사는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표본추출된 중학교 400개교, 고등학교 400개교의 학년별 1개 학급에 속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 중 총 71,404명(여학생 34,200명, 남학생 27,204명)에 대해 조사가 완료되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경우 표본 추출된 가구 중 총 34,152명(12,001가구)에 대해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성인의 흡연과 음주에 관련된 문항이 포함된 보건의식행태조사 대상자는 7,802명이었

다. 이 중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하는 19~39세 성인은 모두 3,078명(여자 1,683명, 남자 1,395명)이었다.

여성의 흡연 및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는 <표 1-1>과 같다. 흡연 및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흡연 및 음주와 관련된 변수별로 단변량 분석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을 위해서는 STATA SE/10.1 버전을 이용하였다. 분석하고자 하는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는 남성의 분석결과를 함께 제시하였다.

<표 1-1>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된 변수

| | 흡연 | | 음주 | |
|-------|--|---|--|---|
| | 성인 | 청소년 | 성인 | 청소년 |
| 종속 변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흡연율¹⁾ - 현재흡연율²⁾ - 금연시도율³⁾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흡연경험률⁴⁾ - 현재흡연율⁵⁾ - 금연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음주율⁶⁾ - 고위험음주율⁷⁾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음주율 - 고위험음주율 |
| 독립 변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사회요인: 성,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직업, 소득 · 건강상태: 주관적건강상태, 우울증, 자살생각 · 건강행태: 음주, 신체활동 - 사회적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환경: 가정내금연규칙 · 사회환경: 직장에서의 금연규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요인: 학년 ·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증, 자살생각 · 건강행태: 음주, 신체활동, 흡입제 사용, 아침식사 - 사회적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수준 · 가족환경: 가정내 간접흡연, 부모학력, 경제상태, 거주형태, 부모동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사회요인: 성,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직업, 소득 · 건강상태: 주관적건강상태, 우울증, 자살생각 · 건강행태: 신체활동, 현재흡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요인: 학년 ·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증, 자살생각 · 건강행태: 흡연, 신체활동, 흡입제 사용, 아침식사 - 사회적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수준 · 가족환경: 부모학력, 경제상태, 거주형태, 부모동거 |

| 흡연 | | 음주 | |
|------------------|--------------------------------------|----|-------------------------------------|
| 성인 | 청소년 | 성인 | 청소년 |
| - 정책환경: 금연캠페인 | - 정책환경: 금연홍보, 금연교육, 담배구입 의 용이성 | | - 정책적요인 · 정책환경: 금주정책, 건강교육 |

- 주: 1) 평생흡연: 살아오면서 담배를 5갑(100개비) 이상 흡연한 경우
 2) 현재흡연: 현재도 흡연하는 경우
 3) 금연시도: 지난 1년 동안 금연을 시도한 경우
 4) 흡연경험: 청소년 중 흡연한 경험이 있는 경우
 5) 현재흡연: 청소년 중 지난 달 흡연한 경우
 6) 현재음주: 한 달에 한번 이상 음주하는 경우(청소년의 경우 지난 한 달 동안 술을 마신 경우)
 7) 고위험음주: 현재 음주자 중에서 한번에 마시는 술이 남자의 경우 소주 7잔 이상, 여자의 경우 5잔 이상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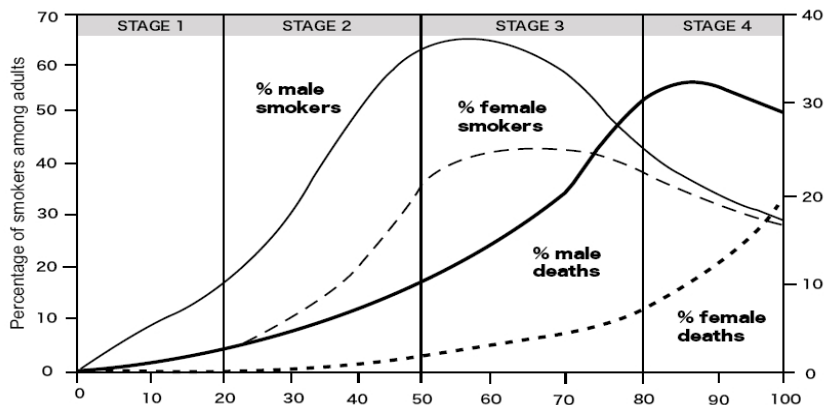
제2장 여성흡연율 현황

제1절 여성 흡연율 추이

1. 우리나라 여성흡연율

우리나라에서는 남성흡연율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성흡연율은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인다. 우리나라는 남성흡연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흡연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의 30.7%(정영호, 2003)를 보이는 흡연의 유행 3단계와 4단계 중간인 흡연감소기에 있다. 여성흡연율이 증가한 후 여성흡연 사망자는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따라서 증가하는 여성흡연율은 향후 여성흡연으로 인한 사망이 상당히 증가할 것임을 시사한다.

[그림 2-1] 흡연율 및 흡연으로 인한 사망율의 단계별 변화추이



자료: Lopez AD, Collishaw NE, Piha T. A descriptive model of the cigarette epidemic in developed countries. *Tobacco Control* 1994;3(3):242-247

연령별로 볼 때, 젊은 여성 및 청소년의 흡연율은 증가추세를 보여 향후 여성흡연율의 증가가능성을 시사한다. 1992년과 2006년의 연령계급별 흡연율은 30~39세는 3.9%에서 1.2%, 40~49세는 3.7%에서 2.3%, 50~59세는 6.0~2.3%, 60세 이상은 12.1~2.7%로 감소세를 보인 반면, 20세군은 3.8%에서 3.5%로 거의 변화가 없이 흡연율이 유지되었다. 곧 성인이 될 여자고등학생의 흡연율은 1992년 2.4%에서 2006년 13.0%로 또한 여자중학생의 흡연율이 동기간 2.8%에서 5.9%로 증가경향을 보였다. 또한 여고생의 흡연율이 2005년 6.5% 2006년 5.2%로 여성성인의 흡연율인 5.7%와 2.3% 보다 높아, 향후 성인여성흡연율의 증가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2-1〉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별 흡연율 추이

| | 1992 | 1995 | 1998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
| 성인여자전체 | 5.1 | 5.2 | 5.2 | 4.0 | 6.0 | 3.5 | 4.8 | 5.8 |
| 70이상 | 12.1 | - | - | 18.0 | - | - | - | 9.3 |
| 60~69 | | - | - | 6.2 | - | - | - | 3.5 |
| 50~59 | 6.0 | - | - | 4.0 | - | - | - | 6.8 |
| 40~49 | 3.7 | - | - | 3.7 | - | - | - | 5.7 |
| 30~39 | 3.9 | - | - | 3.6 | - | - | - | 4.5 |
| 20~29 | 3.8 | - | - | 4.6 (19~29) | - | - | - | 6.1 (19~29) |
| 여고 | 2.4 | 4.7 | 8.1 | 7.5 | 7.3 | 6.8 | 7.5 | 13.5 |
| 여중 | 2.8 | 1.4 | 2.6 | 3.2 | 2.0 | 0.9 | 1.7 | 6.3 |

주: 성인여자흡연자정의: 1992년 조사일 현재 담배를 피우는 사람, 1995년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 1998년 현재 매일 또는 가끔 흡연자, 2001년 및 2005년 평생100개비 이상 흡연자로서 현재 매일 또는 가끔 흡연자

자료: 1992~2001, 2005의 흡연율은 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해당연도; 2002~2004, 2006, 2007은 금연운동협의회·갤럽, 『금연실태조사』 해당연도; 2004는 2004. 9월; 2006년은 2006.12월 조사 결과; 청소년자료는 한국금연운동협의회, 1992~2004(1992년은 1991년, 1998년은 1997년도 자료임); 질병관리본부,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2005, 2006임.

가. 여성청소년 흡연을 추이

1) 첫 흡연경험 연령¹⁾ 및 첫 흡연경험 시기

첫 흡연경험 연령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2006년 조사에서 여학생은 12.7세, 남학생은 12.4세이었다.

〈표 2-2〉 성별 및 학년별 첫 흡연경험 연령

(단위: 세)

| 연도 | 성별 | 합계 | 중학생 | | | 고등학생 | | | | |
|------|----|------|------|------|------|------|------|------|------|------|
| | | | 소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소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 2005 | 남자 | 12.0 | 11.1 | 10.1 | 11.1 | 11.8 | 12.9 | 12.7 | 13.1 | - |
| | 여자 | 12.3 | 11.5 | 10.6 | 11.4 | 12.1 | 13.2 | 13.0 | 13.4 | - |
| | 합계 | 12.1 | 11.2 | 10.3 | 11.2 | 11.9 | 13.0 | 12.8 | 13.2 | - |
| 2006 | 남자 | 12.4 | 11.3 | 10.2 | 11.3 | 11.9 | 13.1 | 12.9 | 13.1 | 13.3 |
| | 여자 | 12.7 | 11.7 | 10.7 | 11.6 | 12.2 | 13.3 | 12.9 | 13.3 | 13.7 |
| | 합계 | 12.5 | 11.4 | 10.4 | 11.4 | 12.0 | 13.2 | 12.9 | 13.2 | 13.5 |

2) 흡연 경험률²⁾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에서 여학생과 남학생의 흡연경험율의 차이는 크지 않다. 여자청소년의 흡연 경험율이 2005년 23.0%, 2006년 22.8%인 데 비하여 남자청소년은 31.4%와 32.5%이었다. 흡연 경험율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사이에 급증하는 경향을 보여, 2006년도에 중학교 3학년 19.8%에서 고등학교 1학년 28.9%로 증가하였다.

1) 처음으로 담배를 한두모금이라도 피워 본 연령

2) 지금까지 담배를 한두모금이라도 피워 본 경험이 있는 경우

〈표 2-3〉 성별 및 학년별 흡연경험률

(단위: %)

| 연도 | 성별 | 합계 | 중학생 | | | 고등학생* | | | | |
|------|----|------|------|------|------|-------|------|------|------|------|
| | | | 소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소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 2005 | 남자 | 31.4 | 24.8 | 19.0 | 25.9 | 30.2 | 42.8 | 40.3 | 45.4 | - |
| | 여자 | 23.0 | 18.5 | 14.0 | 18.6 | 23.6 | 30.7 | 29.8 | 31.5 | - |
| | 합계 | 27.4 | 21.8 | 16.6 | 22.5 | 27.1 | 37.1 | 35.5 | 38.8 | - |
| 2006 | 남자 | 32.5 | 23.4 | 16.9 | 23.1 | 30.2 | 43.2 | 38.6 | 45.1 | 46.2 |
| | 여자 | 22.8 | 16.1 | 11.7 | 16.8 | 19.8 | 30.6 | 28.9 | 31.7 | 31.4 |
| | 합계 | 28.0 | 20.0 | 14.5 | 20.2 | 25.3 | 37.3 | 34.1 | 38.8 | 39.2 |

주: * 2005년 일반계고 전체 30.3%, 남자 36.9%, 여자 22.9%; 전문계고 전체 54.8%, 남자 57.8%, 여자 51.3%; 2006년 일반계고 전체 30.5%, 남자 37.0%, 여자 23.2%; 전문계고 전체 55.0%, 남자 58.8%, 여자 50.5%

3) 현재 흡연을³⁾

여학생의 현재흡연율은 9.0%로, 남학생의 16.0%의 1/2수준이었다. 중학교 1학년에 4.5%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12.8%로 증가되었다.

〈표 2-4〉 성별 및 학년별 현재 흡연율

(단위: %)

| 연도 | 성별 | 합계 | 중학생 | | | 고등학생 | | |
|------|----|------|-----|------|------|------|------|------|
| | | | 1학년 | 2학년 | 3학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 2005 | 남자 | 14.3 | 6.5 | 10.1 | 12.6 | 20.5 | 24.5 | - |
| | 여자 | 8.9 | 4.8 | 6.5 | 7.7 | 12.5 | 14.6 | - |
| | 합계 | 11.8 | 5.7 | 8.4 | 10.3 | 16.8 | 19.8 | - |
| 2006 | 남자 | 16.0 | 5.4 | 9.2 | 13.5 | 19.9 | 24.7 | 27.0 |
| | 여자 | 9.2 | 4.5 | 5.6 | 7.5 | 12.8 | 13.4 | 12.8 |
| | 합계 | 12.8 | 5.0 | 7.5 | 10.7 | 16.6 | 19.4 | 20.3 |

3) 지난 1달 동안 하루이상 흡연한 경우

일반계고와 전문계고의 흡연율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데, 2006년의 경우 일반계고 여자 흡연율이 7.2%, 전문계고 여자 흡연율이 28.4%로서 전문계고 학생이 일반계고에 비해 흡연율이 높았으며, 특히 전문계고의 경우 일반계고에 비해 남녀 간 차이가 훨씬 적었다.

〈표 2-5〉 학교급별 현재흡연율

(단위: %)

| 연도 | 중학교 | 고등학교* | | | |
|------|-----|-------|------|------|------|
| | | 합계 | 일반계고 | 전문계고 | |
| 2005 | 전체 | 8.0 | 18.3 | 12.2 | 34.1 |
| | 남자 | 9.6 | 22.4 | 16.4 | 37.9 |
| | 여자 | 6.3 | 13.5 | 7.5 | 29.6 |
| 2006 | 전체 | 7.7 | 18.7 | 12.8 | 34.1 |
| | 남자 | 9.3 | 23.8 | 17.7 | 39.0 |
| | 여자 | 5.9 | 13.0 | 7.2 | 28.4 |

주: * 2005년의 경우 고3이 조사가 되지 않았음을 고려하여야 함

4) 매일 흡연율⁴⁾

매일흡연율에서는 여학생과 남학생의 차이가 매우 크다. 남자가 7.2%로 여자의 3.2%에 비해 2배 이상 더 높았는데 학년이 높을수록 그 차이가 더욱 커져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남자가 16.6%로서 여자의 6.6%에 비해 10% 포인트 더 높았다.

4) 지난 1달 동안 하루에 1번 이상 흡연한 경우

〈표 2-6〉 성별 및 학년별 매일흡연율

(단위: %)

| 연도 | 성별 | 합계 | 중학생 | | | | 고등학생 | | | |
|------|----|-----|-----|-----|-----|-----|------|-----|------|------|
| | | | 소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소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 2005 | 남자 | 5.3 | 1.9 | 0.6 | 1.4 | 3.9 | 11.1 | 8.8 | 13.5 | - |
| | 여자 | 2.4 | 0.8 | 0.1 | 0.6 | 1.7 | 5.2 | 4.0 | 6.5 | - |
| | 합계 | 3.9 | 1.4 | 0.4 | 1.0 | 2.9 | 8.3 | 6.6 | 10.2 | - |
| 2006 | 남자 | 7.2 | 2.4 | 0.7 | 1.7 | 4.7 | 12.9 | 8.7 | 13.6 | 16.6 |
| | 여자 | 3.2 | 1.0 | 0.2 | 1.2 | 1.5 | 5.9 | 5.2 | 5.9 | 6.6 |
| | 합계 | 5.3 | 1.7 | 0.5 | 1.5 | 3.2 | 9.6 | 7.1 | 10.0 | 11.8 |

주: 1) 2005년 일반계고 전체 4.5%, 남자 6.7%, 여자 2.1%; 전문계고 전체 18.3%, 남자 22.3%, 여자 13.6%

2) 2006년 일반계고 전체 5.7%, 남자 8.6%, 여자 2.5%; 전문계고 전체 19.6%, 남자 23.6%, 여자 14.8%

5) 매일 흡연 시작 연령⁵⁾

현재 매일 흡연을 하는 여학생의 매일 흡연 시작 연령은 2005년 14.2세, 2006년 14.2세이며, 여학생과 남학생간의 차이가 없었다.

〈표 2-7〉 성별 및 학년별 매일흡연시작 연령

(단위: 세)

| 연도 | 성별 | 합계 | 중학생 | | | | 고등학생 | | | |
|------|----|------|------|------|------|------|------|------|------|------|
| | | | 소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소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 2005 | 남자 | 14.1 | 12.6 | 10.6 | 11.9 | 13.2 | 14.6 | 14.3 | 14.7 | - |
| | 여자 | 14.2 | 13.1 | 11.4 | 12.7 | 13.4 | 14.5 | 14.2 | 14.6 | - |
| | 합계 | 14.1 | 12.7 | 10.7 | 12.1 | 13.3 | 14.5 | 14.3 | 14.7 | - |
| 2006 | 남자 | 14.4 | 12.3 | 9.2 | 11.6 | 12.9 | 14.8 | 14.3 | 14.7 | 15.1 |
| | 여자 | 14.2 | 12.2 | 8.3 | 11.8 | 13.2 | 14.6 | 14.5 | 14.3 | 15.0 |
| | 합계 | 14.3 | 12.3 | 8.9 | 11.6 | 13.0 | 14.7 | 14.4 | 14.6 | 15.1 |

5) 현재 매일흡연자의 매일 흡연 시작 연령

6) 금연 의지 흡연자 비율⁶⁾

흡연자 중 금연의지가 있는(고려 단계) 여학생은 2005년 72.2%, 2006년 70.6%로 남학생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학년간의 차이도 거의 없었다.

〈표 2-8〉 학년별 금연 의지 흡연자 비율

(단위: %)

| 연도 | 성별 | 합계 | 중학생 | | | | 고등학생 | | | |
|------|----|------|------|------|------|------|------|------|------|------|
| | | | 소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소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 2005 | 남자 | 74.3 | 79.1 | 82.7 | 77.2 | 78.8 | 71.7 | 75.2 | 68.8 | - |
| | 여자 | 72.2 | 70.2 | 76.1 | 73.4 | 64.3 | 73.5 | 75.5 | 71.8 | - |
| | 합계 | 73.6 | 75.7 | 80.0 | 75.7 | 73.8 | 72.3 | 75.3 | 69.9 | - |
| 2006 | 남자 | 59.8 | 68.2 | 74.0 | 65.8 | 68.0 | 57.0 | 62.8 | 58.6 | 51.5 |
| | 여자 | 63.5 | 63.3 | 63.4 | 59.8 | 65.9 | 63.6 | 62.9 | 61.3 | 66.4 |
| | 합계 | 61.0 | 66.4 | 69.5 | 63.5 | 67.3 | 59.0 | 62.9 | 59.4 | 55.7 |

7) 여자 청소년 흡연을 현황 요약

2006년 여학생청소년의 흡연경험율은 22.8%, 고등학교 3학년 31.4%로 높은 편이나, 현재흡연율은 9.2%와 12.8%로 낮아지고, 매일흡연율은 3.2%와 6.6%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흡연자의 70%가 금연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흡연을 경험하기는 하나, 습관적인 흡연으로 가는 비율은 이 중 1/3이고, 대체로 흡연양은 많지 않다는 것으로 보이며, 흡연자의 대부분이 금연을 원하는 것으로 흡연에 대하여는 초기 호기심 이후에는 부정적인 상태임을 볼 수 있다.

6) 현재흡연자 중 6개월 이내 금연할 의지가 있는 사람의 비율

〈표 2-9〉 여학생의 학년별 금연 의지 흡연자 비율

(단위: %)

| | 합계 | 중학생 | | | 고등학생 | | | | |
|-------|------|------|------|------|------|------|------|------|------|
| | | 소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소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 흡연경험율 | 22.8 | 16.1 | 11.7 | 16.8 | 19.8 | 30.6 | 28.9 | 31.7 | 31.4 |
| 현재흡연율 | 9.2 | 5.9 | 4.5 | 5.6 | 7.5 | 13.0 | 12.8 | 13.4 | 12.8 |
| 매일흡연율 | 3.2 | 1.0 | 0.2 | 1.2 | 1.5 | 5.9 | 5.2 | 5.9 | 6.6 |
| 금연의지자 | 63.5 | 63.3 | 63.4 | 59.8 | 65.9 | 63.6 | 62.9 | 61.3 | 66.4 |

2. 외국의 여성청소년 흡연율 추이

가. 선진국의 청소년 흡연실태⁷⁾ 및 변화추이 비교

우리나라 여자청소년의 흡연율을 선진국의 비슷한 연령층과 비교했을 때 대부분의 국가에 비해 낮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여자청소년의 흡연율이 남자청소년의 흡연율과 비교하여 낮은 편이나, 외국에서는 남녀의 흡연율의 차이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또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2000년 이후 흡연율이 뚜렷이 감소하는 추세이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2-10〉 우리나라와 외국의 청소년 흡연율* 추이 및 비교

(단위: %)

| 국가 | 여자(16세) | | | | |
|--------------------|---------|---------|------|---------|-----------|
| | 1991 | 1995 | 1999 | 2003 | 2006 |
| 한국 ¹⁾ | 1.3 | 3.8 | 10.5 | 6.8 | 6.3 |
| 한국 ²⁾ | - | - | - | - | 12.8 |
| 스웨덴 ³⁾ | - | 33 | 32 | 26 | - |
| 노르웨이 ³⁾ | - | 39 | 44 | 32 | - |
| 영국 ³⁾ | - | 40 | 37 | 34 | - |
| 프랑스 ³⁾ | - | - | 47 | 36 | - |
| 핀란드 ³⁾ | - | 39 | 43 | 41 | - |
| 호주 ⁴⁾ | 28(*90) | 31(*96) | 28 | 24(*02) | - |
| 미국 ⁵⁾ | 27.3 | 34.3 | 34.9 | 21.9 | 23.0(*05) |

7) 현재흡연의 정의를 최근 한달간 하루 이상 흡연을 한 경우를 기본으로 함.

36 여성 흡연과 음주의 요인 및 정책대안

| 국가 | 여자(16세) | | | | |
|-------------------|---------|----------|-----------|------|------|
| | 1991 | 1995 | 1999 | 2003 | 2006 |
| 캐나다 ⁶⁾ | - | - | 26 | 17 | 11.0 |
| 일본 ⁷⁾ | - | 9.2('96) | 10.9('00) | - | - |

- 주: * 별도의 설명이 없는 경우 현재흡연자의 정의가 최근 30일 동안 하루 이상 흡연을 한 경우임.
 1) 금연운동협의회 조사, 고등학교 1학년 자료 발췌, 현재흡연의 정의: 가끔 혹은 매일 흡연
 2) 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 조사, 고등학교 1학년 자료 발췌
 3) ESPAD(The European School Survey Project on Alcohol and Other Drugs), 16세 자료 발췌
 4) Australian Secondary School Students Alcohol and Drug Survey, 현재흡연의 정의: 최근 1주일간 흡연, 16세 자료 발췌
 5) YRBS(Youth Risk Behavior Survey), 9-12학년 자료 발췌
 6) Canadian Tobacco Use Monitoring Survey, 15-17세 자료 발췌, 현재흡연의 정의: 매일 혹은 가끔 흡연
 7) 전국규모 조사, 고등학교 1학년 자료 발췌

나. 일본청소년과의 비교⁸⁾

일본은 우리나라의 여학생들과 거의 비슷한 흡연율을 보여주었다.

<표 2-11> 우리나라와 일본의 흡연율¹⁾ 비교

(단위: %)

| 성별 | 학교급 | 학년 | 흡연경험률 | | 현재흡연율 | | 매일흡연율 | |
|----|------|----|-------|------|-------|------|-------|------|
| | | | 한국 | 일본 | 한국 | 일본 | 한국 | 일본 |
| 여자 | 중학교 | 1 | 11.7 | 16.0 | 4.5 | 4.2 | 0.2 | 0.4 |
| | | 2 | 16.8 | 20.5 | 5.6 | 5.7 | 1.2 | 1.0 |
| | | 3 | 19.8 | 23.5 | 7.5 | 6.9 | 1.5 | 1.8 |
| | 고등학교 | 1 | 28.9 | 30.6 | 12.8 | 10.9 | 5.2 | 3.0 |
| | | 2 | 31.7 | 34.2 | 13.4 | 13.0 | 5.9 | 5.3 |
| | | 3 | 31.4 | 36.7 | 12.8 | 15.8 | 6.6 | 8.2 |
| 남자 | 중학교 | 1 | 16.9 | 22.5 | 5.4 | 5.9 | 0.7 | 0.5 |
| | | 2 | 23.1 | 28.0 | 9.2 | 8.2 | 1.7 | 1.9 |
| | | 3 | 30.2 | 35.4 | 13.5 | 14.0 | 4.7 | 5.2 |
| | 고등학교 | 1 | 38.6 | 45.0 | 19.9 | 24.3 | 8.7 | 12.4 |
| | | 2 | 45.1 | 51.3 | 24.7 | 29.5 | 13.6 | 18.0 |
| | | 3 | 46.2 | 55.7 | 27.0 | 36.9 | 16.6 | 25.9 |

주: 1) Osaki Y, Tanihata T, Ohida T, Minowa M, Wada K, Suzuki K, Kaetsu A, Okamoto M, Kishimoto T. Adolescent smoking behaviour and cigarette brand preference in Japan. Tob Control 2006;15(3):172-80.

8) 우리나라와 흡연행태에 대한 정의가 동일함.

2. 여성 성인 흡연율의 추이

우리나라 성인의 흡연율은 남성의 경우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나, 여성은 변화가 거의 없다. 그러나 여성의 흡연율을 연령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젊은층의 흡연율은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의 흡연율은 감소하였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여성의 흡연율은 1980년 47.2%에서 2005년 3.5%와 9.3%로, 50~59세의 경우 28.4%에서 6.8%로, 40~49세의 경우 9.2%에서 5.7%로 감소하였으나, 20~29세의 여성흡연율은 1.3%에서 6.1%로, 30~39세는 2.7%에서 4.5%로 증가하여 젊은 여성의 흡연율이 증가됨을 보여주었다.

〈표 2-12〉 20세 이상 성인의 성별·연령별 흡연율 추이

(단위: %)

| | 연령 | 1980 | 1985 | 1990 | 1992 | 1994 | 1995 ¹⁾ | 1996 | 1998 ²⁾ | 1999 | 2000 | 2001 ³⁾ | 2002 | 2003 | 2005 |
|----|-------|------|------|------|------|------|--------------------|------|--------------------|------|------|--------------------|------|------|--------------|
| 남자 | 20~29 | 76.5 | 71.6 | 77.7 | 82.1 | 76.9 | 69.7 | 79.2 | 71.8 | 70.4 | 67.3 | 67.8 | 71.1 | 66.7 | 55.6 |
| | 30~39 | 78.4 | 74.7 | 79.1 | 75.4 | 76.1 | 68.7 | 77.5 | 72.5 | 71.3 | 71.3 | 67.9 | 66.5 | 61.7 | 60.0 |
| | 40~49 | 81.6 | 71.2 | 72.9 | 73.1 | 73.4 | 67.4 | 60.0 | 68.3 | 65.2 | 67.8 | 66.7 | 60.8 | 55.2 | 55.2 |
| | 50~59 | 83.3 | 69.2 | 73.2 | 62.7 | 70.9 | 63.4 | 55.8 | 62.2 | 51.9 | 64.1 | 55.6 | 44.8 | 47.9 | 47.6 |
| | 60+ | 79.5 | 66.3 | 68.9 | 72.0 | 51.4 | 54.6 | 54.2 | 58.2 50.5 | 44.4 | 55.6 | 49.9 33.8 | 44.2 | 41.7 | 38.3 27.5 |
| | 전체 | 79.3 | 71.3 | 75.3 | 75.1 | 72.9 | 67.7 | 69.8 | 67.6 | 64.9 | 67.6 | 61.8 | 60.5 | 56.7 | 52.3 |
| 여자 | 20~29 | 1.3 | 1.3 | 1.5 | 3.8 | 3.3 | 5.0 | 7.2 | 5.1 | 4.8 | 5.7 | 4.6 | 8.1 | 4.7 | 6.1 |
| | 30~39 | 2.7 | 1.7 | 1.4 | 3.9 | 0.7 | 3.4 | 5.2 | 4.6 | 3.2 | 2.0 | 3.6 | 2.6 | 1.1 | 4.5 |
| | 40~49 | 9.2 | 4.1 | 3.3 | 3.7 | 0.8 | 6.1 | 1.8 | 4.4 | 2.8 | 1.1 | 3.7 | 3.1 | 4.8 | 5.7 |
| | 50~59 | 28.4 | 16.4 | 11.3 | 6.0 | 8.2 | 6.5 | 2.8 | 7.2 | 4.8 | 2.4 | 4.0 | 7.6 | 4.7 | 6.8 |
| | 60+ | 47.2 | 31.1 | 29.5 | 12.1 | 7.1 | 14.2 | 10.4 | 12.3 14.5 | 10.4 | 0 | 6.2 18.0 | 10.5 | 4.3 | 3.5 9.3 |
| | 전체 | 12.6 | 7.8 | 7.7 | 5.1 | 3.5 | 5.6 | 5.3 | 6.7 | 4.4 | 3.0 | 5.4 | 6.0 | 3.5 | 5.8 |

주: 1) 1995년 현재흡연자는 조사시점에서의 현재흡연자

2) 1998년 현재흡연자는 매일흡연자 + 가끔 흡연자

3) 2001년, 2005년 현재흡연자는 평생 100개피이상의 담배를 피웠으며, 조사시점 당시 매일 또는 가끔 흡연함.

4) 2005년 조사결과는 19-29세임.

5) 1998, 2001, 2005 조사결과는 60~69, 70+임.

자료: 대한결핵협회자료: 1980, 1985, 1990; 한국갤럽자료: 1992, 1994, 1996, 1999, 2000, 2002; 한국금연운동협의회 2003; 국민건강영양조사 1995, 1998, 2001, 2005.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의 흡연율은 선진국 성인여성 흡연율의 18.5~16.0%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표 2-13〉 성인여성의 흡연율 추이

| | 1992 | 1995 | 1998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
| 한국 ¹⁾ | 5.1 | - | - | 3.1 | 6.0 | 3.5 | 4.0 | 3.1 | 2.8 |
| 한국 ²⁾ | 3.4 | 5.2 | 5.2 | 4.0 | - | - | - | 5.7 | - |
| 한국 ³⁾ | 6.1 | 6.0 | | | | 3.8 | | | 3.9 |
| 미국 | 22.8 (1990) | 22.6 | - | 21.0 | - | - | 18.5 | - | - |
| 호주 | 24.7 (1990) | 20.3 | - | 18.0 (2000) | - | - | 16.3 | - | - |
| 캐나다 | - | 22.7 | - | 18.0 (2000) | - | - | - | 16.0 (2005) | 17.0 (2007) |
| 스웨덴 | 25.0 (1990) | 26.0 (1994) | - | 20.0 (1999) | - | - | 16.0 | - | - |

- 주: 1) 한국금연운동협의회의 성인흡연실태조사의 흡연자 정의 : 조사시점 에서의 흡연자
 2) 국민건강영양조사의 흡연자정의: 1992년 조사일 현재 담배를 피우는 사람, 1995년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 1998년 현재 매일 또는 가끔 흡연자, 2001년 및 2005년 평생100개비 이상 흡연자로서 현재 매일 또는 가끔 흡연자
 3) 통계청 사회통계조사의 흡연자 정의: 조사시점 흡연자 : 출처: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992~1995, 2003, 2006 해당년도.
 4) 외국 성인연령: 미국:18세 이상, 호주: 14세 이상, 캐나다:15세 이상, 스웨덴:25~64세.
 자료: American Lung Association Epidemiology and Statistics Unit Research and Program Services, Canadian Tobacco Use Monitoring Survey, Canada State of Victoria, Scandinavian Journal of Public Health); 한국금연운동협의회의 성인흡연실태조사 1992~2003, 2004, 2005, 2006 해당년도; 1992~2001, 2005의 흡연율은 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해당년도. 2002~2004 2006, 2007은 금연운동협의회·갤럽, 『금연실태조사』 해당년도. 2004는 2004. 9월, 2006년은 2006.12월 조사 결과.

제2절 여성흡연영향요인

1. 우리나라 여성의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성청소년 및 젊은 여성의 흡연에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 요소, 사회문화적 요소, 정책적 요소 등 다각적인 개인, 사회,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개인적 환경에는 성, 연령, 결혼상태 등 인구사회적요소와 사회계층, 성격 등 다양한 요소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요인 들은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적용된다. 개인적 환경에서 여자청소년이(남자청소년에 비하여) 낮은 사회계층일 경우 흡연확률이 높다. 그러나 연령이 높아지면 이러한 경향은 감소한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반비례하여 영향을 미친다. 개인의 성격이 매우 주요한 요인인데, 감정조절이 어렵거나, 공격적, 문제해결에 있어서 남과 타협하지 않는 등의 성격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흡연자가 많으며, 특히 여성청소년의 경우가 남성청소년의 경우 보다 공격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흡연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학업수준과 학교적응도에 따른 흡연행위에 차이가 있다. 학업수준이 낮은 경우, 학교생활참여도가 낮은 경우 흡연을 많이 한다. 건강행동도 흡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흡연, 폭력, 음주, 마약을 하는 행위자는 흡연을 하는 확률이 높으며, 여자청소년의 경우 흡연이 비만관리, 분위기조성, 우울도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경우가 남자청소년에 비하여 많다.

다음으로 가족 및 친구의 사회적환경도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어 졌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도는 청소년의 흡연에 영향을 미친다.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경우 흡연을 시작하지 않을 확률이 높으며, 이것은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다. 부모 중의 한사람이 흡연자 이면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집의 자녀들에 비하여 2배 이상 흡연자가 될 확률이 있다. 많은 연구결과에서 딸이 아들 보다 부모흡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형제자매의 흡연에 대하여

는 일관성 있는 연구결과는 없다. 친구의 비흡연은 비흡연상태 유지에 도움이 되며, 특정집단에 속해 있을 때 흡연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소외 되었을때 흡연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친구의 흡연은 흡연을 하나의 정상적인 사회규범으로 인식하게 되어 흡연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담배에 대한 정책환경 또한 젊은층 및 청소년 여성의 흡연에 영향을 미친다. 흡연의 예방 및 금연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정책들은 대부분 흡연에 영향을 미친다. 가장 청소년에게 민감한 정책으로, 담배구입의 용이성은 청소년들의 흡연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을 비교할 때, 대체로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하여 담배구입이 더 힘들다고 생각하는 반면, 담배가게에서는 남자청소년 보다는 여자청소년에게 더 담배를 많이 판매한다고 조사되었다.

담배가격은 담배구매를 저하하는 것으로 연구되었지만, 여성들은 담배가격에 의하여 흡연여부를 영향 받지 않는다. 예로 미국 CDC(1998)의 14년간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10%의 담배가격 인상시 남자의 흡연욕망은 2.6%감소된 반면, 여자는 1.9%에 그쳤다. 그러나 흡연의 양은 담배가격에 반비례한다. 금연구역정책, 실내에서의 금연정책은 남자들의 비흡연, 또는 흡연을 저하에 영향을 주지만 여성들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담배광고 및 판촉행사 등은 일반적으로 젊은층에게는(성인 보다) 담배상품에 대한 광고의 효과(광고이미지)에 따라 구매 담배상품의 종류가 결정된다. 가족 또는 친구의 흡연 보다 담배광고가 젊은층의 흡연시작에 더 영향력이 있다. 담배광고의 노출정도가 향후 흡연을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에서 여성흡연에 대하여 연구된 논문들을 다음과 같이 선정, 분석하였다.

가. 분석대상 문헌선정

국회도서관, 한국학술연구정보서비스(KERIS),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kMbase), 보건연구정보센터(RICH), 한국학술정보(KISS) 등의 검색 사이트를 통해 ‘흡연’, ‘금연’, ‘담배’를 키워드로 사용하여 학술지 및 학위논문을 검색하였다. 이 중 1990년 이후 발표된 문헌 중에서 제목을 통해 흡연으로 인한 의학적 영향, 금연프로그램이나 흡연예방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개입연구 등을 제외하고 흡연행태와의 관련요인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논문을 1차 선정하였다.

1차 선정된 학술지 논문은 103편, 학위논문이 148편이었는데 모든 학술지 논문, 그리고 학위논문 중에서 학술지를 통해 발표된 14편을 제외한 134편을 검토하였다. 이 중 자료 분석에서 남녀 구분이 안된 경우, 연구대상자에 남자만 포함된 경우, 흡연자만 포함된 경우, 종속변수가 흡연행태가 아닌 경우, 질적연구인 경우, 자료분석 과정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경우, 원문 입수가 불가능했던 경우를 제외한 학술지 논문 31편, 학위논문 34편 등 총 65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나. 흡연관련 요인

흡연관련 요인은 크게 개인적 환경, 사회적 환경, 문화정책적 환경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각 요인에 포함되는 세부요인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적 환경

- A. 인구사회적요소: 성, 연령, 결혼상태 등
- B. 사회계층: 교육, 월소득, 직업 등
- C. 성격: 감정조절이 어려운 성격, 높은 자신감, 사회적응도 등
- D. 기타 건강행동: 흡연, 폭력, 음주, 마약복용 등

42 여성 흡연과 음주의 요인 및 정책대안

- E. 흡연관련사항: 흡연에 대한 태도, 지식 등
- F. 건강상태: 비만여부, 건강에 대한 인식 등

2) 사회적 환경

- A. 가족환경: 가정의 금연 규칙
가족 중 흡연자, 부모의 흡연, 형제자매의 흡연
부모의 자녀의 흡연에 대한 태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도 등
- B. 친구: 친구의 흡연, 친구 관계 등
- C. 학업수준, 학교적응도

3) 문화정책적 환경

- A. 정책환경: 담배구입용이, 담배의 가격, 담배광고, 금연구역 등
- B. 학교환경: 담배에 대한 허용여부, 금연캠페인 실시 여부 등

다. 국내 여성흡연 관련 연구의 방법 및 제한점

1) 연구대상

분석대상 문헌에서 연구의 대상자는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38편(58.5%)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것,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것들이 각각 6편씩(9.2%), 대학생과 직장여성을 같이 조사한 것이 4편(6.2%), 일반 성인 혹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5편(7.7%)이었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 1편(1.5%)이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여성 흡연의 관련 요인과 특성을 별도로 도출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연구결과의 건수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연구대상도 중고등학생에 대부분 편향되어 있으며 성인여성 흡연에 대한 연

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 발표연도

논문 발표연도는 2005년 이후에 발표된 것이 15편(23.1%), 2000~2004년 사이에 발표된 것이 37편(56.9%), 1995~1999년 사이에 발표된 것이 9편(13.8%), 1990~1994년 사이에 발표된 것이 4편(6.2%)으로서 최근에 올수록 여성흡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3) 종속변수 및 용어의 정의

종속변수를 흡연여부를 사용한 경우는 41편, 흡연력(현재흡연, 과거흡연, 무경험 등)을 사용한 것이 14편, 흡연경험여부를 사용한 것이 7편, 흡연량을 사용한 것이 2편 있었다. 그 외에 매일 혹은 규칙적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나 흡연의도를 종속변수로 한 경우도 있었다.⁹⁾

한편 논문에서 흡연행태에 대한 정의를 밝히지 않은 경우가 총 65편 중 25편(38.5%)나 되었다. 그리고 흡연행태에 대한 정의를 밝힌 경우에도 현재흡연의 정의를 ‘가끔 혹은 그 이상 피우는 경우’, ‘가끔 혹은 자주 피우는 경우’, ‘가끔 혹은 규칙적으로 흡연을 하는 경우’, ‘조사당시 흡연을 하는 경우’, ‘현재 담배를 피우는 경우’, ‘규칙적으로 하루 1개비 이상 흡연’, ‘매일 혹은 규칙적으로 흡연을 하는 경우’, ‘현재 및 과거흡연’, ‘최근 한 달간 담배를 피운 경우’, ‘최근 한 달간 지속적인 흡연을 한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담배를 1개비 이상 피운 경우’, ‘조사 당시 간헐적 혹은 주기적으로 흡연을 하는 경우’, ‘하루에 5~10개 이상을 6개월 이상 피워오고 있는 경우’, ‘조사 당시 1주일에 1회 이상 규칙적으로 흡연을 하는 경우’, ‘지난 1년 동안 흡연을 한 적이 있는 경우’, ‘1주일에 한번 이상 흡연’ 등 매우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연구결과의 비교성이 매우 떨

9) 여러 개의 종속변수를 같이 분석한 경우도 있으므로 중복으로 집계함.

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참고로 청소년의 경우 현재흡연자의 정의를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하는 YRBS(Youth Risk Behavior Survey)나 세계보건기구에서 실시하는 GYTS(Global Youth Tobacco Survey)의 경우 최근 한 달 동안 하루 이상의 흡연을 한 경우로 하고 있으며, 성인의 경우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조사 당시 매일 혹은 가끔 흡연을 하는 경우로 설정하였다.

4)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연구대상의 표집방법은 59편(90.8%)이 편의표집에 의해 이루어졌다, 층화집락추출 등 대표성이 보장되는 방법을 시도한 경우 2편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중 1편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한 논문이었다. 무작위표집이라고 한 경우가 4편 있었으나 이 경우도 연구자의 의도에 의해 조사지역이 선정되어 실제적으로 편의표집에 가까웠고 표집방법에 대해 기술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연구대상자수는 최소 88명에서 최대 6,990명까지 분포하였고 평균적으로 800명 정도 되었다. 조사지역은 서울시가 포함된 경우가 25편(38.5%)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시에서 이루어진 것이 11편(16.9%)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이를 통해 볼 때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대체로 연구대상자의 대표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특히 지역적으로도 상당히 편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설계는 60편(92.3%)이 단면조사 연구였고 나머지 5편이 환자대조군 연구였으나 이 경우도 대조군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는 경우는 한편에 지나지 않았다. 여성흡연의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추적관찰 연구가 없는 관계로 선행요인 혹은 인과관계를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자료분석은 다변량분석을 시도한 경우는 23편(35.4%)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 중에서 종속변수가 이항변수임에도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거나 명목변수를 더미변수 처리하지 않는 등의 오류를 범한 경우도 일부 있었다.

5) 흡연율

흡연율은 고등학생의 경우 최하 3.3%에서 최고 32.5%까지 분포하였고, 중학생의 경우도 0%에서 8.7%까지 분포하는 등 매우 다양하였다. 대학생의 경우도 최하 7.4%에서 최고 38.3%까지 분포하는 등 편차가 매우 컸다. 이는 조사시기, 조사대상자의 특성, 흡연자의 정의, 조사방법 등의 요인에 의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여성흡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방법의 표준화 및 대표성 확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라. 국내 문헌 고찰을 통한 여성흡연 관련 요인

국내 문헌을 통해서 고찰한 여성흡연과의 관련 요인은 다음과 같다. 단, 국내연구의 경우 단변량 분석만을 이용한 경우가 더욱 많은 관계로 다변량 분석을 이용한 연구의 경우에도 단변량 분석을 통해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도 같이 제시하였다. 외국의 연구 결과와의 비교, 고찰에서 별도의 인용 표기가 없는 경우는 미국 CDC에서 2001년에 발간한 여성흡연에 대한 Surgeon General 보고서를 인용하였다.¹⁰⁾ 본문 중 [] 속의 숫자는 분석대상 문헌의 일련번호를 의미한다.

1) 개인적 환경

가) 인구사회적 및 사회계층 요소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유의한 관련 요인으로 제시된 것은 모두 13편이었다. 그 중 흡연이 낮은 경제적 수준과 관련 있었던 경우가 5편, 높은 경제적 수준과 관련 있었던 경우가 7편, 매우 낮은 경우와 매우 높은 경우

10)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Women and Smoking: A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 Atlanta, GA, 2001.

모두 관련있다고 한 경우가 1편으로서 연구 간에 일치를 하지 않았다. 부모의 학력이 유의한 관련변수로 나온 경우는 8편이었는데 이 중 3편은 부모의 학력이 낮은 경우, 5편은 부모 학력이 높은 경우 흡연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제시되어 이 경우도 연구 간의 일관성이 없었다.

남녀간의 비교를 한 3편의 연구에서 남녀 모두 낮은 생활수준과 관련성이 있다고 한 경우도 있었으나[47], 다른 연구에서는 여자의 경우 높은 경제수준과, 남자의 경우 낮은 경제수준과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으며[22], 또 다른 연구에서는 남자의 경우만 높은 가계소득과 관련있고 여자의 경우 경제적 수준과 관련성이 없다고 하였다[1]. 부모 학력수준의 경우 3편의 연구에서 낮은 모학력(경계선 유의수준 포함)이[8, 19, 49], 2편의 연구에서 높은 부학력 및 모학력과 흡연이 관련성이 있다[45, 52]고 하였으나 남자의 경우는 관련성이 없었으며 2편의 연구에서는 낮은 부의 교육수준과 흡연 간에 관련성이 있었으나[1, 47] 여자의 경우는 관련성이 없었다.

외국의 경우 여러 연구를 통해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흡연의 위험인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연구에서는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더욱 큰 위험인자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미국의 전국 조사를 통해서 교육수준이 남녀 모두에게서 흡연과 역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녀 간의 차이는 거의 발견할 수 없었다.

용돈이 유의한 관련변수로 나온 13편의 경우 모두 용돈이 많은 경우 흡연자일 가능성이 높아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최근 외국에서 발표된 문헌에서도 청소년들의 용돈 소비량이 흡연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여 국내 조사 결과를 뒷받침하였다.¹¹⁾

종교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는 4편이었으나 특정 종교에 대한 일관성은 없었다. 남녀 비교가 가능했던 1편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여학생의 경우

11) Ferrence R. The role of spending money and drinking alcohol in adolescent smoking. *Addiction* 2008;103(2):310-9.

불교가 무교에 비해 보호인자였던 반면 남자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 불교와 가톨릭교가 위험인자로 나왔다[3]. 외국의 경우에는 흡연과 종교와의 관련성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에서 종교적인 믿음이 흡연을 하지 않도록 결심하는데 중요하다고 하였다. 교회에 가끔 나가는 경우 규칙적으로 나가는 경우에 비해 흡연 가능성이 2배 더 높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본인이 생각하는 종교의 중요성과 흡연이 반비례한다는 보고도 있다. 성별의 차이와 관련해서 남자에 비해 여자에게서 종교가 흡연을 억제하는 영향이 강했으며 신앙심의 부족이 남자에 비해 여자에게서 흡연에 더 큰 기여를 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종교여부 및 종류 외에는 상세한 조사를 한 경우가 거의 없어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렵다.

성인의 경우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직업이 있거나 특정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혼자 사는 경우 등이 흡연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으나 연구 건수가 적어 일반화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나)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

또래에 비해 성장이 빠르거나 늦은 경우 흡연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외국의 보고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특히 여학생의 경우 체중조절의 목적으로 흡연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분석 대상 연구에서는 키가 클수록 흡연가능성이 높다는 결과와 그 반대인 결과인 경우가 각각 1편 있었고[3, 37], 비만의 경우도 낮은 체질량지수와 높은 체질량지수 모두의 경우에서 흡연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3, 20, 37] 체형과 흡연과의 관련성에 대한 일관된 소견을 보이지 않았다. 여성흡연과 관련성이 깊은 것으로 제기되는 체중조절에 관해서는 2편만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30, 59]. 우리나라의 2005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분석 결과에 의하면¹²⁾ 여학생의 경우 비만도가 저체중, 정상, 과체중, 비만임에 따라 현재흡연율이 각각 6.4%, 8.8%, 9.3%, 11.4%로서 비만정도에 따라 흡

연율이 비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던 반면 남학생의 경우는 각각 12.5%, 14.6%, 11.9%, 13.8%로서 특별한 경향을 볼 수 없었다.

외국의 경우에서는 여러 단면연구에서 여자에게서 체중에 대한 관심 및식이조절이 흡연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연구에서는 흡연을 하는 여학생의 경우 자신을 더 비만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남자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남녀 모두 흡연자들이 비흡연자에 비해 자신의 체형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구에서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체중조절을 위한 목적으로 흡연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또 다른 연구에서는 여자의 경우 체중에 대한 걱정과 음식조절이 흡연시작과 관계가 있었지만 남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여자의 경우 체중 증가에 대한 우려, 날씬해지고 싶은 욕망이 현재흡연과도 관련이 있었다.

흡연은 정신적 긴장이나 불안상태를 완화하거나 기분상태를 상승하기 위한 목적으로 할 수 있다. 흡연이 스트레스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연구는 모두 6편이었고 우울과 관계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은 7편이었다. 과잉행동이나 행실문제 등 정신병리 문제와 관련 있는 것으로 조사된 연구 결과도 있었다[20].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남녀 비교가 가능했던 2편의 경우 모두 남자의 경우는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었지만 여자의 경우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3, 10]. 우울의 경우 남자에서는 흡연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지만 여자의 경우는 경계선 수준에서 유의한 경우가 있었다[10]. 반면 스트레스나 우울증이 관련성이 없었던 경우는 소수였다[3, 10, 63]. 이들 결과를 통해 볼 때 흡연과 스트레스 및 우울과는 대체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두 단면연구인 관계로 그 선후 관계를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외국의 경우 불안, 적대감, 과민성, 우울감, 스트레스 등의 정서적 고통

12) 박순우 등. 2005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심층 분석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2007.

과 흡연과의 관련성에 대한 결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어떤 연구들은 흡연과 절망감, 스트레스, 불안감, 부정적인 감정, 심리적 혼란, 불안의 정도와 흡연 간에 관련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다른 연구들에서는 분노, 스트레스, 스트레스 생활사, 우울, 불안수준, 육체적 증상, 적대감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질적 연구에서는 여자 어린이에게서 흡연의 가장 흔한 이유가 스트레스 감소와 이완을 위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여러 연구에서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심리적 고통이 더 강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과 다른 불건강 행동들이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위험행동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여자 청소년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관찰되었다. 음주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경우가 20편으로서 흡연과 음주간의 관련성에 대해서 일치된 결과를 보였으며 남녀 간의 차이는 없었다. 그리고 아침결식, 불규칙한 식사, 맵고 짠 음식, 불량한 영양섭취와 관련 있는 것으로 4편에서 조사되었으며, 커피, 탄산음료 등의 섭취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난 조사도 있어 흡연이 불건강한 식습관과 관련성이 깊음을 나타내었다. 그 외 성경험(4편), 잦은 유흥가 혹은 오락실 출입(4편), 가출경험(2편), 잦은 음란물 접촉(2편), 약물복용(2편) 등의 일탈행위와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5년에 실시된 우리나라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¹³⁾ 여학생의 경우 흡연무경험자가 현재음주를 하는 경우는 18.1%인데 반해 현재흡연자는 81.0%로서 큰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의 경우도 현재흡연자와 흡연무경험자에서 음주를 하는 경우가 각각 72.9%, 16.6%로서 여학생과 비슷한 차이를 보였다. 성경험의 경우도 여학생에서 현재흡연자는 17.6%인 반면 흡연무경험자는 1.6%로서 큰 차이가 있었고 남학생 역시 각각 23.8%, 2.4%로서 여학생에 비해 더 큰 차이가 있었다.

13) 박순우 외. 2005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심층 분석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2007.

현재흡연자와 흡연무경험자 간의 차이는 식습관에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여학생에서 아침식사 결식률은 각각 70.0%, 45.4%(남학생: 58.5%, 39.4%), 과일섭취율은 각각 23.1%, 35.5%(남학생: 26.3%, 34.1%), 채소섭취율은 각각 10.1%, 16.1%(남학생: 14.9%, 19.0%),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각각 83.5%, 70.8%(남학생: 78.8%, 67.6%) 등으로서 남녀 모두 흡연자가 상대적으로 불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정신건강의 경우도 여학생에서 스트레스 인지율이 현재흡연자가 68.5%인데 비해 흡연무경험자는 49.2%(남학생: 47.5%, 37.6%), 지난 1년간 우울감 경험률이 각각 53.5%, 31.5%(남학생: 37.6%, 22.7%), 지난 1년간 자살사고 경험률이 각각 45.3%, 24.3%(남학생: 27.6%, 15.2%), 지난 1년간 자살 시도율이 각각 16.5%, 4.3%(남학생: 8.2%, 2.6%)로서 정신건강 역시 남녀 모두 흡연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었다.

미국의 경우에도 전국 조사에서 흡연이 마리화나, 과일, 싸움 등과 같이 나타나는 현상이 남녀 모두에게서 있었고, 다른 전국조사에서도 여자청소년 및 젊은 여성에게서 흡연이 음주를 비롯한 다른 약물복용과 깊은 관계가 있음이 관찰되었다. 그리고 흡연은 낮은 운동수준, 과일과 채소의 저섭취, 고지방 음식의 다량 섭취와 관계있었다. 한편 스포츠의 참여 활동이 흡연을 억제하였다는 보고가 있으며 신체활동이 활발하고 건강한 체격의 여자청소년이 흡연을 할 가능성이 적었다는 보고가 있다.

다) 성격 등 정신적 특성

흡연과 낮은 자아존중감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는 모두 5편이었는데 그 중 남녀 간의 비교가 가능했던 2편에서 모두 여자의 경우는 낮은 자아존중감과 흡연이 관련이 있었지만 남자의 경우는 관련성이 없었다[2, 10]. 자아존중감 외에 자아개념, 자기부정, 자기주장 등 자아에 대한 정체성이 낮은 경우 흡연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소수 있었다[28, 29, 60]. 성인의 경우 인생만족도가 낮거나 개인적으로 불

행한 경험을 한 경우 흡연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도 있었다[44].

외국의 경우에도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 높은 경우에 비해 흡연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보고도 있지만 관련성이 없다는 보고도 있다. 한 연구에서는 자신에 대한 불만족이 높은 여자의 경우 흡연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남자에게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다른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여학생들에서는 흡연과 관련 있는 요인이었지만 남자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다.

라) 흡연관련 태도, 지식 등

28편의 연구에서 흡연에 대한 허용적, 긍정적 태도가 흡연행태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와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였다. 반면 흡연에 대한 지식이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는 8편이었는데 그 중 6편은 낮은 흡연지식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9, 29, 39, 49, 59, 62] 2편은 그 반대로 나와[2, 45] 상충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단면조사로 인한 한계점으로서 흡연을 하는 경우 본인의 행태에 더 관심으로 가지게 됨으로써 지식습득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흡연에 의한 피해 혹은 자신의 흡연행위에 대한 인지도 인식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6편의 경우[3, 47, 53, 58, 61, 64] 모두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에 흡연자의 경우 금연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이 낮고[19], 흡연억제에 대한 자신감이 낮은[53] 등의 결과가 있었다.

외국의 경우 여러 연구를 통해 흡연으로 인한 건강의 영향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니코틴의 중독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거나 흡연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이 있는 경우 흡연의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흡연의 위험인자가 되는 태도로서는 다른 사람의 흡연에 대한 허용, 흡연이 좋게 보이고 이미지를 향상시킨다는 믿음, 흡연이 재미있고 즐겁다는 의견, 흡

연으로 인한 긍정적 결과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 흡연의 긍정적 결과에 대해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 등이 있다. 흡연에 대한 몇몇 태도들은 여자에게서 더욱 중요할 수 있는데, 흡연의 피해가 과장되었다고 믿는 경우,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경우 여자가 남자에 비해 흡연의 위험성이 더욱 높았다. 20세 전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건강에 대한 생각이 여자에게서 흡연의 중요한 억제요인이었지만 남자에게서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흡연으로 인한 이득을 더욱 많이 기대하였고 흡연의 이득에 대한 기대와 담배에 대한 감수성 사이의 관련성이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더욱 강력하였다.

국내 연구의 경우 흡연에 대한 태도가 남녀 간 비교가 가능했던 5편 모두 남녀차이가 없었으며[17, 21, 30, 35, 43], 흡연피해에 대한 인식의 경우에도 차이가 없었다[20, 42, 47]. 단, 흡연에 대한 지식의 경우 남녀 간의 차이가 없었던 경우도 있었지만[30, 42], 남자의 경우만 해당된 결과도 있었고[35] 여자의 경우만 해당된 연구도 있었다[9, 17].

2) 사회적 환경

가) 가족환경

부모의 흡연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는 모두 14편이었으며 그 외에 흡연자 가족이 있는 경우와 관련 있는 경우가 2편 있었다. 그 중 아버지의 흡연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가 4편이었던 반면 어머니의 흡연과 관련 있는 경우가 8편이었다. 형제자매의 흡연과 관련이 있는 경우는 12편이었다. 그 외 조부모의 흡연과 관련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남녀 간의 차이에서 아버지의 흡연에 대해서는 한 연구에서 남자와의 관련성은 있었지만 여자의 경우는 관련성이 없었으며[47], 어머니 흡연의 경우는 2편의 연구에서 남자의 경우만 관련성이 있었던 반면[43, 47] 3편에서는 여자의

경우만 관련성이 있었다[3, 42, 64]. 이러한 결과들은 여자청소년의 흡연이 부모와 형제흡연과 관련성이 깊으며 특히 어머니의 흡연과 관련성이 깊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외국의 경우에도 부모가 흡연을 하는 경우 자녀의 흡연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보고는 많다.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4학년에서 6학년 사이의 어린이에서 성인 흡연자와 같이 생활하는 경우 흡연의 위험성이 3배 정도 더 높으며, 청소년의 경우 부모 중 한사람 이상이 흡연을 할 경우 매일흡연자가 될 위험이 2배 정도 더 높다고 하였다. 그리고 부모가 금연을 한 경우 계속 피우는 경우에 비해 흡연경험을 할 가능성이 1/3로 줄어든다고 하였다. 여러 연구를 통해 부모의 흡연 및 흡연에 대한 태도에 의한 영향은 남녀 모두에게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 연구에서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부모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하였으나, 대부분의 다른 연구에서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

어머니의 흡연은 딸과 아들에게 영향이 다르게 미칠 수 있는데 외국의 여러 연구에서 어머니의 흡연이 아들보다 딸에게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있었으며, 최근에 어머니가 금연을 한 경우 딸의 흡연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아들에게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보고도 있었다.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에서 형제자매의 흡연과의 관련성에서 남녀 구분이 되어 분석된 5편 모두 남녀 간의 차이가 없었다[15, 32, 42, 43, 54]. 외국의 경우 어떤 연구에서는 손위형제의 흡연이 동생들의 흡연에 영향이 없다고 하였으나 다른 연구에서는 형제의 흡연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남녀 간의 차이에서도 연구에 따라 남녀 간의 차이가 없다고 한 경우도 있고 여자 혹은 남자에게서 더 크다고 한 경우도 있다.

가정의 화목도가 떨어지는 경우 흡연과 관련성이 있다는 경우가 5편 있었으며, 부모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경우와의 관련성이 7편, 부모 결손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가 10편, 부모의 비민주적 혹은 부적절한 양육태도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가 8편, 부모와의 관계나 가정에 대한 불만족이 높은 경우 10편, 가족과 동거를 하지 않는 경우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 3편 등 부모와의 관계 및 가정 분위기가 흡연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의 흡연에 대한 허용적 태도가 흡연과 관련 있다는 보고도 2편 있었다.

남녀의 차이에 대해서 가족의 화목도와 관련성은 2편 모두 차이가 없이 가족기능 점수가 떨어지는 경우 흡연의 가능성이 높았으며[42, 55], 부모의 양육태도나 부모와의 대화시간의 경우에도 차이가 없었다[25, 43]. 부모의 흡연에 대한 허용 태도는 한 연구에서는 남녀 모두 관련성이 있었지만[54] 다른 연구에서는 부모의 엄격한 태도가 남자와 관련성이 있었고 여자의 경우에는 관련성이 없었다[48].

외국에서는 가족이나 부모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부모가 가깝게 감독을 하는 경우 흡연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특히 남자 보다는 여자에게서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다.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부모의 감독이 영향이 없다는 결과도 있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많이 할 때 흡연시작률이 낮으며 남녀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다른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 종교생활, 체육활동 등에 같이 참여하는 경우 남녀 모두에게서 흡연위험이 낮아진다고 하였으며, 부모가 자신의 사회적 활동에 관심이 적다고 느끼는 경우 흡연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았다는 보고가 있다. 다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가 있었으나 남자의 경우만 관련성이 있었다.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과 친밀감이 약할수록 흡연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남녀 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부녀간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 딸의 흡연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있었다.

나) 교우환경

국내외의 많은 연구를 통해 동료 특히 가까운 친구의 흡연이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임이 밝혀져 있는데, 가까운 친구가 흡연을 하는 경우 청소년들은 흡연을 실제보다 훨씬 더 규범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부모와의 친밀도는 흡연을 억제하는 반면 친구와의 친밀도는 흡연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분석대상의 문헌 중 흡연행태가 친구의 흡연과 관련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경우는 모두 26편이었다. 그중 여자친구 외에 남자친구 흡연과도 관련있는 것으로 나온 경우는 6편이었다. 그리고 이성친구가 있는 경우 흡연가능성이 더 높다는 경우는 11편이었으며, 방과 후 친구교제 시간이 더 많은 경우 흡연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5편이었다. 또한 흡연자에서 친구수가 더 많거나 교우관계 점수가 더 높은 결과가 있었다. 흡연자 친구와의 관련성에 대해 동성친구와의 관련성이 있는 경우는 5편의 연구에서 남녀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15, 32, 42, 47, 48, 54] 이성친구의 흡연과의 관련성도 차이가 없었다[42].

외국의 많은 연구에서도 흡연자 친구의 영향이 남녀 간에 비슷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어떤 연구에서는 남자흡연자에서 흡연자 친구를 더 많으며 남자가 여자에 비해 흡연관련 태도나 동료들의 행태에 의한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남녀 간의 차이가 있다고 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여자가 동료흡연에 의한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청소년들이 다른 청소년들과 정서적으로 긴밀한 친밀도로 발전한 경우, 친구와 더 많은 시간을 가지는 경우, 친구가 더 많은 경우, 친구와의 합의가 더욱 중요할수록,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를 가진 경우 흡연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 경우 여러 연구들에서 동료와의 연대감이 흡연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는 없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영향은

성장함에 따라 감소하든가 일정하였지만 친구의 영향은 더욱 커졌다. 비교적 최근의 연구에서는 부모와 친구의 영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친구흡연의 영향이 친구 흡연의 영향이 남자보자 여자에게서 더 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친구의 영향이 여자에게서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다) 학업수준, 학교적응도 등

학업성적과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난 19편의 연구 모두 학업성적이 낮은 경우 흡연의 가능성이 높았다. 단, 1편의 연구에서는 학업성적이 낮은 경우뿐만 아니라 높은 경우에도 흡연의 가능성이 높은 결과가 나왔다[30]. 남녀 간의 비교에서 남녀모두 학업성적과 흡연여부가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가 많았으나[25, 42, 47, 64], 한 연구에서는 남자의 경우는 낮은 학업성적과 흡연이 관련 있었으나 여자의 경우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3], 또 다른 연구에서는 남자의 경우 일반계와 전문계 고등학생 모두 낮은 학업성적과 관련 있었지만 여자의 경우 전문계 고등학생만 관련성이 있었다[43].

외국의 연구에서도 학업수준이 평균 이하인 경우 그 이상인 경우보다 현재 혹은 과거흡연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남녀 간의 차이는 없었다. 지능지수와 흡연 간에는 관련성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학업성적이 나쁠수록 남녀 모두 흡연위험성이 높아졌지만 학업영역에 따라 남녀의 차이가 있었다는 보고도 있다.

흡연자에서 방과 후 노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 3편 있었으나 1편의 경우 방과 후 공부시간이 많은 경우에도 흡연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8, 51, 58]. 그리고 16편에서 흡연자가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생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 것, 체벌경험이 있는 것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가 있었다.

외국의 경우에도 학교생활이 성실하지 못한 것이 흡연의 시작 및 진행의 예측인자임은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데, 특히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더욱 큰 관련성이 있다는 여러 보고가 있으며 그 반대 결과의 보고도 있어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연구에서 남녀 간의 비교를 한 경우가 있었으나 차이가 없었으며[42, 43] 연구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3) 문화정책적 환경

가) 정책환경

담배의 접근성은 특히 청소년의 흡연시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서, 여러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가장 흔한 담배 습득 방법이 가게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7년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사이의 현재흡연자 중 65%가 지난 한달 동안 가게에서 직접 담배를 구매한 적이 있다고 하였는데 여학생의 경우 60.8%로서 남학생의 66.8%에 비해 다소 낮았다.¹⁴⁾

외국의 경우 최근에는 담배를 직접 구입하는 것 외에 다른 경로를 통한 습득방법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연구들에 의하면 여자청소년이 남자에 비해 직접 담배를 구입하는 경우가 적다고 하였고, 담배소매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같은 연령의 남자에 비해 여자에게 담배를 더 쉽게 파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담배가격 및 금연구역 설정은 외국의 연구에서 특히 20-35세 연령층의 경우 남자흡연자는 담배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여자흡연자의 경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으며, 다른 연구에서도 여자가 남자에 비해 담배가격에 대한 반응이 낮다는 결과가 있었다. 미국에서 14세 청소년

14)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교육과학기술부. 제3차(2007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조사 통계. 2008.

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에서도 담배가격이 10% 오를 때 남자의 경우 담배수요가 2.6% 감소한 반면 여자의 경우는 1.9%로서 남자에 비해 낮았다. 다른 보고에서도 남자의 가격탄력도가 -0.56이었던 반면 여자의 경우 -0.39라는 결과가 있었다. 한편 금연구역 설정이 되어 있는 지역에서 남자들의 흡연율은 감소한 반면 여자흡연율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다.

담배광고 및 판촉의 경우 외국의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경우 담배상표의 선택을 하는데 성인에 비해 담배광고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는다고 하였으며, 흡연시작에 대한 영향력도 담배광고와 판촉이 동료나 가족의 흡연보다 더 크다는 보고가 있다. 그리고 담배회사의 판촉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흡연을 할 확률이 4.1배 더 크다는 보고도 있다. 이 분야의 경우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었다.

청소년의 담배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이러한 정책의 영향에 대한 연구, 특히 여자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나) 학교환경

학교의 금연개입이나 흡연에 대한 엄격한 태도가 흡연과 관련이 있다는 것에 대해 단 2편의 연구만 있었을 뿐이다[1, 48]. 그리고 학교의 금연교육과 관련해서 2편의 연구가 있었는데 금연교육의 경험정도와 흡연과의 관련성이 두 연구 간에 상충되는 결과가 나타났다[4, 11].

마. 분석대상 문헌목록

| 번호 | 출처 |
|----|---|
| 1 | 이철, 고복상, 이무식, 이미영. 일부 중소도시 고교생 흡연에 대한 부모 및 학교의 태도가 흡연에 미치는 영향. 가정의학회지 2006;27(4):278-287. |
| 2 | 이선헤, 서경현. 성별에 따른 고등학생의 흡연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자아개념.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06;23(2):29-45. |
| 3 | 김현철, 김은경, 최은실 등.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성별 및 학교 종류별 흡연 결정요인. 예방의학회지 2006;39(5):379-388. |
| 4 | 이근우. 농촌지역 여고생들의 흡연 실태에 관한 연구 : 부여군 소재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건양대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 5 | 한병중. 중학교 여학생의 흡연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관동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 6 | 허혜숙. 실업계 여고생의 흡연과 스트레스 수준 및 대처 방식.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 7 | 정선남. 실업계 여고생의 스트레스, 우울, 흡연과의 관계 연구. 서울대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 8 | 이휘곤, 황환식, 박훈기, 이정권. 청소년 흡연과 가족기능의 관련성. 가정의학회지 2005;26(3):138-144. |
| 9 | 박선애, 고효정. 여대생의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계명간호과학 2005;9(1):25-38. |
| 10 | 박남희.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흡연, 음주와 심리사회적 요인과의 관계연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05;22(4):123-136. |
| 11 | 김경희, 정혜경. 여자 중학생의 흡연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아동간호학회지 2005;11(1):14-22. |
| 12 | 나영화. 일 농촌지역 여고생의 흡연실태와 자아존중감 및 문제행동.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 13 | 박준희. 흡연 및 비 흡연 여고생의 자아개념 분석 :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인하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 14 | 김행미. 여고생의 자아존중감, 우울성향, 또래동조성과 흡연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 15 | 안인숙. 실업계 여고생의 흡연 경험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도의 차이. 전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 번호 | 출처 |
|----|---|
| 16 | 백경신, 최연희. 일 지역 고등학생의 흡연상태에 따른 흡연지식과 흡연 태도.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004;15(2):277-288. |
| 17 | 신승훈. 중학생의 흡연실태 및 흡연요인에 관한 연구. 명지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 18 | 김복순. 청소년의 흡연실태와 태도에 관한 연구 : 실업계 여고생을 중심으로. 경희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 19 | 서영숙, 윤희정, 권진희, 이성국.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의 흡연실태 및 니코틴 의존도.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003;16(1):105-119. |
| 20 | 박인석, 신정호, 안정숙, 김춘배, 허혜경. 흡연 및 음주 여 청소년에서의 정신병리와 식이행동. 중독정신의학 2003;7(2):102-109. |
| 21 | 김애숙. 흡연군과 비흡연군간 우울 및 스트레스정도 비교 분석 연구: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경희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 22 | 김연분. 일부 농촌지역 중·고등학생의 흡연실태 및 관련요인. 충남대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 23 | 양인옥. 여고생의 흡연실태와 흡연예방교육의 활성화 방안 :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 여고생을 중심으로. 대전대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 24 | 김동주. 중학생 흡연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대구지역 3학년 여학생 중심으로. 명지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 25 | 이은림. 여고생의 흡연 유희 관련 요인 분석. 연세대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 26 | 안홍석, 이금주, 김나영. 흡연여대생의 지질섭취와 혈중지질 및 지방산 조성에 관한 연구.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2002;7(1):102-110. |
| 27 | 홍경의. 한국 여자대학생의 흡연행동 원인 분석.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02;19(3):13-34. |
| 28 | 안황란, 오현숙. 흡연, 비흡연 여고생의 일반적인 특성과 인생태도 비교. 정신건강간호학회지 2002;11(3):375-387. |
| 29 | 정승은. 미혼직장여성의 흡연행위와 성역할 정체성 및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최신의학 2002;45(7):25-34. |
| 30 | 이선행. 실업계 여고생의 흡연실태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 31 | 이숙희. 우리나라 성인여성의 흡연실태. 인제대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 32 | 조재학. 여고생의 흡연경험과 환경요인의 관계. 상주대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 33 | 지부용. 강릉시 중학교 여학생의 흡연실태 및 관련요인 조사연구. 관동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 번호 | 출처 |
|----|--|
| 34 | 고순자. 흡연 여고생의 충동성 및 자아방어기제에 관한 연구. 인하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 35 | 김옥수, 김계하. 여대생과 직장여성들의 사회적지지, 우울, 음주, 흡연에 대한 비교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2001;13(3):363-372. |
| 36 | 김옥수, 김애정, 김선화, 백성희. 미혼 흡연여성들의 불안, 우울 및 자아존중감이 흡연양 및 니코틴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 성인간호학회지 2001;13(4):509-516. |
| 37 | 김선효, 신호상, 임우경. 일부 농촌 지역 흡연 여고생의 영양 섭취 및 혈액 성분 조사. 한국영양학회지 2001;34(3):338-347. |
| 38 | 권혜경, 정문숙, 홍혜숙, 김신정. 실업계 고등학생의 흡연실태와 관련요인 및 니코틴 의존도. 경북간호과학지 2001;5(2):77-92. |
| 39 | 박인혜, 류현숙, 조인숙. 일부 여대생들의 흡연경험과 흡연 지식, 태도,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관계 연구. 간호과학논집 2001;6(1):175-188. |
| 40 | 김계하. 미혼 여성의 음주양상과 흡연정도 및 우울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 41 | 신효정. 여성 흡연자의 흡연 욕구 및 성역할 태도.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 42 | 안진희. 여고생의 우울성향과 흡연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 43 | 정애경. 여고생의 흡연실태와 학교사회복지적 접근. 대전대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 44 | 황승주, 오상우, 김순남, 황환식, 조비룡, 허봉렬. 성인 여성흡연자의 흡연양상 및 흡연과 관련된 요인들. 가정의학회지 2000;21(3):344-356. |
| 45 | 이석구, 권운형, 이길희. 일부 도시지역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흡연실태와 관련요인. 가정의학회지 2000;21(8):1042-1052. |
| 46 | 손정남. 서울시내 여고생의 흡연행위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000;6(2):316-329. |
| 47 | 감신, 이규희, 박기수, 김주열, 이영자, 강윤식, 김상우. 대구지역 중·고등학생의 흡연과 음주실태 및 그 관련요인. 한국모자보건학회지 2000;4(2):233-253. |
| 48 | 임우경, 김선효. 일부 농촌 지역 여고생의 흡연 행동 특성 조사. 한국영양학회지 2000;33(7):755-762. |
| 49 | 이경미, 박재용, 한창현. 초등학교 학생의 흡연지식·태도 및 흡연경험과 가족환경과의 관련성.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000;13(1):85-96. |
| 50 | 김소희. 여고생의 흡연경험에 관한 연구. 명지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 51 | 김영희. 중·고등학교 여학생의 흡연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62 여성 흡연과 음주의 요인 및 정책대안

| 번호 | 출처 |
|----|--|
| 52 | 이길희. 일부 도시지역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흡연실태와 관련요인. 충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 53 | 김경원, 임채연, 김주영, 김정희. 여고생 흡연자의 영양소 섭취 실태 및 흡연관련 사회심리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1999;32(8):908-917. |
| 54 | 송연희. 중학교 여학생의 흡연 실태 및 관련 요인 분석 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 55 | 정지훈. 일부 서울지역 여고생의 흡연결정요인 분석. 연세대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 56 | 이운수, 이해리, 강윤주. 청소년의 흡연, 음주 및 기타 약물 사용 실태 -서울시내 일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정의학회지 1998;19(1):43-57. |
| 57 | 조주희. 여고생의 흡연 의식과 학교생활 적응도와의 상관성 연구.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 58 | 정래순, 피승용, 강윤주, 이상현, 윤방부. 서울지역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흡연실태 및 니코틴 의존도에 대한 조사. 가정의학회지 1996;17(6):425-437. |
| 59 | 곽정옥. 일부 여대생의 흡연실태와 그 관련요인 분석.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1995;12(2):120-138. |
| 60 | 남옥희. 여고생 흡연집단과 비흡연집단의 자아개념 비교.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 61 | 송미령. 여대생의 가정환경과 흡연과의 관계연구. 인하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 62 | 이성희. 일부 여고생의 흡연실태. 경북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 63 | 현영주. 실업계 여고생의 흡연과 불안·우울과의 관계. 효성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 64 | 이계운, 김명. 여고생의 흡연실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1992;9(1):39-47. |
| 65 | 최순옥, 박정환. 산업체 근로여성들의 흡연율과 흡연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조사. 한국역학회지 1991;13(2):146-158. |

제3장 우리나라 여성흡연 관련요인 분석 결과

제1절 여성흡연율 추정

1. 분석방법 및 개요

문헌분석으로 우리나라의 여성흡연율의 추정에는 각 조사마다 흡연율의 정의가 다르고 조사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정확한 흡연율을 추정하는 데는 무리가 있으나, 현재 여성흡연율에 대한 논의가 분분한 관계로 이를 감안하여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성흡연율(“1개월 내 흡연경험”)은 2005년 기준 중학생 5.7%, 고등학생 17.5%(15~20%), 20대 여성 18% (14.0~21.9%), 20대 이상 성인 10%로 추정되며, 흡연경험율은 중학생 17.6%이상, 고등학생 34.5~46%, 20대 여성 39.9%~54%, 20대 이상 성인 20%내외로 추정된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흡연율은 미국 영국 등의 여성흡연율 보다는 낮으며, 일본여성의 흡연율과 비슷하다. 그리고 향후 흡연율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학생의 경우 개괄적으로 보면 1998~2005년간 조사된 흡연율은 1998년 2.6%, 1999년 2.0%(중학교2학년), 2000년 2.0%, 2002년 2.6~8.6%, 2003년 3.0%와 6.8% 2005년 3.2%와 8.7%로 조사의 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점차 흡연율이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5년 기준으로 흡연율(“1개월 내 흡연경험”)은 5.7%를 기준점으로, 1회 이상의 흡연경험율은 17.6%이상으로 추정되었다. 2006년 보건복지부의 청소년건강행태에서는 현재흡연자를 “지난 한달 동안 하루이상(한개비 이상) 흡연을 한 적이 있는 경우”로 정의하였는데, 이 조사에서의 중학교여학생 흡연율 5.9%와 비

교할 때, 개별적인 조사연구결과가 5.9%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자고등학생의 흡연율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2005년 기준 흡연자(1개월 이내 흡연경험자)의 비율은 15~20%로, 그리고 매일흡연자(하루 1개비 이상의 흡연)의 비율은 5~10%의 범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흡연경험율은 34.5~46%의 수준으로 추정된다. 전문계고등학교 여학생의 흡연율이 인문계고등학교 여학생의 흡연율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인문계고등학교 여학생의 흡연율은 5%내외로, 전문계고등학교의 경우 10.3% 이상으로 추정되었다. 각 조사의 흡연율의 정의의 차이를 인정하고 볼 때, 2006년 보건복지부의 청소년건강행태조사결과에서의 고등학교 여학생 흡연율 13.0%, 일반계교 7.2%, 전문계교 28.4%의 추이가 같은 형태로 분석되었다.

20대의 젊은 여성의 흡연율도 1990년 7.3%, 1995년 7.4%, 2000년 8.5~16.3%, 2001년 38.3%, 2003년 34.3%, 2004년 23.9%로 점차 흡연율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2005년 기준 20대 여성(대학생과 직장인) 흡연율(한달 이내 흡연)은 18% (14.0~21.9%), 흡연경험율은 39.9~54%로 추정된다. 외국여성의 연령급별흡연율 추이와 비교하여 볼 때 20대 여성의 흡연율이 전체여성의 흡연율 보다 통상 높게 나타나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여성의 흡연율은 18%보다 낮을 것이며, 10%정도로 추정된다. 이는 일본과 비슷하며, 미국, 유럽 등의 국가의 여성성인 흡연율 보다 낮다. 그러나 미국, 유럽 등의 국가에서 여성흡연율이 감소하는 반면, 우리나라여성의 흡연율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 여자중학생 흡연율

1998~2005년간 조사된 흡연율은 1998년 2.6%, 1999년 2.0%(중학교 2학년), 2000년 2.0%, 2002년 2.6~8.6%, 2003년 3.0%와 6.8% 2005년 3.2%와

8.7%로 조사의 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점차 흡연율이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시행된 연구 중 흡연율조사에서 “흡연율”의 정의를 분명히 명시한 연구가 적은 관계로 연구결과의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흡연율의 정의를 명시한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중학교여학생의 흡연율은 다음과 같이 추정이 가능하다. 1회 이상의 흡연경험율은 1998년 조사에서 12.7%, 2003년 조사에서 17.6%의 조사되었다. 3회 이상의 흡연경험율은 2002년도 조사에서 8.6%로 조사되었다 이보다 더 흡연의 빈도가 높은 “때때로 규칙적 흡연”에서는 2002년 5.7%로 조사되었다. 흡연경험율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최근에 오면서 증가된 것을 보여주었다. 흡연경험율이 증가되면 현재흡연율도 증가되는 것은 쉽게 가정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추정하여 볼 때, 2005년 이후의 1회 이상의 흡연경험율은 17.6% 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2002년 조사의 “때때로 규칙적 흡연”의 조사결과가 5.7%를 근거로 “1개월 내 흡연경험”을 추정가능하다. “현재흡연”의 정의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1개월 내 흡연경험”은 “때때로 규칙적 흡연” 보다 강도가 높은 흡연상태로 2002년 “때때로 규칙적 흡연”이 5.7%이었으므로 2002년 기준 “1개월 내 흡연경험”은 5.7% 미만으로 가정이 가능하다. 시기가 지난 2005년에는 “1개월 내 흡연경험”이 어느 정도 증가하였을 것이며, 2002년과 2005년의 차이가 3년에 불과하므로,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5.7%를 기준점을 잡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2006년 보건복지부의 청소년건강행태에서는 현재흡연자를 “지난 한 달 동안 하루이상(한 개비 이상) 흡연을 한 적이 있는 경우”로 정의하였는데, 이 조사에서의 중학교여학생 흡연율 5.9%와 비교할 때, 개별적인 조사연구결과가 5.9%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1〉 여자중학생 흡연을 추이

| 연도 | 흡연율 | 정의 | 논문출처 |
|----------------|------------------------------|---------------|-----------------------------------|
| 1999. 3 | 1학년0.0%, 2학년 2.0%, 3학년 3.1%, | 현재흡연 | 감신 등, 한국모자보건학회지 2000;4(2);233-253 |
| 1998.7 | 2.6%(현재흡연율) 12.7%(흡연경험률) | - | 송연희.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 1999 |
| 2000. 3. | 2.0% | - | 김영희. 대구가톨릭대 대학원 석사, 2000 |
| 2002. 2~3 | 5.7% | 때때로 규칙적 흡연 | 지부용. 관동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2 |
| 2002. 11 | 2.6% | - | 김연분. 충남대 보건대학원 석사, 2003 |
| 2002 | 8.6% | 3회 이상 흡연경험 | 박인석 등, 중독정신의학 2003;7(2);102-109 |
| 2003. 4~5 | 6.8% | - | 김동주. 명지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2003 |
| 2003. 11~12 | 17.6%(흡연경험률) | - | 김경희 등. 아동간호학회지 2005;11(1);14-22 |
| 2003. 12 | 3.0% | - | 신승훈. 명지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4 |
| 2005. 7 | 3.2%, | - | 김현철 등. 예방의학회지 2006;39(5);379-388 |
| 2005. 12 | 8.7% | - | 한병중. 관동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6 |

나. 여자고등학생의 흡연율

여자고등학생의 흡연율에 대한 연구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조사되어 왔으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볼 수 있다. 연도별로는 1992년 2.7~15.5%, 1993년 12.3%, 1995년 6.6%, 1998년 5.5%(인문계), 11.6%, 1999년 3.5%(2학년)~32.5%의 차이를 보인다. 조사대상과 방법에 따라 일관성을 보기는

어려우나, 1990년대에는 여고생의 흡연율이 2.7%에서 32.5%로 조사되었다. 2000년 이후의 조사에서는 2000년 5.0~27.1%, 2001년 21.7%(고 3), 39.8%(고 3), 2002년 2.6~29.8%, 2003년 3.5%, 2004년 3.3%와 30.0%, 2005년 11.5~32.5%로 2000년 이후의 여자고등학생의 흡연율은 2.6~32.5%의 편차를 보였다.

“흡연”의 정의에 따라 흡연율의 차이가 있는데, 흡연자로서 한 달 이내에 흡연경험이 있는 자를 기준으로 할 때 1999년은 17%에 달하는 조사결과가 많다. 1주일에 1회 이상 규칙적 흡연 또는 “하루5~10개비이상을 6개월 이상 흡연”과 같은 정의에서는 흡연율이 10%대로 낮아졌다. 2000년대 초에는 가끔 이상 담배를 피는 경우를 흡연자로 했을 때, 18.6%의 높은 흡연율이었으며, 규칙적으로 하루 1개비 이상 흡연으로 정의한 경우는 전문계여학생의 경우 7.9%로 조사되었다. 2003년 이후의 조사에서는 흡연에 대한 정의가 없어 명확한 흡연율을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현재흡연, 과거 1~2회 이상흡연”을 흡연율로 정의한 2005.12의 조사에서 흡연율이 25.2%로 조사된 점을 볼 때, 1개월이라는 기간 내의 흡연경험자를 흡연자로 하면 흡연자의 비율은 20%또는 그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2005년 기준 흡연자(1개월 이내 흡연경험자)의 비율은 15~20%로, 그리고 하루 1개비 이상의 규칙적흡연자의 비율은 5~10%의 범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흡연경험자의 비율은 2006년 질병관리본부의 조사에서 고등학생의 흡연율 13.0%, 흡연경험율 30.6%로 흡연경험율이 흡연율의 2.3배이었다. 이 비례를 적용하면 고등학생의 흡연경험율은 34.5~46%의 수준으로 추정된다.

〈표 3-2〉 여자고등학생 흡연을 추이

| 연도 | 흡연율 | 정의 | 논문출처 |
|---------------|---|------------------------------|--|
| 1992. 2. | 인문계: 주간 2.7%, 야간 19.5%; 실업계: 주간: 10.3%, 야간 25.5% | 1주일에 1회 이상 흡연 | 이계은 등,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1992;9(1);39-47 |
| 1992. 2 | 흡연율: 15.5% | - | 이계은.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 1992 |
| 1993. 9 | 12.3% | 가끔, 규칙적 흡연 | 이성희. 경북대 대학원 석사, 1994 정래순 등, 가정의학회지 1996;17(6);425-437 |
| 1995. 2 | 6.6%(1학년 5.0%, 2학년 8.2%, 3학년 6.6%) | 가끔 이상 흡연 | 조주희.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석사, 1998 |
| 1998. 4 | 5.5% | 흡연경험 | 임우경 등, 한국영양학회지 2000;33(7);755-762 |
| 1998. 8~10 | 11.6% | 하루5~10개비 이상, 6개월 이상 흡연 | 감 신 등, 한국모자보건학회지 2000;4(2);233-253 |
| 1999. 3 | 1학년 1.1%, 2학년 3.5%, 3학년 3.5% | 현재흡연 | 이석구 등, 가정의학회지 2000;21(8);1042-1052 |
| 1999. 6. | 17.3% | 가끔, 자주흡연 | 이길희. 충남대 대학원 석사, 2000 |
| 1999. 6 | 17.2% | 가끔, 자주흡연 | 김소희. 명지대 대학원 석사, 2000 |
| 1999. 7. | 32.5% | - | 손정남.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000;6(2);316-329 |
| 1999. 7 | 17.9% | 최근 한달 간 지속적 흡연 | 권혜경 등, 경북간호과학지 2001;5(2);77-92 |
| 1999. 11 | 10.8% | 1주일에 1회이상 규칙적 흡연 | 김영희. 대구가톨릭대 대학원 석사, 2000 |
| 2000. 3. | 8.8% | - |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003;16(1);105-119 |
| 2000. 3 | 5.0% (인문계 1.1%, 실업계 7.9%) | 현재흡연자 | 정애경. 대전대 경영행정대학원 석사, 2001 |
| 2000. 9 | 27.1% | 흡연경험자 | 안진희. 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2001 |

| 연도 | 흡연율 | 정의 | 논문출처 |
|------------|--|--------------------|--------------------------------------|
| 2001. 3~4 | 1학년 25.5%, 2학년 34.7%, 3학년 39.8% | 1년 이내 흡연 | 이휘곤 등, 가정의학회지 2005;26(3);138-144 |
| 2001. 5 | 14.5%(1학년 11.7%, 2학년 10.0%, 3학년 21.7%) | 현재흡연 | 박남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05;22(4);123-136 |
| 2002. 3 | 15.9% | 현재흡연자 | 이선행. 대구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2002 |
| 2002. 4 | 29.8% | - | 조재학. 상주대 산업대학원 석사, 2002 |
| 2002. 4 | 9.8%(흡연경험 20.2%) | 가끔, 규칙적 흡연 | 양인옥. 대전대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석사, 2003 |
| 2002. 7 | 10.0%(과거흡연 11.5%) | - | 이철 등. 가정의학회지 2006;27(4);278-287 |
| 2002. 9~10 | 일반계 2.6%, 전문계 7.9% | 규칙적으로 하루 1개비 이상 흡연 | 김연분. 충남대 보건대학원 석사, 2003 |
| 2002. 11 | 7.1% | - | 백경신 등,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004;15(2);277-288 |
| 2002. 12. | 18.6% | 간헐적, 주기적 흡연 | |
| 2003. 4 | 3.5% | - | 이은림. 연세대 보건대학원 석사, 2003 |
| 2004. 3 | 3.3% | - | 나영화.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5 |
| 2004. 4 | 30.0% | - | 김복순. 경희대 행정대학원 석사, 2004 |
| 2005. 4 | 15.0% | - | 안인숙. 전주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5 |
| 2005. 7 | 11.5%(일반계 4.9%, 전문계 20.0%) | - | 김현철 등. 예방의학회지 2006;39(5);379-388 |
| 2005. 9 | 32.5% | - | 허혜숙.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6 |
| 2005. 10 | 25.2% | 현재흡연, 과거 1~2회 이상흡연 | 정선남. 서울대 보건대학원 석사, 2006 |

| 연도 | 흡연율 | 정의 | 논문출처 |
|-------------|-------|----|---------------------------|
| 2005. 11~12 | 22.0% | - | 이근우. 건양대 경영행정대학원 석사, 2006 |

고등학교 여학생의 흡연율을 조사대상자의 특성 중 인문계고등학교와 전문계고등학교로 구분하여 보면, 전문계고등학교 여학생들의 흡연율이 인문계고등학교 여학생의 흡연율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일반계고등학교의 경우 1992년 2.7%와 19.5%, 1995년 6.6%, 1998년 5.5%, 2000년 1.1%, 2001년 14.5%, 2002년 2.6%, 2005년 4.9%로 일관성 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2001년도의 조사결과를 제외하면 5% 내외의 흡연율을 보여, 인문계고등학교 여학생의 흡연율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전문계고등학교의 경우 10.3~32.5%의 편차를 보이지만, 최저치가 10.3%로 흡연율이 높으며, 2005년 조사에서는 15.0~32.5%를 보여 높은 수준의 흡연율이 연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각 조사의 흡연율의 정의의 차이를 인정하고 볼 때, 2006년 보건복지부의 청소년건강행태조사결과에서의 고등학교여학생 흡연율 13.0%, 일반계교 7.2%, 전문계교 28.4%의 추이가 같은 형태로 분석되었다.

〈표 3-3〉 전문계와 일반계의 흡연율 연구결과

| 연도 | 전문계 | 일반계 |
|----------|---------------------|--------------------|
| 1992. 2. | 주간: 10.3%, 야간 25.5% | 주간 2.7%, 야간 19.5%; |
| 1995. 2 | - | 6.6% |
| 1998. 4 | - | 5.5% |
| 1999. 7. | 32.5% | - |
| 1999. 11 | 10.8% | - |
| 2000. 3 | 7.9% | 1.1% |
| 2000. 9 | 27.1% | - |
| 2001. 5. | - | 14.5% |

| 연도 | 전문계 | 일반계 |
|------------|-------|------|
| 2002. 4 | 29.8% | - |
| 2002. 9~10 | 7.9% | 2.6% |
| 2003. 4 | - | 3.5% |
| 2004. 4 | 30.0% | - |
| 2005. 4 | 15.0% | - |
| 2005. 7 | 20.0% | 4.9% |
| 2005. 9 | 32.5% | - |
| 2005. 10 | 25.2% | - |

젊은 여성의 흡연을 조사는 1990년 이후 직장단위, 대학교 단위로 흡연을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은 20대 전후의 여성이었으며, 흡연율은 1990년 7.3%, 1995년 7.4%, 2000년 8.5~16.3%, 2001년 38.3%, 2003년 34.3%, 2004년 23.9%로 점차 흡연율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2000년 이후 흡연율조사에서 “한 달 이내 흡연”인 경우 2000년 15.0%와 16.3%로 조사되어 2000년대의 20대 여성흡연율은 16%정도로 추정된다. 2004년에는 매일흡연자가 14.0, 가끔 흡연 7.9%로 흡연자 21.9%이다. “한 달 이내 흡연”을 흡연율로 추정하게 되면 14.0~21.9%의 사이로 추정된다. 중간정도의 값인 18%가 20대 여성(대학생과 직장인)의 흡연율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고등학교3학년여학생의 흡연율인 12.8% (질병관리본부, 2006) 보다 5%가량 높은 수치이며, 현재 국민건강영양조사의 20~29세의 흡연율 6.1% 보다 3배 정도 높다.

흡연경험자는 흡연자 보다 높게 추정되는데, 2004. 5의 조사결과에서 매일흡연 21.9%, 가끔 흡연 7.9%, 과거흡연 18.1%로 이를 다 합치면 “흡연 경험자”가 39.9%로 계산된다. 2001년도 조사에서 “실제 흡연하는 행동”으로 흡연율을 측정한 결과 38.3%가, 2003년 조사에서 흡연율(정의미상)이 34.3%로 조사된 점을 미루어 흡연경험율은 39.9%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 고등학교3학년 여학생(질병관리본부, 2006)의 흡연경험율 31.4%가 흡

연을 12.8%의 약 3배이므로, 이러한 추이가 20대 여성에게도 적용된다면 20대 여성의 흡연율 18%로 추정되므로, 흡연경험율 54%까지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20대 여성(대학생, 직장인)의 흡연율은 18%(14.0~21.9%), 흡연경험율은 39.9~54%로 추정된다.

〈표 3-4〉 성인여성 흡연율 추이

| 연도 | 흡연율 | 정의 | 대상 | 논문출처 |
|-------------------|---|-------------|------------------------|--------------------------------------|
| 1990. 5~6 | 7.3% | - | 산업체 근로자 | 최순옥 등, 한국역학회지 1991;13(2);146-158 |
| - | 19.8% | - | 여대생 (1~4학년) | 송미령, 인하대 교육대학원 석사, 1995 |
| 1995. 5~6. | 현재흡연자 7.4%, (과거흡연자 20.6%) | 현재 흡연 | 여대생 | 곽정옥,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1995;12(2);120-138 |
| 2000. 11. | 8.5% | - | 여대생 | 박인혜 등, 간호과학논집 2001;6(1);175-188 |
| 2000. 8~10 | 15.0% | 한달 내 흡연 | 여대생, 직장인, 미혼여성 | 김계하,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 2001 |
| 2000. 10 2001. | 16.3% | 최근 한달 동안 흡연 | 직장 미혼여성 (평균 연령: 23.9세) | 정승은, 최신의학 2002;45(7);25-34 |
| 2001. 3~4. | 38.3% | 실제 흡연하는 행동 | 여대생 | 홍경의,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02;19(3);13-34 |
| 2003. 4~5 | 34.3% | - | 20대여성 | 김애숙, 경희대 행정대학원 석사, 2003 |
| 2004. 5. | 21.9% (매일흡연: 14.0%, 가끔흡연:7.9%, 과거흡연:18.1%) | 매일, 가끔 흡연 | 여대생 | 박선애 등, 계명간호과학 2005;9(1);25-38 |

전체 여성흡연율의 추이를 위하여 외국여성의 흡연율과 비교하여 보면,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 뉴질랜드, 영국 등에서 20대 여성의 흡연율이 다

른 연령층의 흡연율에 비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도 20대 여성의 흡연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 전체여성의 흡연율은 18%(14.0~21.9%) 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과거부터의 흡연율의 변화를 보면, 일본은 전체여성의 흡연율은 큰 변화가 없으나, 20대와 30대 여성의 흡연율은 증가하였고, 상대적으로 40대 이상의 여성의 흡연율의 증가는 미미하거나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이는 우리나라의 국민건강영양조사의 흡연율추이와 유사하다. 반면 미국, 뉴질랜드, 영국은 전체적으로 흡연율이 감소하였고, 연령급별로도 모든 연령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일본이 우리나라와 가장 문화가 유사한 점을 볼 때, 우리나라 여성의 전체 흡연율은 일본의 2006년도 20대 여성의 흡연율이 17.9%이고, 전체여성흡연율이 10.0%이므로, 우리나라도 전체여성흡연율을 10.0%로 추정하여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젊은층의 흡연율은 점차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표 3-5〉 외국 여성의 흡연율 추이

| | | 1974 | 1990 | 1995 | 2000 | 2002 | 2004 | 2005 | 2006 |
|----|--------|------|------|------|------|------|------|------|------|
| 일본 | 소계 | - | 9.7 | 10.6 | 11.5 | 10.2 | 12.0 | 11.3 | 10.0 |
| | 20~29 | - | 11.9 | 16.9 | 20.9 | 17.4 | 18.0 | 18.9 | 17.9 |
| | 30~39 | - | 11.0 | 13.2 | 18.8 | 17.2 | 18.0 | 19.4 | 16.4 |
| | 40~49 | - | 11.3 | 11.1 | 13.6 | 14.4 | 13.7 | 15.1 | 13.8 |
| | 50~59 | - | 8.0 | 9.1 | 10.4 | 9.4 | 13.7 | 12.4 | 9.2 |
| | 60~69 | - | 8.5 | 7.6 | 6.6 | 7.5 | 7.6 | 7.3 | 6.4 |
| | 70+ | - | 7.2 | 6.3 | 4.0 | 2.9 | 4.5 | 2.6 | 2.8 |
| 미국 | 소계 | 32.2 | 22.9 | 22.7 | 21.1 | 20.1 | 18.7 | 18.1 | 18.0 |
| | 18~24세 | 34.1 | 22.5 | 21.8 | 24.9 | 24.5 | 21.5 | 20.7 | 19.3 |
| | 25~34세 | 38.8 | 28.2 | 26.4 | 22.3 | 21.3 | 21.0 | 21.5 | 21.5 |
| | 35~44세 | 39.8 | 24.8 | 27.1 | 26.2 | 23.7 | 21.6 | 21.3 | 20.6 |
| | 45~64세 | 33.4 | 24.8 | 24.0 | 21.7 | 21.1 | 19.8 | 18.8 | 19.3 |

74 여성 흡연과 음주의 요인 및 정책대안

| | | 1974 | 1990 | 1995 | 2000 | 2002 | 2004 | 2005 | 2006 |
|------------|-------|------|------|------|------|------|------|------|------|
| 뉴질랜드 | 65세+ | 12.0 | 11.5 | 11.5 | 9.3 | 8.6 | 8.1 | 8.3 | 8.3 |
| | 소계 | 32 | 27 | 26 | 25 | 24 | 22 | 23.3 | 19.3 |
| | 15~24 | 34 | 34 | 33 | 31 | 33 | 29 | 30.7 | - |
| | 25~34 | 38 | 32 | 36 | 37 | 32 | 30 | 29.8 | - |
| | 35~54 | 35 | 28 | 25 | 25 | 25 | 24 | 25.1 | - |
| 영국 | 55+ | 21 | 16 | 14 | 13 | 11 | 13 | 12.6 | - |
| | 소계 | 41 | 29 | 26 | 25 | 25 | 23 | 23 | 21 |
| 영국 (계속) | 16~19 | 38 | 32 | 27 | 28 | 29 | 25 | 26 | 20 |
| | 20~24 | 44 | 39 | 38 | 35 | 38 | 29 | 30 | 29 |
| | 25~34 | 46 | 34 | 30 | 32 | 33 | 28 | 29 | 26 |
| | 35~49 | 49 | 33 | 28 | 27 | 27 | 28 | 26 | 25 |
| | 50~59 | 48 | 29 | 26 | 28 | 24 | 22 | 23 | 22 |
| | 60+ | 26 | 20 | 17 | 15 | 14 | 14 | 13 | 12 |

주: 미국: 1) Age-adjusted percen

2) 현재흡연자: 일생 동안 100개비 이상 흡연한자와 현재 매일 또는 가끔 흡연하는 자

영국: 1) 1974-1994: Unweighted data

2) 1998-2006: Weighted data

3) 2005 data includes last quarter of 2004/05 data due to survey change from financial year to calendar year

4) 1995년은 1994년 자료임.

뉴질랜드: 1) 현재흡연자 -일생동안 100개비 이상 흡연하였고 현재 1달에 1회 이상 흡연하는 자. 1974년 자료는 1976년임.

자료: 미국: CDC,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NHIS), 1965-2006, 2007 http://www.cdc.gov/nchs/data/nhis/earlyrelease/200806_08.pdf;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1997-2007; Cigarette Smoking Among Adults, United States, 2006, November9, 2007/ 56(44); 1157- 1161.

영국: General Household Survey, 2006 <http://www.statistics.gov.uk/StatBase/Product.asp?vlnk=5756>.

뉴질랜드: Ministry of Health: Tobacco Trends 2006, monitoring tobacco use in New Zealand.

일본: 20세 이상의 성, 연령별 흡연을 추이: 厚生労働省「國民榮養の現狀」(國民榮養調査結果) (<http://www.health-net.or.jp/tobacco/product/pd100000.html>) (20세 이상)

제2절 여성청소년 흡연관련 요인

1. 분석방법

여성청소년의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가장 최근에 조사되었으며, 조사의 신뢰도가 가장 높은 2006년도에 실시된 제2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데이터¹⁵⁾를 사용하였다. 제2차 청소년 건강행태조사는 전국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조사는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표본추출 중학교 400개교, 고등학교 400개교의 학년별 1개 학급에 속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 중 총 71,404명(여학생 34,200명, 남학생 27,204명)에 대해 조사가 완료되었다.

여성청소년의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는 <표 3-6>과 같다.

<표 3-6> 여성청소년 흡연요인 분석에 사용된 변수 및 내용

| 변수 | | 설명 |
|--------|--------|---------------------------------|
| 흡연행동 | 흡연 경험률 | 지금까지 흡연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 |
| | 현재흡연율 | 지난달에 흡연한 사람의 비율 |
| | 매일흡연율 | 지난달에 매일 흡연한 사람의 비율 |
| | 금연 의지율 | 현재 흡연자 중 6개월 내에 담배를 끊으려는 사람의 비율 |
| | 금연율 | 흡연 경험자 중 담배를 끊은 사람의 비율 |
| 개인적 환경 | 인구요인 | 학년 |
| | 건강상태 |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증 자살생각 |
| | 건강행태 | 음주, 고위험음주 |

15) 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06.

| 변수 | | 설명 |
|----------|------|---|
| | | 격렬한 신체활동 흡입계 사용 경험 아침식사 여부 |
| 사회적 환경 | 학업수준 | 본인이 스스로가 평가한 학업성적 |
| | 가족환경 | 가정 내 간접흡연 경험 부의학력 경제상태 거주형태 부모동거 여부 |
| 문화정책적 환경 | 정책환경 | 금연홍보 금연교육 |

여성청소년의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흡연에 관련된 변수별로 단변량 분석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을 위해서는 STATA SE/10.1 버전을 이용하였다. 분석하고자 하는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는 남성청소년의 분석결과를 함께 제시, 비교하였다¹⁶⁾.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대상자들을 흡연행동 및 흡연에 미치는 요인 중 데이터의 특성에서 가능한 변수를 선정하였다. 이 결과 흡연경험률, 현재흡연율, 매일흡연율, 금연의지율, 금연율의 흡연행동과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구·건강상태·건강행태의 개인적환경, 사회적환경으로는 학업수준, 가족의 배경 및 가정에서의 흡연행위를, 문화정책적환경으로는 금연홍보와 금연교육경험여부를 선정하였다.

2. 대상자의 특성

흡연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 <표3-7>과 같다.

16) 이 내용은 이하 성인여성의 흡연관련 요인 분석 및 음주관련 요인분석에도 동일함.

〈표 3-7〉 제2차 청소년 행태조사 분석대상자 흡연요인관련 특성

| | | | 여자 | | 남자 | |
|------|----------------------------|--------------|--------|--------|--------|--------|
| | | | 빈도 | 백분율 | 빈도 | 백분율 |
| 전체 | | | 34,200 | 100.00 | 37,204 | 100.00 |
| 인구 | 학년 | 중학교1학년 | 5,960 | 17.43 | 6,916 | 18.59 |
| | | 중학교2학년 | 5,979 | 17.48 | 6,405 | 17.22 |
| | | 중학교3학년 | 5,861 | 17.14 | 6,299 | 16.93 |
| | | 고등학교1학년 | 5,585 | 16.33 | 6,039 | 16.23 |
| | | 고등학교2학년 | 5,445 | 15.92 | 6,005 | 16.14 |
| | | 고등학교3학년 | 5,370 | 15.70 | 5,540 | 14.89 |
| 건강상태 | 주관적 건강상태 | 매우 건강한 편 | 4,702 | 13.75 | 7,065 | 18.99 |
| | | 건강한 편 | 15,166 | 44.35 | 16,664 | 44.79 |
| | | 보통 | 10,757 | 31.45 | 10,289 | 27.66 |
| | | 건강하지 못한 편 | 3,377 | 9.87 | 2,875 | 7.73 |
| | |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 | 198 | 0.58 | 311 | 0.84 |
| | 지난 일년간 우울감 | 느낀적이 없다 | 18,301 | 53.51 | 23,602 | 63.44 |
| | | 느낀적이 있다 | 15,898 | 46.49 | 13,600 | 36.56 |
| | 지난 일년간 자살생각 | 생각한 적이 없다 | 24,822 | 72.58 | 30,182 | 81.13 |
| | | 생각한 적이 있다 | 9,377 | 27.42 | 7,020 | 18.87 |
| | 처음흡연 시기 ¹⁾ | 초등학교 혹은 그 이전 | 726 | 24.12 | 1,604 | 27.23 |
| 중학교 | | 1,854 | 61.59 | 3,247 | 55.12 | |
| 고등학교 | | 430 | 14.29 | 1,040 | 17.65 | |
| 건강행태 | 지난달 흡연일수 ¹⁾ | 매일흡연하지 않음 | 2,015 | 66.33 | 3,227 | 53.96 |
| | | 매일흡연함 | 1,023 | 33.67 | 2,753 | 46.04 |
| | 지난달 하루흡연량 ¹⁾ | 반갑 미만 | 2,469 | 83.69 | 4,266 | 74.01 |
| | | 반갑 이상 | 481 | 16.31 | 1,498 | 25.99 |
| | 격렬한 신체활동 | 운동안함 | 28,405 | 83.06 | 20,692 | 55.62 |
| | | 운동함 | 5,795 | 16.94 | 16,512 | 44.38 |
| | 흡입제 | 안마심 | 33,795 | 98.82 | 36,183 | 97.26 |
| | | 과거마심 | 264 | 0.77 | 574 | 1.54 |
| | | 마심 | 140 | 0.41 | 447 | 1.20 |
| | 아침식사 | 매일먹음 | 17,549 | 51.31 | 20,829 | 55.99 |
| 안먹음 | | 16,650 | 48.69 | 16,375 | 44.01 | |
| 학업수준 | 학업성적 | 상 | 4,358 | 12.74 | 5,395 | 14.50 |
| | | 중상 | 8,854 | 25.89 | 9,246 | 24.85 |
| | | 중 | 9,496 | 27.77 | 9,982 | 26.83 |
| | | 중하 | 8,035 | 23.49 | 8,459 | 22.74 |
| | | 하 | 3,457 | 10.11 | 4,122 | 11.08 |

| | | | 여자 | | 남자 | |
|--------------|--------------|----------------|--------------|----------------|--------------|-------|
| | | | 빈도 | 백분율 | 빈도 | 백분율 |
| 가정환경 | 가정 내 간접흡연 | 없음 | 19,109 | 55.87 | 22,812 | 61.32 |
| | | 1-6일 | 11,181 | 32.69 | 11,188 | 30.07 |
| | | 매일 | 3,910 | 11.43 | 3,202 | 8.61 |
| | 아버지학력 | 대졸미만 | 18,316 | 60.23 | 18,284 | 58.42 |
| | | 대졸이상 | 12,093 | 39.77 | 13,013 | 41.58 |
| | 경제상태 | 상 | 1,917 | 5.61 | 3,347 | 9.00 |
| | | 중상 | 7,002 | 20.47 | 8,676 | 23.32 |
| | | 중 | 17,099 | 50.00 | 16,771 | 45.08 |
| | | 중하 | 6,295 | 18.41 | 6,177 | 16.60 |
| | | 하 | 1,887 | 5.52 | 2,233 | 6.00 |
| | 거주형태 | 가족함께 | 32,592 | 95.30 | 35,217 | 94.66 |
| | | 친척집 | 480 | 1.40 | 605 | 1.63 |
| 하숙등 | | 976 | 2.85 | 1,040 | 2.80 | |
| 보육시설 | | 152 | 0.44 | 342 | 0.92 | |
| 부모동거 여부 | 부모동거 | 28,988 | 84.76 | 31,337 | 84.23 | |
| | 아버지만 | 1,464 | 4.28 | 1,882 | 5.06 | |
| | 어머니만 동거안함 | 2,629 1,119 | 7.69 3.27 | 2,730 1,255 | 7.34 3.37 | |
| 정책환경 | 금연교육 | 받지않음 | 16,249 | 47.51 | 19,081 | 51.29 |
| | | 받음 | 17,950 | 52.49 | 18,121 | 48.71 |
| | TV 금연홍보 | 본적 있음 | 31,551 | 92.25 | 32,497 | 87.35 |
| | | 본적 없음 | 2,649 | 7.75 | 4,707 | 12.65 |
| | 라디오 금연홍보 | 본적 있음 | 6,312 | 18.46 | 6,529 | 17.55 |
| | | 본적 없음 | 27,888 | 81.54 | 30,675 | 82.45 |
| | 뉴스 등 금연홍보 | 본적 있음 | 13,005 | 38.03 | 14,252 | 38.31 |
| | | 본적 없음 | 21,195 | 61.97 | 22,952 | 61.69 |
| | 인터넷 금연홍보 | 본적 있음 | 9,448 | 27.63 | 11,390 | 30.61 |
| 본적 없음 | | 24,752 | 72.37 | 25,814 | 69.39 | |
| 신문기사 금연홍보 | 본적 있음 | 8,206 | 23.99 | 10,184 | 27.37 | |
| | 본적 없음 | 25,994 | 76.01 | 27,020 | 72.63 | |

주: 1) 현재흡연자(남성청소년 5,980명, 여성청소년 3,038명)를 대상으로 함.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대상자 중 흡연경험이 있는 학생은 전체 28%였고, 이 중 여성청소년은 22.8%, 남성청소년은 32.5%로 응답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12.8가 현재흡연자로 조사되었으며, 성별로는 여성청소년 9.2%, 남성

청소년 16%로 나타났다. 전체청소년 중 매일흡연자는 5.3%였고, 여성청소년의 매일흡연율은 이보다 낮은 3.3%로 나타났다.

현재재흡연자 중 금연의지가 있는 여성청소년 흡연자는 63.5%로 남성청소년의 59.8%보다 높았으며, 흡연경험이 있는 학생 중 금연자는 여성청소년 47%, 남성청소년 34%였다.

〈표 3-8〉 청소년의 성별 흡연경험률, 현재흡연율, 매일흡연율, 금연의지율, 금연율

| | | 여자 | | 남자 | | 전체 | |
|-------|-------|--------|--------|--------|--------|--------|--------|
| | | N | % | N | % | N | % |
| 계 | | 34,200 | 100.00 | 37,204 | 100.00 | 71,404 | 100.00 |
| 흡연경험률 | 핀적있음 | 7,896 | 22.83 | 12,448 | 32.50 | 20,344 | 27.96 |
| | 핀적없음 | 26,303 | 77.17 | 24,755 | 67.50 | 51,058 | 72.04 |
| 현재흡연율 | 흡연함 | 3,038 | 9.16 | 5,980 | 15.99 | 9,018 | 12.78 |
| | 흡연안함 | 31,107 | 90.84 | 31,034 | 84.01 | 62,141 | 87.22 |
| 매일흡연율 | 흡연함 | 1,023 | 3.25 | 2,753 | 7.19 | 3,776 | 5.34 |
| | 흡연안함 | 33,177 | 96.75 | 34,451 | 92.81 | 67,628 | 94.66 |
| 금연의지율 | 의지있음 | 1,297 | 63.47 | 2,619 | 59.76 | 3,916 | 60.96 |
| | 의지없음 | 703 | 36.53 | 1,659 | 40.24 | 2,362 | 39.04 |
| 금연율 | 금연했음 | 1,813 | 46.69 | 2,157 | 34.23 | 3,970 | 38.85 |
| | 금연못했음 | 2,000 | 53.31 | 4,278 | 65.77 | 6,278 | 61.15 |

주: 백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가. 흡연경험률

1) 흡연경험자의 흡연행태

흡연경험이 있는 여성청소년의 흡연시작 시기는 중학교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혹은 그 이전인 경우도 35%가 넘었다. 담배구입 용이성에 대해서는 흡연하는 청소년의 33%가 가능했다고 응답하였다.

〈표 3-9〉 청소년 흡연경험자의 흡연행태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계 | 100.00 | | 100.00 | | 100.0 | |
| 흡연시작시기 | | | | | | |
| 초등학교 | 38.30 | 0.47 | 35.14 | 0.74 | 40.28 | 0.60 |
| 중학교 | 48.92 | 0.48 | 52.71 | 0.78 | 46.56 | 0.61 |
| 고등학교 | 12.77 | 0.34 | 12.15 | 0.58 | 13.16 | 0.42 |
| 흡연량 | | | | | | |
| 반갑 미만 | 97.02 | 0.10 | 98.35 | 0.13 | 95.83 | 0.14 |
| 반갑 이상 | 2.98 | 0.10 | 1.65 | 0.13 | 4.17 | 0.14 |
| 흡연일수 | | | | | | |
| 매일아님 | 94.64 | 0.12 | 96.75 | 0.16 | 92.77 | 0.17 |
| 매일 | 5.36 | 0.12 | 3.25 | 0.16 | 7.23 | 0.17 |
| 담배구입용이 | | | | | | |
| 사려고 한적 없음 | 61.70 | 0.47 | 67.22 | 0.75 | 58.26 | 0.60 |
| 사는것이 불가능 | 4.91 | 0.20 | 4.11 | 0.28 | 5.41 | 0.27 |
| 조금 노력하면 가능 | 18.00 | 0.39 | 16.26 | 0.58 | 19.08 | 0.51 |
| 노력 없이도 가능 | 15.39 | 0.35 | 12.40 | 0.58 | 17.24 | 0.45 |
| 담뱃값 인상태도 | | | | | | |
| 계속 피울 예정 | 30.59 | 0.77 | 27.64 | 1.40 | 32.05 | 0.91 |
| 적게 피울 예정 | 33.33 | 0.76 | 34.08 | 1.40 | 32.95 | 0.91 |
| 금연 예정 | 16.72 | 0.59 | 15.00 | 1.02 | 17.58 | 0.72 |
| 가격에 관계없이 금연 | 19.37 | 0.76 | 23.28 | 1.40 | 17.42 | 0.91 |

주: 백분율은 흡연경험자(남성청소년: 12,448명, 여성청소년: 7,896명)을 분모로 함.

2) 학년별·학업수준별 흡연경험률

학년이 높은 집단, 학업성취도가 낮은 집단에서의 흡연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교 2, 3학년의 여성청소년의 31%가 흡연경험이 있었다.

〈표 3-10〉 청소년 학년별, 학업수준별 흡연경험률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학년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중학교 1학년 | 14.45 | 0.38 | 11.69 | 0.52 | 16.86 | 0.56 |
| 중학교 2학년 | 20.18 | 0.46 | 16.83 | 0.60 | 23.13 | 0.68 |
| 중학교 3학년 | 25.33 | 0.52 | 19.84 | 0.66 | 30.24 | 0.77 |
| 고등학교 1학년 | 34.08 | 0.60 | 28.94 | 0.86 | 38.62 | 0.84 |
| 고등학교 2학년 | 38.77 | 0.59 | 31.68 | 0.82 | 45.06 | 0.83 |
| 고등학교 3학년 | 39.18 | 0.72 | 31.35 | 1.01 | 46.21 | 1.00 |
| 학업수준별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상 | 19.77 | 0.54 | 14.92 | 0.74 | 23.56 | 0.76 |
| 중상 | 22.04 | 0.42 | 18.14 | 0.58 | 25.67 | 0.61 |
| 중 | 25.64 | 0.42 | 20.08 | 0.57 | 30.76 | 0.60 |
| 중하 | 34.45 | 0.52 | 28.30 | 0.69 | 39.94 | 0.75 |
| 하 | 44.83 | 0.75 | 39.89 | 1.12 | 48.96 | 1.00 |

주: 백분율은 각 집단별 흡연경험률임.

3) 건강상태별 흡연경험률

건강상태별로는 스스로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여성청소년 집단, 스스로 비만이라고 응답한 여성청소년 집단,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집단, 그리고 우울감을 느끼거나,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집단에서 흡연경험률이 높았다.

〈표 3-11〉 청소년 건강상태별 흡연경험률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주관적 건강상태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매우 건강함 | 29.75 | 0.59 | 21.28 | 0.81 | 35.11 | 0.79 |
| 건강함 | 27.03 | 0.33 | 20.98 | 0.44 | 32.32 | 0.48 |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보통 | 26.83 | 0.40 | 23.18 | 0.55 | 30.53 | 0.59 |
| 건강하지 못함 | 31.44 | 0.78 | 30.49 | 1.09 | 32.54 | 1.11 |
| 매우 건강하지 못함 | 45.91 | 3.11 | 47.48 | 5.39 | 44.81 | 3.68 |
| 주관적 체형 | p=0.0061 | | p=0.0000 | | p=0.4199 | |
| 매우 다른 편 | 29.84 | 0.91 | 20.00 | 1.39 | 34.02 | 1.13 |
| 다른 편 | 28.16 | 0.46 | 21.18 | 0.68 | 32.63 | 0.61 |
| 정상체중 | 27.29 | 0.34 | 22.38 | 0.43 | 32.67 | 0.52 |
| 과체중인 편 | 27.95 | 0.50 | 24.53 | 0.66 | 31.57 | 0.74 |
| 비만인 편 | 30.26 | 1.00 | 28.19 | 1.70 | 31.74 | 1.22 |
| 스트레스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대단히 많이 느낀다 | 37.69 | 0.64 | 33.68 | 0.83 | 42.53 | 0.97 |
| 많이 느낀다 | 29.67 | 0.41 | 23.96 | 0.52 | 36.16 | 0.64 |
| 조금 느낀다 | 25.16 | 0.35 | 18.87 | 0.48 | 29.95 | 0.49 |
| 별로 느끼지 않는다 | 22.01 | 0.56 | 15.49 | 0.83 | 25.94 | 0.74 |
| 전혀 느끼지 않는다 | 23.88 | 1.61 | 18.85 | 3.82 | 25.72 | 1.69 |
| 우울증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느낀 적이 없다 | 23.28 | 0.28 | 17.46 | 0.39 | 27.69 | 0.39 |
| 느낀 적이 있다 | 34.60 | 0.38 | 29.08 | 0.49 | 40.68 | 0.57 |
| 자살생각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생각 한 적이 없다 | 25.25 | 0.25 | 19.04 | 0.33 | 30.17 | 0.35 |
| 생각 한 적이 있다. | 36.81 | 0.52 | 32.57 | 0.69 | 42.23 | 0.77 |

주: 백분율은 각 집단별 흡연경험률임.

4) 건강행태별 흡연경험률

건강행태별로는 현재 음주하는 집단, 특히 고위험 음주를 하는 집단에서의 흡연경험률이 높았다. 흡입제와 마약을 현재도 사용하는 집단에서는 80%가 넘는 청소년들이 흡연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2〉 청소년 건강행태별 흡연경험률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현음주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비음주자 | 16.81 | 0.23 | 12.93 | 0.28 | 20.48 | 0.34 |
| 음주자 | 54.77 | 0.48 | 49.48 | 0.70 | 58.90 | 0.66 |
| 고위험음주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고위험음주 안함 | 22.38 | 0.23 | 17.84 | 0.31 | 26.57 | 0.34 |
| 고위험음주 함 | 73.67 | 0.71 | 68.39 | 1.10 | 78.08 | 0.93 |
| 중등도 신체활동 | p=0.0000 | | p=0.0001 | | p=0.0000 | |
| 운동안함 | 27.22 | 0.24 | 22.56 | 0.32 | 31.83 | 0.35 |
| 운동함 | 34.20 | 0.71 | 27.68 | 1.33 | 36.20 | 0.83 |
| 격렬한 신체활동 | p=0.0000 | | p=0.0055 | | p=0.6096 | |
| 운동안함 | 26.70 | 0.27 | 22.45 | 0.34 | 32.35 | 0.43 |
| 운동함 | 30.67 | 0.41 | 24.68 | 0.75 | 32.69 | 0.49 |
| 흡입제 사용여부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안마십 | 26.89 | 0.22 | 22.18 | 0.31 | 31.14 | 0.32 |
| 과거에 마십 | 64.55 | 2.13 | 60.42 | 3.94 | 66.30 | 2.52 |
| 마십 | 85.81 | 1.91 | 88.65 | 2.87 | 84.89 | 2.34 |
| 마약사용여부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안먹음 | 27.24 | 0.22 | 22.39 | 0.31 | 31.58 | 0.32 |
| 과거에 먹음 | 76.95 | 3.09 | 76.20 | 6.78 | 77.22 | 3.41 |
| 먹음 | 83.64 | 2.26 | 81.63 | 5.18 | 84.41 | 2.41 |
| 아침식사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매일먹음 | 21.82 | 0.28 | 15.75 | 0.36 | 26.74 | 0.42 |
| 안먹음 | 35.16 | 0.36 | 30.34 | 0.50 | 39.88 | 0.51 |
| 라면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안먹음 | 22.69 | 0.42 | 19.19 | 0.54 | 26.93 | 0.64 |
| 하루미만 | 29.03 | 0.28 | 23.94 | 0.38 | 33.22 | 0.39 |
| 하루이상 | 40.73 | 0.99 | 34.94 | 1.77 | 43.31 | 1.19 |

주: 백분율은 각 집단별 흡연경험률임.

5) 가족환경별 흡연경험률

가족환경별로는 부모의 학력이 낮은 집단, 가정의 경제적 상태가 낮은 집단, 보육시설에 거주하거나,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집단의 청소년들이 흡연경험률이 높았다.

이와 함께, 가정내 간접흡연에 노출된 집단에서 흡연경험률이 유의하게 높았는데, 여성청소년의 경우 가정 내에서 매일 간접흡연에 노출된 집단에서의 흡연경험률이 63%였다.

<표 3-13> 청소년 가족환경별 흡연경험률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가정내 간접흡연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없음 | 16.01 | 0.37 | 23.11 | 0.36 | 19.90 | 0.26 |
| 1~6일 | 28.85 | 0.57 | 43.08 | 0.64 | 36.16 | 0.44 |
| 매일 | 41.09 | 1.04 | 63.29 | 1.09 | 51.55 | 0.77 |
| 아버지 학력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중졸 이하 | 36.63 | 0.78 | 31.64 | 1.10 | 40.86 | 1.09 |
| 고졸 | 30.82 | 0.36 | 25.46 | 0.50 | 36.03 | 0.53 |
| 대졸 이상 | 23.14 | 0.35 | 17.53 | 0.45 | 28.28 | 0.53 |
| 잘 모름 | 28.43 | 0.60 | 26.01 | 0.97 | 29.91 | 0.77 |
| 어머니 학력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중졸 이하 | 36.48 | 0.73 | 31.69 | 1.04 | 40.91 | 1.03 |
| 고졸 | 29.06 | 0.32 | 23.36 | 0.42 | 34.69 | 0.47 |
| 대졸 이상 | 22.42 | 0.44 | 17.76 | 0.57 | 26.63 | 0.65 |
| 잘모름 | 28.52 | 0.59 | 24.77 | 0.98 | 30.57 | 0.74 |
| 가정 경제적 상태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상 | 22.57 | 0.74 | 16.90 | 1.15 | 25.78 | 0.94 |
| 중상 | 23.02 | 0.43 | 16.75 | 0.56 | 28.06 | 0.62 |
| 중 | 26.67 | 0.32 | 21.43 | 0.43 | 31.78 | 0.47 |
| 중하 | 35.70 | 0.62 | 31.37 | 0.82 | 39.94 | 0.93 |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하 | 44.87 | 1.01 | 40.82 | 1.50 | 48.11 | 1.37 |
| 거주형태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가족 함께 | 26.96 | 0.23 | 22.09 | 0.31 | 31.33 | 0.32 |
| 친척집 | 53.00 | 2.52 | 48.64 | 3.60 | 56.02 | 3.40 |
| 하숙 등 | 44.19 | 1.57 | 33.94 | 2.06 | 50.91 | 2.15 |
| 보육시설 | 65.49 | 2.89 | 63.69 | 5.60 | 66.34 | 3.34 |
| 부모 동거여부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부모동거 | 25.51 | 0.23 | 20.41 | 0.32 | 30.08 | 0.34 |
| 아버지만 | 44.10 | 1.29 | 37.00 | 1.77 | 49.31 | 1.78 |
| 어머니만 | 39.01 | 0.95 | 35.21 | 1.25 | 42.45 | 1.45 |
| 동거안함 | 49.29 | 1.38 | 46.61 | 2.05 | 51.37 | 1.86 |

주: 백분율은 각 집단별 흡연경험률임.

6) 정책환경별 흡연경험률

금연광고와 관련하여서는 대부분 본적 없다고 응답한 집단에서의 흡연 경험률이 높았다. 향후 담뭍값 인상 시 금연 의향에 대한 조사 결과 여성 청소년의 경우에는 적게 피우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표 3-14> 청소년 정책환경별 흡연경험률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금연홍보 | | | | | | |
| tv광고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본적없다 | 41.77 | 0.81 | 34.00 | 1.35 | 45.94 | 1.01 |
| 본적있다 | 26.38 | 0.23 | 21.91 | 0.31 | 30.57 | 0.34 |
| radio광고 | p=0.0000 | | p=0.0000 | | p=0.5611 | |
| 본적없다 | 28.39 | 0.25 | 23.59 | 0.35 | 32.59 | 0.36 |
| 본적있다 | 26.03 | 0.51 | 19.51 | 0.69 | 32.11 | 0.74 |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news나 tv프로 | p=0.0000 | | p=0.0005 | | p=0.0054 | |
| 본적없다 | 28.71 | 0.29 | 23.67 | 0.40 | 33.22 | 0.41 |
| 본적있다 | 26.77 | 0.36 | 21.47 | 0.48 | 31.37 | 0.52 |
| 인터넷홍보 | p=0.1705 | | p=0.7427 | | p=0.2882 | |
| 본적없다 | 27.76 | 0.27 | 22.90 | 0.36 | 32.28 | 0.39 |
| 본적있다 | 28.44 | 0.42 | 22.67 | 0.59 | 33.02 | 0.58 |
| 신문기사 | p=0.0020 | | p=0.0001 | | p=0.1092 | |
| 본적없다 | 28.40 | 0.26 | 23.59 | 0.35 | 32.83 | 0.38 |
| 본적있다 | 26.77 | 0.45 | 20.55 | 0.65 | 31.66 | 0.63 |

주: 백분율은 각 집단별 흡연경험률임.

나. 현재 흡연율

1) 현재 흡연자의 흡연행태

청소년의 현재흡연율은 남성청소년 16.0%, 여성청소년 9.2% 정도였는데, 이들 흡연하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중학교 때부터 흡연을 시작하였다. 여성청소년의 경우 하루에 반갑 이상 흡연하는 경우가 흡연자의 18%를 차지하였고, 36%가 매일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구입용이성에 대한 응답결과 흡연 청소년의 66%가 담배구입이 가능했다고 응답하였으며, 담뱃값 인상 시에도 66%의 청소년이 계속 담배를 피우겠다는 응답을 하였는데 남녀 간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표 3-15〉 청소년 현재흡연자의 흡연행태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 100.00 | | 100.00 | | 100.00 | |
| 흡연시작시기 | | | | | | |
| 초등학교 | 27.52 | 0.6920 | 26.65 | 1.177 | 27.96 | 0.8547 |
| 중학교 | 56.72 | 0.7453 | 59.09 | 1.332 | 58.84 | 0.8989 |
| 고등학교 | 16.21 | 0.5829 | 14.27 | 1.123 | 17.20 | 0.6720 |
| 흡연량 | | | | | | |
| 반갑 미만 | 76.12 | 0.6732 | 81.58 | 1.276 | 73.33 | 0.793 |
| 반갑 이상 | 23.88 | 0.6732 | 18.42 | 1.276 | 26.67 | 0.793 |
| 흡연일수 | | | | | | |
| 매일 아님 | 58.05 | 0.7226 | 64.49 | 1.324 | 54.78 | 0.8719 |
| 매일 | 41.95 | 0.7226 | 35.51 | 1.324 | 45.22 | 0.8719 |
| 담배구입용이 | | | | | | |
| 사려고 한적 없음 | 24.45 | 0.62 | 27.83 | 1.13 | 22.73 | 0.73 |
| 사는 것이 불가능 | 9.29 | 0.40 | 8.56 | 0.64 | 9.65 | 0.51 |
| 조금 노력하면 가능 | 35.25 | 0.71 | 35.35 | 1.22 | 35.21 | 0.87 |
| 노력 없이도 가능 | 31.02 | 0.68 | 28.27 | 1.25 | 32.42 | 0.81 |
| 담뱃값 인상태도 | | | | | | |
| 계속 피울 예정 | 31.81 | 0.79 | 29.33 | 1.47 | 33.01 | 0.93 |
| 적게 피울 예정 | 34.66 | 0.79 | 36.15 | 1.47 | 33.94 | 0.93 |
| 금연 예정 | 17.39 | 0.61 | 15.91 | 1.08 | 18.11 | 0.74 |
| 가격에 관계없이 금연 | 16.13 | 0.76 | 18.61 | 1.41 | 14.94 | 0.90 |

주: 백분율은 현재흡연자(남성청소년: 5,980명 여성청소년: 3,038명)을 분모로 함.

2) 학년별·학업수준별 현재흡연률

중·고등학교 여성청소년의 전체흡연율은 9.2%인데 반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여성청소년의 흡연율은 12% 이상이었다. 학업성취도가 “하”에 속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현재흡연율은 20%가 넘었다.

〈표 3-16〉 청소년 학년별, 학업수준별 현재흡연율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학년별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중학교 1학년 | 4.95 | 0.24 | 4.48 | 0.34 | 5.36 | 0.34 |
| 중학교 2학년 | 7.51 | 0.29 | 5.56 | 0.36 | 9.24 | 0.45 |
| 중학교 3학년 | 10.69 | 0.39 | 7.54 | 0.46 | 13.52 | 0.61 |
| 고등학교 1학년 | 16.55 | 0.48 | 12.79 | 0.68 | 19.88 | 0.68 |
| 고등학교 2학년 | 19.36 | 0.48 | 13.35 | 0.61 | 24.70 | 0.71 |
| 고등학교 3학년 | 20.29 | 0.62 | 12.84 | 0.80 | 27.00 | 0.91 |
| 학업수준별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상 | 8.90 | 0.41 | 5.82 | 0.54 | 11.31 | 0.59 |
| 중상 | 8.09 | 0.31 | 5.35 | 0.34 | 10.64 | 0.50 |
| 중 | 10.68 | 0.31 | 7.35 | 0.43 | 13.76 | 0.45 |
| 중하 | 16.67 | 0.40 | 12.00 | 0.50 | 20.83 | 0.60 |
| 하 | 26.00 | 0.66 | 21.50 | 0.94 | 29.77 | 0.91 |

주: 백분율은 각 집단별 현재흡연율임.

3) 건강상태별 현재흡연률

주관적 건강상태별로는 건강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현재흡연율이 높았는데, 남성청소년 보다는 여성청소년의 경우가 특히 그러하였다. 주관적 체형별로는 남성청소년의 경우 마른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현재흡연율이 높은 데 반해, 여성청소년의 경우에는 비만인 편이라고 응답한 집단에서 흡연율이 높았다.

〈표 3-17〉 청소년 건강상태별 현재흡연율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주관적 건강상태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매우 건강함 | 13.76 | 0.47 | 8.03 | 0.58 | 17.41 | 0.67 |
| 건강함 | 12.15 | 0.25 | 7.93 | 0.32 | 15.86 | 0.38 |
| 보통 | 12.26 | 0.31 | 9.78 | 0.40 | 14.79 | 0.47 |
| 건강하지 못함 | 14.25 | 0.58 | 12.74 | 0.78 | 15.99 | 0.86 |
| 매우 건강하지 못함 | 30.04 | 3.03 | 31.80 | 5.56 | 28.79 | 3.31 |
| 주관적 체형 | p=0.0000 | | p=0.0036 | | p=0.0135 | |
| 매우 마른 편 | 15.19 | 0.73 | 8.50 | 0.90 | 18.04 | 0.96 |
| 마른 편 | 13.61 | 0.35 | 9.57 | 0.54 | 16.20 | 0.47 |
| 정상체중 | 12.24 | 0.26 | 8.59 | 0.30 | 16.26 | 0.43 |
| 과체중인 편 | 11.83 | 0.36 | 9.28 | 0.44 | 14.52 | 0.57 |
| 비만인 편 | 14.20 | 0.85 | 12.83 | 1.55 | 15.18 | 0.95 |
| 스트레스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대단히 많이 느낀다 | 20.50 | 0.55 | 16.48 | 0.70 | 25.40 | 0.87 |
| 많이 느낀다 | 13.14 | 0.32 | 9.26 | 0.36 | 17.55 | 0.54 |
| 조금 느낀다 | 10.89 | 0.26 | 6.82 | 0.35 | 13.98 | 0.36 |
| 별로 느끼지 않는다 | 8.85 | 0.40 | 5.19 | 0.60 | 11.06 | 0.53 |
| 전혀 느끼지 않는다 | 13.68 | 1.15 | 8.17 | 1.72 | 15.72 | 1.40 |
| 우울증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느낀 적이 없다 | 9.54 | 0.20 | 5.92 | 0.25 | 12.29 | 0.30 |
| 느낀 적이 있다 | 17.37 | 0.30 | 12.93 | 0.39 | 22.28 | 0.48 |
| 자살생각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생각 한 적이 없다 | 10.97 | 0.18 | 6.91 | 0.22 | 14.20 | 0.28 |
| 생각 한 적이 있다 | 18.68 | 0.43 | 14.94 | 0.56 | 23.50 | 0.67 |

주: 백분율은 각 집단별 현재흡연율임.

4) 건강행태별 현재흡연률

음주집단에서의 현재흡연율이 높았는데, 특히 여성청소년의 경우 고위험 음주 집단에서는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8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또한 흡입제를 사용하는 집단에서는 그렇지 않는 집단에 비해 10배 이상 흡연율이 높았다. 아침식사를 매일하지 않는 집단에서, 라면을 일주일에 하루 이상 먹는 집단에서 흡연율이 높았다.

<표 3-18> 청소년 건강행태별 현재흡연율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현음주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비음주자 | 3.46 | 0.12 | 2.02 | 0.12 | 4.83 | 0.21 |
| 음주자 | 34.75 | 0.46 | 28.15 | 0.67 | 39.92 | 0.63 |
| 고위험음주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고위험음주 안함 | 7.85 | 0.16 | 5.31 | 0.19 | 10.19 | 0.24 |
| 고위험음주 함 | 56.02 | 0.82 | 46.50 | 1.24 | 64.01 | 1.08 |
| 중등도 신체활동 | p=0.0000 | | p=0.0008 | | p=0.0077 | |
| 운동안함 | 12.36 | 0.18 | 9.00 | 0.23 | 15.70 | 0.28 |
| 운동함 | 16.28 | 0.57 | 12.01 | 0.97 | 17.59 | 0.67 |
| 격렬한 신체활동 | p=0.0000 | | p=0.0033 | | p=0.4695 | |
| 운동안함 | 11.99 | 0.20 | 8.87 | 0.25 | 16.16 | 0.34 |
| 운동함 | 14.46 | 0.33 | 10.57 | 0.56 | 15.78 | 0.40 |
| 흡입제 사용여부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안마십 | 11.65 | 0.16 | 8.53 | 0.22 | 14.48 | 0.24 |
| 과거에 마십 | 46.18 | 2.30 | 38.97 | 4.08 | 49.31 | 2.79 |
| 마십 | 84.75 | 1.96 | 85.69 | 3.41 | 84.44 | 2.36 |
| 마약사용여부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안먹음 | 11.94 | 0.17 | 8.67 | 0.22 | 14.87 | 0.25 |
| 과거에 먹음 | 80.17 | 2.68 | 74.12 | 5.98 | 82.39 | 2.96 |
| 먹음 | 78.14 | 2.80 | 75.79 | 6.29 | 79.06 | 3.01 |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아침식사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매일 먹음 | 8.33 | 0.20 | 4.77 | 0.23 | 11.22 | 0.32 |
| 안먹음 | 17.99 | 0.29 | 13.82 | 0.39 | 22.10 | 0.43 |
| 라면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안먹음 | 8.19 | 0.31 | 6.37 | 0.41 | 10.39 | 0.47 |
| 하루미만 | 13.51 | 0.21 | 9.79 | 0.27 | 16.57 | 0.32 |
| 하루이상 | 26.35 | 0.90 | 22.06 | 1.63 | 28.28 | 1.09 |

주: 백분율은 각 집단별 현재흡연율임.

5) 가족환경별 현재흡연률

흡연경험률과 마찬가지로 가정 내 간접흡연 노출에 따른 집단 간 현재 흡연율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청소년의 경우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은 집단에 비해 매일 노출된 집단에서 현재흡연율이 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가족환경별로는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흡연율이 높았는데, 특히 부母的 학력을 “모름”이라고 응답한 집단에서의 흡연율 역시 높았다. 추측컨데 이 집단 역시 부모의 학력이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도 가정의 경제적 상태가 낮은 집단,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 집단, 그리고 부모 모두 함께 살지 않는 집단에서의 흡연율이 높았다.

<표 3-19> 청소년 가족환경별 현재흡연율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가정내 간접흡연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없음 | 6.86 | 0.17 | 4.79 | 0.25 | 8.57 | 0.23 |
| 1-6일 | 18.14 | 0.37 | 12.65 | 0.43 | 23.38 | 0.58 |
| 매일 | 32.19 | 0.74 | 21.92 | 0.92 | 43.75 | 1.13 |

92 여성 흡연과 음주의 요인 및 정책대안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아버지학력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중졸이하 | 17.88 | 0.63 | 14.44 | 0.86 | 20.80 | 0.91 |
| 고졸 | 13.93 | 0.28 | 10.33 | 0.39 | 17.43 | 0.41 |
| 대졸이상 | 10.13 | 0.27 | 5.97 | 0.28 | 13.95 | 0.43 |
| 잘모름 | 14.11 | 0.48 | 12.70 | 0.76 | 14.98 | 0.62 |
| 어머니학력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중졸이하 | 17.36 | 0.58 | 13.76 | 0.78 | 20.69 | 0.86 |
| 고졸 | 12.80 | 0.24 | 9.07 | 0.31 | 16.48 | 0.36 |
| 대졸이상 | 10.12 | 0.34 | 6.43 | 0.40 | 13.46 | 0.54 |
| 잘모름 | 14.62 | 0.48 | 12.32 | 0.76 | 15.88 | 0.62 |
| 가정경제적상태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상 | 11.92 | 0.56 | 7.86 | 0.81 | 14.22 | 0.74 |
| 중상 | 10.27 | 0.30 | 5.78 | 0.35 | 13.88 | 0.47 |
| 중 | 11.52 | 0.25 | 8.26 | 0.33 | 14.70 | 0.37 |
| 중하 | 16.19 | 0.50 | 13.03 | 0.60 | 19.29 | 0.80 |
| 하 | 25.62 | 0.93 | 20.99 | 1.32 | 29.33 | 1.30 |
| 거주형태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가족함께 | 11.82 | 0.17 | 8.53 | 0.22 | 14.77 | 0.24 |
| 친척집 | 38.50 | 2.93 | 30.72 | 3.97 | 44.15 | 4.01 |
| 하숙 등 | 25.26 | 1.53 | 16.36 | 1.70 | 31.23 | 2.21 |
| 보육시설 | 59.15 | 3.06 | 54.40 | 5.79 | 61.48 | 3.54 |
| 부모동거여부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부모동거 | 10.98 | 0.17 | 7.45 | 0.22 | 14.14 | 0.26 |
| 아버지만 | 26.03 | 1.31 | 20.79 | 1.63 | 29.96 | 1.89 |
| 어머니만 | 20.16 | 0.77 | 16.60 | 1.05 | 23.41 | 1.15 |
| 동거안함 | 28.69 | 1.31 | 27.26 | 2.01 | 29.83 | 1.73 |

주: 백분율은 각 집단별 현재흡연율임.

6) 정책환경별 현재흡연률

흡연경험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재흡연율에서도 금연홍보를 본적 없다는 집단에서의 흡연율이 높았다.

〈표 3-20〉 청소년 정책환경별 현재흡연율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금연홍보 | | | | | | |
| tv광고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본적 없다 | 28.51 | 0.79 | 21.31 | 1.31 | 32.42 | 1.00 |
| 본적 있다 | 11.00 | 0.17 | 8.16 | 0.21 | 13.66 | 0.25 |
| radio광고 | p=0.0135 | | p=0.0000 | | p=0.5204 | |
| 본적 없다 | 12.98 | 0.19 | 9.64 | 0.25 | 15.91 | 0.29 |
| 본적 있다 | 11.84 | 0.41 | 7.05 | 0.52 | 16.34 | 0.61 |
| news나 tv프로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본적 없다 | 13.60 | 0.23 | 9.94 | 0.30 | 16.89 | 0.34 |
| 본적 있다 | 11.46 | 0.26 | 7.89 | 0.33 | 14.58 | 0.40 |
| 인터넷홍보 | p=0.9963 | | p=0.8050 | | p=0.2830 | |
| 본적 없다 | 12.77 | 0.21 | 9.12 | 0.26 | 16.17 | 0.31 |
| 본적 있다 | 12.78 | 0.33 | 9.25 | 0.45 | 15.58 | 0.46 |
| 신문기사 | p=0.0000 | | p=0.0001 | | p=0.0000 | |
| 본적 없다 | 13.34 | 0.20 | 9.74 | 0.25 | 16.69 | 0.30 |
| 본적 있다 | 11.22 | 0.36 | 7.42 | 0.50 | 14.22 | 0.51 |

주: 백분율은 각 집단별 현재흡연율임.

다. 매일흡연율

1) 매일흡연자의 흡연행태

청소년 중 매일흡연자는 남성청소년 2,753명, 여성청소년 1,023명으로 남성청소년의 7.2%, 여성청소년의 3.3%였다.

이들 매일흡연자 청소년들은 현재 흡연하는 청소년 전체에 비해 하루에 반갑 이상 흡연하는 비율이 높았고, 담배구입 시 노력 없이도 가능했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향후 담뱃값 인상 시에도 계속 피우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매일 흡연하는 여성청소년의 경우 흡연량이 반갑 이상인 경우가 42%로 현재 흡연자인 여성청소년의 경우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

〈표 3-21〉 청소년 매일흡연자의 흡연행태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계 | 100.00 | | 100.00 | | 100.00 | |
| 흡연시작시기 | | | | | | |
| 초등학교 | 25.87 | 0.98 | 26.41 | 2.12 | 25.65 | 1.08 |
| 중학교 | 59.41 | 1.15 | 61.01 | 2.63 | 58.77 | 1.23 |
| 고등학교 | 14.72 | 0.99 | 12.58 | 2.55 | 15.58 | 0.95 |
| 흡연량 | | | | | | |
| 반갑 미만 | 53.60 | 1.14 | 57.78 | 2.59 | 51.93 | 1.24 |
| 반갑 이상 | 46.40 | 1.14 | 42.22 | 2.59 | 48.07 | 1.24 |
| 담배구입용이 | | | | | | |
| 사려고 한적 없음 | 4.86 | 0.48 | 5.79 | 0.99 | 4.49 | 0.54 |
| 사는것이 불가능 | 6.16 | 0.53 | 5.25 | 0.86 | 6.53 | 0.65 |
| 조금 노력하면 가능 | 37.95 | 1.08 | 41.19 | 2.42 | 36.65 | 1.16 |
| 노력 없이도 가능 | 51.03 | 1.13 | 47.77 | 2.50 | 52.34 | 1.23 |
| 담뱃값 인상태도 | | | | | | |
| 계속 피울 예정 | 40.83 | 1.14 | 36.57 | 2.41 | 42.56 | 1.26 |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적게 피울 예정 | 36.96 | 1.10 | 39.33 | 2.40 | 36.01 | 1.20 |
| 금연 예정 | 15.19 | 0.79 | 14.67 | 1.66 | 15.40 | 0.89 |
| 가격에 관계없이 금연 | 7.01 | 0.82 | 9.43 | 2.44 | 6.03 | 0.57 |

주: 백분율은 매일흡연자(남성청소년: 2,753명 여성청소년: 1,023명)을 분모로 함.

2) 학년별·학업수준별 매일흡연율

현재흡연율과 마찬가지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매일흡연율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청소년의 경우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인 경우 매일 흡연율이 3배 이상 높았다.

<표 3-22> 청소년 학년별, 학업수준별 매일흡연율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학년별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중학교 1학년 | 0.52 | 0.08 | 0.25 | 0.08 | 0.75 | 0.13 |
| 중학교 2학년 | 1.50 | 0.14 | 1.20 | 0.19 | 1.69 | 0.20 |
| 중학교 3학년 | 3.18 | 0.21 | 1.50 | 0.20 | 4.68 | 0.36 |
| 고등학교 1학년 | 7.06 | 0.36 | 5.21 | 0.56 | 8.70 | 0.47 |
| 고등학교 2학년 | 9.95 | 0.36 | 5.88 | 0.45 | 13.56 | 0.54 |
| 고등학교 3학년 | 11.85 | 0.47 | 6.58 | 0.63 | 16.57 | 0.68 |
| 학업수준별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상 | 3.48 | 0.26 | 1.99 | 0.31 | 4.65 | 0.38 |
| 중상 | 2.46 | 0.15 | 1.58 | 0.18 | 3.28 | 0.22 |
| 중 | 4.13 | 0.22 | 2.30 | 0.33 | 5.81 | 0.29 |
| 중하 | 7.07 | 0.28 | 3.96 | 0.34 | 9.84 | 0.43 |
| 하 | 14.00 | 0.54 | 9.98 | 0.76 | 17.36 | 0.76 |

주: 백분율은 각 집단별 매일흡연율임.

3) 건강상태별 매일흡연율

주관적 건강상태가 매우 건강하지 못한 여성청소년 집단의 22%가 매일 흡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주관적 건강상태의 차이에 따른 매일 흡연율의 차이는 특히 여성청소년 집단에서 두드러졌다.

또한, 여성청소년의 경우 스스로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집단,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느끼는 집단, 우울감을 느끼고, 자살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고 응답한 집단에서의 매일흡연율이 높았다.

<표 3-23> 청소년 건강상태별 매일흡연율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주관적 건강상태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매우 건강함 | 5.67 | 0.29 | 2.41 | 0.38 | 7.74 | 0.41 |
| 건강함 | 4.71 | 0.17 | 2.39 | 0.22 | 6.75 | 0.25 |
| 보통 | 5.21 | 0.21 | 3.52 | 0.26 | 6.91 | 0.32 |
| 건강하지 못함 | 7.32 | 0.45 | 6.15 | 0.64 | 8.66 | 0.64 |
| 매우 건강하지 못함 | 17.14 | 2.77 | 21.66 | 5.56 | 13.99 | 2.43 |
| 주관적 체형 | p=0.0000 | | p=0.0815 | | p=0.0166 | |
| 매우 마른 편 | 7.06 | 0.55 | 3.69 | 0.62 | 8.50 | 0.74 |
| 마른 편 | 6.02 | 0.25 | 3.42 | 0.38 | 7.69 | 0.33 |
| 정상체중 | 4.93 | 0.16 | 2.95 | 0.20 | 7.10 | 0.26 |
| 과체중인 편 | 4.66 | 0.23 | 3.18 | 0.26 | 6.22 | 0.39 |
| 비만인 편 | 6.22 | 0.72 | 5.30 | 1.46 | 6.87 | 0.67 |
| 스트레스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대단히 많이 느낀다 | 9.81 | 0.41 | 6.90 | 0.54 | 13.33 | 0.64 |
| 많이 느낀다 | 5.14 | 0.19 | 2.87 | 0.21 | 7.71 | 0.32 |
| 조금 느낀다 | 4.47 | 0.18 | 2.28 | 0.26 | 6.13 | 0.25 |
| 별로 느끼지 않는다 | 3.39 | 0.28 | 2.08 | 0.48 | 4.18 | 0.34 |
| 전혀 느끼지 않는다 | 6.05 | 0.85 | 3.08 | 1.03 | 7.14 | 1.08 |
| 우울증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느낀 적이 없다 | 3.98 | 0.13 | 2.01 | 0.17 | 5.48 | 0.19 |
| 느낀 적이 있다 | 7.26 | 0.21 | 4.68 | 0.28 | 10.10 | 0.33 |
| 자살생각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생각 한 적이 없다 | 4.66 | 0.12 | 2.35 | 0.14 | 6.49 | 0.18 |
| 생각 한 적이 있다. | 7.54 | 0.31 | 5.54 | 0.43 | 10.10 | 0.44 |

주: 백분율은 각 집단별 매일흡연율임.

4) 건강행태별 매일흡연율

음주하는 집단에서 매일 흡연율이 높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고위험음주 여성청소년 집단이 그렇지 않는 집단에 비해 매일흡연률이 16배가량 높았다. 현재 흡입제를 사용하는 여성청소년, 그리고 마약을 사용하는 여성청소년 집단의 경우의 매일흡연율은 남성청소년 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표 3-24〉 청소년 건강행태별 매일흡연율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현음주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비음주자 | 0.83 | 0.06 | 0.43 | 0.07 | 1.22 | 0.09 |
| 음주자 | 16.39 | 0.36 | 10.92 | 0.53 | 20.66 | 0.50 |
| 고위험음주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고위험음주 안함 | 2.52 | 0.09 | 1.37 | 0.13 | 3.58 | 0.14 |
| 고위험음주 함 | 32.44 | 0.78 | 22.46 | 1.12 | 40.77 | 1.09 |
| 중등도신체활동 | p=0.0000 | | p=0.0797 | | p=0.0128 | |
| 운동안함 | 5.11 | 0.12 | 3.19 | 0.16 | 7.01 | 0.18 |
| 운동함 | 7.25 | 0.38 | 4.20 | 0.62 | 8.19 | 0.46 |
| 격렬한 신체활동 | p=0.1381 | | p=0.6880 | | p=0.0000 | |
| 운동안함 | 5.22 | 0.14 | 3.22 | 0.17 | 7.90 | 0.24 |
| 운동함 | 5.59 | 0.20 | 3.38 | 0.38 | 6.33 | 0.24 |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흡입제사용여부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안마심 | 4.91 | 0.11 | 2.97 | 0.15 | 6.66 | 0.17 |
| 과거에 마심 | 12.85 | 1.49 | 6.89 | 2.30 | 15.38 | 1.88 |
| 마심 | 36.49 | 3.16 | 47.68 | 6.58 | 32.89 | 3.43 |
| 마약사용여부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안먹음 | 5.00 | 0.11 | 3.02 | 0.15 | 6.78 | 0.17 |
| 과거에 먹음 | 15.82 | 2.76 | 10.77 | 4.48 | 17.65 | 3.36 |
| 먹음 | 41.23 | 3.42 | 48.30 | 7.25 | 38.53 | 3.77 |
| 아침식사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매일먹음 | 3.12 | 0.12 | 1.37 | 0.13 | 4.54 | 0.18 |
| 안먹음 | 7.94 | 0.21 | 5.24 | 0.29 | 10.59 | 0.31 |
| 라면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안먹음 | 3.28 | 0.23 | 2.33 | 0.32 | 4.43 | 0.31 |
| 하루미만 | 5.57 | 0.14 | 3.32 | 0.17 | 7.43 | 0.21 |
| 하루이상 | 12.50 | 0.70 | 9.84 | 1.34 | 13.68 | 0.82 |

주: 백분율은 각 집단별 매일흡연율임.

5) 가족환경별 매일흡연율

여성청소년의 경우 아버지 학력에 따른 매일흡연율의 차이가 3배 이상 이었고, 거주형태 및 부모 동거여부에 따른 집단 간 매일흡연율의 차이도 컸다.

특히, 가정 내 간접흡연 노출에 따른 매일흡연율의 차이는 남녀모두 컸는데, 가정 내 간접흡연이 없는 집단에 비해 매일 노출되는 집단에서 여성청소년의 경우 6배, 남성청소년의 경우 9배 정도 매일흡연율이 높았다.

〈표 3-25〉 청소년 가족환경별 매일흡연율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가정내 간접흡연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없음 | 2.88 | 0.13 | 1.93 | 0.20 | 3.66 | 0.16 |
| 1~6일 | 5.09 | 0.19 | 2.83 | 0.23 | 7.23 | 0.31 |
| 매일 | 21.08 | 0.64 | 11.26 | 0.68 | 32.12 | 1.07 |
| 아버지학력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중졸이하 | 8.85 | 0.47 | 5.88 | 0.59 | 11.36 | 0.72 |
| 고졸 | 6.13 | 0.20 | 3.87 | 0.30 | 8.31 | 0.28 |
| 대졸이상 | 3.71 | 0.16 | 1.73 | 0.17 | 5.53 | 0.26 |
| 잘 모름 | 5.69 | 0.32 | 4.57 | 0.48 | 6.37 | 0.43 |
| 어머니학력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중졸이하 | 7.73 | 0.40 | 4.65 | 0.45 | 10.58 | 0.64 |
| 고졸 | 5.62 | 0.17 | 3.39 | 0.23 | 7.82 | 0.25 |
| 대졸이상 | 3.37 | 0.19 | 1.78 | 0.25 | 4.81 | 0.28 |
| 잘 모름 | 6.40 | 0.34 | 4.93 | 0.52 | 7.20 | 0.45 |
| 가정경제적상태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상 | 5.08 | 0.39 | 2.66 | 0.52 | 6.45 | 0.54 |
| 중상 | 3.78 | 0.19 | 1.69 | 0.20 | 5.46 | 0.30 |
| 중 | 4.82 | 0.18 | 2.96 | 0.25 | 6.65 | 0.26 |
| 중하 | 6.52 | 0.28 | 4.65 | 0.37 | 8.36 | 0.43 |
| 하 | 13.37 | 0.72 | 8.76 | 0.91 | 17.04 | 1.06 |
| 거주형태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가족함께 | 5.00 | 0.12 | 2.96 | 0.15 | 6.83 | 0.17 |
| 친척집 | 10.20 | 1.62 | 11.27 | 3.27 | 9.45 | 1.49 |
| 하숙 등 | 9.51 | 1.02 | 6.27 | 1.13 | 11.64 | 1.52 |
| 보육시설 | 29.61 | 3.03 | 28.27 | 5.29 | 30.24 | 3.69 |
| 부모동거여부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부모동거 | 4.45 | 0.12 | 2.46 | 0.15 | 6.24 | 0.18 |
| 아버지만 | 10.99 | 0.77 | 8.77 | 1.19 | 12.63 | 1.01 |
| 어머니만 | 8.89 | 0.54 | 6.37 | 0.77 | 11.17 | 0.78 |
| 동거안함 | 14.57 | 1.05 | 12.29 | 1.57 | 16.36 | 1.43 |

주: 백분율은 각 집단별 매일흡연율임.

6) 정책환경별 매일흡연율

여성청소년의 경우 텔레비전광고, 라디오광고 경험에 따른 집단간 매일 흡연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남성청소년의 경우에는 텔레비전광고와 뉴스나 텔레비전 프로그램, 그리고 신문기사 금연 홍보에 따른 집단간 매일흡연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3-26> 청소년 정책환경별 매일흡연율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금연홍보 | | | | | | |
| tv광고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본적 없다 | 9.87 | 0.53 | 7.72 | 1.10 | 11.03 | 0.58 |
| 본적 있다 | 4.82 | 0.12 | 2.88 | 0.14 | 6.64 | 0.18 |
| radio광고 | p=0.0067 | | p=0.0271 | | p=0.1850 | |
| 본적 없다 | 5.49 | 0.13 | 3.43 | 0.18 | 7.30 | 0.19 |
| 본적 있다 | 4.64 | 0.27 | 2.43 | 0.36 | 6.70 | 0.40 |
| news나 tv프로 | p=0.0198 | | p=0.2804 | | p=0.0228 | |
| 본적 없다 | 5.56 | 0.15 | 3.34 | 0.20 | 7.50 | 0.22 |
| 본적 있다 | 4.99 | 0.18 | 3.03 | 0.25 | 6.70 | 0.27 |
| 인터넷홍보 | p=0.8722 | | p=0.6463 | | p=0.5618 | |
| 본적 없다 | 5.35 | 0.14 | 3.29 | 0.18 | 7.26 | 0.20 |
| 본적 있다 | 5.31 | 0.23 | 3.12 | 0.33 | 7.04 | 0.32 |
| 신문기사 | p=0.0177 | | p=0.1995 | | p=0.0060 | |
| 본적 없다 | 5.53 | 0.13 | 3.40 | 0.16 | 7.49 | 0.21 |
| 본적 있다 | 4.83 | 0.25 | 2.78 | 0.41 | 6.43 | 0.31 |

주: 백분율은 각 집단별 매일흡연율임.

라. 금연의지율

1) 금연의지자의 흡연행태

현재흡연자 중 6개월 이내 금연의지가 있는 청소년은 남성청소년 59.8%(2,619명), 여성청소년 63.5%(1,297명)로 나타났다. 이들의 특징으로는, 현재흡연 청소년 전체에 비해 흡연시작시기가 중학교 이후인 경우가 많았고, 매일 흡연하는 비율이 높았다.

흡연량은 남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 집단이 조금은 다른 경향을 보이는데, 여성청소년의 경우 현재흡연자 집단에 비해 하루 반갑 이상 흡연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남성청소년은 현재흡연자 전체에 비해 하루 반갑 이상 흡연하는 비율이 낮았다.

〈표 3-27〉 청소년 금연의지자의 흡연행태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 100.00 | | 100.00 | | 100.00 | |
| 흡연시작시기 | | | | | | |
| 초등학교 | 24.15 | 1.16 | 23.13 | 1.86 | 24.66 | 1.46 |
| 중학교 | 58.65 | 1.22 | 61.32 | 2.25 | 57.29 | 1.44 |
| 고등학교 | 17.20 | 0.95 | 15.54 | 2.09 | 18.04 | 0.98 |
| 흡연량 | | | | | | |
| 반갑 미만 | 78.60 | 1.06 | 80.52 | 2.20 | 77.62 | 1.16 |
| 반갑 이상 | 21.40 | 1.06 | 19.48 | 2.20 | 22.38 | 1.16 |
| 흡연일수 | | | | | | |
| 매일아님 | 53.84 | 1.16 | 57.01 | 2.19 | 52.23 | 1.38 |
| 매일 | 46.16 | 1.16 | 42.99 | 2.19 | 47.77 | 1.38 |
| 담배구입용이 | | | | | | |
| 사려고 한적 없음 | 15.77 | 0.78 | 16.93 | 1.42 | 15.18 | 0.94 |
| 사는 것이 불가능 | 9.56 | 0.63 | 8.09 | 0.92 | 10.31 | 0.82 |

102 여성 흡연과 음주의 요인 및 정책대안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조금 노력하면 가능 | 42.11 | 1.17 | 41.88 | 2.04 | 42.22 | 1.42 |
| 노력 없이도 가능 | 32.56 | 1.11 | 33.09 | 2.21 | 32.29 | 1.23 |
| 담뱃값 인상태도 | | | | | | |
| 계속 피울 예정 | 18.77 | 0.92 | 18.81 | 1.79 | 18.75 | 1.04 |
| 적게 피울 예정 | 39.42 | 1.17 | 39.67 | 2.15 | 39.29 | 1.38 |
| 금연 예정 | 23.57 | 0.96 | 21.41 | 1.71 | 24.68 | 1.15 |
| 가격에 관계없이 금연 | 18.24 | 1.27 | 20.11 | 2.26 | 17.28 | 1.54 |

주: 백분율은 현재흡연자 중 금연의지자(남성청소년: 2,619명 여성청소년: 1,297명)를 분모로 함.

2) 학년별·학업수준별 금연의지율

남성청소년의 경우 저학년일수록 금연의지율이 높은 반면, 여성청소년의 경우 학년 및 학업수준에 따른 경향성이 뚜렷하지 않았다.

<표 3-28> 청소년 학년별, 학업수준별 금연의지율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학년별 | p=0.0001 | | p=0.7794 | | p=0.0000 | |
| 중학교 1학년 | 69.49 | 3.34 | 63.43 | 5.44 | 73.97 | 4.12 |
| 중학교 2학년 | 63.54 | 2.71 | 59.81 | 4.39 | 65.78 | 3.44 |
| 중학교 3학년 | 67.32 | 2.26 | 65.85 | 3.77 | 68.01 | 2.82 |
| 고등학교 1학년 | 62.86 | 1.94 | 62.92 | 3.72 | 62.83 | 2.18 |
| 고등학교 2학년 | 59.38 | 1.55 | 61.28 | 2.95 | 58.59 | 1.82 |
| 고등학교 3학년 | 55.73 | 1.85 | 66.38 | 3.25 | 51.46 | 2.19 |
| 학업수준별 | p=0.0003 | | p=0.2520 | | p=0.0010 | |
| 상 | 56.24 | 2.97 | 61.03 | 6.00 | 54.33 | 3.32 |
| 중상 | 64.78 | 2.33 | 64.41 | 3.87 | 64.93 | 2.88 |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중 | 63.15 | 1.79 | 64.67 | 3.55 | 62.42 | 2.01 |
| 중하 | 63.48 | 1.49 | 67.57 | 2.75 | 61.62 | 1.78 |
| 하 | 54.95 | 1.71 | 58.23 | 2.99 | 53.00 | 2.08 |

주: 백분율은 각 집단별 금연의지율임.

3) 건강상태별 금연의지율

흡연율과는 반대로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건강한 집단일수록 금연의지율이 높았다. 우울감에 따른 집단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3-29〉 청소년 건강상태별 금연의지율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주관적 건강상태 | p=0.0000 | | p=0.0001 | | p=0.0005 | |
| 매우 건강함 | 61.78 | 2.16 | 68.66 | 4.18 | 59.89 | 2.50 |
| 건강함 | 64.08 | 1.27 | 66.90 | 2.46 | 62.98 | 1.48 |
| 보통 | 60.41 | 1.53 | 64.38 | 2.44 | 57.95 | 1.95 |
| 건강하지 못함 | 53.88 | 2.59 | 56.40 | 4.12 | 51.51 | 3.26 |
| 매우 건강하지 못함 | 29.11 | 5.97 | 25.78 | 8.77 | 32.90 | 7.30 |
| 주관적 체형 | p=0.0004 | | p=0.4538 | | p=0.0000 | |
| 매우 마른 편 | 58.35 | 3.02 | 69.16 | 6.12 | 56.03 | 3.39 |
| 마른 편 | 62.14 | 1.65 | 63.63 | 3.78 | 61.62 | 1.79 |
| 정상체중 | 64.22 | 1.29 | 64.99 | 2.18 | 63.82 | 1.60 |
| 과체중인 편 | 53.66 | 1.96 | 58.18 | 3.07 | 50.66 | 2.51 |
| 비만인 편 | 57.93 | 4.05 | 66.59 | 7.06 | 52.30 | 4.12 |
| 스트레스 | p=0.0000 | | p=0.0004 | | p=0.0000 | |
| 매단히 많이 느낀다 | 52.19 | 1.83 | 54.27 | 2.99 | 50.55 | 2.29 |
| 많이 느낀다 | 62.88 | 1.46 | 65.64 | 2.29 | 61.42 | 1.88 |
| 조금 느낀다 | 64.79 | 1.45 | 69.39 | 2.91 | 63.17 | 1.65 |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별로 느끼지 않는다 | 67.72 | 2.66 | 75.04 | 5.97 | 65.72 | 2.90 |
| 전혀 느끼지 않는다 | 41.09 | 5.14 | 49.37 | 14.60 | 39.85 | 5.47 |
| 우울증 | p=0.1686 | | p=0.2237 | | p=0.2450 | |
| 느낀 적이 없다 | 62.30 | 1.32 | 66.12 | 2.67 | 60.98 | 1.52 |
| 느낀 적이 있다 | 59.91 | 1.12 | 62.07 | 1.93 | 58.61 | 1.36 |
| 자살생각 | p=0.0019 | | p=0.0015 | | p=0.0445 | |
| 생각 한 적이 없다 | 62.88 | 1.02 | 68.06 | 1.87 | 61.01 | 1.20 |
| 생각 한 적이 있다. | 57.15 | 1.56 | 57.96 | 2.60 | 56.51 | 1.90 |

주: 백분율은 각 집단별 금연의지율임.

4) 건강행태별 금연의지율

현재 흡연중인 여성청소년의 경우 음주여부에 따른 집단간 금연의지율의 차이가 없었으나, 고위험음주를 하는 집단에서의 금연의지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다. 또한 흡입제나 마약사용에 따른 집단 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3-30〉 청소년 건강행태별 금연의지율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현음주 | p=0.0001 | | p=0.5245 | | p=0.0000 | |
| 비음주자 | 69.45 | 2.24 | 65.98 | 4.53 | 70.79 | 2.51 |
| 음주자 | 59.38 | 0.94 | 62.85 | 1.70 | 57.62 | 1.10 |
| 고위험음주 | p=0.0000 | | p=0.0290 | | p=0.0000 | |
| 고위험음주 안함 | 65.90 | 1.23 | 67.01 | 2.35 | 65.41 | 1.44 |
| 고위험음주 함 | 55.20 | 1.27 | 59.93 | 2.20 | 52.49 | 1.54 |
| 중등도 신체활동 | p=0.2343 | | p=0.6379 | | p=0.1446 | |
| 운동안함 | 60.60 | 0.93 | 63.31 | 1.63 | 59.14 | 1.13 |
| 운동함 | 63.38 | 2.13 | 66.01 | 5.41 | 62.94 | 2.31 |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격렬한 신체활동 | p=0.0063 | | p=0.6446 | | p=0.0003 | |
| 운동안함 | 59.25 | 1.05 | 63.12 | 1.70 | 56.60 | 1.30 |
| 운동함 | 64.24 | 1.47 | 65.14 | 4.01 | 64.06 | 1.58 |
| 흡입제 사용여부 | p=0.0016 | | p=0.0000 | | p=0.2330 | |
| 안마십 | 62.04 | 0.86 | 66.06 | 1.55 | 60.04 | 1.02 |
| 과거에 마십 | 63.91 | 4.40 | 55.97 | 10.63 | 65.99 | 4.79 |
| 마십 | 44.21 | 5.74 | 21.22 | 5.41 | 52.38 | 6.54 |
| 마약 사용여부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안먹음 | 61.87 | 0.87 | 65.33 | 1.55 | 60.18 | 1.05 |
| 과거에 먹음 | 72.77 | 4.48 | 65.79 | 10.78 | 74.21 | 4.82 |
| 먹음 | 33.89 | 4.27 | 22.44 | 6.57 | 39.38 | 5.19 |
| 아침식사 | p=0.1030 | | p=0.5978 | | p=0.0092 | |
| 매일먹음 | 62.98 | 1.53 | 62.02 | 3.18 | 63.28 | 1.73 |
| 안먹음 | 59.96 | 1.03 | 63.94 | 1.79 | 57.68 | 1.23 |
| 라면 | p=0.0514 | | p=0.1622 | | p=0.0286 | |
| 안먹음 | 60.43 | 2.36 | 67.43 | 3.63 | 55.42 | 2.88 |
| 하루미만 | 62.04 | 0.98 | 63.36 | 1.75 | 61.44 | 1.18 |
| 하루이상 | 55.31 | 2.40 | 55.23 | 5.46 | 55.34 | 2.62 |

주: 백분율은 각 집단별 금연의지율임.

5) 가족환경별 금연의지율

남성청소년과는 달리 여성청소년 현재흡연자 집단에서는 가정 내 간접흡연 여부에 따른 금연의지율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가정경제적 상태별로는 경제상태가 가장 낮은 집단의 금연의지율이 유의하게 낮았다.

〈표 3-31〉 청소년 가족환경별 금연의지율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가정내간접흡연 | p=0.0000 | | p=0.2763 | | p=0.0000 | |
| 없음 | 62.11 | 1.55 | 64.41 | 3.24 | 61.08 | 1.70 |
| 1-6일 | 65.53 | 1.32 | 65.54 | 2.29 | 65.52 | 1.61 |
| 매일 | 53.15 | 1.58 | 63.47 | 2.73 | 49.97 | 1.90 |
| 아버지학력 | p=0.0603 | | p=0.1322 | | p=0.0746 | |
| 중졸이하 | 56.14 | 2.28 | 61.49 | 3.85 | 53.15 | 2.80 |
| 고졸 | 63.13 | 1.25 | 66.66 | 2.35 | 61.28 | 1.43 |
| 대졸이상 | 60.20 | 1.68 | 58.14 | 3.09 | 60.96 | 1.98 |
| 잘모름 | 59.78 | 2.27 | 63.96 | 3.80 | 57.61 | 2.79 |
| 어머니학력 | p=0.1919 | | p=0.0576 | | p=0.4965 | |
| 중졸이하 | 58.13 | 2.18 | 57.63 | 3.77 | 58.39 | 2.67 |
| 고졸 | 62.09 | 1.14 | 67.16 | 2.07 | 59.54 | 1.35 |
| 대졸이상 | 62.21 | 2.17 | 61.12 | 4.08 | 62.64 | 2.55 |
| 잘모름 | 57.85 | 2.19 | 57.82 | 4.16 | 57.86 | 2.57 |
| 가정경제적상태 | p=0.0010 | | p=0.0189 | | p=0.0066 | |
| 상 | 58.53 | 3.01 | 67.65 | 5.63 | 55.25 | 3.47 |
| 중상 | 61.79 | 1.88 | 58.19 | 4.07 | 62.79 | 2.12 |
| 중 | 61.91 | 1.36 | 66.83 | 2.53 | 59.38 | 1.57 |
| 중하 | 64.02 | 1.81 | 64.49 | 2.77 | 63.75 | 2.37 |
| 하 | 51.63 | 2.50 | 52.31 | 4.28 | 51.24 | 3.08 |
| 거주형태 | p=0.0574 | | p=0.0638 | | p=0.1548 | |
| 가족함께 | 61.47 | 0.87 | 64.67 | 1.61 | 59.92 | 1.02 |
| 친척집 | 63.58 | 6.75 | 53.13 | 11.09 | 68.29 | 7.37 |
| 하숙 등 | 59.19 | 4.44 | 63.49 | 6.13 | 57.74 | 5.55 |
| 보육시설 | 43.58 | 5.32 | 40.69 | 9.77 | 45.24 | 6.20 |
| 부모동거여부 | p=0.0241 | | p=0.1548 | | p=0.0474 | |
| 부모동거 | 61.89 | 0.97 | 65.64 | 1.85 | 60.23 | 1.13 |
| 아버지만 | 64.78 | 3.25 | 61.11 | 4.95 | 66.51 | 4.08 |
| 어머니만 | 56.75 | 2.50 | 59.80 | 4.40 | 54.89 | 3.02 |
| 동거안함 | 53.70 | 3.26 | 54.33 | 5.39 | 53.27 | 4.07 |

주: 백분율은 각 집단별 금연의지율임.

6) 정책환경별 금연의지율

전체적으로 금연홍보 방법에 따른 금연의지율의 차이는 금연 홍보광고를 접한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 높게 나타나는 등 일반적인 예상과는 반대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표 3-32〉 청소년 정책환경별 금연의지율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금연홍보 | | | | | | |
| tv광고 | p=0.0100 | | p=0.5359 | | p=0.0044 | |
| 본적없다 | 65.34 | 1.92 | 65.67 | 3.90 | 65.22 | 2.19 |
| 본적있다 | 59.73 | 0.94 | 63.00 | 1.69 | 58.03 | 1.13 |
| radio광고 | p=0.0037 | | p=0.0012 | | p=0.2801 | |
| 본적없다 | 62.05 | 0.92 | 65.68 | 1.61 | 60.25 | 1.12 |
| 본적있다 | 55.16 | 2.23 | 49.35 | 4.94 | 57.38 | 2.42 |
| news나 tv프로 | p=0.0843 | | p=0.0009 | | p=0.7365 | |
| 본적없다 | 62.04 | 1.05 | 67.22 | 1.77 | 59.51 | 1.67 |
| 본적있다 | 58.95 | 1.46 | 56.16 | 2.88 | 60.22 | 1.29 |
| 인터넷홍보 | p=0.2172 | | p=0.1702 | | p=0.6517 | |
| 본적없다 | 61.64 | 0.99 | 64.87 | 1.71 | 60.06 | 1.21 |
| 본적있다 | 59.26 | 1.67 | 59.74 | 3.39 | 59.05 | 1.88 |
| 신문기사 | p=0.0798 | | p=0.1028 | | p=0.3859 | |
| 본적없다 | 61.87 | 0.91 | 65.03 | 1.60 | 60.30 | 1.11 |
| 본적있다 | 57.79 | 2.17 | 57.24 | 4.63 | 58.01 | 2.40 |

주: 백분율은 각 집단별 금연의지율임.

마. 금연율

1) 학년·학업수준별 금연율

흡연경험자 중 금연자는 남성청소년 흡연경험자의 34%, 여성청소년 흡연경험자의 47%였다. 학년별로는 현재흡연율과는 반대로 고학년일수록 청소년의 금연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표 3-33〉 청소년 학년별, 학업수준별 금연율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학년별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중학교 1학년 | 58.45 | 2.36 | 58.62 | 3.71 | 58.33 | 3.07 |
| 중학교 2학년 | 53.01 | 1.97 | 56.24 | 2.90 | 50.83 | 2.67 |
| 중학교 3학년 | 46.32 | 1.71 | 54.30 | 2.71 | 41.51 | 2.15 |
| 고등학교 1학년 | 37.19 | 1.44 | 41.38 | 2.38 | 34.52 | 1.83 |
| 고등학교 2학년 | 34.16 | 1.22 | 44.45 | 2.17 | 28.61 | 1.45 |
| 고등학교 3학년 | 27.90 | 1.28 | 39.34 | 2.52 | 22.00 | 1.43 |
| 학업수준별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상 | 38.12 | 2.19 | 44.11 | 4.09 | 35.35 | 2.64 |
| 중상 | 47.25 | 1.71 | 59.66 | 2.53 | 39.67 | 2.13 |
| 중 | 40.51 | 1.36 | 48.11 | 2.55 | 35.53 | 1.59 |
| 중하 | 38.49 | 1.19 | 46.53 | 1.96 | 33.95 | 1.51 |
| 하 | 30.76 | 1.31 | 35.09 | 2.14 | 27.92 | 1.66 |

주: 백분율은 각 집단별 금연율이며, 흡연경험자 중 금연자는 남성청소년: 2,157명 여성청소년: 1,823명임.

2) 건강상태별 금연율

여성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집단에서의 금연율이 높았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금연의지율의 결과와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표 3-34〉 청소년 건강상태별 금연율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주관적 건강상태 | p=0.0000 | | p=0.0000 | | p=0.0015 | |
| 매우 건강함 | 37.00 | 1.66 | 48.22 | 3.25 | 33.01 | 1.92 |
| 건강함 | 39.87 | 0.99 | 49.11 | 1.82 | 35.30 | 1.19 |
| 보통 | 39.35 | 1.20 | 45.84 | 1.88 | 34.48 | 1.53 |
| 건강하지 못함 | 38.11 | 1.95 | 43.79 | 2.87 | 31.59 | 2.57 |
| 매우 건강하지 못함 | 26.89 | 5.15 | 27.80 | 8.22 | 25.83 | 5.75 |
| 주관적 체형 | p=0.0000 | | p=0.2224 | | p=0.0000 | |
| 매우 마른 편 | 35.90 | 2.36 | 39.66 | 5.09 | 35.03 | 2.66 |
| 마른 편 | 35.42 | 1.23 | 41.86 | 2.58 | 32.82 | 1.39 |
| 정상체중 | 39.70 | 1.02 | 49.14 | 1.53 | 33.21 | 1.33 |
| 과체중인 편 | 42.85 | 1.47 | 47.62 | 2.24 | 39.18 | 1.94 |
| 비만인 편 | 37.08 | 2.74 | 43.64 | 5.26 | 31.95 | 3.00 |
| 스트레스 | p=0.0000 | | p=0.0002 | | p=0.0000 | |
| 대단히 많이 느낀다 | 35.35 | 1.38 | 41.78 | 2.05 | 29.20 | 1.89 |
| 많이 느낀다 | 39.81 | 1.14 | 48.46 | 1.71 | 33.99 | 1.49 |
| 조금 느낀다 | 40.20 | 1.11 | 49.18 | 2.24 | 36.23 | 1.29 |
| 별로 느끼지 않는다 | 41.26 | 2.11 | 48.63 | 5.10 | 38.86 | 2.29 |
| 전혀 느끼지 않는다 | 26.62 | 3.94 | 39.19 | 10.2 | 24.27 | 4.25 |
| 우울증 | p=0.0260 | | p=0.0599 | | p=0.0081 | |
| 느낀 적이 없다 | 40.53 | 0.98 | 49.74 | 1.83 | 36.52 | 1.16 |
| 느낀 적이 있다 | 37.45 | 0.87 | 44.90 | 1.39 | 31.91 | 1.11 |
| 자살생각 | p=0.0064 | | p=0.0027 | | p=0.1062 | |
| 생각 한 적이 없다 | 38.68 | 0.79 | 47.75 | 1.42 | 34.57 | 0.94 |
| 생각 한 적이 있다. | 39.19 | 1.14 | 45.36 | 1.74 | 33.32 | 1.52 |

주: 백분율은 각 집단별 금연율임.

3) 건강행태별 금연율

여자청소년의 경우 금연의지율에서는 현음주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볼 수 없었으나, 금연율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음주를 하는 집단 중에서도 고위험음주를 하지 않는 집단에서의 금연율이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표 3-35〉 청소년 건강행태별 금연율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현음주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비음주자 | 63.65 | 1.40 | 72.56 | 1.96 | 58.46 | 1.85 |
| 음주자 | 30.18 | 0.72 | 37.65 | 1.28 | 25.66 | 0.87 |
| 고위험음주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고위험음주 안함 | 48.90 | 0.91 | 85.22 | 1.54 | 43.41 | 1.13 |
| 고위험음주 함 | 21.16 | 0.90 | 28.07 | 1.56 | 16.56 | 1.08 |
| 중등도신체활동 | p=0.0672 | | p=0.1224 | | p=0.0039 | |
| 운동안함 | 38.35 | 0.70 | 46.14 | 1.16 | 33.15 | 0.88 |
| 운동함 | 41.98 | 1.69 | 54.11 | 3.73 | 39.23 | 1.89 |
| 격렬한 신체활동 | p=0.0097 | | p=0.3396 | | p=0.0000 | |
| 운동안함 | 38.22 | 0.79 | 45.90 | 1.23 | 31.56 | 1.04 |
| 운동함 | 40.02 | 1.14 | 50.15 | 2.60 | 37.54 | 1.26 |
| 흡입제사용여부 | p=0.0000 | | p=0.0000 | | p=0.0002 | |
| 안마심 | 40.26 | 0.67 | 47.73 | 1.14 | 35.69 | 0.83 |
| 과거에 마심 | 30.89 | 3.18 | 49.63 | 6.95 | 23.45 | 3.35 |
| 마심 | 17.20 | 2.80 | 14.29 | 4.59 | 18.18 | 3.43 |
| 마약사용여부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안먹음 | 39.90 | 0.67 | 47.77 | 1.13 | 35.14 | 0.83 |
| 과거에 먹음 | 27.23 | 4.39 | 40.49 | 8.72 | 23.73 | 4.95 |
| 먹음 | 16.12 | 2.87 | 9.22 | 4.16 | 19.08 | 3.61 |
| 아침식사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매일먹음 | 44.51 | 1.14 | 55.89 | 1.97 | 39.60 | 1.38 |
| 안먹음 | 35.60 | 0.78 | 42.81 | 1.32 | 30.58 | 0.97 |
| 라면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안먹음 | 47.31 | 1.69 | 51.23 | 2.74 | 44.09 | 2.17 |
| 하루미만 | 38.38 | 0.75 | 47.17 | 1.24 | 33.36 | 0.93 |
| 하루이상 | 25.16 | 1.69 | 26.24 | 3.57 | 24.77 | 1.91 |

주: 백분율은 각 집단별 금연율임.

4) 흡연관련 변수별 금연율

남성청소년의 경우 흡연시작 시기가 빠를수록 금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나 여성청소년은 흡연시작시기에 따른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흡연량으로는 반갑 이상인 집단에서의 금연율이 현저하게 낮았고, 매일 흡연하는 집단 역시 금연율이 매우 낮았다.

〈표 3-36〉 청소년 흡연관련변수별 금연율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흡연시작시기 | p=0.0000 | | p=0.0229 | | p=0.0000 | |
| 초등학교 | 41.18 | 1.35 | 44.29 | 2.18 | 39.62 | 1.72 |
| 중학교 | 39.71 | 0.82 | 48.80 | 1.33 | 33.69 | 1.02 |
| 고등학교 | 31.86 | 1.67 | 42.77 | 3.69 | 26.35 | 1.80 |
| 흡연량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반갑미만 | 44.84 | 0.74 | 51.65 | 1.14 | 40.39 | 0.96 |
| 반갑이상 | 5.64 | 0.75 | 5.80 | 1.80 | 5.59 | 0.79 |
| 흡연일수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매일아님 | 57.82 | 0.84 | 62.97 | 1.18 | 54.18 | 1.14 |
| 매일 | 3.96 | 0.41 | 4.11 | 0.73 | 3.91 | 0.49 |

주: 백분율은 각 집단별 금연율임.

5) 가족환경별 금연율

가족환경별로는 흡연경험과는 반대로 가정내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은 집단에서 금연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학력이 낮은 집단에서 금연율이 낮았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부모 모두 같이 살고 있는 집단에서의 금연율이 높았다.

<표 3-37> 청소년 가족환경별 금연율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가정내 간접흡연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없음 | 44.65 | 1.11 | 53.08 | 2.14 | 39.80 | 1.29 |
| 1-6일 | 40.89 | 1.05 | 47.57 | 1.62 | 36.96 | 1.36 |
| 매일 | 26.65 | 1.19 | 46.69 | 2.11 | 20.86 | 1.40 |
| 아버지학력 | p=0.0000 | | p=0.0000 | | p=0.0016 | |
| 중졸이하 | 30.47 | 1.72 | 36.03 | 2.78 | 26.90 | 2.21 |
| 고졸 | 38.62 | 0.98 | 46.64 | 1.69 | 33.36 | 1.20 |
| 대졸이상 | 42.67 | 1.21 | 53.80 | 2.01 | 37.10 | 1.47 |
| 잘 모름 | 37.11 | 1.71 | 40.33 | 2.93 | 35.29 | 2.10 |
| 어머니학력 | p=0.0083 | | p=0.0003 | | p=0.0228 | |
| 중졸이하 | 34.76 | 1.64 | 44.48 | 2.73 | 28.20 | 2.01 |
| 고졸 | 39.11 | 0.89 | 47.95 | 1.53 | 33.40 | 1.11 |
| 대졸이상 | 42.31 | 1.56 | 51.63 | 2.62 | 37.46 | 1.89 |
| 잘 모름 | 36.49 | 1.68 | 35.43 | 2.94 | 36.96 | 2.03 |
| 가정경제적상태 | p=0.0000 | | p=0.0000 | | p=0.0002 | |
| 상 | 30.58 | 2.44 | 35.98 | 5.37 | 28.40 | 2.61 |
| 중상 | 42.07 | 1.51 | 57.10 | 2.63 | 35.86 | 1.81 |
| 중 | 40.04 | 0.99 | 46.61 | 1.75 | 35.98 | 1.21 |
| 중하 | 40.07 | 1.43 | 47.60 | 2.09 | 34.50 | 1.89 |
| 하 | 30.17 | 1.89 | 35.56 | 3.06 | 26.63 | 2.41 |
| 거주형태 | p=0.0000 | | p=0.0002 | | p=0.0138 | |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가족함께 | 40.02 | 0.67 | 47.98 | 1.16 | 35.23 | 0.83 |
| 친척집 | 27.66 | 4.18 | 36.40 | 6.90 | 22.90 | 4.87 |
| 하숙 등 | 29.90 | 3.11 | 36.11 | 4.87 | 27.52 | 3.84 |
| 보육시설 | 22.47 | 3.78 | 18.80 | 6.24 | 24.42 | 4.71 |
| 부모동거여부 | p=0.0000 | | p=0.0000 | | p=0.0039 | |
| 부모동거 | 41.02 | 0.75 | 50.17 | 1.32 | 35.83 | 0.91 |
| 아버지만 | 32.77 | 2.54 | 37.06 | 3.75 | 30.52 | 3.29 |
| 어머니만 | 32.51 | 1.78 | 38.73 | 2.98 | 28.06 | 2.18 |
| 동거안함 | 31.79 | 2.61 | 34.61 | 3.95 | 29.70 | 3.51 |

주: 백분율은 각 집단별 금연율임.

6) 정책환경별 금연율

텔레비전 광고, 라디오 광고, 뉴스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등에서 금연홍보를 접한 집단에서 금연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앞서 제시한 금연의 지율의 경우 금연광고를 접한 경험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설명하기 힘들었으나, 금연율의 경우 일반적인 기대와 부합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표 3-38〉 청소년 정책환경별 금연율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금연홍보 | | | | | | |
| tv광고 | p=0.0000 | | p=0.0005 | | p=0.0000 | |
| 본적없다 | 30.30 | 1.53 | 35.22 | 2.91 | 28.42 | 1.82 |
| 본적있다 | 40.88 | 0.71 | 48.61 | 1.18 | 35.88 | 0.88 |
| radio광고 | p=0.0023 | | p=0.0006 | | p=0.3683 | |
| 본적없다 | 38.29 | 0.71 | 45.56 | 1.19 | 33.91 | 0.89 |
| 본적있다 | 41.65 | 1.58 | 52.91 | 3.04 | 35.77 | 1.84 |
| news나 tv프로 | p=0.0003 | | p=0.0003 | | p=0.0079 | |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본적없다 | 37.02 | 0.81 | 44.83 | 1.38 | 32.34 | 1.00 |
| 본적있다 | 41.98 | 1.07 | 49.96 | 1.85 | 37.42 | 1.32 |
| 인터넷홍보 | p=0.0102 | | p=0.2948 | | p=0.0017 | |
| 본적없다 | 37.64 | 0.78 | 46.23 | 1.29 | 32.33 | 0.97 |
| 본적있다 | 41.65 | 1.19 | 47.88 | 2.18 | 38.38 | 1.41 |
| 신문기사 | p=0.0000 | | p=0.0907 | | p=0.0000 | |
| 본적없다 | 36.96 | 0.71 | 45.66 | 1.18 | 31.50 | 0.89 |
| 본적있다 | 44.64 | 1.51 | 50.45 | 2.90 | 41.85 | 1.77 |
| 담배구입용이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사려고 한적 없음 | 77.46 | 0.91 | 80.61 | 1.29 | 74.94 | 1.28 |
| 사는것이 불가능 | 26.61 | 2.14 | 29.14 | 3.54 | 25.47 | 2.66 |
| 조금 노력하면 가능 | 19.53 | 0.95 | 23.49 | 1.70 | 17.40 | 1.14 |
| 노력 없이도 가능 | 13.43 | 0.78 | 17.73 | 1.65 | 11.46 | 0.87 |

주: 백분율은 각 집단별 금연율임.

3. 흡연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의 흡연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적요인(인구요인, 건강상태, 건강행태, 학업수준), 사회적요인(가족환경), 문화정책요인(정책환경)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장 큰 범주인 개인적 환경, 사회적 환경, 문화정책적 환경 모두 여성 청소년의 흡연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환경에서는 학년, 건강상태(자살생각여부, 우울증)와 건강행태(흡입제, 음주, 고위험음주, 아침식사여부)가 흡연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강상태의 지표중의 하나인 “주관적건강상태”와 “주관적체격인식”은 흡연경험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사회적 환경에서는 학교환경을 대변하는 학업성취도와 가족환경 중 집에서의 간접흡연경험, 아버지의 학력,

양부모, 또는 한부모와의 동거여부가 흡연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상태와 거주형태는 흡연경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문화정책적환경의 지표인 담배구입용이성 및 텔레비전을 통한 금연홍보접촉도는 모두 흡연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여성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요인들 중 노력하거나 혹은 노력 없이도 담배구입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집단(OR=52.18, OR=35.15)에서 흡연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 정책적 환경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현재 흡입제를 마시는 경우(OR=4.42)와 음주를 하는 경우(OR=2.94)가 흡연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흡연이 건강행태의 주요한 요소인 점을 감안할 때 또 다른 건강행태가 흡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자살생각 및 현재 음주 여부, 아버지 학력 및 부모동거 여부 등의 변수는 남성청소년에 비해 여성청소년들에게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9〉 청소년 흡연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 | | 변수 | Odds Ratio | |
|-----------|----------|-------------|--------------|------------|---------|
| | | | | 여자 | 남자 |
| 개인적 환경 | 인구 | 학년 | 중학교 1학년 | 1.00 | 1.00 |
| | | | 중학교 2학년 | 1.35*** | 1.26*** |
| | | | 중학교 3학년 | 1.58*** | 1.69*** |
| | | | 고등학교 1학년 | 2.1*** | 1.85*** |
| | | | 고등학교 2학년 | 2.18*** | 2.00*** |
| | | | 고등학교 3학년 | 2.36*** | 1.96*** |
| | | | 매우 건강한 편 | 1.00 | 1.00 |
| | 건강 상태 | 주관적 건강상태 | 건강한 편 | 0.90* | 0.92 |
| | | | 보통 | 0.87** | 0.81*** |
| | | | 건강하지 못한 편 | 1.03 | 0.80*** |
| | | |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 | 1.18 | 0.89 |
| | | | 매우 마름 | 1.00 | 1.00 |
| | | 주관적 체격인식 | 마름 | 1.02 | 0.98 |

116 여성 흡연과 음주의 요인 및 정책대안

| | | | 변수 | Odds Ratio | |
|-----------|----------|--------------------|-----------|------------|---------|
| | | | | 여자 | 남자 |
| | | | 보통 | 1.12 | 0.99 |
| | | | 비만 | 1.09 | 1.00 |
| | | | 매우 비만 | 1.09 | 0.93 |
| | | 우울증 | 느낀적 없음 | 1.00 | 1.00 |
| | | | 느낀적 있음 | 1.15*** | 1.22*** |
| | | 자살생각 | 한적 없음 | 1.00 | 1.00 |
| | 한적 있음 | | 1.46*** | 1.20*** | |
| | 건강 행태 | 음주 | 음주안함 | 1.00 | 1.00 |
| | | | 음주함 | 2.94*** | 2.23*** |
| | | 격렬한 신체활동 | 지난주 한적 없음 | 1.00 | 1.00 |
| | | | 지난주 한적 있음 | 1.19*** | 1.08** |
| | | 흡입제 경험 | 마셔본 적 없음 | 1.00 | 1.00 |
| | | | 과거에 마셨음 | 2.94*** | 2.04*** |
| | 아침밥 | 지금도 마심 | 4.42*** | 2.96*** | |
| | | 주 6~7일 먹음 | 1.00 | 1.00 | |
| | | 학업 수준 | 학업성적 | 주 5일 미만 먹음 | 1.47*** |
| 상 | | | | 1.00 | 1.00 |
| 중상 | | | | 1.21** | 1.13* |
| 중 | | | | 1.19** | 1.32*** |
| 중하 | | | | 1.56*** | 1.71*** |
| 사회적 환경 | 가족 환경 | 지난주 가정내 간접흡연 | 하 | 2.05*** | 2.05*** |
| | | | 간접흡연 없음 | 1.00 | 1.00 |
| | | | 6일 미만 | 1.59*** | 1.79*** |
| | | 아버지 학력 | 매일 | 1.96*** | 2.31*** |
| | | | 대졸 이상 | 1.00 | 1.00 |
| | | | 중졸 이하 | 1.23*** | 1.30*** |
| | | | 고졸 | 1.18*** | 1.25*** |
| | | 경제상태 | 학력 모름 | 1.22*** | 1.08 |
| | | | 상 | 1.00 | 1.00 |
| | | | 중상 | 1.04 | 1.10 |
| | | | 중 | 1.04 | 1.12 |
| | | | 중하 | 1.23* | 1.12 |
| 하 | 1.12 | 1.21* | | | |

| | | | 변수 | Odds Ratio | |
|------------------|-------------|-------------|-------------|------------|----------|
| | | | | 여자 | 남자 |
| 가족 환경 (계속) | 거주형태 | | 가족과 함께 거주 | 1.00 | 1.00 |
| | | | 친척집 거주 | 1.29* | 0.93 |
| | | | 하숙, 자취, 기숙사 | 0.98 | 1.22 |
| | | | 보육시설 | 0.79 | 0.85 |
| | 부모동거 여부 | | 부모 모두 동거 | 1.00 | 1.00 |
| | | | 아버지만 동거 | 1.23** | 1.35*** |
| 어머니만 동거 | | | 1.38*** | 1.26*** | |
| | | 부모 모두 동거 안함 | 1.63*** | 1.45*** | |
| 문화 정책 | 담배구매 용이성 | | 담배구입이 불가능 | 1.00 | 1.00 |
| | | | 노력하면 구입 가능 | 52.18*** | 55.38*** |
| | | | 노력없이 쉽게 가능 | 35.15*** | 49.56*** |
| | TV 금연홍보 | | 본적 있음 | 1.00 | 1.00 |
| | | | 본적 없음 | 1.31*** | 1.36*** |
| | 금연교육 | | 교육받음 | 1.00 | 1.00 |
| 교육받은적 없음 | | | 0.85*** | 0.77*** | |

주: *** p<0.01, ** p<0.05, * p<0.1

4. 현재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성청소년의 현재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환경으로는 우울, 자살 생각, 음주, 흡입제 경험 등이었고, 사회적환경으로는 가정 내 간접흡연, 아버지 학력, 부모 동거 여부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정책환경으로서 담배구매의 용이성 금연홍보 접촉도 등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학년의 경우에는 흡연경험에서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흡연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으나, 현재 흡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여성 청소년의 현재흡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흡연경험에서와 마찬가지로 담배 구입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 현재 흡입제를 마시는 경우와 음주하는 경우 등이었으며, 흡연경험과 비교 했을 때 그 영향력은

훨씬 커졌다.

〈표 3-40〉 청소년 현재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 | 변수 | Odds Ratio | | | |
|-----------|-------------|-------------|--------------|---------|---------|---------|
| | | | 여자 | 남자 | | |
| 개인적 환경 | 인구 | 학년 | 중학교 1학년 | 1.00 | 1.00 | |
| | | | 중학교 2학년 | 0.76* | 1.40*** | |
| | | | 중학교 3학년 | 0.98 | 1.67*** | |
| | | | 고등학교 1학년 | 1.11 | 1.55*** | |
| | | | 고등학교 2학년 | 0.97 | 1.41*** | |
| | | | 고등학교 3학년 | 0.84 | 1.44*** | |
| | 건강 상태 | 주관적 건강상태 | 매우 건강한 편 | 1.00 | 1.00 | |
| | | | 건강한 편 | 0.92 | 1.18** | |
| | | | 보통 | 0.93 | 1.03 | |
| | | | 건강하지 못한 편 | 0.96 | 1.05 | |
| | | |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 | 0.88 | 1.16 | |
| | | 주관적 체격인식 | 매우 마름 | 1.00 | 1.00 | |
| | | | 마름 | 1.05 | 0.86 | |
| | | | 보통 | 0.89 | 0.86 | |
| | | | 비만 | 0.83 | 0.82 | |
| | | 우울증 | 우울증 | 매우 비만 | 1.00 | 0.82 |
| | | | | 느낀적 없음 | 1.00 | 1.00 |
| | | | | 느낀적 있음 | 1.28*** | 1.21*** |
| 자살생각 | 자살생각 | 한적 없음 | 1.00 | 1.00 | | |
| | | 한적 있음 | 1.42*** | 1.10 | | |
| 건강 행태 | 음주 | 음주안함 | 1.00 | 1.00 | | |
| | | 음주함 | 6.28*** | 4.44*** | | |
| | 격렬한 신체활동 | 격렬한 신체활동 | 지난주 한적 없음 | 1.00 | 1.00 | |
| | | | 지난주 한적 있음 | 1.29*** | 0.94 | |
| | 흡입계 경험 | 흡입계 경험 | 마셔본 적 없음 | 1.00 | 1.00 | |
| | | | 과거에 마셨음 | 3.04*** | 1.95*** | |

| | | | 변수 | Odds Ratio | | | | |
|------------|----------|-------------|-------------------------|---------------------|------------------|---------|---------|------|
| | | | | 여자 | 남자 | | | |
| 사회적 환경 | 가족 환경 | | 지금도 마심 | 9.81*** | 7.06*** | | | |
| | | | 아침밥 | 주 6~7일 먹음 | 1.00 | 1.00 | | |
| | | | | 주 5일 미만 먹음 | 1.76*** | 1.34*** | | |
| | | 학업 수준 | 학업성적 | 상 | 1.00 | 1.00 | | |
| | | | | 중상 | 0.81 | 1.08 | | |
| | | | | 중 | 1.03 | 1.18 | | |
| | | | | 중하 | 1.52*** | 1.76*** | | |
| | | | | 하 | 2.16*** | 2.23*** | | |
| | | | | 지난주 가정 내 간접흡연 | 간접흡연 없음 | 1.00 | 1.00 | |
| | | | | | 6일 미만 | 1.90*** | 2.03*** | |
| | | | | | 매일 | 2.01*** | 2.29*** | |
| | | | | 아버지 학력 | | 대졸 이상 | 1.00 | 1.00 |
| | | | | | | 중졸 이하 | 1.62*** | 1.06 |
| | | | | | | 고졸 | 1.26** | 1.13 |
| | | | | | | 학력 모름 | 1.44*** | 1.10 |
| 경제상태 | | | | 상 | 1.00 | 1.00 | | |
| | | | | 중상 | 0.84 | 1.08 | | |
| | | | | 중 | 0.90 | 0.97 | | |
| | | | | 중하 | 0.83 | 0.76** | | |
| | | | | 하 | 0.72 | 0.91 | | |
| 거주형태 | | 가족과 함께 거주 | 1.00 | 1.00 | | | | |
| | | 친척집 거주 | 1.74** | 2.47*** | | | | |
| | | 하숙, 자취, 기숙사 | 0.83 | 1.18 | | | | |
| | | 보육시설 | 1.07 | 2.79*** | | | | |
| 부모동거 여부 | | 부모 모두 동거 | 1.00 | 1.00 | | | | |
| | | 아버지만 동거 | 1.56*** | 1.23 | | | | |
| | | 어머니만 동거 | 1.33** | 1.18 | | | | |
| | | 부모 모두 동거 안함 | 1.66*** | 0.82 | | | | |
| 문화 정책 | 정책 환경 | 담배구매 용이성 | 담배구입이 불가능 노력하면 구입 가능 | 1.00 61.11*** | 1.00 63.29*** | | | |

120 여성 흡연과 음주의 요인 및 정책대안

| | | | 변수 | Odds Ratio | |
|------------------|------------------|------------|------------|------------|----------|
| | | | | 여자 | 남자 |
| | | | 노력없이 쉽게 가능 | 84.34*** | 66.20*** |
| 문화 정책 (계속) | 정책 환경 (계속) | TV 금연홍보 | 본적 있음 | 1.00 | 1.00 |
| | | | 본적 없음 | 2.08*** | 2.38*** |
| | 금연교육 | 교육받음 | 1.00 | 1.00 | |
| | | | ·교육받은적 없음 | 0.73*** | 0.76*** |

주: *** p<0.01, ** p<0.05, * p<0.1

5. 금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성청소년의 금연 확률이 높은 집단으로는 개인적 환경으로 비음주군, 격렬한 신체활동군, 매일흡연하지 않는 군, 흡연량이 적은 군 등이었고, 사회적 환경 측면에서는 가정 내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은 군 등이었으며, 정책적 환경으로 금연홍보에 접촉하지 않은 군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 신체활동, 간접흡연 등은 남성청소년이 금연할 확률에 비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1> 청소년 금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 | | 변수 | Odds Ratio | |
|-----------|----------|-------------|----------|------------|------|
| | | | | 여자 | 남자 |
| 개인적 환경 | 인구 | 학년 | 중학교 1학년 | 1.00 | 1.00 |
| | | | 중학교 2학년 | 1.05 | 0.99 |
| | | | 중학교 3학년 | 1.09 | 0.96 |
| | | | 고등학교 1학년 | 1.00 | 1.00 |
| | | | 고등학교 2학년 | 1.36 | 1.13 |
| | | | 고등학교 3학년 | 1.28 | 0.84 |
| | 건강 상태 | 주관적 건강상태 | 매우 건강한 편 | 1.00 | 1.00 |

| | | 변수 | Odds Ratio | | |
|-----------|-------------|--------------|------------|---------|---------|
| | | | 여자 | 남자 | |
| | | 건강한 편 | 1.07 | 0.99 | |
| | | 보통 | 1.11 | 0.99 | |
| | | 건강하지 못한 편 | 1.23 | 1.21 | |
| | |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 | 1.38 | 1.19 | |
| | 주관적 체격인식 | 매우 마름 | 1.00 | 1.00 | |
| | | 마름 | 0.88 | 0.72* | |
| | | 보통 | 1.13 | 0.72** | |
| | | 비만 | 0.95 | 1.05 | |
| | | 매우 비만 | 1.23 | 0.70 | |
| | 우울증 | 느낀적 없음 | 1.00 | 1.00 | |
| | | 느낀적 있음 | 0.93 | 0.95 | |
| | 자살생각 | 한적 없음 | 1.00 | 1.00 | |
| | | 한적 있음 | 1.06 | 1.01 | |
| | 건강 행태 | 음주 | 음주안함 | 1.00 | 1.00 |
| | | | 음주함 | 0.35*** | 0.48*** |
| | | 격렬한 신체활동 | 지난주 한적 없음 | 1.00 | 1.00 |
| 지난주 한적 있음 | | | 1.31** | 1.02 | |
| 흡입계 경험 | | 마셔본 적 없음 | 1.00 | 1.00 | |
| | | 과거에 마셨음 | 1.07 | 0.51*** | |
| | | 지금도 마심 | 1.14 | 0.44** | |
| 아침밥 | | 주 6~7일 먹음 | 1.00 | 1.00 | |
| | | 주 5일 미만 먹음 | 0.82* | 0.81** | |
| 처음흡연 | | 고등학교 | 1.00 | 1.00 | |
| | 초등학교 | 1.40* | 2.50*** | | |
| | 중학교 | 1.44** | 1.71*** | | |
| 흡연일수 | 매일 흡연하지 않음 | 1.00 | 1.00 | | |
| | 매일 흡연함 | 0.04*** | 0.05*** | | |
| 흡연량 | 반갑 미만 | 1.00 | 1.00 | | |
| | 반갑 이상 | 0.30*** | 0.36*** | | |
| 학업 수준 | 학업성적 | 상 | 1.00 | 1.00 | |
| | | 중상 | 1.51 | 0.84 | |

122 여성 흡연과 음주의 요인 및 정책대안

| | | | 변수 | Odds Ratio | |
|-------------|------------|--------------------|-------------|------------|--------|
| | | | | 여자 | 남자 |
| | | | 중 | 0.93 | 0.83 |
| | | | 중하 | 0.90 | 0.83 |
| | | | 하 | 0.79 | 0.84 |
| 사회적 환경 | 가족 환경 | 지난주 가정내 간접흡연 | 간접흡연 없음 | 1.00 | 1.00 |
| | | | 6일 미만 | 0.66*** | 0.88 |
| | | | 매일 | 0.74** | 0.90 |
| | | 아버지 학력 | 대졸 이상 | 1.00 | 1.00 |
| | | | 중졸 이하 | 0.74* | 0.86 |
| | | | 고졸 | 1.10 | 0.92 |
| | | | 학력 모름 | 0.81 | 0.96 |
| | | 경제상태 | 상 | 1.00 | 1.00 |
| | | | 중상 | 2.13** | 1.26 |
| | | | 중 | 1.78** | 1.45** |
| | | | 중하 | 2.16*** | 1.60** |
| | | | 하 | 1.53 | 1.74** |
| | | 거주형태 | 가족과 함께 거주 | 1.00 | 1.00 |
| | | | 친척집 거주 | 0.87 | 0.40** |
| | | | 하숙, 자취, 기숙사 | 0.94 | 0.81 |
| | | | 보육시설 | 0.62 | 0.88 |
| | | 부모동거 여부 | 부모 모두 동거 | 1.00 | 1.00 |
| | | | 아버지만 동거 | 1.04 | 1.13 |
| 어머니만 동거 | 0.70** | | 0.86 | | |
| 부모 모두 동거 안함 | 0.83 | | 1.48* | | |
| 문화 정책 | TV 금연홍보 | 본적 있음 | 1.00 | 1.00 | |
| | | 본적 없음 | 0.70** | 0.61*** | |
| | 금연교육 | 교육받음 | 1.00 | 1.00 | |
| | | 교육받으적 없음 | 0.90 | 1.00 | |

주: *** p<0.01, ** p<0.05, * p<0.1

제3절 성인여성 흡연관련 요인

1. 분석방법

성인여성의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2005년에 실시된 제3기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제3기 국민건강영양조사는 표본추출된 가구 중 총 34,152명(12,001가구)에 대해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하는 19~39세 사이의 성인은 모두 3,078명(여자 1,683명, 남자 1,395명)이었다. 분석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3-42>와 같다.

<표 3-42> 제3기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대상자 일반적 특성

| | | | 남자 | | 여자 | |
|------------------|------|-------|-------|--------|-------|--------|
| | | | 빈도 | 백분율 | 빈도 | 백분율 |
| 전체 ¹⁾ | | | 1,395 | 100.00 | 1,683 | 100.00 |
| 인구 | 연령 | 19~24 | 283 | 20.29 | 383 | 22.76 |
| | | 25~29 | 300 | 21.51 | 370 | 21.98 |
| | | 30~34 | 403 | 28.89 | 470 | 27.93 |
| | | 35~39 | 409 | 29.32 | 460 | 27.33 |
| | 결혼상태 | 미혼 | 686 | 49.25 | 641 | 38.11 |
| | | 유배우 | 687 | 49.32 | 997 | 59.27 |
| | | 기타 | 20 | 1.44 | 44 | 2.62 |
| | 학력 | 고졸미만 | 32 | 2.29 | 66 | 3.92 |
| | | 고졸 | 503 | 36.06 | 735 | 43.67 |
| | | 대졸이상 | 860 | 61.65 | 882 | 52.41 |
| | 직업 | 무직 | 139 | 9.96 | 117 | 6.95 |
| | | 육체노동 | 643 | 46.09 | 356 | 21.15 |
| 비육체노동 | | 432 | 30.97 | 492 | 29.23 | |
| 기타 | | 181 | 12.97 | 718 | 42.66 | |

124 여성 흡연과 음주의 요인 및 정책대안

| | | | 남자 | | 여자 | |
|------------------|--------------------------|---------|-------|-------|-------|-------|
| | | | 빈도 | 백분율 | 빈도 | 백분율 |
| 인구 (계속) | 월평균 가구소득 | ~100만 | 97 | 7.03 | 101 | 6.04 |
| | | 100-200 | 408 | 29.59 | 435 | 26.02 |
| | | 200-300 | 397 | 28.79 | 489 | 29.25 |
| | | 300~ | 477 | 34.59 | 647 | 38.70 |
| 건강상태 | 주관적 건강상태 | 매우 좋음 | 98 | 7.03 | 87 | 5.17 |
| | | 좋음 | 669 | 47.96 | 759 | 45.12 |
| | | 보통 | 530 | 37.99 | 691 | 41.08 |
| | | 나쁨 | 91 | 6.52 | 137 | 8.15 |
| | | 매우 나쁨 | 7 | 0.50 | 8 | 0.48 |
| | 우울감 | 느낀적 있음 | 124 | 8.89 | 262 | 15.57 |
| | | 느낀적 없음 | 1271 | 91.11 | 1421 | 84.43 |
| 자살생각 | 한적 있음 | 134 | 9.61 | 307 | 18.24 | |
| | 한적 없음 | 1261 | 90.39 | 1376 | 81.76 | |
| 건강행태 | 격렬한 신체활동 | 운동안함 | 1129 | 80.93 | 1519 | 90.26 |
| | | 운동함 | 266 | 19.07 | 164 | 9.74 |
| | 흡연시작 연령 ²⁾ | 19세 미만 | 381 | 47.10 | 30 | 36.59 |
| | | 19세 이후 | 428 | 52.90 | 52 | 63.41 |
| | 음주시작 연령 ³⁾ | 19세 미만 | 787 | 60.63 | 476 | 34.27 |
| | | 19세 이후 | 511 | 39.37 | 913 | 65.73 |
| | 흡연량 ²⁾ | 반갑미만 | 140 | 17.31 | 47 | 57.32 |
| | | 한갑미만 | 339 | 41.90 | 27 | 32.93 |
| 한갑이상 | | 330 | 40.79 | 8 | 9.76 | |
| 직장 및 가정 환경 | 직장 | 없다 | 407 | 38.91 | 520 | 63.34 |
| | 간접흡연 | 있다 | 639 | 61.09 | 301 | 36.66 |
| | 가정 내 | 없다 | 1,206 | 86.45 | 1,244 | 73.92 |
| | 간접흡연 | 있다 | 189 | 13.55 | 439 | 26.08 |
| | 가정 내 | 금연 | 807 | 57.85 | 1101 | 65.42 |
| 금연방침 | 흡연가능 | 588 | 42.15 | 582 | 34.58 | |

| | | | 남자 | | 여자 | |
|-----------------|-----------|------|------|-------|------|-------|
| | | | 빈도 | 백분율 | 빈도 | 백분율 |
| 직장 및 가정 환경 (계속) | 직장 내 흡연 | 금연 | 318 | 30.84 | 387 | 47.78 |
| | | 흡연가능 | 713 | 69.16 | 423 | 52.22 |
| | 작업공간 내 흡연 | 금연 | 444 | 42.90 | 561 | 69.00 |
| | | 흡연가능 | 591 | 57.10 | 252 | 31.00 |
| 정책환경 | 캠페인 | 예 | 1332 | 95.48 | 1630 | 96.85 |
| | 경험 | 아니오 | 63 | 4.52 | 53 | 3.15 |

주: 1) 성인보건의식행태조사에 참여한 만19~39세 성인임.
 2) 현재흡연자(남자 809명, 여자 82명)를 대상으로 함.
 3) 현재음주자(남자 1,298명, 여자 1,390명)를 대상으로 함.

19~39세 성인여성의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는 <표 3-43>과 같다.

<표 3-43> 성인여성의 흡연요인 분석에 사용된 변수 및 설명

| 변수 | 설명 |
|--------|------------------------------------|
| 평생흡연율 | 살아오면서 담배를 5갑(100개비) 이상 흡연한 사람의 비율 |
| 현재흡연율 | 현재 흡연하는 사람의 비율 |
| 매일흡연율 | 현재 매일 흡연하는 사람의 비율 |
| 금연시도율 | 지난 1년간 금연을 시도한 사람의 비율 |
| 인구사회요인 | 성,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직업, 소득 |
| 건강상태 |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감, 자살생각 |
| 건강행태 | 음주, 신체활동 |
| 가족환경 | 가정내 간접흡연, 가정내 금연 규칙 |
| 직장환경 | 직장내 간접흡연, 직장내 공공장소 흡연, 직장내 작업공간 흡연 |
| 정책환경 | 금연캠페인 |

2. 대상자의 특성

제3기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성인보건의식행태조사 대상자 중 살아오면서 5갑 이상을 흡연하였다고 응답한 평생흡연율은 15~39세 성인 전체의 41.7%, 여자 7.8%, 남자 73.5%였다. 특히 19~39세 여성의 평생흡연율 7.8%는 남성에 비해 상당히 낮고, 청소년 여학생의 흡연경험율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흡연율은 성인 전체 32.4%, 여자 5.3%, 남자는 57.8%로 나타났다. 현재 흡연자 중 지난 1년 동안 금연을 시도한 사람은 여자는 77.1%, 남자는 66.4%였다.

〈표 3-44〉 성인의 평생흡연율, 현재흡연율, 매일흡연율, 금연시도율

| | | 남자 | | 여자 | | 전체 | |
|-------|------|-------|--------|-------|--------|-------|--------|
| | | N | % | N | % | N | % |
| 계 | | 1,395 | 100.00 | 1,683 | 100.00 | 3,078 | 100.00 |
| 평생흡연율 | 흡연함 | 1,049 | 73.52 | 125 | 7.80 | 1,174 | 41.74 |
| | 흡연안함 | 346 | 26.48 | 1,558 | 92.20 | 1,904 | 58.26 |
| 현재흡연율 | 흡연함 | 809 | 57.84 | 82 | 5.25 | 891 | 32.41 |
| | 흡연안함 | 586 | 42.16 | 1,601 | 94.75 | 2,187 | 67.59 |
| 매일흡연율 | 흡연함 | 757 | 54.19 | 62 | 3.86 | 819 | 29.85 |
| | 흡연안함 | 638 | 45.81 | 1,621 | 96.14 | 2,259 | 70.15 |
| 금연시도율 | 시도함 | 535 | 66.38 | 63 | 77.11 | 598 | 67.22 |
| | 시도안함 | 274 | 33.62 | 19 | 22.89 | 293 | 32.78 |

가. 평생흡연율

1) 평생흡연자의 흡연행태

19~39세 성인 중 흡연경험이 있는 여성의 경우 고교이전에 흡연을 시작한 비율이 11.7%로 남성의 9.7%에 비해 높았다. 흡연경험이 있는 여성들의 흡연량은 하루에 반갑 미만인 경우가 56%로 가장 많았다. 하루에 한갑 이상 흡연하는 경우는 12% 정도였다.

<표 3-45> 성인 평생흡연자의 흡연행태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계 | 100.00 | | 100.00 | | 100.00 | |
| 흡연시작시기 | | | | | | |
| 고교이전 | 9.84 | 0.98 | 11.72 | 3.24 | 9.65 | 1.03 |
| 고교 | 36.00 | 1.52 | 28.66 | 4.42 | 36.73 | 1.63 |
| 고교이후 | 54.15 | 1.58 | 59.62 | 4.78 | 53.61 | 1.67 |
| 흡연량 | | | | | | |
| 반갑 미만 | 20.64 | 1.45 | 56.11 | 6.02 | 17.63 | 1.45 |
| 한갑 미만 | 41.85 | 1.81 | 31.48 | 5.57 | 42.73 | 1.90 |
| 한갑 이상 | 37.51 | 1.76 | 12.40 | 4.53 | 39.64 | 1.86 |

주: 19~39세 분석대상자 중 평생흡연자(남자: 1,049명, 여자: 125명)을 대상으로 함.

2) 인구·사회·경제적 상태별 평생흡연율

남성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평생흡연율도 높았으나, 여성의 경우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볼 수 없었다. 그러나 결혼상태별, 교육수준별, 직업별, 소득별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여성의 경우 고졸 미만인 집단, 육체노동자 집단,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 등 사회경제적 상태가 낮은 집단에서의 평생흡연율이 높았다.

〈표 3-46〉 성인 인구·사회·경제적 상태별 평생흡연율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연령별 | p=0.0000 | | p=0.1163 | | p=0.0000 | |
| 19-24 | 31.85 | 2.02 | 9.25 | 1.64 | 53.51 | 3.18 |
| 25-29 | 44.66 | 2.14 | 9.85 | 1.66 | 75.86 | 2.80 |
| 30-34 | 43.68 | 1.83 | 6.34 | 1.17 | 79.63 | 2.13 |
| 35-39 | 46.43 | 1.83 | 5.91 | 1.23 | 84.08 | 1.87 |
| 결혼상태 | p=0.3078 | | p=0.0000 | | p=0.0000 | |
| 미혼 | 42.06 | 1.50 | 7.89 | 1.15 | 65.66 | 1.99 |
| 유배우 | 41.12 | 1.31 | 6.85 | 0.89 | 83.38 | 1.49 |
| 기타 | 51.65 | 6.60 | 28.43 | 7.19 | 89.67 | 7.09 |
| 교육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고졸미만 | 39.16 | 5.68 | 18.71 | 5.52 | 75.09 | 8.15 |
| 고졸 | 47.49 | 1.56 | 11.70 | 1.29 | 88.39 | 1.61 |
| 대졸이상 | 38.02 | 1.29 | 3.76 | 0.70 | 65.12 | 1.79 |
| 직업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무직 | 48.77 | 3.43 | 12.22 | 3.08 | 70.51 | 4.45 |
| 육체노동 | 62.61 | 1.64 | 15.92 | 2.22 | 83.22 | 1.63 |
| 비육체노동 | 38.39 | 1.75 | 2.47 | 0.69 | 73.65 | 2.28 |
| 기타 | 17.16 | 1.45 | 6.69 | 1.01 | 45.30 | 3.97 |
| 월소득 | p=0.0003 | | p=0.0000 | | p=0.0341 | |
| 100만원 이하 | 44.69 | 3.79 | 18.18 | 3.93 | 65.49 | 5.11 |
| 100~200만원 | 46.99 | 1.88 | 11.07 | 1.65 | 77.10 | 2.22 |
| 200~300만원 | 41.92 | 1.84 | 6.55 | 1.23 | 76.28 | 2.46 |
| 300만원 이상 | 36.58 | 1.60 | 4.87 | 0.96 | 70.11 | 2.30 |

주: 백분율은 각 집단별 평생흡연율임.

3) 건강상태별 평생흡연율

남녀모두 주관적 건강상태가 매우 나쁘다고 응답한 집단에서의 평생흡연율이 가장 높았고, 여성의 경우에는 주관적 체형이 매우 마르거나 매우

비만이라고 응답한 집단에서 흡연 경험이 많았다. 남자에 비해 여자의 경우 우울감이나 자살생각의 여부에 따라 평생흡연율의 차이가 심하였다.

〈표 3-47〉 성인 건강상태별 평생흡연율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주관적 건강상태 | p=0.7999 | | p=0.0519 | | p=0.0185 | |
| 매우 좋음 | 38.92 | 4.03 | 4.54 | 2.29 | 62.16 | 5.62 |
| 좋음 | 41.34 | 1.44 | 6.69 | 1.01 | 71.38 | 1.95 |
| 보통 | 42.27 | 1.55 | 8.19 | 1.12 | 77.60 | 1.98 |
| 나쁨 | 43.31 | 3.69 | 13.28 | 3.35 | 78.18 | 4.90 |
| 매우 나쁨 | 53.96 | 13.22 | 21.89 | 14.27 | 85.86 | 13.17 |
| 주관적 체형 | p=0.0000 | | p=0.0165 | | p=0.3715 | |
| 매우마름 | 50.94 | 6.07 | 15.25 | 6.97 | 71.77 | 7.39 |
| 마름 | 53.83 | 2.39 | 8.37 | 2.34 | 76.96 | 2.69 |
| 보통 | 36.89 | 1.44 | 5.99 | 0.89 | 70.58 | 2.07 |
| 비만 | 40.91 | 1.77 | 8.60 | 1.31 | 75.46 | 2.42 |
| 매우비만 | 42.18 | 4.57 | 16.39 | 4.19 | 72.01 | 7.19 |
| 스트레스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대단히 많이 느낌 | 55.28 | 3.71 | 18.37 | 4.45 | 85.87 | 3.50 |
| 많이 느낌 | 47.23 | 1.85 | 10.50 | 1.46 | 82.19 | 2.12 |
| 조금느낌 | 38.82 | 1.30 | 4.91 | 0.75 | 70.59 | 1.78 |
| 거의 안느낌 | 32.30 | 3.40 | 10.13 | 2.87 | 53.91 | 5.59 |
| 우울증 | p=0.0902 | | p=0.0002 | | p=0.5072 | |
| 있음 | 37.36 | 2.71 | 13.88 | 2.31 | 76.43 | 4.44 |
| 없음 | 42.36 | 1.05 | 6.64 | 0.73 | 73.23 | 1.38 |
| 자살생각 | p=0.6137 | | p=0.0000 | | p=0.0217 | |
| 있음 | 40.52 | 2.58 | 15.76 | 2.31 | 83.33 | 3.81 |
| 없음 | 41.93 | 1.06 | 6.11 | 0.71 | 72.49 | 1.40 |

주: 백분율은 각 집단별 평생흡연율임.

4) 건강행태별 평생흡연율

남녀모두 음주하는 집단에서 평생흡연율이 높았는데,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고위험음주를 하는 집단에 비해 그렇지 않은 집단에서의 평생흡연율이 3배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8〉 성인 건강행태별 평생흡연율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음주경험 | p=0.0000 | | p=0.0282 | | p=0.0000 | |
| 비음주자 | 15.19 | 2.04 | 4.35 | 1.31 | 41.25 | 5.25 |
| 음주자 | 45.26 | 1.06 | 8.51 | 0.82 | 75.83 | 1.34 |
| 고위험음주 | p=0.0000 | | p=0.0000 | | p=0.0029 | |
| 비폭음자 | 23.66 | 1.72 | 3.82 | 0.82 | 66.86 | 3.55 |
| 폭음자 | 53.36 | 1.25 | 11.80 | 1.25 | 77.49 | 1.44 |
| 중등도 신체활동 | p=0.1135 | | p=0.2153 | | p=0.2490 | |
| 운동안함 | 41.03 | 1.08 | 7.39 | 0.76 | 72.81 | 1.46 |
| 운동함 | 45.10 | 2.35 | 9.82 | 2.00 | 76.84 | 3.04 |
| 격렬한 신체활동 | p=0.0000 | | p=0.6609 | | p=0.4033 | |
| 운동안함 | 39.62 | 1.05 | 7.70 | 0.76 | 72.97 | 1.47 |
| 운동함 | 53.86 | 2.63 | 8.71 | 2.28 | 75.82 | 3.00 |

주: 백분율은 각 집단별 평생흡연율임.

5) 가족 및 직장환경별 평생흡연율

직장 혹은 가정 내에서 간접흡연에 노출된 집단에서의 평생흡연율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표 3-49〉 성인 가족 및 직장환경별 평생흡연율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직장 내 간접흡연 | p=0.0000 | | p=0.0090 | | p=0.0095 | |
| 없다 | 39.18 | 1.76 | 6.12 | 1.17 | 74.19 | 2.38 |
| 있다 | 62.22 | 1.70 | 11.96 | 2.10 | 81.55 | 1.66 |
| 직장 공공장소 금연정책 | p=0.0000 | | p=0.0004 | | p=0.612 | |
| 금연 | 39.12 | 2.00 | 4.51 | 1.10 | 74.80 | 2.55 |
| 흡연 | 58.10 | 1.59 | 11.91 | 1.80 | 80.35 | 1.66 |
| 직장 작업공간 금연정책 | p=0.0000 | | p=0.1363 | | p=0.0010 | |
| 금연 | 38.78 | 1.69 | 7.30 | 1.27 | 73.20 | 2.23 |
| 흡연 | 64.65 | 1.77 | 10.74 | 2.06 | 82.54 | 1.76 |
| 가정 내 간접흡연 | p=0.0013 | | p=0.0031 | | p=0.7639 | |
| 없다 | 43.44 | 1.10 | 6.48 | 0.75 | 73.33 | 1.39 |
| 있다 | 35.39 | 2.18 | 11.35 | 1.71 | 74.57 | 3.82 |
| 가정 내 금연규칙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금연 | 32.17 | 1.18 | 3.69 | 0.60 | 62.87 | 1.85 |
| 흡연 | 56.16 | 1.59 | 15.25 | 1.64 | 87.07 | 1.71 |

주: 백분율은 각 집단별 평생흡연율임.

6) 정책환경별 평생흡연율

여성의 경우 금연캠페인 경험에 따른 평생흡연율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0〉 성인 정책환경별 평생흡연율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금연캠페인 | p=0.1505 | | p=0.7633 | | p=0.0025 | |
| 경험있음 | 42.02 | 1.00 | 7.84 | 0.73 | 74.34 | 1.33 |
| 경험없음 | 34.76 | 4.77 | 6.49 | 4.08 | 55.27 | 6.92 |

주: 백분율은 각 집단별 평생흡연율임.

나. 현재 흡연율

1) 현재 흡연자의 흡연행태

성인남성의 현재흡연율은 57.8%, 성인여성의 현재흡연율은 5.3%로 각각 나타났다. 이들 현재흡연자의 경우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흡연을 시작하나, 여성의 경우 고교이전에 흡연을 시작한 비율이 남자에 비해 더 많았다. 흡연량은 여성의 경우 대부분 반갑 미만을 흡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1〉 성인 현재흡연자의 흡연행태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계 | 100.00 | | 100.00 | | 100.00 | |
| 흡연시작시기 | | | | | | |
| 고교이전 | 9.51 | 1.10 | 11.13 | 3.96 | 9.37 | 1.15 |
| 고교 | 37.11 | 1.77 | 27.89 | 5.55 | 37.90 | 1.86 |
| 고교이후 | 53.38 | 1.82 | 60.98 | 5.96 | 52.73 | 1.91 |
| 흡연량 | | | | | | |
| 반갑 미만 | 20.64 | 1.45 | 56.11 | 6.02 | 17.63 | 1.45 |
| 한갑 미만 | 41.85 | 1.81 | 31.48 | 5.57 | 42.73 | 1.90 |
| 한갑 이상 | 37.51 | 1.76 | 12.40 | 4.53 | 39.64 | 1.86 |

주: 백분율은 현재흡연자(남자: 809명, 여자: 82명)의 특성별 분포임.

2) 인구·사회·경제적 상태별 현재 흡연율

성인여성의 경우 연령에 따른 집단간 흡연율의 차이는 없었던 반면 결혼상태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 미혼이나 유배우인 집단에 비해 사별·이혼 등인 집단에서의 흡연율이 높았다. 평생흡연율과

마찬가지로 현재흡연율도 고졸 미만 집단, 육체노동자, 저소득자 등 비교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에서 더 높았다.

〈표 3-52〉 성인 인구·사회·경제적 상태별 현재흡연율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연령별 | p=0.0191 | | p=0.5078 | | p=0.0009 | |
| 19-24 | 27.58 | 1.96 | 6.65 | 1.47 | 47.64 | 3.18 |
| 25-29 | 35.91 | 2.10 | 5.48 | 1.30 | 63.18 | 3.05 |
| 30-34 | 32.48 | 1.75 | 4.24 | 0.91 | 59.68 | 2.62 |
| 35-39 | 33.55 | 1.77 | 4.71 | 1.14 | 60.35 | 2.54 |
| 결혼상태 | p=0.0002 | | p=0.0000 | | p=0.0050 | |
| 미혼 | 35.11 | 1.47 | 5.92 | 1.03 | 55.28 | 2.07 |
| 유배우 | 29.18 | 1.23 | 3.94 | 0.70 | 60.29 | 1.98 |
| 기타 | 49.19 | 6.63 | 24.48 | 6.93 | 89.67 | 7.09 |
| 교육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고졸미만 | 37.06 | 5.68 | 15.93 | 5.31 | 74.16 | 8.20 |
| 고졸 | 39.16 | 1.56 | 8.32 | 1.13 | 74.41 | 2.07 |
| 대졸이상 | 27.62 | 1.20 | 1.90 | 0.51 | 47.95 | 1.85 |
| 직업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무직 | 43.00 | 3.41 | 9.88 | 2.82 | 62.70 | 4.55 |
| 육체노동 | 51.68 | 1.72 | 12.82 | 2.04 | 68.84 | 1.97 |
| 비육체노동 | 25.89 | 1.60 | 1.72 | 0.57 | 49.61 | 2.60 |
| 기타 | 11.92 | 1.27 | 3.07 | 0.72 | 35.70 | 3.78 |
| 월소득 | p=0.0004 | | p=0.0002 | | p=0.0771 | |
| 100만원 이하 | 36.39 | 3.67 | 12.60 | 3.26 | 55.05 | 5.30 |
| 100~200만원 | 37.34 | 1.86 | 7.90 | 1.45 | 62.00 | 2.58 |
| 200~300만원 | 32.25 | 1.76 | 3.80 | 0.95 | 59.90 | 2.70 |
| 300만원 이상 | 27.62 | 1.53 | 3.36 | 0.84 | 53.26 | 2.48 |

주: 백분율은 집단별 현재흡연율임.

3) 건강상태별 현재흡연율

성인 여성의 경우 스트레스를 거의 안 느끼는 집단에 비해 대단히 많이 느끼는 집단에서의 흡연율이 4배 이상 높았고, 자살생각의 유무에 따른 차이도 이와 비슷하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흡연경험률에서도 동일하였다.

〈표 3-53〉 성인 건강상태별 현재흡연율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주관적 건강상태 | p=0.1509 | | p=0.0004 | | p=0.0005 | |
| 매우 좋음 | 29.03 | 3.80 | 2.37 | 1.66 | 47.06 | 5.63 |
| 좋음 | 30.40 | 1.38 | 3.88 | 0.79 | 53.39 | 2.10 |
| 보통 | 34.66 | 1.52 | 5.46 | 0.95 | 64.93 | 2.22 |
| 나쁨 | 36.52 | 3.62 | 12.67 | 3.31 | 64.22 | 5.63 |
| 매우 나쁨 | 32.30 | 12.4 | 21.89 | 14.27 | 42.66 | 19.18 |
| 주관적 체형 | p=0.0000 | | p=0.0079 | | p=0.2346 | |
| 매우 마름 | 39.33 | 5.91 | 15.25 | 6.97 | 53.38 | 8.12 |
| 마름 | 44.03 | 2.41 | 5.82 | 2.09 | 63.48 | 2.98 |
| 보통 | 29.61 | 1.39 | 4.00 | 0.74 | 57.53 | 2.23 |
| 비만 | 28.94 | 1.66 | 5.23 | 1.07 | 54.30 | 2.69 |
| 매우 비만 | 33.16 | 4.36 | 12.50 | 3.70 | 57.06 | 7.43 |
| 스트레스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대단히 많이 느낌 | 49.10 | 3.76 | 17.33 | 4.58 | 75.43 | 4.27 |
| 많이 느낌 | 37.21 | 1.81 | 7.17 | 1.22 | 65.79 | 2.58 |
| 조금 느낌 | 29.41 | 1.24 | 3.09 | 0.59 | 54.08 | 1.92 |
| 거의 안 느낌 | 23.23 | 3.17 | 4.24 | 2.24 | 41.74 | 5.43 |
| 우울증 | p=0.4681 | | p=0.0005 | | p=0.1382 | |
| 있음 | 30.61 | 2.61 | 10.09 | 2.04 | 64.76 | 4.74 |
| 없음 | 32.67 | 1.02 | 4.33 | 0.61 | 57.16 | 1.51 |
| 자살생각 | p=0.4722 | | p=0.0000 | | p=0.0025 | |
| 있음 | 34.08 | 2.51 | 12.38 | 2.12 | 71.61 | 4.37 |
| 없음 | 32.15 | 1.03 | 3.73 | 0.57 | 56.40 | 1.52 |

주: 백분율은 집단별 현재흡연율임.

4) 건강행태별 현재흡연율

건강행태별로는 고위험음주를 하는 여성집단에서의 현재흡연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4배 가까이 높았다. 신체활동에 따른 집단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

〈표 3-54〉 성인 건강행태별 현재흡연율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음주경험 | p=0.0000 | | p=0.0456 | | p=0.0000 | |
| 비음주자 | 10.42 | 1.76 | 2.53 | 1.05 | 29.36 | 4.88 |
| 음주자 | 35.33 | 1.03 | 5.81 | 0.70 | 59.88 | 1.49 |
| 고위험음주 | p=0.0000 | | p=0.0000 | | p=0.0165 | |
| 비폭음자 | 17.79 | 1.56 | 2.20 | 0.63 | 51.72 | 3.75 |
| 폭음자 | 41.90 | 1.26 | 8.34 | 1.09 | 61.39 | 1.61 |
| 중등도 신체활동 | p=0.0240 | | p=0.5747 | | p=0.0228 | |
| 운동안함 | 31.44 | 1.04 | 5.09 | 0.65 | 56.32 | 1.60 |
| 운동함 | 37.02 | 2.31 | 6.03 | 1.64 | 64.90 | 3.30 |
| 격렬한 신체활동 | p=0.0004 | | p=0.4905 | | p=0.8720 | |
| 운동안함 | 30.98 | 1.01 | 5.38 | 0.65 | 57.73 | 1.60 |
| 운동함 | 40.58 | 2.64 | 4.09 | 1.56 | 58.32 | 3.33 |

주: 백분율은 집단별 현재흡연율임.

5) 가족 및 직장환경별 현재흡연율

직장에서 혹은 가정 내에서의 간접흡연 노출에 따른 집단 간 현재흡연율의 차이는 남녀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여성의 경우 가정 내 금연 규칙 여부에 따라 현재흡연율의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55〉 성인 가족 및 직장환경별 현재흡연율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직장 내 간접흡연 | p=0.0000 | | p=0.0156 | | p=0.0003 | |
| 없다 | 28.21 | 1.65 | 4.63 | 1.05 | 53.19 | 2.67 |
| 있다 | 49.83 | 1.78 | 9.49 | 1.89 | 65.34 | 2.02 |
| 직장 공공장소 금연정책 | p=0.0000 | | p=0.0029 | | p=0.0000 | |
| 금연 | 25.57 | 1.82 | 3.57 | 0.99 | 48.26 | 2.99 |
| 흡연 | 47.16 | 1.63 | 9.18 | 1.62 | 65.46 | 1.93 |
| 직장 작업공간 금연정책 | p=0.0000 | | p=0.1161 | | p=0.0000 | |
| 금연 | 27.45 | 1.58 | 5.48 | 1.13 | 51.47 | 2.55 |
| 흡연 | 52.18 | 1.88 | 8.76 | 1.91 | 66.59 | 2.10 |
| 가정 내 간접흡연 | p=0.4226 | | p=0.0044 | | p=0.0075 | |
| 없다 | 32.82 | 1.06 | 4.18 | 0.61 | 55.98 | 1.54 |
| 있다 | 30.90 | 2.12 | 8.14 | 1.52 | 67.98 | 3.97 |
| 가정 내 금연규칙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금연 | 18.67 | 1.01 | 1.48 | 0.37 | 37.19 | 1.83 |
| 흡연 | 53.11 | 1.61 | 12.08 | 1.52 | 84.13 | 1.81 |

주: 백분율은 집단별 현재흡연율임.

6) 정책환경별 현재흡연율

남성의 경우 금연캠페인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흡연율이 더 높았으나, 여성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없었다.

〈표 3-56〉 성인 정책환경별 현재흡연율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금연캠페인 | p=0.2122 | | p=0.3450 | | p=0.0364 | |
| 경험있음 | 32.64 | 0.97 | 5.34 | 0.63 | 58.46 | 1.47 |
| 경험없음 | 26.67 | 4.43 | 2.74 | 1.97 | 44.03 | 6.77 |

주: 백분율은 집단별 현재흡연율임.

다. 매일흡연율

1) 매일흡연자의 흡연행태

현재흡연자 중 매일 흡연하는 성인은 남자 757명, 여자 62명으로 각각 매일흡연율은 54.2%, 3.9%로 나타났다.

이들 매일흡연자들은 현재흡연자 전체 집단에 비해 흡연시작 시기가 고등학교 이전이나 고등학교인 경우가 많았고, 흡연량 또한 반갑 이상인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이러한 차이는 여성에게서 두드러졌다.

<표 3-57> 성인 매일흡연자의 흡연행태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계 | 100.00 | | 100.00 | | 100.00 | |
| 흡연시작시기 | | | | | | |
| 고교이전 | 9.92 | 1.17 | 15.14 | 5.25 | 9.57 | 1.20 |
| 고교 | 37.94 | 1.85 | 31.50 | 6.77 | 38.37 | 1.93 |
| 고교이후 | 52.14 | 1.91 | 53.36 | 7.03 | 52.06 | 1.98 |
| 흡연량 | | | | | | |
| 반갑미만 | 15.72 | 1.37 | 45.75 | 6.89 | 13.72 | 1.37 |
| 한갑 미만 | 43.82 | 1.90 | 37.38 | 6.74 | 44.25 | 1.98 |
| 한갑 이상 | 40.46 | 1.87 | 16.87 | 5.96 | 42.03 | 1.95 |

주: 백분율은 매일흡연자(남자: 757명, 여자: 62명)의 특성별 분포임.

2) 인구·사회·경제적 상태별 매일흡연율

연령별로는 여성의 경우 19~24세 집단에서 현재흡연율(6.7%)과 매일흡연율(6.4%)의 차이가 거의 없게 나타나, 20대 초반 여성의 현재흡연자 대부분은 매일흡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결혼상태에 따

라서도 나타났는데, 미혼인 집단의 현재흡연율(5.9%)과 매일흡연율(5.0%)의 차이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8〉 성인 인구·사회·경제적 상태별 매일흡연율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연령별 | p=0.0904 | | p=0.0305 | | p=0.0043 | |
| 19~24 | 26.08 | 1.94 | 6.39 | 1.45 | 44.95 | 3.17 |
| 25~29 | 32.77 | 2.07 | 3.72 | 1.10 | 58.81 | 3.11 |
| 30~34 | 30.00 | 1.72 | 2.70 | 0.71 | 56.29 | 2.65 |
| 35~39 | 30.46 | 1.72 | 2.71 | 0.78 | 56.25 | 2.59 |
| 결혼상태 | p=0.0003 | | p=0.0000 | | p=0.0025 | |
| 미혼 | 32.58 | 1.45 | 4.98 | 0.96 | 51.63 | 2.08 |
| 유배우 | 26.65 | 1.20 | 2.44 | 0.54 | 56.51 | 2.01 |
| 기타 | 45.21 | 6.66 | 18.06 | 6.37 | 89.67 | 7.09 |
| 교육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고졸미만 | 33.55 | 5.62 | 14.55 | 5.20 | 66.93 | 9.09 |
| 고졸 | 36.76 | 1.54 | 5.47 | 0.90 | 72.52 | 2.12 |
| 대졸이상 | 25.00 | 1.17 | 1.69 | 0.49 | 43.44 | 1.83 |
| 직업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무직 | 41.11 | 3.40 | 8.11 | 2.66 | 60.74 | 4.57 |
| 육체노동 | 48.79 | 1.73 | 9.23 | 1.74 | 66.26 | 2.01 |
| 비육체노동 | 22.71 | 1.54 | 0.93 | 0.42 | 44.09 | 2.59 |
| 기타 | 10.19 | 1.18 | 2.44 | 0.65 | 31.01 | 3.61 |
| 월소득 | p=0.0005 | | p=0.0004 | | p=0.0875 | |
| 100만원 이하 | 34.87 | 3.65 | 11.16 | 3.12 | 53.46 | 5.30 |
| 100~200만원 | 34.61 | 1.84 | 5.40 | 1.20 | 59.08 | 2.62 |
| 200~300만원 | 29.35 | 1.72 | 3.09 | 0.87 | 54.86 | 2.73 |
| 300만원 이상 | 25.38 | 1.50 | 2.22 | 0.70 | 49.86 | 2.49 |

주: 백분율은 집단별 매일흡연율임.

3) 건강상태별 매일흡연율

건강상태별 매일흡연율은 현재흡연율과 비슷한 양상이었다. 다만, 여성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매우 좋은 집단과 스트레스를 거의 안 느낀다고 응답한 집단의 경우 현재흡연율과 매일흡연율은 가장 낮지만, 현재흡연율과 매일흡연율이 동일하여 흡연하는 여성 모두가 매일 흡연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59> 성인 건강상태별 매일흡연율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주관적 건강상태 | p=0.1202 | | p=0.0183 | | p=0.0001 | |
| 매우 좋음 | 28.13 | 3.78 | 2.37 | 1.66 | 45.54 | 5.61 |
| 좋음 | 27.58 | 1.35 | 3.26 | 0.74 | 48.65 | 2.11 |
| 보통 | 32.22 | 1.50 | 3.56 | 0.76 | 61.93 | 2.25 |
| 나쁨 | 33.92 | 3.57 | 9.33 | 2.84 | 62.47 | 5.66 |
| 매우 나쁨 | 25.73 | 11.61 | 8.72 | 8.53 | 42.66 | 19.18 |
| 주관적 체형 | p=0.0000 | | p=0.0062 | | p=0.1117 | |
| 매우마름 | 37.99 | 5.87 | 15.25 | 6.97 | 51.26 | 8.09 |
| 마름 | 41.80 | 2.40 | 4.39 | 1.85 | 60.84 | 3.02 |
| 보통 | 27.27 | 1.36 | 3.09 | 0.66 | 53.64 | 2.25 |
| 비만 | 25.87 | 1.61 | 3.40 | 0.85 | 49.90 | 2.70 |
| 매우비만 | 29.66 | 4.26 | 8.64 | 3.09 | 53.98 | 7.42 |
| 스트레스 | p=0.0000 | | p=0.0001 | | p=0.0000 | |
| 대단히 많이느낌 | 45.28 | 3.77 | 12.05 | 4.00 | 72.82 | 4.42 |
| 많이 느낌 | 34.56 | 1.79 | 5.50 | 1.05 | 62.21 | 2.63 |
| 조금느낌 | 26.78 | 1.21 | 2.06 | 0.48 | 49.94 | 1.93 |
| 거의 안느낌 | 22.48 | 3.15 | 4.24 | 2.24 | 40.25 | 5.40 |
| 우울증 | p=0.2881 | | p=0.0158 | | p=0.1242 | |
| 있음 | 27.26 | 2.53 | 6.76 | 1.71 | 61.38 | 4.80 |
| 없음 | 30.22 | 1.00 | 3.31 | 0.53 | 53.48 | 1.52 |
| 자살생각 | p=0.5214 | | p=0.0000 | | p=0.0012 | |
| 있음 | 31.32 | 2.48 | 9.57 | 1.92 | 68.94 | 4.43 |
| 없음 | 29.63 | 1.01 | 2.64 | 0.48 | 52.64 | 1.53 |

주: 백분율은 집단별 매일흡연율임.

4) 건강행태별 매일흡연율

여성의 경우 신체활동에 따른 매일흡연율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음주하는 집단 특히 고위험음주 집단에서의 매일흡연율의 차이를 볼 수 있었다.

〈표 3-60〉 성인 건강행태별 매일흡연율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음주경험 | p=0.0000 | | p=0.0902 | | p=0.0000 | |
| 비음주자 | 9.35 | 1.69 | 1.80 | 0.92 | 27.49 | 4.80 |
| 음주자 | 32.57 | 1.02 | 4.28 | 0.60 | 56.10 | 1.50 |
| 고위험음주 | p=0.0000 | | p=0.0001 | | p=0.0090 | |
| 비폭음자 | 15.89 | 1.49 | 1.54 | 0.54 | 47.12 | 3.74 |
| 폭음자 | 38.82 | 1.25 | 6.20 | 0.94 | 57.76 | 1.63 |
| 중등도 신체활동 | p=0.0276 | | p=0.9722 | | p=0.0177 | |
| 운동안함 | 28.92 | 1.02 | 3.85 | 0.57 | 52.60 | 1.61 |
| 운동함 | 34.27 | 2.28 | 3.90 | 1.37 | 61.58 | 3.35 |
| 격렬한 신체활동 | p=0.0006 | | p=0.7207 | | p=0.9495 | |
| 운동안함 | 28.48 | 0.99 | 3.92 | 0.56 | 54.15 | 1.61 |
| 운동함 | 37.68 | 2.61 | 3.35 | 1.38 | 54.38 | 3.37 |

주: 백분율은 집단별 매일흡연율임.

5) 가족 및 직장환경별 매일흡연율

가정이나 직장에서 간접흡연에 노출된 집단, 그리고 가정내 금연규칙이 없는 집단에서 매일흡연율이 높았는데, 특히 이러한 차이는 여성집단에서 크게 나타났다.

〈표 3-61〉 성인 가족 및 직장환경별 매일흡연율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직장 내 간접흡연 | p=0.0000 | | p=0.0334 | | p=0.0002 | |
| 없다 | 25.47 | 1.61 | 3.11 | 0.84 | 49.15 | 2.68 |
| 있다 | 46.52 | 1.79 | 6.63 | 1.61 | 61.85 | 2.07 |
| 직장 공공장소 금연정책 | p=0.0000 | | p=0.0051 | | p=0.0000 | |
| 금연 | 22.19 | 1.74 | 2.18 | 0.78 | 42.82 | 2.98 |
| 흡연 | 44.56 | 1.63 | 6.55 | 1.36 | 62.87 | 1.96 |
| 직장 작업공간 금연정책 | p=0.0000 | | p=0.6389 | | p=0.0000 | |
| 금연 | 24.75 | 1.54 | 4.21 | 1.00 | 47.21 | 2.56 |
| 흡연 | 49.10 | 1.89 | 4.98 | 1.32 | 63.74 | 2.14 |
| 가정 내 간접흡연 | p=0.5700 | | p=0.0011 | | p=0.0013 | |
| 없다 | 30.14 | 1.04 | 3.17 | 0.53 | 51.94 | 1.55 |
| 있다 | 28.80 | 2.10 | 5.71 | 1.31 | 66.43 | 3.99 |
| 가정 내 금연규칙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금연 | 16.03 | 0.95 | 1.08 | 0.31 | 32.15 | 1.77 |
| 흡연 | 50.67 | 1.62 | 8.90 | 1.33 | 82.23 | 1.86 |

주: 백분율은 집단별 매일흡연율임.

6) 정책환경별 매일흡연율

여성의 경우 금연캠페인 경험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2〉 성인 정책환경별 매일흡연율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금연캠페인 | p=0.3393 | | p=0.3799 | | p=0.0876 | |
| 경험 있음 | 30.02 | 0.95 | 3.93 | 0.54 | 54.70 | 1.48 |
| 경험 없음 | 25.53 | 4.39 | 1.69 | 1.68 | 42.82 | 6.75 |

주: 백분율은 집단별 매일흡연율임.

라. 금연시도율

1) 금연시도자의 흡연행태

남성 흡연자의 66.4%, 여성흡연자의 77.1%가 금연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금연시도자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후 흡연을 시작한 경우가 많았고, 흡연량도 하루에 한갑 미만인 경우가 대다수였다.

〈표 3-63〉 금연시도자의 흡연행태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흡연시작시기 | | | | | | |
| 고교이전 | 10.10 | 1.42 | 13.32 | 4.94 | 9.78 | 1.48 |
| 고교 | 35.42 | 2.16 | 25.98 | 5.95 | 37.45 | 2.29 |
| 고교이후 | 53.49 | 2.23 | 60.70 | 6.70 | 52.77 | 2.36 |
| 흡연량 | | | | | | |
| 반갑 미만 | 24.34 | 1.89 | 60.27 | 6.78 | 20.80 | 1.91 |
| 한갑 미만 | 44.66 | 2.22 | 29.05 | 6.38 | 45.21 | 2.35 |
| 한갑 이상 | 30.99 | 2.07 | 10.69 | 4.43 | 33.00 | 2.21 |

주: 백분율은 현재흡연자 중 금연시도자(남자: 535명, 여자: 63명)에 대한 분포임.

2) 인구·사회·경제적 상태별 금연시도율

남성의 경우 교육수준별, 직업별 집단 간 금연시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여성의 경우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집단 간 금연 시도율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표 3-64〉 인구·사회·경제적 상태별 금연시도율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연령별 | p=0.0175 | | p=0.5517 | | p=0.0203 | |
| 19-24 | 75.09 | 3.72 | 79.09 | 10.38 | 74.56 | 3.99 |
| 25-29 | 68.29 | 3.50 | 86.57 | 7.47 | 66.87 | 3.71 |
| 30-34 | 68.01 | 3.16 | 65.62 | 10.26 | 68.18 | 3.30 |
| 35-39 | 59.10 | 3.25 | 74.44 | 11.71 | 57.99 | 3.38 |
| 결혼상태 | p=0.9626 | | p=0.4658 | | p=0.5213 | |
| 미혼 | 67.06 | 2.51 | 78.32 | 6.55 | 66.23 | 2.65 |
| 유배우 | 67.55 | 2.38 | 72.06 | 9.14 | 67.19 | 2.46 |
| 기타 | 65.01 | 9.49 | 91.11 | 8.62 | 53.34 | 12.26 |
| 교육 | p=0.1210 | | p=0.6309 | | p=0.0630 | |
| 고졸미만 | 52.31 | 10.27 | 64.35 | 19.64 | 47.77 | 12.05 |
| 고졸 | 65.50 | 2.53 | 79.72 | 5.55 | 63.68 | 2.75 |
| 대졸이상 | 69.98 | 2.34 | 76.44 | 10.77 | 69.77 | 2.39 |
| 직업 | p=0.0036 | | p=0.5797 | | p=0.0116 | |
| 무직 | 64.01 | 5.04 | 73.46 | 12.27 | 63.12 | 5.38 |
| 육체노동 | 63.73 | 2.43 | 73.01 | 8.08 | 62.96 | 2.54 |
| 비육체노동 | 69.58 | 3.27 | 76.21 | 14.68 | 69.35 | 3.35 |
| 기타 | 84.54 | 4.05 | 88.52 | 6.88 | 83.62 | 4.72 |
| 월소득 | p=0.5798 | | p=0.7237 | | p=0.4532 | |
| 100만원 이하 | 71.67 | 5.68 | 73.87 | 11.69 | 71.27 | 6.37 |
| 100~200만원 | 66.30 | 3.12 | 78.60 | 7.86 | 64.98 | 3.34 |
| 200~300만원 | 69.03 | 3.07 | 68.20 | 13.35 | 69.08 | 3.15 |
| 300만원 이상 | 64.00 | 3.19 | 84.34 | 8.56 | 62.65 | 3.34 |

주: 백분율은 집단별 금연시도율임.

3) 건강상태별 금연시도율

여성의 경우 건강상태별 집단간 차이가 없었고, 남성의 경우에는 매우 비만인 집단의 경우 금연시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3-65〉 건강상태별 금연시도율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주관적 건강상태 | p=0.6426 | | p=0.6527 | | p=0.2092 | |
| 매우 좋음 | 62.60 | 7.88 | 100.00 | 0.00 | 61.32 | 8.07 |
| 좋음 | 67.26 | 2.63 | 74.76 | 9.89 | 66.79 | 2.72 |
| 보통 | 68.30 | 2.57 | 72.18 | 8.11 | 67.96 | 2.70 |
| 나쁨 | 66.54 | 5.90 | 86.72 | 7.71 | 61.92 | 6.85 |
| 매우 나쁨 | 33.79 | 20.95 | 100.00 | 0.00 | 0.00 | 0.00 |
| 주관적 체형 | p=0.3288 | | p=0.1917 | | p=0.0887 | |
| 매우마름 | 64.30 | 9.08 | 75.52 | 21.54 | 62.44 | 9.92 |
| 마름 | 62.10 | 3.77 | 100.00 | 0.00 | 60.33 | 3.87 |
| 보통 | 69.39 | 2.57 | 68.63 | 8.40 | 69.45 | 2.70 |
| 비만 | 70.01 | 3.17 | 71.25 | 10.85 | 69.88 | 3.32 |
| 매우비만 | 60.47 | 7.84 | 94.26 | 5.73 | 51.90 | 9.24 |
| 스트레스 | p=0.1868 | | p=0.4324 | | p=0.0951 | |
| 대단히 많이느낌 | 63.18 | 5.38 | 63.92 | 15.13 | 63.04 | 5.73 |
| 많이 느낌 | 69.27 | 2.86 | 78.71 | 6.95 | 68.30 | 3.07 |
| 조금느낌 | 68.34 | 2.38 | 78.90 | 7.58 | 67.78 | 2.47 |
| 거의 안느낌 | 53.83 | 8.03 | 100.00 | 0.00 | 49.26 | 8.27 |
| 우울증 | p=0.2956 | | p=0.5125 | | p=0.2226 | |
| 있음 | 62.31 | 5.16 | 71.96 | 10.33 | 59.80 | 5.90 |
| 없음 | 67.87 | 1.81 | 79.40 | 5.74 | 67.12 | 1.89 |
| 자살생각 | p=0.3266 | | p=0.5028 | | p=0.2033 | |
| 있음 | 63.16 | 4.57 | 73.00 | 8.64 | 60.21 | 5.32 |
| 없음 | 67.89 | 1.85 | 80.02 | 6.20 | 67.20 | 1.92 |

주: 백분율은 집단별 금연시도율임.

4) 건강행태별 금연시도율

남녀 모두 음주를 하는 집단에서 금연시도율이 높았는데, 다만 여성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남성의 경우 신체활동을 하는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금연시도율이 높았다.

〈표 3-66〉 건강행태별 금연시도율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음주경험 | p=0.0079 | | p=0.9427 | | p=0.0026 | |
| 비음주자 | 45.21 | 8.92 | 76.01 | 15.97 | 38.82 | 9.56 |
| 음주자 | 68.08 | 1.74 | 77.21 | 5.42 | 67.35 | 1.83 |
| 고위험음주 | p=0.0138 | | p=0.3562 | | p=0.0195 | |
| 비폭음자 | 57.52 | 4.86 | 66.38 | 13.84 | 56.70 | 5.15 |
| 폭음자 | 69.75 | 1.85 | 79.20 | 5.87 | 69.01 | 1.94 |
| 중등도 신체활동 | p=0.5947 | | p=0.7728 | | p=0.6409 | |
| 운동안함 | 67.67 | 1.92 | 77.94 | 5.29 | 66.79 | 2.03 |
| 운동함 | 65.43 | 3.78 | 73.69 | 14.41 | 64.74 | 3.93 |
| 격렬한 신체활동 | p=0.0823 | | p=0.4266 | | p=0.0450 | |
| 운동안함 | 65.81 | 1.92 | 78.16 | 5.37 | 64.60 | 2.04 |
| 운동함 | 73.41 | 3.71 | 64.84 | 17.79 | 73.70 | 3.78 |

주: 백분율은 집단별 금연시도율임.

5) 가족 및 직장환경별 금연시도율

가정내 금연규칙이 있는 여성집단의 경우 95%가 넘는 금연시도율을 보여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남성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표 3-67〉 가족 및 직장환경별 금연시도율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직장내 간접흡연 | p=0.4786 | | p=0.7260 | | p=0.5558 | |
| 없다 | 68.82 | 3.16 | 75.90 | 10.26 | 68.17 | 3.33 |
| 있다 | 65.94 | 2.52 | 70.75 | 10.25 | 65.67 | 2.60 |
| 직장공공장소 금연정책 | p=0.1659 | | p=0.1977 | | p=0.2640 | |
| 금연 | 71.41 | 3.67 | 86.88 | 8.99 | 70.23 | 3.87 |
| 흡연 | 65.20 | 2.36 | 68.20 | 9.11 | 65.00 | 2.45 |
| 직장작업공간 금연정책 | p=0.6493 | | p=0.9373 | | p=0.7298 | |
| 금연 | 67.87 | 3.26 | 73.59 | 9.73 | 67.20 | 3.46 |
| 흡연 | 65.98 | 2.53 | 72.42 | 11.03 | 65.70 | 2.60 |
| 가정내 간접흡연 | p=0.2844 | | p=0.5420 | | p=0.5033 | |
| 없다 | 66.28 | 1.92 | 74.31 | 6.58 | 65.80 | 1.99 |
| 있다 | 70.94 | 3.78 | 80.98 | 8.20 | 68.99 | 4.23 |
| 가정내 금연규칙 | p=0.0183 | | p=0.0379 | | p=0.0244 | |
| 금연 | 72.66 | 2.65 | 95.22 | 4.74 | 71.69 | 2.75 |
| 흡연 | 64.34 | 2.20 | 73.08 | 6.06 | 63.39 | 2.34 |

주: 백분율은 집단별 금연시도율임.

6) 정책환경별 금연시도율

금연시도율에 있어 금연캠페인 경험에 따른 차이는 남녀 모두에게서 발견할 수 없었다.

〈표 3-68〉 정책환경별 금연시도율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금연캠페인 | p=0.1931 | | p=0.5985 | | p=0.2319 | |
| 경험있음 | 67.60 | 1.74 | 77.38 | 5.20 | 66.76 | 1.83 |
| 경험없음 | 55.44 | 9.71 | 61.74 | 33.61 | 55.16 | 10.02 |

주: 백분율은 집단별 금연시도율임.

3. 평생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9~39세 여성의 평생흡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직업, 소득 등의 인구·사회경제적 요인과 함께 우울증, 자살생각 등의 정신건강상태, 그리고 건강행태로서 음주, 가정환경으로서 가정 내 금연규칙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성의 경우 연령에 비례하여 평생흡연자일 가능성이 증가하는데 반해, 여성의 경우 20대 후반 연령군(OR=3.46)에서 평생흡연자일 가능성이 가장 높았고, 유배우인 여성에 비해 사별·별거·이혼인 여성집단(OR=4.06)에서 평생흡연자일 확률이 더 높았다. 또한, 가정 내 금연규칙이 없는 군(OR=3.96), 고졸 미만의 저학력군(OR=2.32), 육체노동군(OR=4.74), 100만원 미만 저소득군(OR=1.97)에서 평생흡연자일 확률이 높았다.

〈표 3-69〉 평생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 | 변수 | Odds Ratio | |
|-------------------------|------|----------|------------|---------|
| | | | 여자 | 남자 |
| 인구· 사회· 경제적 상태 | 연령 | 35~39세 | 1.00 | 1.00 |
| | | 19~24세 | 2.90** | 0.42*** |
| | | 25~29세 | 3.46*** | 0.99 |
| | | 30~34세 | 1.54 | 0.84 |
| | 결혼상태 | 유배우 | 1.00 | 1.00 |
| | | 미혼 | 1.15 | 0.46*** |
| | | 사별·별거·이혼 | 4.06*** | 1.17 |
| | 교육수준 | 대졸이상 | 1.00 | 1.00 |
| | | 고졸미만 | 2.26* | 1.08 |
| | | 고졸 | 2.32*** | 2.62*** |
| | 직업 | 비육체노동 | 1.00 | 1.00 |
| | | 무직 | 2.82** | 0.95 |
| | | 육체노동 | 4.74*** | 0.91 |
| | | 학생·주부 등 | 2.88*** | 0.73 |

| | | 변수 | Odds Ratio | |
|-------------------|-----------|--------------|------------|---------|
| | | | 여자 | 남자 |
| 인구·사회·경제적 상태 (계속) | 월평균 가구소득 | 300만원 이상 | 1.00 | 1.00 |
| | | 100만원 미만 | 1.97* | 1.08 |
| | | 100~200만원 미만 | 1.21 | 1.18 |
| | | 200~300만원 미만 | 0.91 | 1.14 |
| 건강상태 | 주관적 건강상태 | 매우 좋음/ 좋음 | 1.00 | 1.00 |
| | | 보통 | 0.99 | 1.06 |
| | | 나쁨/매우 나쁨 | 1.18 | 1.31 |
| | 주관적 체격인식 | 보통 | 1.00 | 1.00 |
| | | 마름 | 1.60 | 1.30 |
| | | 비만 | 1.37 | 1.04 |
| | 우울증 | 아니오 | 1.00 | 1.00 |
| | | 예 | 1.60* | 0.89 |
| 자살생각 | 아니오 | 1.00 | 1.00 | |
| | 예 | 1.70** | 1.37 | |
| 건강행태 | 음주 | 음주안함 | 1.00 | 1.00 |
| | | 음주함 | 1.33 | 5.14*** |
| | 격렬한 신체활동 | 지난주에 안했음 | 1.00 | 1.00 |
| | | 지난주에 했음 | 1.14 | 1.25 |
| 가정환경 | 가정 내 금연규칙 | 가정내 금연 | 1.00 | 1.00 |
| | | 가정내 흡연 가능 | 3.96*** | 4.14*** |
| 정책환경 | 금연캠페인 경험 | 있음 | 1.00 | 1.00 |
| | | 없음 | 0.69 | 0.52* |

주: *** p<0.01, ** p<0.05, * p<0.1

4. 현재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9~39세 여성의 현재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평생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비교하면, 연령의 효과가 없어진 대신, 결혼상태(사별·별거·이혼인 집단, OR=6.32) 및 교육수준(고졸미만, OR=3.01)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였다. 성인 여성의 현재 흡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정 내 금연 규칙이 없는 경우(OR=8.44), 사별·별거·이혼인 경우, 고졸미만인 경우 등의 순이었다.

〈표 3-70〉 현재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 | 변수 | Odds Ratio | |
|-------------------------|--------------|----------|------------|---------|
| | | | 여자 | 남자 |
| 인구· 사회· 경제적 상태 | 연령 | 35~39세 | 1.00 | 1.00 |
| | | 19~24세 | 2.07 | 1.07 |
| | | 25~29세 | 1.95 | 1.85*** |
| | | 30~34세 | 1.42 | 1.18 |
| | 결혼상태 | 유배우 | 1.00 | 1.00 |
| | | 미혼 | 2.10 | 0.60*** |
| | | 사별·별거·이혼 | 6.32*** | 4.07* |
| | 교육수준 | 대졸이상 | 1.00 | 1.00 |
| | | 고졸미만 | 2.96** | 1.81 |
| | | 고졸 | 3.01*** | 2.07*** |
| 직업 | 비육체노동 | 1.00 | 1.00 | |
| | 무직 | 2.81** | 1.17 | |
| | 육체노동 | 4.60*** | 1.05 | |
| | 학생·주부 등 | 2.14 | 0.73 | |
| 월평균 가구소득 | 300만원 이상 | 1.00 | 1.00 | |
| | 100만원 미만 | 1.57 | 0.82 | |
| | 100~200만원 미만 | 1.18 | 0.86 | |
| | 200~300만원 미만 | 0.77 | 0.93 | |
| 건강상태 | 주관적 건강상태 | 매우 좋음/좋음 | 1.00 | 1.00 |
| | | 보통 | 1.16 | 1.46** |
| | | 나쁨/매우나쁨 | 1.97* | 1.48 |
| | 주관적 체격인식 | 보통 | 1.00 | 1.00 |
| | | 마름 | 1.91 | 0.87 |
| | | 비만 | 1.33 | 0.7** |
| 우울증 | 아니오 | 1.00 | 1.00 | |
| | 예 | 1.54 | 1.11 | |

150 여성 흡연과 음주의 요인 및 정책대안

| | | 변수 | Odds Ratio | |
|--------------|-------------|-----------|------------|---------|
| | | | 여자 | 남자 |
| 건강상태 (계속) | 자살생각 | 아니오 | 1.00 | 1.00 |
| | | 예 | 2.06** | 1.17 |
| 건강행태 | 위험 | 음주안함 | 1.00 | 1.00 |
| | | 음주함 | 1.41 | 3.91*** |
| | 격렬한 신체활동 | 지난주에 안했음 | 1.00 | 1.00 |
| | | 지난주에 했음 | 0.72 | 1.04 |
| 가정환경 | 가정내 금연구칙 | 가정내 금연 | 1.00 | 1.00 |
| | | 가정내 흡연 가능 | 8.44*** | 9.14*** |
| 정책환경 | 금연캠페인 경험 | 있음 | 1.00 | 1.00 |
| | | 없음 | 0.43 | 0.67 |

주: *** p<0.01, ** p<0.05, * p<0.1

제4절 문제집단의 흡연 관련요인

본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흡연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 집단, 즉 고등학교 3학년 여성청소년 집단, 전문계고등학교 여성청소년 집단, 아버지 학력이 대졸 미만인 여성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각각 그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1. 고등학교 3학년 여자 청소년

가.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3-71>과 같다.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 수는 10,910명으로 전체조사대상자 71,404명의 15.3%였다. 이 중 여성청소년 5,370명, 남성청소년 5,540명이었다.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들 중 현재 흡연하는 청소년은 남성청소년의

27%, 여성청소년의 12.8%로 나타나 전체 집단의 현재흡연율(남성청소년: 15.99%, 여성청소년: 9.16%)에 비해 높았다.

고등학교 3학년 여성청소년을 중심으로 이들의 흡연행태를 살펴보면, 현재흡연자 중 매일 흡연하는 비율(51%)이 전체 여성청소년(34%)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하루 반갑 이상 흡연하는 비율(22%)도 전체(16%)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그 외 특징으로는 아침식사를 매일하는 비율이 전체에 비해 낮았고, 가족과 함께 살지 않고 하숙이나 기숙사 등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부모가 모두 함께 사는 비율이 낮았다. 금연교육을 받은 비율이 전체에 비하여 높았다.

〈표 3-71〉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의 현재흡연율

| | 남자 | | 여자 | | 전체 | |
|---------|-------|--------|-------|--------|--------|--------|
| | N | % | N | % | N | % |
| 계 | 5,515 | 100.00 | 5,356 | 100.00 | 10,871 | 100.00 |
| 현재 흡연함 | 1,504 | 27.00 | 657 | 12.84 | 2,161 | 20.29 |
| 현재 흡연안함 | 4,011 | 73.00 | 4,699 | 87.16 | 8,710 | 79.71 |

주: 백분율은 가중치가 적용된 결과임. 무응답(남성청소년: 25명, 여성청소년: 14명) 제외

〈표 3-72〉 고등학교 3학년 여성청소년의 일반적 특성비교

| | | | 청소년여자 전체 | 고3여자 | 고3 남자 |
|------|-------------|--------------|---------------------|--------------------|--------------------|
| | | | 백분율 | 백분율 | 백분율 |
| 전체 | | | 100.00 (34,200명) | 100.00 (5,370명) | 100.00 (5,540명) |
| 건강상태 | 주관적 건강상태 | 매우 건강한 편 | 13.75 | 11.47 | 19.10 |
| | | 건강한 편 | 44.35 | 41.25 | 42.71 |
| | | 보통 | 31.45 | 32.83 | 27.35 |
| | | 건강하지 못한 편 | 9.87 | 13.84 | 9.73 |
| | |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 | 0.58 | 0.61 | 1.12 |

152 여성 흡연과 음주의 요인 및 정책대안

| | | | 청소년여자 전체 | 고3여자 | 고3 남자 | |
|------|-----------------------------|--------------------------|----------------|----------------|----------------|-------|
| | | | 백분율 | 백분율 | 백분율 | |
| | 지난 일년간 우울감 | 느낀적이 없다 느낀적이 있다 | 53.51 46.49 | 47.21 52.79 | 58.86 41.14 | |
| | 지난 일년간 자살생각 | 생각한 적이 없다 생각한 적이 있다 | 72.58 27.42 | 74.26 25.74 | 80.29 19.71 | |
| | 건강행태 | 처음흡연 시기 ¹⁾ | 초등학교 혹은 그 이전 | 24.12 | 18.20 | 22.89 |
| | | | 중학교 | 61.59 | 56.27 | 48.80 |
| 고등학교 | | | 14.29 | 25.54 | 28.31 | |
| | 지난달 흡연일수 ¹⁾ | 매일흡연하지 않음 | 66.33 | 49.01 | 36.24 | |
| | | 매일 흡연함 | 33.67 | 50.99 | 63.76 | |
| | 지난달 하루 흡연량 ¹⁾ | 반갑미만 | 83.69 | 78.07 | 66.20 | |
| | | 반갑 이상 | 16.31 | 21.93 | 33.80 | |
| | 격렬한 신체활동 | 운동안함 | 83.06 | 89.98 | 70.74 | |
| | | 운동함 | 16.94 | 10.02 | 29.26 | |
| | 흡입제 | 안 마심 | 98.82 | 99.33 | 97.00 | |
| | | 과거 마심 | 0.77 | 0.26 | 1.46 | |
| | | 마심 | 0.41 | 0.41 | 1.53 | |
| | 아침식사 | 매일 먹음 | 51.31 | 47.30 | 49.42 | |
| | | 안 먹음 | 48.69 | 52.70 | 50.58 | |
| 학업수준 | 학업성적 | 상 | 12.74 | 11.88 | 14.55 | |
| | | 중상 | 25.89 | 26.15 | 24.10 | |
| | | 중 | 27.77 | 29.24 | 25.94 | |
| | | 중하 | 23.49 | 23.17 | 22.53 | |
| | | 하 | 10.11 | 9.57 | 12.89 | |
| 가정환경 | 가정 내 간접흡연 | 없음 | 55.87 | 57.24 | 56.97 | |
| | | 1~6일 | 32.69 | 31.77 | 30.63 | |
| | | 매일 | 11.43 | 10.99 | 12.40 | |
| | 아버지학력 | 대졸미만 | 60.23 | 67.49 | 65.72 | |
| | | 대졸이상 | 39.77 | 32.51 | 34.28 | |
| | 경제상태 | 상 | 5.61 | 3.05 | 4.96 | |
| 중상 | | 20.47 | 16.29 | 17.42 | | |

| | | | 청소년여자 전체 | 고3여자 | 고3 남자 | |
|--------------|--------------|-------------|--------------|--------------|--------------|-------|
| | | | 백분율 | 백분율 | 백분율 | |
| 가정환경 (계속) | 경제상태 (계속) | 중 | 50.00 | 49.48 | 45.11 | |
| | | 중하 | 18.41 | 23.33 | 23.36 | |
| | | 하 | 5.52 | 7.84 | 9.15 | |
| | 거주형태 | 가족함께 | 95.30 | 91.84 | 91.21 | |
| | | 친척집 | 1.40 | 1.66 | 1.59 | |
| | | 하숙등 보육시설 | 2.85 0.44 | 6.00 0.50 | 6.08 1.12 | |
| | 부모동거 여부 | 부모동거 | 84.76 | 81.96 | 80.76 | |
| | | 아버지만 | 4.28 | 4.26 | 5.22 | |
| | | 어머니만 | 7.69 | 9.59 | 9.24 | |
| | | 동거안함 | 3.27 | 4.19 | 4.78 | |
| | 정책환경 | 금연교육 | 받지 않음 | 47.51 | 32.50 | 34.52 |
| | | | 받음 | 52.49 | 67.50 | 65.48 |
| TV 금연홍보 | | 본적 있음 | 92.25 | 93.15 | 88.45 | |
| | | 본적 없음 | 7.75 | 6.85 | 11.55 | |
| 라디오 금연홍보 | | 본적 있음 | 18.46 | 18.36 | 17.62 | |
| | | 본적 없음 | 81.54 | 81.64 | 82.38 | |
| 뉴스 등 금연홍보 | | 본적 있음 | 38.03 | 31.73 | 36.34 | |
| | | 본적 없음 | 61.97 | 68.27 | 63.66 | |
| 인터넷 금연홍보 | 본적 있음 | 27.63 | 19.27 | 27.55 | | |
| | 본적 없음 | 72.37 | 80.73 | 72.45 | | |
| 신문기사 금연홍보 | 본적 있음 | 23.99 | 19.48 | 26.01 | | |
| | 본적 없음 | 76.01 | 80.52 | 73.99 | | |

주: 1) 현재흡연자를 대상으로 함.

나.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의 현재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고등학교 3학년 여성청소년의 현재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전체 여성청소년의 현재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개인적 환경에서 주관적 건강상태와 주관적 체격인식 등은 여전히 현재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니었다. 우울감의 경우 전체 여성청소년 집단에서는 현재흡연에 영향을 미쳤으나, 고등학교 3학년 여성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유의미하지 않았고, 음주(OR=6.07)는 전체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OR=6.28)와 비슷하였다. 대신 고등학교 3학년 여성청소년의 경우 과거 혹은 현재 흡입제를 마시고 있는 집단에서 현재흡연 할 가능성이 아주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환경으로는 가정 내에서 매일 간접흡연을 경험하는 집단이 간접흡연이 전혀 없는 집단에 비해 현재흡연 할 가능성이 2.4배 더 높게 나타났다.

정책적환경변수 중 담배구매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현재흡연자일 가능성은 담배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집단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데, 전체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보다도 훨씬 그 영향력이 컸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외에 텔레비전을 통한 금연홍보를 시청한 경험이 없는 고등학교 3학년 여성청소년의 경우(OR=1.75) 현재흡연자일 가능성이 더 높았다.

〈표 3-73〉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의 현재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 | | 변수 | Odds Ratio | |
|-----------|------------|-------------|--------------|------------|--------|
| | | | | 여자 | 남자 |
| 개인적 환경 | 건강 상태 | 주관적 건강상태 | 매우 건강한 편 | 1.00 | 1.00 |
| | | | 건강한 편 | 1.58 | 1.29 |
| | | | 보통 | 1.31 | 1.15 |
| | | | 건강하지 못한 편 | 1.87 | 1.17 |
| | | |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 | 4.43 | 1.46 |
| | 주관적 체격인 | 주관적 체격인 | 매우 마름 | 1.00 | 1.00 |
| | | | 마름 | 0.70 | 0.62* |
| | | | 보통 | 0.64 | 0.54** |
| | | | 비만 | 0.67 | 0.83 |
| | | | 매우 비만 | 0.68 | 1.23 |

| | | | 변수 | Odds Ratio | |
|-------------------|--------------------|-----------------------|-----------------------|-----------------|---------|
| | | | | 여자 | 남자 |
| 개인적 환경 (계속) | 건강 상태 (계속) | 우울증 | 느낀적 없음 | 1.00 | 1.00 |
| | | | 느낀적 있음 | 1.29 | 1.02 |
| | | 자살생각 | 한적 없음 | 1.00 | 1.00 |
| | | | 한적 있음 | 1.52* | 1.17 |
| | 건강 행태 | 음주 | 음주안함 | 1.00 | 1.00 |
| | | | 음주함 | 6.07*** | 3.16*** |
| | | 격렬한 신체활동 | 지난주 한적 없음 | 1.00 | 1.00 |
| | | | 지난주 한적 있음 | 1.86** | 0.99 |
| | 흡입제 경험 | 마셔본 적 없음 | 1.00 | 1.00 | |
| | | 과거에 마셨음 지금도 마심 | 23.96*** 196.93*** | 1.93 6.08*** | |
| | 아침밥 | 주 6~7일 먹음 | 1.00 | 1.00 | |
| | | 주 5일 미만 먹음 | 1.44 | 1.32* | |
| 학업 수준 | 학업성적 | 상 | 1.00 | 1.00 | |
| | | 중상 | 0.56** | 1.49 | |
| | | 중 | 1.02 | 1.56 | |
| | | 중하 | 1.27 | 2.01** | |
| | | 하 | 1.41 | 2.02** | |
| 사회적 환경 | 지난주 가정내 간접흡연 | 간접흡연 없음 | 1.00 | 1.00 | |
| | | 6일 미만 | 1.50 | 2.02*** | |
| | | 매일 | 2.41*** | 2.28*** | |
| | 아버지 학력 | 대졸 이상 | 1.00 | 1.00 | |
| | | 중졸 이하 | 1.49 | 1.14 | |
| | | 고졸 | 0.76 | 1.18 | |
| | | 학력 모름 | 2.29*** | 1.31 | |
| | 경제상태 | 상 | 1.00 | 1.00 | |
| | | 중상 | 0.53 | 1.27 | |
| | | 중 | 0.33*** | 1.41 | |
| 거주형태 | 중하 하 | 중하 | 0.35** | 0.89 | |
| | | 하 | 0.33* | 1.45 | |
| | | 가족과 함께 거주 | 1.00 | 1.00 | |
| | | 친척집 거주 하숙, 자취, 기숙사 | 1.08 1.21 | 4.38*** 1.38 | |

156 여성 흡연과 음주의 요인 및 정책대안

| | | | 변수 | Odds Ratio | |
|----------|------------------|-------------|-------------|------------|-----------|
| | | | | 여자 | 남자 |
| | 가족 환경 (계속) | 부모동거 여부 | 보육시설 | 1.55 | 8.14*** |
| | | | 부모 모두 동거 | 1.00 | 1.00 |
| | | | 아버지만 동거 | 1.34 | 1.45* |
| | | | 어머니만 동거 | 1.20 | 0.93 |
| | | | 부모 모두 동거 안함 | 1.01 | 0.50** |
| 문화 정책 | 정책 환경 | 담배구매 용이성 | 담배구입이 불가능 | 1.00 | 1.00 |
| | | | 노력하면 구입 가능 | 200.10*** | 114.36*** |
| | | | 노력없이 쉽게 가능 | 168.63*** | 171.69*** |
| | | TV 금연홍보 | 본적 있음 | 1.00 | 1.00 |
| | | | 본적 없음 | 1.75** | 2.25*** |
| | | 금연교육 | 교육받음 | 1.00 | 1.00 |
| | 교육받은적 없음 | 0.43*** | 0.67*** | | |

주: *** p<0.01, ** p<0.05, * p<0.1

2. 전문계고등학교 청소년

가. 전문계고등학교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전문계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수는 남성청소년 5,398명, 여성청소년 5,081명으로 전체 10,479명이었으며, 이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14.7%였다.

전문계고등학교 청소년들 중 현재 흡연하는 청소년은 남성청소년의 39%, 여성청소년의 28.4%로 나타나 전체 집단의 현재흡연율(남성청소년: 15.99%, 여성청소년: 9.16%)에 비해 높았으며, 특히 여성청소년의 경우 전체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전문계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여성청소년 현재흡연자의 흡연행태 역시 매일 흡연하는 비율(47%)과 하루 반 갑 이상 흡연하는 비율(21%)이 각각 전체(34%, 16%)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그 외 아침식사를 매일하지 않는 다는 비율이 66%로 전체에 비해 높았고, 가정 내 간접흡연의 비율(17%)이 높았다. 또한, 아버지 학력이 대졸미만인 경우(82%)가 전체 여성청소년의 경우(60%)에 비해 높았고, 가정의 경제상태 또한 전체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편모나 편부와 함께 사는 경우(20%)도 전체(11%)에 비해 높았다.

〈표 3-74〉 전문계고등학교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 | | | 청소년여자 전체 | 전문계여자 | 전문계남자 |
|------|-----------------------------|--------------|---------------------|--------------------|--------------------|
| | | | 백분율 | 백분율 | 백분율 |
| 전체 | | | 100.00 (34,200명) | 100.00 (5,081명) | 100.00 (5,398명) |
| 건강상태 | 주관적 건강상태 | 매우 건강한 편 | 13.75 | 11.40 | 17.95 |
| | | 건강한 편 | 44.35 | 41.29 | 42.33 |
| | | 보통 | 31.45 | 34.52 | 29.64 |
| | | 건강하지 못한 편 | 9.87 | 12.04 | 9.13 |
| | | 매우건강하지못한 편 | 0.58 | 0.75 | 0.94 |
| | 지난 일년 간 우울감 | 느낀적이 없다 | 53.51 | 49.36 | 59.99 |
| | 느낀적이 있다 | 46.49 | 50.64 | 40.01 | |
| 건강상태 | 지난 일년 간 자살생각 | 생각한 적이 없다 | 72.58 | 71.19 | 80.29 |
| | | 생각한 적이 있다 | 27.42 | 28.81 | 19.71 |
| 건강행태 | 처음흡연 시기 ¹⁾ | 초등학교 혹은 그 이전 | 24.12 | 18.66 | 23.44 |
| | | 중학교 | 61.59 | 59.75 | 52.86 |
| | | 고등학교 | 14.29 | 21.59 | 23.69 |
| | 지난달 흡연일수 ¹⁾ | 매일흡연하지 않음 | 66.33 | 53.21 | 37.77 |
| | | 매일 흡연함 | 33.67 | 46.79 | 62.23 |
| | 지난달 하루 흡연량 ¹⁾ | 반갑 미만 | 83.69 | 78.57 | 64.64 |
| | | 반갑 이상 | 16.31 | 21.43 | 35.36 |
| | 격렬한 신체활동 | 운동안함 | 83.06 | 84.73 | 63.56 |
| | | 운동함 | 16.94 | 15.27 | 36.44 |
| | 흡입제 | 안마십 | 98.82 | 98.98 | 96.07 |

158 여성 흡연과 음주의 요인 및 정책대안

| | | | 청소년여자 전체 | 전문계여자 | 전문계남자 |
|--------------|--------------|-------|-------------|-------|-------|
| | | | 백분율 | 백분율 | 백분율 |
| 건강행태 (계속) | | 과거마심 | 0.77 | 0.47 | 2.13 |
| | | 마심 | 0.41 | 0.55 | 1.80 |
| | 아침식사 | 매일먹음 | 51.31 | 34.01 | 39.55 |
| | | 안먹음 | 48.69 | 65.99 | 60.45 |
| 학업수준 | 학업성적 | 상 | 12.74 | 11.36 | 13.10 |
| | | 중상 | 25.89 | 24.05 | 22.79 |
| | | 중 | 27.77 | 27.30 | 25.55 |
| | | 중하 | 23.49 | 25.41 | 24.64 |
| | | 하 | 10.11 | 11.89 | 13.93 |
| 가정환경 | 가정 내 간접흡연 | 없음 | 55.87 | 46.37 | 49.37 |
| | | 1~6일 | 32.69 | 35.92 | 33.49 |
| | | 매일 | 11.43 | 17.71 | 17.14 |
| | 아버지학력 | 대졸미만 | 60.23 | 82.32 | 80.44 |
| | | 대졸이상 | 39.77 | 17.68 | 19.56 |
| | 경제상태 | 상 | 5.61 | 3.03 | 5.08 |
| | | 중상 | 20.47 | 11.26 | 13.41 |
| | | 중 | 50.00 | 45.46 | 42.65 |
| | | 중하 | 18.41 | 29.29 | 26.7 |
| | | 하 | 5.52 | 10.96 | 12.17 |
| | 거주형태 | 가족함께 | 95.30 | 92.56 | 92.61 |
| | | 친척집 | 1.40 | 2.42 | 2.41 |
| | | 하숙등 | 2.85 | 4.27 | 3.74 |
| | | 보육시설 | 0.44 | 0.75 | 1.24 |
| | 부모동거 여부 | 부모동거 | 84.76 | 73.57 | 73.14 |
| | | 아버지만 | 4.28 | 8.21 | 9.43 |
| 어머니만 | | 7.69 | 12.6 | 12.23 | |
| 금연교육 | 동거안함 | 3.27 | 5.63 | 5.21 | |
| | 받지않음 | 47.51 | 54.48 | 49.39 | |
| | 받음 | 52.49 | 45.52 | 50.61 | |

| | | | 청소년여자 전체 | 전문계여자 | 전문계남자 |
|------|--------------|-------|-------------|-------|-------|
| | | | 백분율 | 백분율 | 백분율 |
| 정책환경 | TV 금연홍보 | 본적 있음 | 92.25 | 90.75 | 84.51 |
| | | 본적 없음 | 7.75 | 9.25 | 15.49 |
| | 라디오 금연홍보 | 본적 있음 | 18.46 | 12.48 | 13.38 |
| | | 본적 없음 | 81.54 | 87.52 | 86.62 |
| | 뉴스 등 금연홍보 | 본적 있음 | 38.03 | 33.32 | 33.53 |
| | | 본적 없음 | 61.97 | 66.68 | 66.47 |
| | 인터넷 금연홍보 | 본적 있음 | 27.63 | 22.50 | 26.90 |
| | | 본적 없음 | 72.37 | 77.50 | 73.10 |
| | 신문기사 금연홍보 | 본적 있음 | 23.99 | 18.46 | 21.92 |
| | | 본적 없음 | 76.01 | 81.54 | 78.08 |

주: 1) 현재흡연자를 대상으로 함.

〈표 3-75〉 전문계고등학교 청소년의 현재흡연율

| | 남자 | | 여자 | | 전체 | |
|---------|-------|--------|-------|--------|--------|--------|
| | N | % | N | % | N | % |
| 계 | 5,356 | 100.00 | 5,071 | 100.00 | 10,437 | 100.00 |
| 현재 흡연함 | 2,023 | 38.97 | 1,199 | 28.42 | 3,222 | 34.12 |
| 현재 흡연안함 | 3,343 | 61.03 | 3,872 | 71.58 | 7,215 | 65.88 |

주: 백분율은 가중치가 적용된 결과임. 무응답(남성청소년: 32명, 여성청소년: 10명) 제외

나. 전문계고등학교 청소년의 현재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문계고등학교 청소년의 현재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여성청소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문계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성청소년의 현재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적환경으로서 우울감, 자살생각, 음주, 흡입제 경험 등이었고, 사회적환경으로 가정내 간접흡연, 아버지학력 등인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문화정책환경으로서 담배구매용이성도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전체 여성청소년의 경우와 비교해 볼때, 우울감(OR=1.55), 자살생각(OR=1.57), 흡입제경험(OR=12.68), 아버지학력(OR=1.66), 담배구매 용이성(OR=92.93) 등은 영향력이 더 강해진 반면, 음주(OR=4.02), 가정내간접흡연(OR=1.96) 등의 변수는 영향력이 약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체 여성청소년의 경우 유의한 변수였던 부모동거여부와 금연홍보 등은 전문계고등학교 여성청소년의 현재흡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작용하지 않았다.

〈표 3-76〉 전문계고등학교 청소년 현재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 | | | Odds Ratio | |
|-----------|-----------|-------------|--------------|------------|-------|
| | | | | 여자 | 남자 |
| 개인적 환경 | 건강 상태 | 주관적 건강상태 | 매우 건강한 편 | 1.00 | 1.00 |
| | | | 건강한 편 | 0.74 | 1.34* |
| | | | 보통 | 1.00 | 1.26 |
| | | | 건강하지 못한 편 | 0.8 | 1.42 |
| | | |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 | 1.75 | 2.12 |
| | 건강 상태 | 주관적 체격인식 | 매우 마름 | 1.00 | 1.00 |
| | | | 마름 | 1.01 | 0.89 |
| | | | 보통 | 0.96 | 1.00 |
| | | | 비만 | 0.88 | 0.80 |
| | | | 매우 비만 | 0.93 | 0.65 |
| | 우울증 | 느낀적 없음 | 1.00 | 1.00 | |
| | | 느낀적 있음 | 1.55** | 1.13 | |
| | 자살생각 | 한적 없음 | 1.00 | 1.00 | |
| | | 한적 있음 | 1.57*** | 1.06 | |
| 건강 행태 | 음주 | 음주안함 | 1.00 | 1.00 | |
| | | 음주함 | 4.02*** | 4.50*** | |
| 격렬한 | 지난주 한적 없음 | 1.00 | 1.00 | | |

| | | | | Odds Ratio | |
|-------------------|-------------|---------------------|-------------|------------|---------|
| | | | | 여자 | 남자 |
| 개인적 환경 (계속) | 신체활동 | 지난주 한적 있음 | 1.66*** | 0.82 | |
| | | 흡입제 경험 | 마셔본 적 없음 | 1.00 | 1.00 |
| | | | 과거에 마셨음 | 4.43** | 1.95 |
| | 지금도 마심 | | 12.68** | 15.53*** | |
| | 아침밥 | 주 6~7일 먹음 | 1.00 | 1.00 | |
| | | 주 5일 미만 먹음 | 1.60*** | 1.06 | |
| | 학업 수준 | 학업성적 | 상 | 1.00 | 1.00 |
| | | | 중상 | 1.07 | 1.22 |
| | | | 중 | 1.44 | 1.43 |
| | | | 중하 | 1.55* | 1.91*** |
| 하 | | | 2.29*** | 2.57*** | |
| 사회적 환경 | 가족 환경 | 지난주 가정 내 간접흡연 | 간접흡연 없음 | 1.00 | 1.00 |
| | | | 6일 미만 | 1.46* | 1.38** |
| | | | 매일 | 1.96*** | 2.04*** |
| | | 아버지 학력 | 대졸 이상 | 1.00 | 1.00 |
| | | | 중졸 이하 | 1.66** | 1.03 |
| | | | 고졸 | 1.31 | 1.04 |
| | 학력 모름 | | 1.70** | 1.05 | |
| | 경제상태 | 상 | 1.00 | 1.00 | |
| | | 중상 | 1.04 | 0.86 | |
| | | 중 | 0.97 | 0.83 | |
| | 거주형태 | 중하 | 0.95 | 0.64 | |
| | | 하 | 0.91 | 0.83 | |
| | | 가족과 함께 거주 | 친척집 거주 | 1.00 | 1.00 |
| | | | 하숙, 자취, 기숙사 | 2.52** | 2.35** |
| | 보육시설 | | 0.87 | 1.56 | |
| | 0.93 | | 1.86 | | |
| 부모동거 여부 | 부모 모두 동거 | 1.00 | 1.00 | | |
| | 아버지만 동거 | 1.32 | 1.73*** | | |
| | 어머니만 동거 | 0.99 | 1.62*** | | |
| | 부모 모두 동거 안함 | 1.17 | 0.93 | | |

| | | | | Odds Ratio | |
|-----------|------------|-------------|------------|------------|-----------|
| | | | | 여자 | 남자 |
| 문화 정책 | 정책 환경 | 담배구매 용이성 | 담배구입이 불가능 | 1.00 | 1.00 |
| | | | 노력하면 구입 가능 | 105.80*** | 91.48*** |
| | | | 노력없이 쉽게 가능 | 92.93*** | 102.12*** |
| | TV 금연홍보 | 본적 있음 | 본적 있음 | 1.00 | 1.00 |
| | | | 본적 없음 | 1.44 | 2.20*** |
| | 금연교육 | 교육받음 | 교육받음 | 1.00 | 1.00 |
| 교육 받은적 없음 | | | 0.76* | 0.66*** | |

주: *** p<0.01, ** p<0.05, * p<0.1

3. 아버지 학력이 낮은 청소년

가. 아버지 학력이 낮은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아버지 학력을 대졸이상과 대졸미만으로 나누어 대졸미만인 경우를 상대적으로 아버지 학력이 낮은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이 경우 아버지 학력이 낮은 청소년은 남성청소년 18,284명, 여성청소년 18,316명으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51.3%였으며, 이들의 현재흡연율은 남성청소년 18%, 여성청소년 11%로 전체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아버지 학력이 비교적 낮은 여성청소년 현재흡연자의 매일 흡연하는 비율과 흡연량은 전체 여성청소년과 비교하여 조금씩 높은 수준이었다.

이들 여성청소년의 29%는 경제상태가 ‘중’ 미만이라고 응답했고, 이는 전체(24%)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표 3-77〉 아버지 학력이 낮은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 | | | 전체청소년 여성 | 여 | 남 |
|-------|-----------------------------|--------------|---------------------|--------------------|--------------------|
| | | | 백분율 | 백분율 | 백분율 |
| 전체 | | | 100.00 (34,200명) | 100.00 (18,316) | 100.00 (18,284) |
| 인구 | 학년 | 중학교1학년 | 17.43 | 13.54 | 13.60 |
| | | 중학교2학년 | 17.48 | 15.54 | 14.98 |
| | | 중학교3학년 | 17.14 | 17.09 | 16.66 |
| | | 고등학교1학년 | 16.33 | 17.48 | 17.67 |
| | | 고등학교2학년 | 15.92 | 17.63 | 18.86 |
| | | 고등학교3학년 | 15.70 | 18.72 | 18.22 |
| 건강상태 | 주관적 건강상태 | 매우 건강한 편 | 13.75 | 13.31 | 18.55 |
| | | 건강한 편 | 44.35 | 44.36 | 45.24 |
| | | 보통 | 31.45 | 31.53 | 27.48 |
| | | 건강하지 못한 편 | 9.87 | 10.22 | 7.94 |
| | |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 | 0.58 | 0.58 | 0.79 |
| | 지난 일년 간 우울감 | 느낀적이 없다 | 53.51 | 52.81 | 63.15 |
| | 느낀적이 있다 | 46.49 | 47.19 | 36.85 | |
| | 지난 일년 간 자살생각 | 생각한 적이 없다 | 72.58 | 72.68 | 81.38 |
| | | 생각한 적이 있다 | 27.42 | 27.32 | 18.62 |
| 건강행태 | 처음흡연 시기 ¹⁾ | 초등학교 혹은 그 이전 | 24.12 | 22.12 | 23.96 |
| | | 중학교 | 61.59 | 62.15 | 56.07 |
| | | 고등학교 | 14.29 | 15.72 | 19.97 |
| | 지난달 흡연일수 ¹⁾ | 매일흡연하지 않음 | 66.33 | 64.51 | 49.35 |
| | | 매일 흡연함 | 33.67 | 35.49 | 50.65 |
| | 지난달 하루 흡연량 ¹⁾ | 반갑 미만 | 83.69 | 83.17 | 72.88 |
| | | 반갑 이상 | 16.31 | 16.83 | 27.12 |
| | 격렬한 신체활동 | 운동 안함 | 83.06 | 83.86 | 56.80 |
| | | 운동함 | 16.94 | 16.14 | 43.20 |
| | 흡입계 | 안 마심 | 98.82 | 99.07 | 97.80 |
| 과거 마심 | | 0.77 | 0.68 | 1.37 | |
| 마심 | | 0.41 | 0.25 | 0.83 | |

164 여성 흡연과 음주의 요인 및 정책대안

| | | | 전체 청소년 여성 | 여 | 남 |
|------|--------------|-------------|--------------|-------|-------|
| | | | 백분율 | 백분율 | 백분율 |
| | 아침식사 | 매일 먹음 | 51.31 | 47.68 | 53.89 |
| | | 안먹음 | 48.69 | 52.32 | 46.11 |
| 학업수준 | 학업성적 | 상 | 12.74 | 9.96 | 11.73 |
| | | 중상 | 25.89 | 24.27 | 24.34 |
| | | 중 | 27.77 | 28.87 | 27.89 |
| | | 중하 | 23.49 | 26.19 | 24.89 |
| | | 하 | 10.11 | 10.72 | 11.16 |
| 가정환경 | 가정 내 간접흡연 | 없음 | 55.87 | 52.13 | 57.64 |
| | | 1-6일 | 32.69 | 34.93 | 32.22 |
| | | 매일 | 11.43 | 12.93 | 10.15 |
| | 경제상태 | 상 | 5.61 | 3.28 | 6.07 |
| | | 중상 | 20.47 | 15.20 | 18.82 |
| | | 중 | 50.00 | 52.42 | 48.43 |
| | | 중하 | 18.41 | 22.57 | 19.92 |
| | | 하 | 5.52 | 6.53 | 6.76 |
| | 거주형태 | 가족함께 | 95.30 | 95.00 | 94.97 |
| | | 친척집 | 1.40 | 1.39 | 1.50 |
| | | 하숙 등 | 2.85 | 3.33 | 2.97 |
| | | 보육시설 | 0.44 | 0.28 | 0.56 |
| | 부모동거 여부 | 부모동거 | 84.76 | 84.00 | 84.74 |
| 아버지만 | | 4.28 | 5.32 | 5.79 | |
| 어머니만 | | 7.69 | 7.28 | 6.33 | |
| 동거안함 | | 3.27 | 3.40 | 3.14 | |
| 정책환경 | 금연교육 | 받지 않음 | 47.51 | 51.61 | 48.15 |
| | | 받음 | 52.49 | 48.39 | 51.85 |
| | TV 금연홍보 | 본적 있음 | 92.25 | 92.65 | 88.04 |
| | | 본적 없음 | 7.75 | 7.35 | 11.96 |
| | | 라디오 금연홍보 | 본적 있음 | 18.46 | 16.54 |
| | 본적 없음 | 81.54 | 83.46 | 83.69 | |

| | | | 전체 청소년 여성 | 여 | 남 |
|--------------|--------------|-------|--------------|-------|-------|
| | | | 백분율 | 백분율 | 백분율 |
| 정책환경 (계속) | 뉴스 등 금연홍보 | 본적 있음 | 38.03 | 36.87 | 37.54 |
| | | 본적 없음 | 61.97 | 63.13 | 62.46 |
| | 인터넷 금연홍보 | 본적 있음 | 27.63 | 26.21 | 30.16 |
| | | 본적 없음 | 72.37 | 73.79 | 69.84 |
| | 신문기사 금연홍보 | 본적 있음 | 23.99 | 22.01 | 25.45 |
| | | 본적 없음 | 76.01 | 77.99 | 74.55 |

주: 1) 현재흡연자를 대상으로 함.

<표 3-78> 아버지 학력이 낮은 청소년의 현재흡연율

| | 남자 | | 여자 | | 전체 | |
|---------|--------|--------|--------|--------|--------|--------|
| | N | % | N | % | N | % |
| 계 | 18,197 | 100.00 | 18,283 | 100.00 | 36,480 | 100.00 |
| 현재 흡연함 | 3,309 | 18.03 | 1,888 | 10.98 | 5,197 | 14.59 |
| 현재 흡연안함 | 14,888 | 81.97 | 16,395 | 89.02 | 31,283 | 85.41 |

주: 백분율은 가중치가 적용된 결과임. 무응답(남성청소년: 87명, 여성청소년: 33명) 제외

나. 아버지 학력이 낮은 청소년의 현재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버지 학력이 낮은 여성청소년 집단의 현재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 <표 3-79>와 같다.

개인적 환경으로서 우울, 자살생각, 음주, 흡입제 경험, 아침식사 여부, 사회적 환경으로서 가정내 간접흡연, 부모동거여부, 문화정책환경으로 담배구매용이성, 텔레비전 금연홍보 등의 변수가 현재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현재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비교했을 때, 현재 흡입제를 사용하는 경우(OR=4.88), 가정내 간접흡연을 매일

경험하는 경우(OR=1.67) 그 영향력이 낮아졌음을 알 수 있었고, 반대로 아침식사를 매일하지 않는 경우(OR=2.14), 아버지와 어머니 중 한 분 혹은 두분다 같이 살고 있지 않는 경우 현재흡연자일 가능성은 높아졌다.

〈표 3-79〉 아버지 학력이 낮은 청소년의 현재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 | | | Odds Ratio | |
|-----------|-------------|-------------|--------------|------------|--------|
| | | | | 여자 | 남자 |
| 개인적 환경 | 인구 | 학년 | 중학교 1학년 | 1.00 | 1.00 |
| | | | 중학교 2학년 | 0.90 | 1.35* |
| | | | 중학교 3학년 | 1.02 | 1.19 |
| | | | 고등학교 1학년 | 1.22 | 1.20 |
| | | | 고등학교 2학년 | 1.04 | 1.23 |
| | | | 고등학교 3학년 | 0.72 | 1.18 |
| | 건강 상태 | 주관적 건강상태 | 매우 건강한 편 | 1.00 | 1.00 |
| | | | 건강한 편 | 0.77* | 1.17 |
| | | | 보통 | 0.81 | 1.03 |
| | | | 건강하지 못한 편 | 0.88 | 0.89 |
| | | |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 | 0.33 | 1.23 |
| | | 주관적 체격인식 | 매우 마름 | 1.00 | 1.00 |
| | | | 마름 | 1.10 | 0.77 |
| | | | 보통 | 0.86 | 0.77 |
| | | | 비만 | 0.90 | 0.66** |
| | | | 매우 비만 | 0.76 | 0.83 |
| 우울증 | 느낀적 없음 | 1.00 | 1.00 | | |
| | 느낀적 있음 | 1.43*** | 1.28** | | |
| 자살생각 | 한적 없음 | 1.00 | 1.00 | | |
| | 한적 있음 | 1.34*** | 0.99 | | |
| 건강 행태 | 음주 | 음주안함 | 1.00 | 1.00 | |
| | | 음주함 | 6.18*** | 4.34*** | |
| | 격렬한 신체활동 | 지난주 한적 없음 | 1.00 | 1.00 | |
| | | 지난주 한적 있음 | 1.23* | 0.94 | |
| 흡입제 | 마셔본 적 없음 | 1.00 | 1.00 | | |

| | | | | Odds Ratio | |
|----------|------------------------|------------------|-------------------------------|-----------------------|-----------------------|
| | | | | 여자 | 남자 |
| | | 경험 | 과거에 마셨음 | 3.02*** | 1.11 |
| | | | 지금도 마심 | 4.88* | 5.40*** |
| | | 아침밥 | 주 6~7일 먹음 | 1.00 | 1.00 |
| | | | 주 5일 미만 먹음 | 2.14*** | 1.43*** |
| | 학업 수준 | 학업성적 | 상 | 1.00 | 1.00 |
| | | | 중상 | 0.98 | 1.02 |
| | | | 중 | 0.96 | 0.98 |
| | | | 중하 | 1.53** | 1.51** |
| | | | 하 | 2.11*** | 1.64** |
| | 사회적 환경 | 가족 환경 | 지난주 가정내 간접흡연 | 간접흡연 없음 | 1.00 |
| 6일 미만 | | | | 1.90*** | 1.86*** |
| 매일 | | | | 1.67*** | 2.25*** |
| 경제상태 | | | 상 | 1.00 | 1.00 |
| | | | 중상 | 0.88 | 0.85 |
| | | | 중 | 0.81 | 0.83 |
| | | | 중하 | 0.65 | 0.69* |
| | | | 하 | 0.65 | 0.94 |
| 거주형태 | | | 가족과 함께 거주 | 1.00 | 1.00 |
| | | | 친척집 거주 하숙, 자취, 기숙사 보육시설 | 1.56 0.50* 1.64 | 1.84* 0.90 1.96 |
| 부모동거 여부 | 부모 모두 동거 | 1.00 | 1.00 | | |
| | 아버지만 동거 | 2.15*** | 1.14 | | |
| | 어머니만 동거 부모 모두 동거 안함 | 1.53** 1.93** | 0.92 0.91 | | |
| 문화 정책 | 정책 환경 | 담배구매 용이성 | 담배구입이 불가능 | 1.00 | 1.00 |
| | | | 노력하면 구입 가능 | 68.14*** | 85.36*** |
| | | | 노력없이 쉽게 가능 | 83.79*** | 78.42*** |
| | | TV 금연홍보 | 본적 있음 | 1.00 | 1.00 |
| | | | 본적 없음 | 1.83*** | 2.25*** |
| | | 금연교육 | 교육받음 | 1.00 | 1.00 |
| 교육받은적 없음 | 0.70*** | | 0.78*** | | |

주: *** p<0.01, ** p<0.05, * p<0.1

제4장 여성흡연 예방 및 감소정책방향 및 과제

제1절 여성흡연 현황 요약 및 시사점

1. 대상별 단계별 흡연관련요인

가. 여성청소년 흡연경험과 관련 요인

여성청소년의 흡연경험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개인적환경, 학교 및 가정 환경, 정책적환경 모두 관련되었다. 개인환경적변수에서는 일반적인 건강 상태 보다는 우울증경험,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경우 등 정신적인 요인이 관련이 있었으며, 여성청소년의 흡연이유로 알려진 체격에 대한 생각은 유의하지 않았다. 건강을 결정짓는 건강생활습관의 하나로 연구된 흡연은 또다른 건강생활습관군인 음주, 신체활동, 식습관과 연관이 있었다. 또한 마약류인 흡입제의 사용이 흡연과 관련성이 있는 요인으로 분석되어 흡연으로 인한 마약으로의 전환 문제의 심각성을 시사하였다.

학교생활척도로 선정한 학업수준이 낮은 경우 흡연경험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가정환경으로는 가정에서의 흡연여부와 가정의 사회적지위를 보여주는 아버지의 학력수준 즉 저학력이 흡연경험율과 비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모와의 비동거시 흡연율경험이 높게 분석되었다.

문화정책적 환경에서는 금연정책의 하나로 선정하였던 담배구입의 용이성이 흡연경험율과 정비례하였으며, TV에서의 금연홍보접촉시 흡연경험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금연교육경험은 반비례하였다. 이는 정부에서의 금연정책의 필요성을 보여주었으며, 금연캠페인의 효과는 있었으나, 학교에서의 금연교육의 효과는 없었던 것을 시사한다.

소분류 변수 중 담배구입의 용이성, 음주경험여부, 학교에서의 학업수준, 흡입제의 사용경험여부, 가정내 간접흡연여부가 순서대로 OR의 값이 높은 변수였다. 또한 남성청소년과 비교할 때 여자와 남자의 흡연경험에 관련된 변수의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다만, 여성청소년은 남성청소년에 비하여 자살에 대한 생각여부, 건강행태(음주, 운동, 흡입제, 식사습관), 부모와의 동거여부와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표 4-1〉 청소년의 흡연경험 관련요인 비교표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청소년여성 | 청소년남성 | 비고 |
|-----------|-----------|----------------|--|---|---|
| 개인적 환경 | 인구 | 학년 | · 고학년 | · 고학년 | 여=남 |
| | | 건강 상태 | 주관적건강상태 | · 건강이 보통일 경우 건강한 경우 보다 흡연을 낮음 | · 건강하지 않은 경우 흡연을 낮음 |
| | 주관적체격인식 | | X | X | - |
| | 우울증 | | · 우울증 경험자가 흡연율높음(OR=1.15) | · 우울증 경험자가 흡연율 높음(OR=1.22) | 남>여 |
| | 자살생각 | | · 자살생각을 한 적이 있는 경우 흡연율 높음. (OR=1.46) | · 자살생각을 한 적이 있는 경우 흡연율 높음.(OR=1.20) | 여>남 |
| | 건강 행태 | 음주 | · 음주경험자가 흡연율 높음. (OR=2.94) | · 음주경험자가 흡연율 높음. (OR=2.23) | 여>남 |
| | | 격렬한신체활동 | · 신체활동자 흡연율 높음.(OR=1.19) | · 신체활동자 흡연율 높음.(OR=1.08) | 여>남 |
| | | 흡입제사용경험 | · 흡입제사용경험자가 흡연율높음. (OR=4.42) | · 흡입제사용경험자가 흡연율높음. (OR=2.96) | 여>남 |
| | | 아침식사 여부 | · 아침불규칙식사가 흡연율높음. (OR=1.47) | · 아침불규칙식사가 흡연율높음. (OR=1.21) | 여>남 |
| | 사회적 환경 | 학교 환경 | 본인이 스스로 가 평가한 학업 성적 | · 학업수준 ‘중상’ 이하인 경우 흡연율높음 (하 OR= 2.05) | · 학업수준 ‘중상’ 이하인 경우 흡연율 높음 (하OR= 2.05) |
| 가족 환경 | | 가정내 간접흡연 경험 | · 가정내간접흡연경험자 가 흡연율 높음 (매일경험OR=1.96) | · 가정내간접흡연경험자 가 흡연율 높음 (매일경험OR=2.31) | 남>여 |

170 여성 흡연과 음주의 요인 및 정책대안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청소년여성 | 청소년남성 | 비고 |
|-----------|-------|---------|-------------------------------------|--------------------------------------|-----|
| | | 부의학력 | · 아버지의 학력이 낮은 경우 흡연율 높음(고졸OR=1.22) | · 아버지의 학력이 낮은 경우 흡연율 높음(고졸OR=1.25) | 여=남 |
| | | 경제상태 | X | X | - |
| | | 거주형태 | X | X | - |
| | | 부모동거 여부 | · 부모와 비동거시 흡연율높음(부모비동거 OR=1.63) | · 부모와 비동거시 흡연율높음(부모비동거 OR=1.45) | 여>남 |
| 문화 정책적 환경 | 정책 환경 | 담배구입용이 | · 구입이 용이한 경우 흡연율 높음(노력하면구입OR=52.18) | · 구입이 용이한 경우 흡연율 높음(노력하면구입 OR=55.38) | 여=남 |
| | | TV금연홍보 | · 본 적이 없는 경우 흡연율 높음(OR=1.31) | · 본 적이 없는 경우 흡연율 높음(OR=1.36) | 여=남 |
| | | 금연교육 | · 접촉도 없으면 흡연율 낮음 (OR=0.83) | · 접촉도 없으면 흡연율 낮음(OR=0.77) | - |

나. 여성청소년 현재흡연과 관련 요인

여성청소년의 현재흡연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개인적환경, 학교 및 가정 환경, 정책적환경 모두 관련되었다. 개인환경적변수에서는 일반적인 건강 상태 보다는 우울증경험,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경우 등 정신적인 요인이 관련이 있었으며, 여성청소년의 흡연이유로 알려진 체격에 대한 생각은 유의하지 않았다. 건강을 결정짓는 건강생활습관의 하나로 연구된 흡연은 또다른 건강생활습관군인 음주, 신체활동, 식습관과 연관이 있었다. 또한 마약류인 흡입제의 사용이 흡연과 관련성이 있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학교생활척도로 선정한 학업수준이 낮은 경우 흡연경험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가정환경으로는 가정에서의 흡연여부와 가정의 사회적지위를 보여주는 아버지의 학력수준 즉 저학력이 흡연경험율과 비례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부모와의 비동거시 같은 맥락에서 친척집에 거주 시 흡연율이 높게 분석되었다. 문화정책적환경에서는 금연정책의 하나로 선정하였던 담배구입의 용이성이 흡연율과 정비례하였으며, TV에서의 금연홍보접촉시 흡연경험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금연교육경험은 반비례하였다.

소분류 변수 중 담배구입의 용이성, 음주경험여부, 학교에서의 학업수준, 흡입제의 사용경험여부, TV금연홍보접촉여부, 가정 내 간접흡연여부가 순서대로 OR의 값이 높은 변수였다. 또한 여성청소년은 남성청소년에 비하여 우울증, 자살에 대한 생각여부, 건강행태(음주, 운동, 흡입제, 식사습관), 아버지의 학력수준, 부모와의 동거여부와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이 중 자살에 대한 생각여부, 신체활동, 아버지의 학력수준, 부모동거여부는 여성청소년에게만 관련이 있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표 4-2〉 청소년의 흡연을 관련요인 비교표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청소년여성 | 청소년남성 | 비고 |
|-----------|----------|--------------------|---------------------------------|---------------------------------|-----|
| 개인적 환경 | 인구 | 학년 | X | · 고학년(고3 OR=1.44) | 남자만 |
| | | 건강 상태 | 주관적건강상태 | X | X |
| | 주관적체격인식 | | X | X | - |
| | 우울증 | | · 우울증 경험자가 흡연율높음(OR=1.28) | · 우울증 경험자가 흡연율 높음(OR=1.21) | 여>남 |
| | 자살생각 | | · 자살생각경험시 흡연율높음. (OR=1.42) | X | 여자만 |
| | 건강 행태 | 음주 | · 음주경험자가 흡연율높음. (OR=6.28) | · 음주경험자가 흡연율 높음. (OR=4.44) | 여>남 |
| | | 격렬한신체활동 | · 운동무실천자가 흡연율높음. (OR=1.29) | X | 여자만 |
| | | 흡입제 사용 경험. 현재사용 | · 흡입제 경험자 흡연율 높음.(현재사용자OR=9.81) | · 흡입제 경험자 흡연율 높음.(현재사용자OR=7.06) | 여>남 |
| | | 아침식사 여부 | · 아침불규칙식사자 흡연율높음(OR=1.76) | · 아침불규칙식사자 흡연율높음 (OR=1.34) | 여>남 |

172 여성 흡연과 음주의 요인 및 정책대안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청소년여성 | 청소년남성 | 비고 |
|-----------------|----------|-----------------|--|--|-----|
| 사회적 환경 | 학교 환경 | 본인이 평가한 학업성적 | · 학업수준 ‘중하’ 이하인 경우 흡연율 높음(하 OR= 2.16) | · 학업수준 ‘중하’ 이하인 경우 흡연율 높음(하 OR= 2.23) | 남>여 |
| | | 가정내 간접흡연 경험 | · 경험자가흡연율 높음 (매일경험OR=2.01) | · 경험자가흡연율 높음 (매일경험OR=2.29) | 남>여 |
| | 가족 환경 | 부의학력 | · 아버지 저학력이 흡연 율 높음 (고졸OR=1.26) | X | 여자만 |
| | | 경제상태 | X | X | - |
| | | 거주형태 | · 친척집거주시 흡연율 높음(친척집거주 OR=1.74) | · 친척집거주, 보육시설 시 흡연율 높음(친척집 거주 OR=2.47) | 남>여 |
| | | 부모동거 여부 | · 부모와 비동거시 흡연 율 높음(부모 모두 비 동거 OR=1.66) | X | 여자만 |
| 문화 정책적 환경 | 정책 환경 | 담배구입용이 | · 구입이 용이한 경우 흡연율 높음(노력하면 구입OR=61.11) | · 구입이 용이한 경우 흡 연율 높음(노력하면구 입 OR=63.29) | 여=남 |
| | | TV금연홍보 | · 본 적이 없는 경우 흡연율높음(OR=2.08) | · 본 적이 없는 경우 흡연율 높음(OR=2.38) | 남>여 |
| | | 금연교육 | · 접촉도 없으면 흡연율 낮음 (OR= 0.73) | · 접촉도 없으면 흡연율 낮음(OR= 0.76) | - |

다. 여성청소년 금연과 관련 요인

여성청소년흡연자가 금연을 하는 요인으로는 개인적환경, 학교 및 가정 환경, 정책적환경 모두 관련되었다. 개인환경적변수에서는 흡연관련요인과 달리 건강상태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건강을 결정짓는 건강생활 습관군인 음주, 신체활동, 식습관과 연관이 있었다. 그러나 흡입제의 사용은 금연과 관련이 없었다. 금연분석에 새로이 추가된 흡연행태에서는 흡연을 일찍 시작할수록, 흡연량과 빈도가 높을수록 금연율이 낮았다.

학교생활척도로 선정한 학업수준은 금연과 관련이 없었으며, 가정환경으로는 가정에서의 흡연여부와 부모와의 비동거시 금연율이 낮았다. 그러나, 경제상태가 낮은 경우 금연율이 높았다. 문화정책적환경에서는 TV에서의 금연홍보접촉을 하지 않았을 경우 금연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금연교육경험은 유의하지 않았다.

남성청소년과 비교할 때 여성청소년은 남성청소년에 비하여 신체활동, 가정내간접흡연경험, 가정의 경제상태에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표 4-3〉 청소년의 금연 관련요인 비교표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청소년여성 | 청소년남성 | 비고 |
|-----------|----------|---------------------------|----------------------------------|-----------------------------------|-----|
| 개인적 환경 | 인구 | 학년 | X | X | - |
| | | 건강 상태 | 주관적건강상태 | X | X |
| | 주관적체격인식 | | X | · 보통이하 금연율 낮음(마름 OR=0.72) | 남자만 |
| | 우울증 | | X | X | - |
| | 자살생각 | | X | X | - |
| | 건강 행태 | 음주 | · 음주경험자가 금연율 낮음(OR= 0.35) | · 음주경험자가 금연율 낮음(OR= 0.48) | 남>여 |
| | | 격렬한신체활동 | · 신체활동경험자가 금연율 높음(OR= 1.31) | X | 여자만 |
| | | 흡입제사용경험 | X | · 흡입제 경험자 금연율 낮음.(현재사용자OR=0.44) | 남자만 |
| | | 아침식사 여부 | · 불규칙식사자가 금연율 낮음.(OR=0.82) | · 불규칙식사자가 금연율 낮음.(OR=0.81) | 여=남 |
| | 흡연 행태 | 처음흡연 | · 중학교 때 흡연시작한 경우 금연율 낮음(OR=1.44) | · 일찍 흡연시작한 경우 금연율 낮음(초등학교OR=2.50) | 남>여 |
| 흡연일수 | | · 매일흡연자가 금연율 낮음(OR=0.04) | · 매일흡연자가 금연율 낮음(OR=0.05) | 여=남 | |
| 흡연량 | | · 반 갑이상에서 금연율 낮음(OR=0.30) | · 반 갑이상에서 금연율 낮음(OR=0.36) | 남>여 | |

174 여성 흡연과 음주의 요인 및 정책대안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청소년여성 | 청소년남성 | 비고 |
|------------|--------------------------------------|---------------------------------------|------------------------------------|------------------------------------|-----|
| 사회적 환경 | 학교 환경 | 본인이 평가한 학업성적 | X | X | - |
| | | 가정 내 간접흡연 경험 | · 경험자가 금연을 낮음(경험OR=0.66) | X | 여자만 |
| | 가족 환경 | 부의학력 | X | X | - |
| | | 경제상태 | · 낮은 경제상태가 금연율높음(중하OR =2.26) | · 낮은 경제상태가 금연율 높음 (하OR=1.74) | 여>남 |
| | | 거주형태 | X | · 친척집거주시 금연 을 낮음(OR=0.40) | 남자만 |
| 부모동거 여부 | · 어머니만 동거할 경우 금연율 낮음 (OR=0.70) | · 부모모두 비동거 경우 금연율 낮음 (OR=1.48) | - | | |
| 문화정책 환경 | 정책 환경 | TV금연홍보 | · 접촉도가 없으면 금연율낮음 (OR=0.70) | · 접촉도가 없으면 금연율낮음 (OR=0.61) | 여=남 |
| | | 금연교육 | X | X | - |

라. 성인여성의 흡연경험 관련요인

성인여성의 흡연경험과 관련된 요인의 분석은 데이터의 제한으로 인하여 분석에 선택할 수 있는 변수는 제한적이었으며, 흡연자의 비율도 청소년 대상 분석에 비하여 1/3에 불과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제시하기에는 미흡한 제한점이 있다. 가능한 변수의 분석결과 개인적환경과 사회적환경이 관련된 것으로 그리고 문화정책적환경은 관련되지 않은 변수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문화정책적환경변수는 ‘정부에서 실시한 금연홍보캠페인’ 하나만을 변수로 선정하였고, 대상자의 97%가 ‘정부에서 실시한 금연홍보캠페인’을 접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한 관계로 의미 있는 분석결과가 나오지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

개인환경적변수에서는 연령(젊은여성), 결혼상태(사별·별거·이혼), 교육수준(낮은 학력 수준), 직업(육체노동, 무직, 학생, 주부)가 흡연경험에 관

련이 있는 변수였으며, 건강상태에서는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해본 경험이 흡연경험과 관련이 있는 요인이었다. 그러나 청소년에게도 관련이 있는 요인이었던 건강행태(음주, 신체활동)은 유의하지 않았다. 가정내 간접흡연경험이 있는 경우 흡연경험율이 높았고, 금연홍보캠페인 접촉여부는 유의하지 않았다.

소분류 변수 중 직업, 결혼상태, 연령, 가정에서의 간접흡연경험, 교육수준의 순서대로 OR의 값이 높은 변수였다. 또한 성인남성과 비교할 때 성인여성은 성인남성에 비하여 직업, 자살에 대한 생각여부가 더 밀접한 변수로 분석되었고, 음주경험과 가정내 간접흡연경험은 성인남성에게서 더 밀접한 변수로 분석되었다.

〈표 4-4〉 성인의 흡연경험 관련요인 비교표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성인여성 | 성인남성 | 비고 |
|-----------|----------------|---------|---|---------------------------------------|-----|
| 개인적 환경 | 인구 사회 요인 | 연령 | · 젊은연령층에 흡연경험높음 (25~29세OR=3.46) | · 젊은연령층에 흡연경험낮음 (19~24세OR=0.42) | - |
| | | 결혼상태 | · 사별별거이혼의 경우 흡연율높음(OR=4.06) | · 미혼의 경우 흡연율 낮음(OR=0.46) | |
| | | 교육수준 | · 학력이 낮으면 흡연 율 높음(고졸OR=2.32) | · 학력이 낮으면 흡연율 높음(고졸OR=2.62) | 여=남 |
| | | 직업 | · 무직, 학생, 주부, 육체노동의 경우 흡연율높음 (육체노동OR=4.74) | X | 여자만 |
| | | 소득 | X | X | - |
| | 건강 상태 | 주관적건강상태 | X | X | - |
| | | 주관적체격인식 | X | X | - |
| | | 우울감 | X | X | - |
| | | 자살생각 | · 자살생각경험자의 흡연율높음(R=1.70) | X | 여자만 |
| | 건강 | 음주 | X | · 음주할 경우 흡연율 | 남자만 |

176 여성 흡연과 음주의 요인 및 정책대안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성인여성 | 성인남성 | 비고 |
|----------|-------|---------|-------------------------------|------------------------------|-----|
| | 행태 | | | 높음(OR=5.14) | |
| | | 신체활동 | X | X | - |
| 사회적 환경 | 가족 환경 | 가정내간접흡연 | ·가정내 흡연가능의 경우 흡연율 높음 (R=3.96) | ·가정내 흡연가능의 경우 흡연율 높음(R=4.14) | 남>여 |
| 문화정책적 환경 | 정책 환경 | 금연홍보캠페인 | X | ·경험 없는 경우 흡연율 낮음(R=0.52) | - |

마. 성인여성의 현재흡연 관련요인

성인여성의 현재흡연관련요인은 흡연경험과 관련된 요인과 유사하다. 다만 연령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개인환경적변수에서는 결혼상태(사별·별거·이혼), 교육수준(낮은학력수준), 직업(육체노동, 무직, 학생, 주부)이 현재흡연에 관련이 있는 변수였으며, 건강상태에서는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해본 경험이 현재흡연과 관련이 있는 요인이었다. 가정내 간접흡연경험이 있는 경우 흡연경험율이 높았고, 금연홍보캠페인 접촉여부는 유의하지 않았다.

소분류 변수 중 가정에서의 간접흡연경험, 결혼상태, 직업, 교육수준의 순서대로 OR의 값이 높은 변수였다. 또한 성인남성과 비교할 때 성인여성은 성인남성에 비하여 직업, 자살에 대한 생각여부가 더 밀접한 변수로 분석되었고, 연령(젊은연령), 주관적건강상태, 주관적체격인식, 음주경험과 가정내 간접흡연경험은 성인남성에게서 더 밀접한 변수로 분석되었다.

〈표 4-5〉 성인의 현재흡연 관련요인 비교표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성인여성 | 성인남성 | 비고 | |
|-----------|-----------------|----------|--|---------------------------------------|--------------------------------------|-----|
| 개인적 환경 | 인구 사회 요인 | 연령 | X | · 젊은연령층에 흡연율 높음 (25~29세OR=1.85) | 남자만 | |
| | | 결혼상태 | · 사별별거이혼의 경우 흡연율 높음(OR=6.32) | · 미혼의 경우 흡연율 낮음(OR=0.60) | - | |
| | | 교육수준 | · 학력이 낮으면 흡연율 높음(고졸OR=3.01) | · 학력이 낮으면 흡연 율높음(고졸OR=2.07) | 여=남 | |
| | | 직업 | · 무직, 육체노동의 경우 흡연율높음(육체노동O R=4.60) | X | 여자만 | |
| | | 소득 | X | X | - | |
| | 건강 상태 | 건강 상태 | 주관적건강상태 | X | · 건강상태가 보통인 경우 흡연율 높음(OR=1.46) | 남자만 |
| | | | 주관적체격인식 | X | · 비만인 경우 흡연율 낮음(OR=0.70) | 남자만 |
| | | | 우울감 | X | X | - |
| | | | 자살생각 | · 자살생각경험자의 흡연율높음(R=2.06) | X | 여자만 |
| | 건강 행태 | 건강 행태 | 음주 | X | · 음주할 경우 흡연율 높음(OR=3.91) | 남자만 |
| | | | 신체활동 | X | X | - |
| | 사회적 환경 | 가족 환경 | 가정내간접흡연 | · 가정내 흡연가능의 경우 흡연율 높음(R=8.44) | · 가정내 흡연가능의 경우 흡연율 높음(R=9.14) | 남>여 |
| | 문화정 책적 환경 | 정책 환경 | 금연홍보캠페인 | X | X | - |

바. 흡연율이 높은 집단에서의 현재 흡연관련요인

여성의 흡연예방 및 금연정책의 접근에서 소집단적 접근의 필요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성인으로 넘어가는 시기인 고등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의 특성별로 구분하였을 때 흡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문계고등학교집단, 그리고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의 기준으로 아버지의 학력이 낮은 집단을 선택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청소년의 분석과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였다.

고 3 여학생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현재흡연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개인적환경, 학교 및 가정환경, 정책적환경 모두 관련되었다. 개인환경적 변수에서는 건강상태는 전혀 관련이 없었고, 건강을 결정짓는 건강생활습관군인 음주, 신체활동이 연관이 있었다. 또한 마약류인 흡입제의 사용이 흡연과 관련성이 있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전체집단에서 유의한 변수였던 아침식사변수는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고등학교3학년 학생들이 아침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흡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학교생활척도로 선정한 학업수준은 일관성 있는 관련성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가정환경으로는 가정에서의 흡연여부는 높은 흡연율과 관련된 변수로 분석되었다. 또한 경제상태가 낮은 경우 흡연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경제상태가 낮은 경우 흡연율이 높다는 결과를 도출한 일반적인 연구들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문화정책적환경에서는 금연정책의 하나로 선정하였던 담배구입의 용이성이 흡연율과 정비례하였으며, TV에서의 금연홍보접촉시 흡연경험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금연교육경험은 반비례하였다.

소분류 변수 중 담배구입의 용이성(OR=200.10), 흡입제의 사용경험여부(OR=196.93)는 순서대로 OR의 값이 높은 변수였다. 또한 여성청소년은 남

성청소년에 비하여 음주, 신체운동, 흡입제, 가정내 간접흡연, 가정의 경제상태와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이 중 신체활동, 가정의 경제상태는 여성청소년에게만 관련이 있는 변수였고, 주관적체격인식, 거주형태, 부모동거여부는 남성청소년에게만 관련된 변수로 분석되었다.

〈표 4-6〉 고등학교 3학년에서의 현재흡연 관련요인 비교표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고3 청소년여성 | 고 3청소년남성 | 비고 |
|-----------|----------|-----------------|---|--|-----|
| 개인적 환경 | 건강 상태 | 주관적건강상태 | X | X | - |
| | | 주관적체격인식 | X | · 보통의 체격이 흡연을 낮음(OR=0.54) | 남자만 |
| | | 우울증 | X | X | - |
| | | 자살생각 | X | X | - |
| | 건강 행태 | 음주 | · 음주경험자가 흡연율높음(OR=6.07) | · 음주경험자가 흡연율 높음(OR=3.16) | 여>남 |
| | | 격렬한신체활동 | · 운동무실천자가 흡연율높음(OR=1.86) | X | 여자만 |
| | | 흡입제 사용 경험. 현재사용 | · 흡입제 경험자와 현재 사용자 흡연율 높음(현재사용자 OR=196.93) | · 흡입제 경험자와 현재 사용자 흡연율 높음(현재사용자OR=6.08) | 여>남 |
| | | 아침식사 여부 | X | X | - |
| 사회적 환경 | 학교 환경 | 본인이 평가한 학업성적 | · 학업수준 ‘중상’ 인 경우 흡연율 낮음(OR=0.56) | · 학업수준 ‘중하’ 이하인 경우 흡연율 높음(학업수준 하 OR= 2.02) | 남>여 |
| | 가족 환경 | 가정내 간접흡연 경험 | · 가정내간접흡연경험자가 흡연율 높음(매일경험OR=2.41) | · 가정내간접흡연경험자가 흡연율 높음(매일경험OR=2.28) | 여>남 |
| | | 부의학력 | X | X | - |
| | | 경제상태 | · 경제상태 중 이하인 경우 흡연율 낮음(중하OR=0.35) | X | 여자만 |
| | | 거주형태 | X | · 친척집거주, 보육시설일 경우 흡연율 높음(보육시설OR= 8.14) | 남자만 |
| | | 부모동거 여부 | X | · 부모와 비동거시 흡연 | 남자만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고3 청소년여성 | 고 3청소년남성 | 비고 |
|-----------------|----------|--------|---|---|-----|
| | | | | 을 낮음(OR= 0.50) | |
| 문화 정책적 환경 | 정책 환경 | 담배구입용이 | · 구입이 용이한 경우 흡연율 높음(노력하면 구입OR=200.10) | · 구입이 용이한 경우 흡연율 높음(쉽게구입 OR=171.69) | 여=남 |
| | | TV금연홍보 | · 본적이 없는 경우 흡연율높음(OR= 1.75) | · 본 적이 없는 경우 흡연율 높음(OR=2.25) | 남>여 |
| | | 금연교육 | · 접촉도 없으면 흡연율 낮음 (OR= 0.43) | · 접촉도 없으면 흡연율 낮음(OR= 0.67) | - |

흡연율이 높은 집단인 전문계고의 학생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인환경적변수에서는 일반적인 건강상태 보다는 우울증경험,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경우 등 정신적인 요인이 관련이 있었다. 건강생활 습관군인 음주, 신체활동, 식습관과 연관이 있었다. 또한 마약류인 흡입제의 사용이 흡연과 관련성이 있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학교생활척도로 선정한 학업수준이 낮은 경우 흡연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가정환경으로는 가정에서의 흡연여부와 가정의 사회적지위를 보여주는 아버지의 학력수준 즉 저학력이 흡연경험율과 비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친척집에 거주시 흡연율이 높게 분석되었다. 문화정책적환경에서는 금연정책의 하나로 선정하였던 담배구입의 용이성이 흡연율과 정비례하였으며, TV에서의 금연홍보접촉시 흡연경험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금연교육경험은 반비례하였다.

소분류 변수 중 담배구입의 용이성(OR=105.80), 흡입제의 사용경험여부(OR=12.68), 음주경험여부,(OR=4.02)의 순서대로 OR의 값이 높은 변수였다. 또한 여성청소년은 남성청소년에 비하여 우울증, 자살에 대한 생각여부, 신체활동, 식사습관과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이 중 우울증, 자살에 대한 생각여부, 신체활동, 아침식사여부는 여성청소년에게만 관련이

있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표 4-7〉 전문계고에서의 현재흡연 관련요인 비교표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전문계고 청소년여성 | 전문계고 청소년남성 | 비고 |
|-----------|----------|--------------------|--|---|-----|
| 개인적 환경 | 건강 상태 | 주관적건강상태 | X | X | - |
| | | 주관적체격인식 | X | X | - |
| | | 우울증 | · 우울증경험자가 흡연율 높음(OR=1.55) | X | 여자만 |
| | | 자살생각 | · 자살생각경험자가 흡연율 높음. (OR= 1.57) | X | 여자만 |
| | 건강 행태 | 음주 | · 음주경험자가 흡연율 높음 (OR=4.02) | · 음주경험자가 흡연율 높음. (OR=4.50) | 남>여 |
| | | 격렬한신체활동 | · 운동실천자가 흡연율 높음. (OR=1.66) | X | 여자만 |
| | | 흡입제 사용 경험. 현재사용 | · 흡입제 경험자와 현재사용 자 흡연율 높음(현재사용 자OR=12.68) | · 흡입제 경험자와 현재 사용자 흡연율 높음 (현재사용자OR=15.53) | 남>여 |
| | | 아침식사 여부 | · 아침불규칙 식사자가 흡연율 높음. (OR=1.60) | X | 여자만 |
| 사회적 환경 | 학교 환경 | 본인이 평가한 학업성적 | · 학업수준 ‘하’ 인 경우 흡연율 높음(OR= 0.56) | · 학업수준 ‘중하’ 이하 인 경우 흡연율 높음 (학업수준 하 OR= 2.57) | 남>여 |
| | 가족 환경 | 가정내 간접흡연 경험 | · 가정내 간접흡연경험자가 흡연율 높음 (매일경험OR=1.96) | · 가정내 간접흡연경험 자가 흡연율 높음 (매일경험OR=2.04) | 남>여 |
| | | 부의학력 | ·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이 하인 경우 흡연율 높음 (OR=1.66) | X | - |
| | | 경제상태 | X | X | - |
| | | 거주형태 | · 친척집거주일 경우 흡연율 높음(OR= 2.52) | · 친척집거주일 경우 흡연율 높음(OR= 2.35) | 여=남 |
| | | 부모동거 여부 | X | · 부모와 비동거시 흡 연율 높음 (아버지만 동거 OR= 1.73) | 남자만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전문계고 청소년여성 | 전문계고 청소년남성 | 비고 |
|-----------------|----------|--------|---|--|-----|
| 문화 정책적 환경 | 정책 환경 | 담배구입용이 | · 구입이 용이한 경우 흡연율 높음 (노력하면구입OR=105.80) | · 구입이 용이한 경우 흡연율 높음(쉽게구 입 OR=102.12) | 여=남 |
| | | TV금연홍보 | · 본 적이 없는 경우 흡연율 높음(OR= 1.44) | · 본 적이 없는 경우 흡연율 높음 (OR=2.20) | 남>여 |
| | | 금연교육 | · 접촉도 없으면 흡연율 낮음 (OR= 0.76) | · 접촉도 없으면 흡연 율 낮음 (OR= 0.66) | - |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인 집단을 분석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인환경적변수에서는 일반적인 건강상태 보다는 우울증경험,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경우 등 정신적인 요인이 관련이 있었다. 건강생활습관군인 음주, 식습관과 연관이 있었다. 그러나 신체활동은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마약류인 흡입제의 사용이 흡연과 관련성이 있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학교생활척도로 선정한 학업수준이 낮은 경우 흡연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가정환경으로는 가정에서의 흡연경험은 흡연율과 비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모와 비동거시 흡연율이 높게 분석되었다. 문화정책적 환경에서는 금연정책의 하나로 선정하였던 담배구입의 용이성이 흡연율과 정비례하였으며, TV에서의 금연홍보접촉시 흡연경험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금연교육경험은 반비례하였다.

소분류 변수 중 담배구입의 용이성(OR=83.79), 흡입제의 사용경험여부(OR=3.02), 의 순서대로 OR의 값이 높은 변수였다. 또한 여성청소년은 남성청소년에 비하여 우울증, 자살에 대한 생각여부, 음주, 식사습관, 학력수준, 부모 동거 여부와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이 중 자살에 대한 생각여부, 부모동거여부는 여성청소년에게만 관련이 있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표 4-8〉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낮은 집단에서의 현재흡연 관련요인 비교표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아버지의 학력이 낮은 집단-청소년여성 | 아버지의 학력이 낮은 집단-청소년남성 | 비고 | |
|-----------|--------|-----------------|---------------------------------------|--------------------------------------|--------------------------------------|-----|
| 개인적 환경 | 건강 상태 | 주관적건강상태 | X | X | - | |
| | | 주관적체격인식 | X | ·비만일 경우 흡연율 낮음(OR=1.55) | 남자만 | |
| | | 우울증 | ·우울증경험자가 흡연율 높음(OR=1.43) | ·우울증경험자가 흡연율 높음(OR=1.28) | 여>남 | |
| | | 자살생각 | ·자살생각경험자가 흡연율 높음(OR= 1.34) | X | 여자만 | |
| | 건강 행태 | 음주 | ·음주경험자가 흡연율 높음(OR=6.18) | ·음주경험자가 흡연율 높음(OR=4.34) | 여>남 | |
| | | 격렬한신체활동 | X | X | - | |
| | | 흡입제 사용 경험. 현재사용 | ·흡입제 경험자와 현재사용자 흡연율 높음(과거 사용자OR=3.02) | ·흡입제 경험자와 현재사용자 흡연율 높음(현재사용자OR=5.40) | 남>여 | |
| | | 아침식사 여부 | ·아침불규칙 식사자가 흡연율 높음(OR=2.14) | ·아침불규칙 식사자가 흡연율 높음. (OR=1.43) | 여>남 | |
| | 사회적 환경 | 학교 환경 | 본인이 평가한 학업성적 | ·학업수준 ‘중하’ 이하인 경우 흡연율 높음(하 OR= 2.11) | ·학업수준 ‘중하’ 이하인 경우 흡연율 높음(하 OR= 1.64) | 여>남 |
| | | 가족 환경 | 가정내 간접흡연 경험 | ·가정내 간접흡연경험자가 흡연율 높음 (매일경험OR=1.67) | ·가정내간접흡연경험자가 흡연율 높음 (매일경험OR=2.25) | 남>여 |
| 경제상태 | | | X | X | - | |
| 거주형태 | | | X | X | - | |
| 부모동거 여부 | | | ·부모와 비동거시 흡연율 높음(아버지만 동거 OR= 2.15) | X | 여자만 | |
| 문화 정책적 환경 | 정책 환경 | 담배구입용이 | ·구입이 용이한 경우 흡연율 높음(쉽게 구입 OR=83.79) | ·구입이 용이한 경우 흡연율 높음(노력구입 OR=85.36) | 여=남 | |
| | | TV금연홍보 | ·본 적이 없는 경우 흡연율 높음(OR= 1.83) | ·본 적이 없는 경우 흡연율 높음(OR=2.25) | 남>여 | |
| | | 금연교육 | ·접촉도 없으면 흡연율 낮음 (OR= 0.70) | ·접촉도 없으면 흡연율 낮음(OR= 0.78) | - | |

제2절 여성흡연 예방 금연정책의 과제

여성의 흡연행위는 인구사회적환경, 건강습관, 금연정책 등 다각적인 요인과 연관되어져 있다. 또한 여성과 남성은 흡연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종류 및 영향력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점에서 흡연예방 및 금연정책은 성별차별성을 인정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며, 여성의 경우 정책의 수행에 있어서 금연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인구사회적 환경의 개선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여성에게 특히 인구사회적환경의 중요시되므로, 인구사회적 특성별로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세부집단별 접근에 앞서서 여성흡연에 대한 정확한 기초데이터의 확보가 필요하다.

1. 여성특화적 접근(남성과 차별화된 접근)

여성의 연령에 흐름에 따른 흡연관련요인의 변화는 청소년기에는 흡연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있어서 여성에게 인구사회적요인이 다소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면이 있으나, 이 차이는 크지 않다. 그러나 성인으로 변화하면서 흡연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여성과 남성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성인으로 오면서 여성은 흡연자체의 직접적인 요인보다는 여성자신의 인구사회적 배경에 더 영향을 받았으며, 흡연은 아직 특수한 소수의 행위로 분석된다.

흡연경험과 관련된 요인을 남성청소년과 비교할 때 여자와 남자의 흡연경험에 관련된 변수의 종류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정도의 차이는 나타났다. 흡연경험관련 변수들 중 ‘자살생각경험’, ‘음주’, ‘신체활동’, ‘흡입제 사용 여부’, ‘아침식사여부’는 남성 보다 여성에게 더 강하게 작용하였다. ‘학년’, ‘본인이 평가한 학업성적’, ‘부의 학력’, ‘담배구입의 용이성’, ‘TV금연홍보’는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하였으며, ‘우울증’과 ‘가정 내 간접흡연경험’만이 남성에게 더 영향력이 있었다.

현재흡연과 관련된 요인에서는 더 많은 변수가 여성에게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담배구입의 용이성’이 여성과 남성에게 동일하게 그리고 ‘학년’이 남성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여성 청소년흡연자가 금연을 하는 요인은 흡연을 하는 요인과 비슷하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대체로 남성에게 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경험, 현재흡연, 금연의 세 가지를 총괄하여 여성청소년과 남성청소년의 흡연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다각적인 요인이 흡연행위에 영향을 주는 변수임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없으나, 영향의 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여성청소년은 건강행태(‘우울증’, ‘자살’)와 건강습관(음주, 흡입제, 신체활동, 식습관), 부모의 영향력(‘부의 학력’, ‘부모동거’)등 담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변수에 영향을 더 강하게 받았다. 반면에 ‘담배구입의 용이성’, ‘TV에서의 금연홍보접촉도’, ‘가정내 간접흡연경험’ 등 흡연행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변수에 대하여는 여성청소년과 남성청소년의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정책에 있어서 개인·사회·문화정책적 환경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접근에 있어서 여성청소년에게는 가정문제, 건강습관 등 흡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접근정책이 남성청소년의 경우보다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표 4-9〉 청소년의 흡연 관련요인 성별 비교표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흡연경험 | 흡연 | 청소년금연 |
|-------|------|---------|------|-----|-------|
| 개인적환경 | 인구 | 학년 | 여=남 | 남자만 | - |
| | 건강상태 | 주관적건강상태 | - | - | - |
| | | 주관적체격인식 | - | - | 남자만 |
| | | 우울증 | 남>여 | 여>남 | - |
| | | 자살생각 | 여>남 | 여자만 | - |
| | 건강행태 | 음주 | 여>남 | 여>남 | 남>여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흡연경험 | 흡연 | 청소년금연 |
|--------|------|--------------|------|-----|-------|
| | | 격렬한신체활동 | 여>남 | 여자만 | 여자만 |
| | | 흡입제사용경험 | 여>남 | 여>남 | 남자만 |
| | | 아침식사 여부 | 여>남 | 여>남 | 여=남 |
| | 흡연행태 | 처음흡연 | - | - | 남>여 |
| | | 흡연일수 | - | - | 여=남 |
| | | 흡연량 | - | - | 남>여 |
| 사회적환경 | 학교환경 | 본인이 평가한 학업성적 | 남=여 | 남>여 | - |
| | 가족환경 | 가정내 간접흡연 경험 | 남>여 | 남>여 | 여자만 |
| | | 부의학력 | 여=남 | 여자만 | - |
| | | 경제상태 | - | - | 여>남 |
| | | 거주형태 | - | 남>여 | 남자만 |
| | | 부모동거 여부 | 여>남 | 여자만 | 여=남 |
| 문화정책환경 | 정책환경 | 담배구입용이성 | 여=남 | 여=남 | - |
| | | TV금연홍보 | 여=남 | 남>여 | 여=남 |

성인여성의 흡연경험과 현재흡연관련요인을 남녀의 성별차이를 보면 흡연경험과 관련된 변수에서는 성인여성은 성인남성에 비하여 직업, 자살에 대한 생각여부가 더 밀접한 변수로 분석되었고, 음주경험과 가정 내 간접 흡연 경험은 성인남성에게서 더 밀접한 변수로 분석되었다. 현재흡연 관련요인은 성인남성과 비교할 때 성인여성은 성인남성에 비하여 직업, 자살에 대한 생각여부가 더 밀접한 변수로 분석되었고, 연령(젊은 연령),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체격인식, 음주경험과 가정 내 간접흡연경험은 성인남성에게서 더 밀접한 변수로 분석되었다.

종합하면 여성은 25~29세의 젊은 연령층에서 흡연율이 높은 반면 남자는 젊은 연령층의 흡연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여성은 ‘사별·별거·이혼’자가 흡연율이 높고, 직업에서도 ‘무직, 또는 육체노동자’의 흡연율이 높은, 사회적으로 소수자이거나 저소득층에 국한되어 있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건강변수, 건강생활습관변수는 전혀 흡연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자살생각경험’이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정서적인 불안정성이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에게는 직접적인 건강중심의 금연정책 보다는 사회적인 지원책이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남성의 경우 ‘결혼’상태나 ‘직업’의 특수성에 따른 흡연율의 차이는 보이지 않아, 흡연이 남성인구에서는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오히려 건강상태, 건강습관에 따라 흡연이 영향을 받는 구조로 건강측면의 정책이 흡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이다.

〈표 4-10〉 성인의 현재흡연 관련요인 비교표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성인흡연경험 | 성인현재흡연 | |
|-------|----------|---------|-------------------------|------------------------|-----|
| 개인적환경 | 인구사회요인 | 연령 | 여: 젊은연령층 남: 젊은연령층(-) | 남자만 | |
| | | 결혼상태 | 여: 사별별거이혼 남: 미혼 (-) | 여: 사별별거이혼 남: 미혼 (-) | |
| | | 교육수준 | 여=남 | 여=남 | |
| | | 직업 | 여자만 | 여자만 | |
| | | 소득 | - | - | |
| | 건강상태 | 주관적건강상태 | - | 남자만 | |
| | | 주관적체격인식 | - | 남자만 | |
| | | 우울감 | - | - | |
| | | 자살생각 | 여자만 | 여자만 | |
| | 건강행태 | 음주 | 남자만 | 남자만 | |
| | | 신체활동 | - | - | |
| | 사회적 환경 | 가족환경 | 가정내 간접흡연 | 남>여 | 남>여 |
| | 문화정책적 환경 | 정책환경 | 금연홍보캠페인 | - | - |

2. 다각적인 접근

흡연의 단계별, 연령급별, 성별 비교를 한 결과 모든 단계와 대상에서 흡연 및 금연에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각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소년 여성의 경우 금연행위에 직접 관련된 ‘담배구입의 용이성’, ‘금연홍보접촉도’가 외에도 우울증, 자살생각경험이 정서적인 건강, 음주·신체활동·흡입제사용경험·규칙적식사의 건강생활습관, 학교생활적응도의 하나인 학교 성적, 가정의 사회적지위(아버지의 학력)와 부모와의 동거, 가정에서의 간접흡연경험 개인의 인구사회적환경, 건강상태, 건강습관, 금연정책적환경 등 다각적인 요인이 모두 흡연행위에 관련되어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 여성의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하여는 직접적인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정책 외에도 바른건강생활습관의 유도, 청소년시기의 정신건강, 가정에서의 흡연환경 및 부모의 관심도유도 등 금연환경지원을 위한 정책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성인여성의 경우는 연구 및 조사의 제한으로 청소년기의 여성 만큼 상세한 분석을 어려웠으나, 성인여성에게서도 인구사회적환경이 금연행위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분석되었다. 흡연여성은 사별·이혼의 결혼상태, 육체적 근로 또는 무직, 낮은 교육 수준 그리고 우울증경험자로 대변되었다. 이는 성인여성 중 흡연자는 보편적이기 보다는 특수한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다. 이는 성인여성의 흡연예방 및 금연정책은 소외계층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흡연경험 청소년 | 현재흡연청 소년 | 금연청소년 | 성인흡연경 험 | 성인현재흡 연 |
|-----------------|----------|-----------------|-------------|-------------|-------|------------|------------|
| 개인적 환경 | 인구 요인 | 연령(학년) | ⊙ | X | X | ⊙ | X |
| | | 결혼상태 | - | - | - | ⊙ | ⊙ |
| | | 교육수준 | - | - | - | ⊙ | ⊙ |
| | | 직업 | - | - | - | ⊙ | ⊙ |
| | | 소득 | - | - | - | X | X |
| | 건강 상태 | 주관적건강상태 | △ | X | X | X | X |
| | | 주관적체격인식 | X | X | X | X | X |
| | | 우울증 | ⊙ | ⊙ | X | X | X |
| | | 자살생각 | ⊙ | ⊙ | X | ⊙ | ⊙ |
| | 건강 행태 | 음주 | ⊙ | ⊙ | ⊙ | X | X |
| | | 격렬한신체활동 | ⊙ | ⊙ | ⊙ | X | X |
| | | 흡입제사용경험 | ⊙ | ⊙ | X | - | - |
| | | 아침식사 여부 | ⊙ | ⊙ | ⊙ | - | - |
| | 흡연 행태 | 처음흡연 | - | - | ⊙ | - | - |
| 흡연일수 | | - | - | ⊙ | - | - | |
| 흡연량 | | - | - | ⊙ | - | - | |
| 사회적 환경 | 학교 환경 | 본인이 평가한 학업성적 | ⊙ | ⊙ | X | - | - |
| | 가족 환경 | 가정내 간접흡연 경험 | ⊙ | ⊙ | ⊙ | ⊙ | ⊙ |
| | | 부의학력 | ⊙ | ⊙ | X | - | - |
| | | 경제상태 | X | X | ⊙ | - | - |
| | | 거주형태 | X | ⊙ | X | - | - |
| 부모동거 여부 | ⊙ | ⊙ | ⊙ | - | - | | |
| 문화 정책적 환경 | 정책 환경 | 담배구입용이 | ⊙ | ⊙ | - | - | - |
| | | TV금연홍보 | ⊙ | ⊙ | ⊙ | X | X |
| | | 금연교육 | △ | △ | X | - | - |

3. 소집단별 접근

흡연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의 환경이 주요한 요소로서 분석되었는데, 이는 개인의 환경별로 흡연행위가 다르게 이루어 질수 있음을 나타낸다. 예로서 흡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성인이 되어 사회로 나아가는 고등학교 3학년생, 전문계 여자 고등학생의 특성을 살펴보면 집단별 특수성을 볼 수 있다.

모든 집단에서 유의하지 않았던 변수를 제외한 이후 청소년전체의 분석결과와 특수집단에 대한 분석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낮은 집단은 전체청소년에 비하여 ‘우울증경험’, ‘자살생각’, ‘부모와의 동거여부’, ‘담배구입의 용이성’이 주요요인으로, 담배의 구매가능성과 더불어, 정신건강, 부모와의 관계 등 다각적요인이 흡연행위에 관련되었다. 전문계고여학생의 경우 ‘우울증경험’, ‘자살생각’변수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흡입제의 사용여부’가 주요요인으로 추가되며, ‘담배구입의 용이성’의 영향력이 더 커진다. 전문계고여학생에서는 담배와 유사한 마약류에 해당되는 ‘흡입제의 사용여부’가 주요요인으로 추가되어, ‘담배’자체의 직접적인 요인이 더 강조되었다. 고3집단에서 우울증, 자살에 대한 생각경험, 아버지의 학력수준, 부모와의 동거여부변수가 모두 관련이 없어지는 반면, 담배구입의 용이성에서 $OR=200.10$ 으로 전체집단의 61.11의 3배 이상 높고, 흡입제사용이 $OR=196.93$ 으로 전체의 $OR=9.81$ 보다 현저하게 높다. 고등학교 3학년에서는 담배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요인이 가장 주요한 변수로 변화되었다.

| 소분류 | 청소년전체 | 아버지 저학력 | 전문계고 | 고3 |
|-----------------|-------------------------------|----------------------------------|-------------------------------|-----------------------------------|
| 우울증 | · 우울증 경험자 (OR=1.28) | · 우울증경험자 (OR=1.43) | · 우울증경험자 (OR=1.55) | X |
| 자살생각 | · 자살생각경험시 (OR=1.42) | · 자살생각경험자 (OR= 1.34) | · 자살생각경험자 (OR= 1.57) | X |
| 음주 | · 음주경험자 (OR=6.28) | · 음주경험자 (OR=6.18) | · 음주경험자 (OR=4.02) | · 음주경험자. (OR=6.07) |
| 격렬한 신체활동 | · 운동무실천자 (OR=1.29) | X | · 운동무실천자 (OR=1.66) | · 운동무실천자. (OR=1.86) |
| 흡입제 사용 경험. 현재사용 | · 흡입제 경험자(현재사용자OR=9.81) | · 흡입제 경험자 (과거사용자OR =3.02) | · 흡입제 경험자 (현재사용자OR =12.68) | · 흡입제 경험자 (현재사용자OR =196.93) |
| 아침식사 여부 | · 아침불규칙 식사자(OR=1.76) | · 아침불규칙 식사자. (OR=2.14) | · 아침불규칙 식사자. (OR=1.60) | X |
| 본인이 평가한 학업성적 | · 학업수준 ‘중하’ 이하(하 OR= 2.16) | · 학업수준 ‘중하’ 이하-흡연율 높음(하OR= 2.11) | · 학업수준 ‘하’ (OR= 0.56) | · 학업수준 ‘중상’-흡연율 낮음 (OR= 0.56) |
| 가정내 간접흡연 경험 | · 가정내 간접흡연경험자(매일 경험 OR=2.01) | · 가정내 간접흡연경험자(매일 경험OR=1.67) | · 가정내 간접흡연경험자(매일 경험OR=1.96) | · 가정내간접흡연경험자(매일경험OR=2.41) |
| 부의 학력 | · 아버지 저학력이 (고졸OR=1.26) | X | ·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이하 (OR=1.66) | X |
| 경제상태 | X | X | X | · 경제상태 중이하인 경우 흡연율 낮음 (중하OR=0.35) |
| 거주형태 | · 친척집거주시 (친척집거주 OR=1.74) | X | · 친척집거주 (OR= 2.52) | X |
| 부모동거 여부 | · 부모와 비동거 (부모 모두 비동거 OR=1.66) | · 부모와 비동거 (아버지만 동거 OR= 2.15) | X | X |
| 담배구입용이 | · 구입이 용이한 경우(노력하면구입 OR=61.11) | · 구입이 용이한 경우(쉽게구입OR=83.79) | · 구입이 용이한 경우(노력하면구입OR=105.80) | · 구입이 용이한 경우(노력하면구입OR=200.10) |
| TV금연홍보 | · 본 적이 없는 경우 (OR=2.08) | · 본 적이 없는 경우(OR= 1.83) | · 본 적이 없는 경우(OR= 1.44) | · 본 적이 없는 경우(OR= 1.75) |

4. 여성 흡연 모니터링 체계의 개선

여성흡연의 행태 및 그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어, 남성흡연과는 달리, 기존의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종합적이고 정확한 분석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그 동안 이루어진 여성흡연실태조사결과의 신뢰도에 의문이 가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2006년 성인여성의 현재 흡연률은 3.9%(2006년 사회통계조사)로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서의 가장 성인에 근접한 연령인 고등학교 3학년 흡연율(보건복지부, 2006) 12.8%에 비하여 매우 낮다. 또한 연도별로 흡연률의 변동이 심해 통계치가 안정적이지 않다. 성인흡연실태조사는 1992년 5.1%, 1999년 4.4%, 2003년 3.5%, 2006년 2.8%, 사회통계조사는 1992년 6.1%, 1999년 4.6%, 2003년 3.8%, 2006년 3.9%로 연도별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1992년 3.4%, 1998년 5.2%, 2003년 4.0%, 2005년 5.7%로 흡연률이 증가하거나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는 성인여성 흡연에 대한 사회 및 가정의 부정적인 인식 등을 고려할 때 가구조사나 전화조사의 경우 *under-reporting*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젊은 성인 여성의 흡연률은 감소하지 않거나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강영호, 2006), 국가별 흡연 패턴을 분석한 결과 여성흡연이 취업여성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Tevens & Caan, 2008)는 연구결과와 같이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면서 흡연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존 흡연실태조사에 추가적으로 신뢰도를 측정할 수 보완적인 방법을 추가하거나, 가구조사 이외에 사업장, 학교 등 특정집단에서 성인 여성의 흡연률을 지속적으로 측정하는 등의 조사방법의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휴대폰조사, 인터넷 조사 등 익명성을 보장하는 조사방법을 도입하여 조사대상자가 정직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5장 여성음주의 현황

제1절 여성음주율

1. 우리나라 성인여성 음주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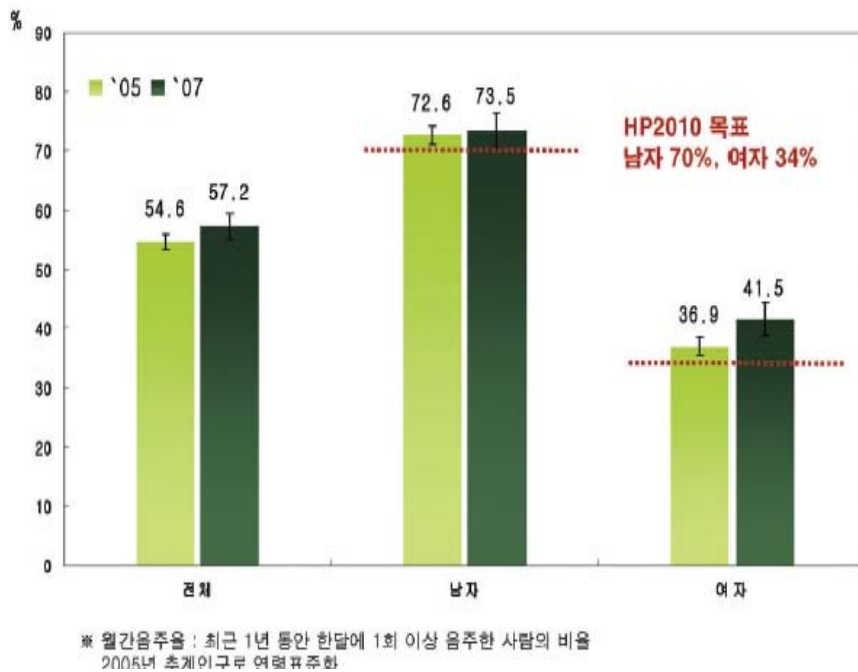
2007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 우리나라 성인의 월간 음주율은 2005년도와 비교할 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남자 73.5%, 여자 41.5%)(그림 5-1). 2005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만19세 이상 성인의 평생음주 경험률은 87.7%였다(남자 94.7%, 여자 80.8%). 지난 1년간 술을 한잔이상 마신 사람의 비율은 78.5%(남자 87.2%, 여자 69.8%)였고, 지난 1달간 1잔 이상의 술을 마신 사람의 비율은 54.6% (남자 73.3%, 여자 36.3%)였다. 연령층 20~59세의 인구집단에서 2005년도의 월간음주율을 과거조사와 시계열 비교했을 때 1998년(전체 53.1%)보다는 높지만 2001년(전체 76.5%)보다는 감소(전체 58.9%)하였다. 그러나 연간음주율은 과거보다 남녀모두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음주율이 낮은 편이나 음주로 인한 피해는 남성보다 2배이상 크기 때문에 여성의 고위험음주 기준량이 남성의 절반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다.¹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음주율을 증가추세에 있고, 이것은 저연령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 및 농촌거주, 직업계층별로는 육체노동 및 실업계층의 중년여성의 알

17)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음주량을 중심으로 중등도위험음주, 고위험음주 등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중등도 음주는 알코올 60그램 이하 섭취(여성은 40그램 이하), 고위험 음주는 61그램 이상 섭취(여성은 41그램 이상)를 의미한다. 2005년도 조사에서 고위험음주행동은 한번의 술좌석에서 소주 7잔(또는 맥주 5캔정도)이상을 마시는 횟수, 여자는 한번의 술좌석에서 소주 5잔(또는 맥주 3캔 정도)이상을 마시는 횟수임.

코올 의존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¹⁸⁾ 성인의 고위험 음주율(월 1회 이상)은 2007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에서 여성의 고위험음주율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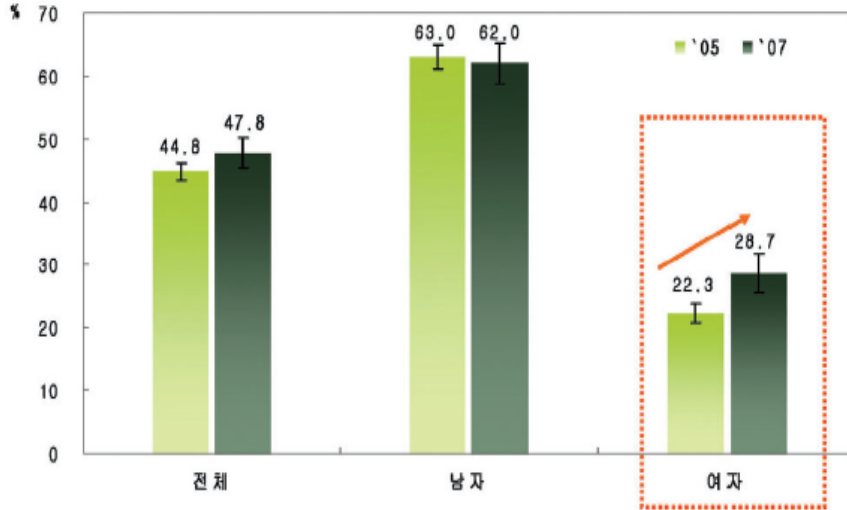
[그림 5-1] 월간 음주율의 연도별 추이



자료: 이정미,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1차년도(2007) 결과(건강설문조사부분, 질병관리본부, 2008).

18) 김남순, 송현중, 김명희, 강영아, 이희영, 박민선, 한국 여성의 건강통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03.

[그림 5-2] 월1회 이상 고위험음주의 변화추이



※ 고위험음주자 : 한번의 술자리에서 7잔(또는 맥주 5캔 정도) 이상을 마시는 남자 또는 한번의 술자리에서 5잔(또는 맥주 3캔 정도) 이상을 마시는 여자
 ※ 2005년 추계인구도 연령표준화, 만 19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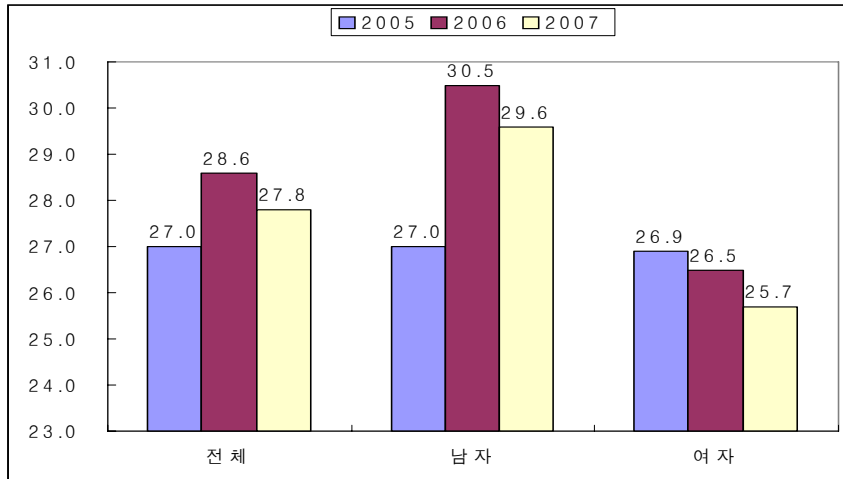
자료: 이정미,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1차년도(2007) 결과(건강설문조사부분, 질병관리본부, 2008).

2. 우리나라 여자 청소년 음주율

최근 3년간 청소년(중고생)의 현재 음주율은 27~28%를 유지하고 있다. 2007년도 청소년건강행태조사결과에서는 남자 29.6%, 여자 25.7%로 나타났다(그림 5-3). 우리나라 청소년(중고생)의 음주경험율(조사시점까지 술한 잔이상을 마셔본 청소년의 비율)은 2006년도에 59.7%, 2007년도에 58.6%로 절반이상이 음주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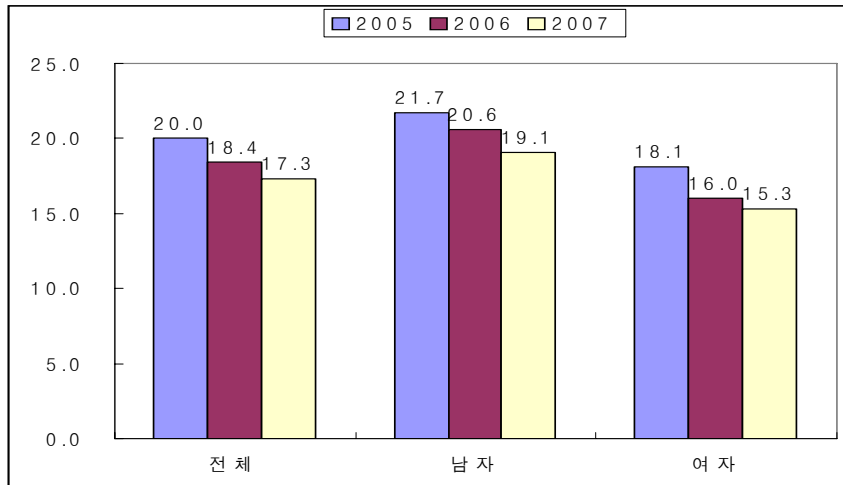
중학교 입학전의 음주경험율은 2007년도 조사에서는 남녀 각각 19.1%, 15.3%였다(그림 5-4). 중학교 입학이전의 음주경험율은 최근 3년간은 조금씩 감소추세이다.

[그림 5-3] 청소년의 현재 음주율 변화



주: 현재 음주율: 지난 1달간 음주자
 자료: 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결과,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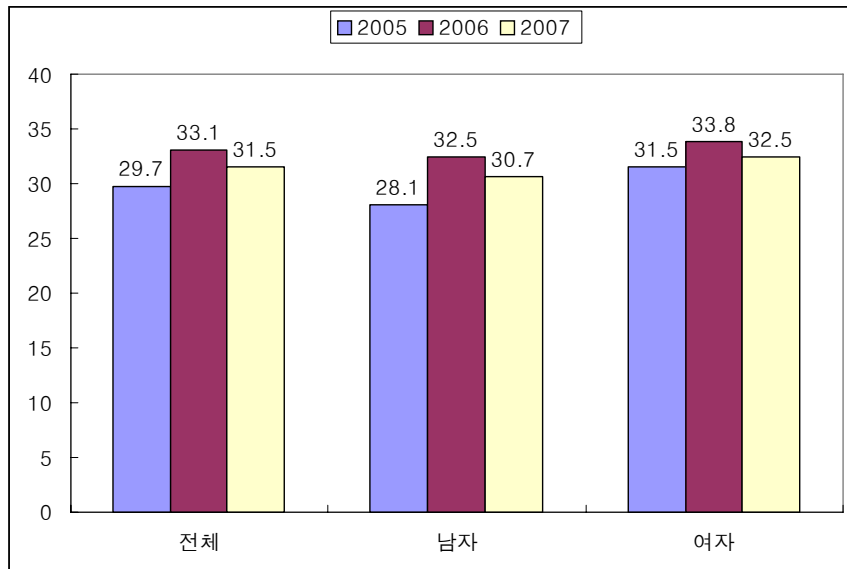
[그림 5-4] 청소년의 중학교 입학전 음주경험율



자료: 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결과, 각 년도

청소년의 고위험 음주율(남자 소주1병 이상, 여자소주 5잔 이상)은 2007년의 경우 현재음주자 중에서 남자 30.7%, 여자 32.5%로 여자청소년의 고위험음주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2006년 조사결과에서도 남자 32.5%, 여자 33.8%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최근 3년간 여자 중고생의 고위험 음주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그림 5-5).

[그림 5-5] 청소년 고위험음주율



주: 현재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남자 소주1병이상, 여자소주 5잔이상)
 자료: 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결과, 각 년도

3. 외국의 음주율 추이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성인의 음주율을 미국인과 비교할 때 연간음주율은 미국인보다 높은 편이고 월간 음주율은 낮은 편이었다. 미국인 현재음주자의 기준이 가끔 및 자주

음주하는 사람이어서 비교에 다소 제한점을 가진다. 2007년도의 조사결과를 비교시 전체월간음주율은 한국 56.7% 미국 54.7%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그림 5-6).

고위험음주율은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성인이 61.1%, 만 18세 이상 미국인은 19.5%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그림 5-7). 알코올섭취 장애와 알코올의존을 미국인 및 미국인디안(알래스카원주민 포함)과 비교할 때 알코올 의존과 알코올남용 모두에서 우리나라 만19세 이상 성인의 비율이 높았다. 미국내에서도 미국인디안의 알코올남용 및 의존의 비율이 미국인보다 높은 것이 특징임을 알 수 있었다(그림 5-8).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알코올남용 및 알코올의존을 평가한 도구가 다르다는 것이다. 비록 비교에 제한점이 있으나 우리나라 성인의 음주행동에 많은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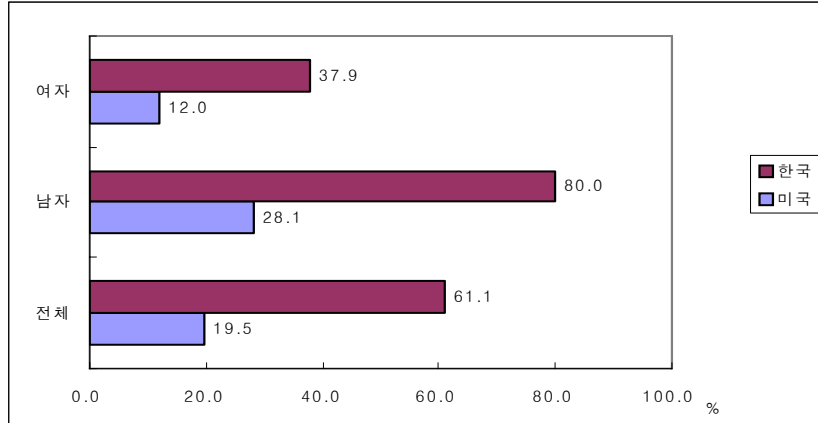
[그림 5-6] 현음주율의 국제비교

| 구분 | 한국 | 미국 |
|----|------|------|
| 전체 | 56.7 | 54.7 |
| 남자 | 73.9 | 62.0 |
| 여자 | 39.9 | 47.6 |

※ 한국 : 최근 1달동안 1잔이상 술을 마시는 사람의 비율, 만 19세이상,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1차년도(2007)
 ※ 미국 : 지난 1달동안 1잔이상 술을 마시는 사람의 비율, 만 18세이상, BRFSS(2007)

자료: 이정미,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1차년도(2007) 결과(건강설문조사부분, 질병관리본부,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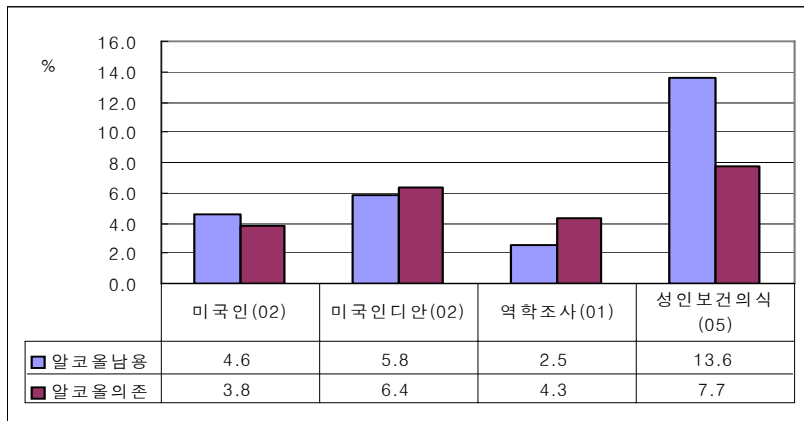
[그림 5-7] 고위험음주율의 국제비교



주: 미국: 2005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고위험음주는 지난 1년간 일간 5잔이상 음주자(18세 이상)

한국: 2005 보건의식행태: 지난 1년간 남자는 소주 7잔, 여자는 소주 5잔이상 음주자(만19세 이상) 인구표준화하지 않은 비교임.

[그림 5-8] 알코올섭취장애 및 알코올의존의 국제비교



주: 미국인 및 미국인디안(알래스카원주민포함) 원자료는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nd Alcoholism 자료임, 역학조사(01)자료는 2001년도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결과 일년유병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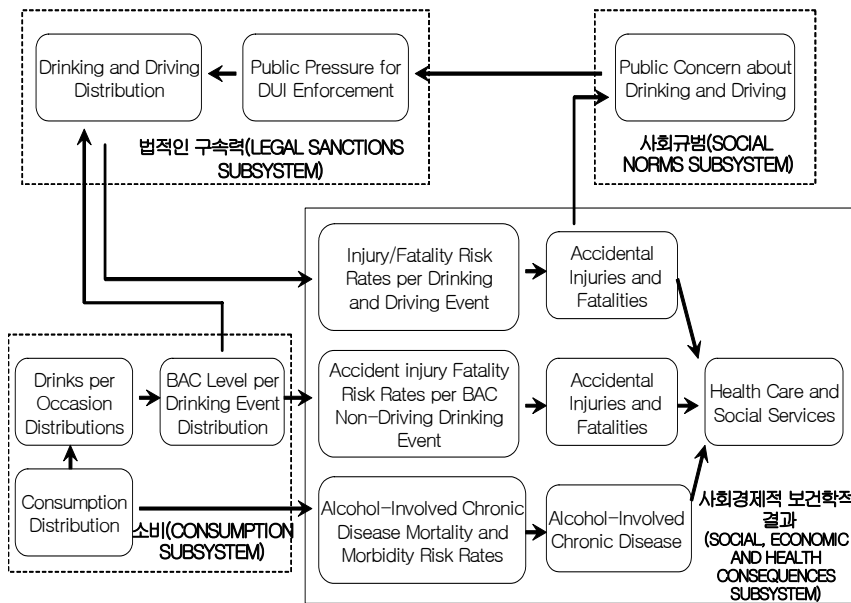
자료: McFarland, B et al. Organization and financing of alcohol and substance abuse programs for American Indians and Alaska Natives, AJPH, 96(8), 2006, 1469-1477.

제2절 음주영향모형 및 관련요인

1. 여성음주로 인한 결과와 사회적 피해

여성의 음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유전적 생물학적 요인 외에 사회적 요인들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5-9 참조). 여성의 음주패턴은 성경험, 폭력경험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외국에서도 보고되고 있다(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1996).

[그림 5-9] 음주로 인한 결과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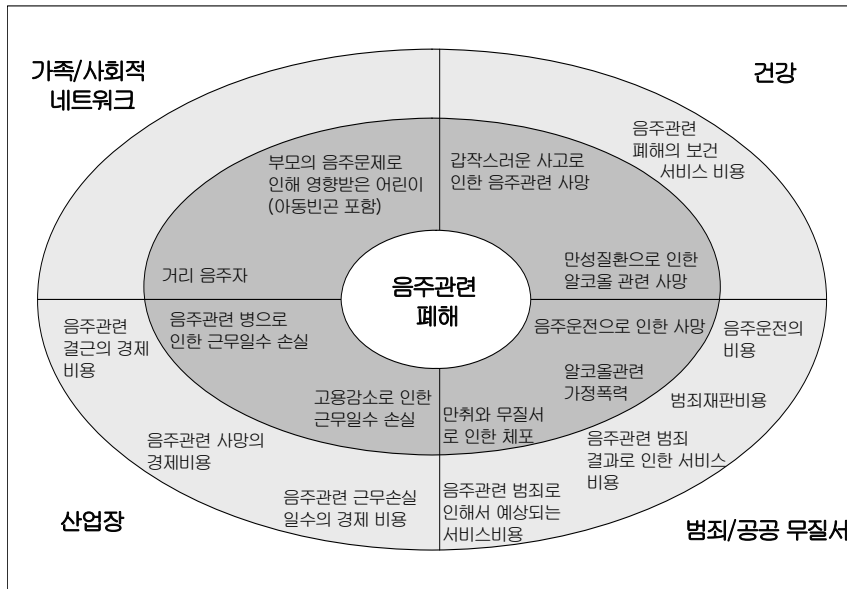


자료: Holder, H.D., Alcohol and the Community: A Systems Approach to Preven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UK. 1998. p.132

음주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은 크게 개인에게는 알코올의존, 급성알코올중독, 간질환 관련 문제 등 이라고 할 수 있고, 실직 및 교통사고

와 같이 사회적 문제로 결과의 유형이 나타나기도 한다. 개인의 알코올의 섭취는 장기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여러 가지 폐해를 가져온다(그림 5-10). 한편 임신초기 여성의 음주는 태아성 알코올증후군(Fetal alcohol syndrome; FAS)을 유발할 가능성을 높인데, 이것은 여성개인의 건강결과와는 별도로 사회적 폐해를 가져오는 결과이다. 태아성알코올증후군은 임신중 단주함으로써 100% 예방가능한 장애이다. 인구집단별 발생율은 다양하지만 미국의 경우 신생아 1,000명당 0.2명에서 1.5명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⁹⁾ 알코올을 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반응과 결과에 대한 개요는 <표 5-1>과 같다.

[그림 5-10] 음주관련 폐해의 종류



자료: Thorley A., Medical responses to problem drinking. Medicine, in NHMRC(2001) Australian Alcohol Guidelines: Health Risks and Benefits. National Health and Medical Research Council, 2001, p. 1826-1822.

19) 자료: <http://www.cdc.gov/ncbddd/fas/fasask.htm#how>; Date: May 2, 2006

<표 5-1> 알코올 관련 위해의 결과

| | 일회적 알코올 섭취의 잠재적 결과 | 장기간 알코올 섭취의 잠재적 결과 |
|---------------------|---|---|
| 심리학적 반응 | 과량 복용 | 사망(예: 간경변), 질병(예: 위염, 췌장염) |
| 정신-생리학적, 정신적 반응 | 의식과 통제의 변화(예: 숙취, 자살), 음주자에 대한 손상, 사고사(재해 사고) | 의존, 우울, 인지 손상 |
| 즉각적인 개인적/사회적/환경적 반응 | 심각한 가족과 작업장의 붕괴, 타인에 대한 손상, 폭력 | 사회적, 직업적 관계의 파괴 |
| 광범위한 사회적/문화적 반응 | 범죄, 비공식적 제재 | 낙인, 변화에 대한 강압, 치료, 알코올 관련 행위에 대한 법률적 금지 |

자료: Rehm J., Fischer B.(1997) Measuring harm: implications for alcohol epidemiology. In: Plant M., Single E., Stockwell T.(Eds) Alcohol: minimising the harm. London: Free Association Press.

2. 여성 음주문제의 진행과정

알코올의존 관련 문제에도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임선영 등(2005)²⁰⁾의 연구에서는 여성알코올의존자의 음주동기가 부정적 정서완화가 특징인 것으로 나타났고, 단독은밀음주형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다른 연구에서도 여성 알코올의존자는 남성에 비하여 합병증은 적으나 폭력이나 이혼 등 상실경험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²¹⁾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ourth Edition(DSM-IV)에 의하면 개인의 알코올사용장애 및 알코올의존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또한 개인의 음주문제들의 정도에 따라 인구집단을 하나의 연속선상

20) 임선영, 조현섭, 이영호, 여성알코올중독자의 중독과정에 대한 사례연구, 임상심리학회지, 24(4), 2005, pp. 869-886.

21) 성상경, 신동환, 송중호, 이규향, 여성 알코올의존 환자의 임상적 특성에 관한 연구-일 정신병원 입원환자를 중심으로, 신경정신의학, 38(6), 1999, pp 1262-1272.

으로 분류할 수 있다(그림 5-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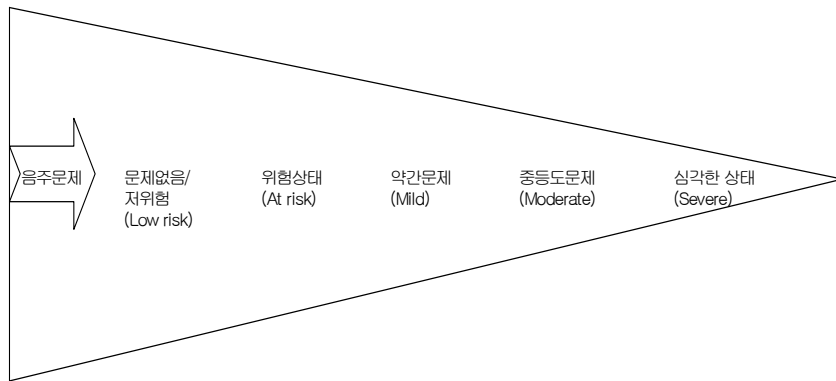
- 알코올 의존은 내성, 금단증상, 음주의 조절력 감소, 인지적 행동적 생리적 증상 등 복합적인 증상에 의해 정의된다. 개인이 알코올로 인한 문제증상을 경험하면서도 계속 술을 마시는 상태를 의미한다.
- 알코올사용장애는 임상적으로 심각한 장애 또는 고통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음주패턴을 의미한다. 음주로 인해 신체적, 사회적, 생리적 또는 근무상의 문제를 경험하면서도 계속 술을 마시는 사람이 해당된다. 알코올사용장애는 과도한 음주상태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고 음주패턴과 관련된 해로운(adverse) 결과에 의해 정의된다.
- 위험한 음주 또는 문제음주는 알코올의존은 아니지만 해로운(adverse) 결과를 가져오는 음주행동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문제음주자는 강제적으로 음주하려는 의존상태보다는 직접적인 알코올중독(intoxication)의 상태로 인한 해로운(adverse) 결과를 경험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문제음주는 알코올사용장애보다 더 넓은 범주에 해당한다.
- 위험음주자는 해로운(adverse)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음주패턴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루에 많은 양의 음주를 하거나 도수 높은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위험의 정도에 따라 하루 섭취하는 알코올량을 분류하였다(표 5-2 참조).

〈표 5-2〉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하루 음주량과 위험도

| 성별 | 위험도 | | |
|----|-------|--------|-------|
| | 낮음 | 중간 | 고위험 |
| 남성 | 1-40g | 41-60g | 61g이상 |
| 여성 | 1-20g | 21-40g | 41g이상 |

자료: WHO, International Guide for Monitoring Alcohol consumption and Related Harm, 2000.

[그림 5-11] 인구집단 음주문제의 연속선



음주문제의 위험상태 (At risk for alcohol problems: risky drinking)

- A. 현재의 음주패턴(음주량 또는 음주의 상황)이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위험에 놓이게 함.
- B. 음주행동으로 인한 결과를 경험하지는 않은 상태
- C. 알코올의존의 범주에는 속하지 않은 상태

약간문제에서 중등도 음주문제 : 문제음주 (Mild to Moderate Alcohol Problems: problem Drinking)

- A. 음주행동으로 인하여 해로운(adverse)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
- B. 알코올의존의 범주에는 속하지 않은 상태

중등도에서 심각한 음주문제 : 알코올사용장애 (Moderate to Severe Alcohol problems: Alcohol Abuse)

DSM-IV 범주 : 지난 12개월간 A에서 D를 한가지 이상 경험하였고, E의 상태인 경우

- A. 역할수행에 장애가 생김.
- B. 해로운(hazardous) 사용
- C. 알코올과 관련된 범위반행위 재발
- D. 알코올로 인한 사회적 또는 개인간 문제발생
- E. 알코올의존의 범주에는 해당하지 않음.

심각한 음주문제 : 알코올의존 (Severe Alcohol problems: Alcohol Dependence)

DSM-IV 범주 : 지난 12개월간 A에서 G를 3개이상 경험한 상태임

- A. 내성
- B. 알코올 금단증상
- C. 의도한 것보다 더 많이 또는 더 오래 마심.

- D. 조절하려는 의지가 있으나 계속 실패함.
- E. 음주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됨.
- F. 음주로 인해 사회활동, 여가활동, 근무활동이 줄어듦.
- G. 신체적, 심리적 결과를 알면서도 계속 마심.

자료: 이 자료의 삼각형은 미국 인구집단을 의미함.

Roberts L.J. & McCrady B.S., Alcohol Problems in Intimate Relationships : Identification and Intervention: A guide for marriage and family therapists,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NIH,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3

3. 심리행동적(비의학적) 분류에 의한 음주문제의 유형²²⁾

심리행동적인 분류에 의한 음주문제의 분류는 음주자가 알코올에 반응하는 유형별로 구분해 본 것이다. 이것은 지역사회에서 음주자들을 세분화하여 접근할 때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 젤리넥²³⁾의 고전적인 분류

- Alpha alcoholism : 심리적으로만 의존적인 사람으로 흔히 문제음주자라고 불린다.
- Beta alcoholism : 간경화 위궤양 같은 건강결과만을 가지고 있고 다른 심리적 신체적 의존은 없는 사람이다.
- Gamma alcoholism : 심리적 의존에서 신체적 의존으로 진행되고 통제력이 상실된 사람. 미국에서 알코올의존자로 분류되는 사람의 집단이다.
- Delta alcoholism : 심리적 신체적 의존이 있으나 통제력은 있는 사람 (알코올 섭취를 통제할 수 있지만 하루도 술을 마시지 않고 지낼 수는 없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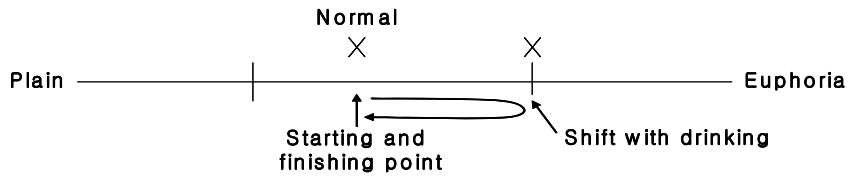
22) 음주문제와 알코올의존의 연속선 자료원 : Glatt M.M., A guide to addiction and its treatment, Medical and Technical Publishers, 1974, pp.334-335.

23) Jellinek, E.M., the disease concept of alcoholism, New Haven, CT: Hill House Press, 1960.

- Epsilon alcoholism : 간헐적인 빈지 음주자이며, 이들은 신체적 심리적 의존이 전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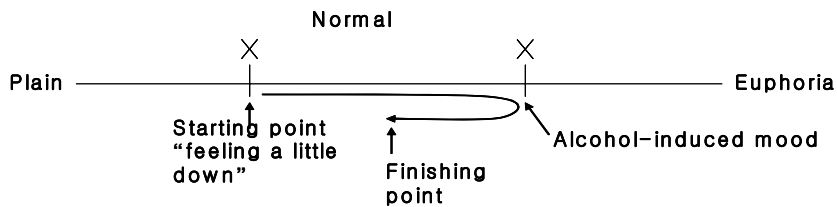
나. 고통과 쾌감의 차트에 의한 분류

- 첫단계: 정상적인 상태에서 음주를 시작하여 음주로 인해 기분전환을 느낀다. 신체내 알코올의 효과가 없어지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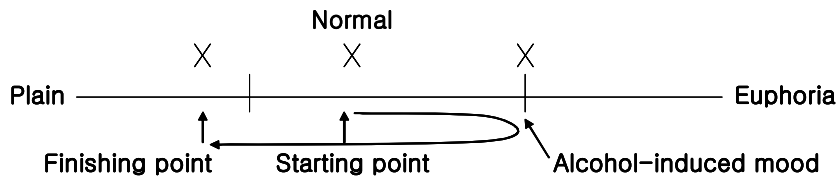
- 두 번째 단계: 기분전환을 위해서 술을 찾는 단계이다. 음주가 하나의 목적이 된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또는 직장에서, 가족에서의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으며 술을 찾게 된다. 약간 우울한 상태에서 음주를 시작하여 음주로 인한 기분전환을 느끼고 정상으로 돌아온다.

많은 음주자들이 음주의 효과를 느끼지만 대부분은 그때 뿐이라고만 생각하고 항상 마시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부 알코올 의존성이 있는 사람들은 세 번째 단계의 음주행태를 보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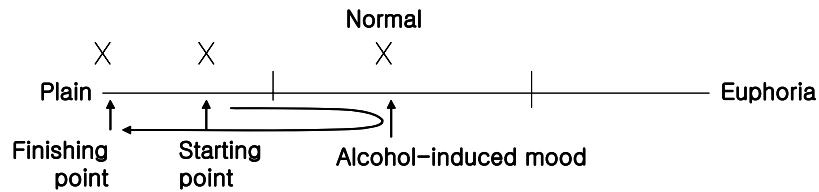


- 세 번째 단계는 해로운 알코올 의존의 단계이다. 음주로 인한 기분전환을 느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정상상태에서 술을 마시

며, 그 결과는 고통스러움을 경험하게 된다. 친구, 직장동료, 가족과도 술로 인해 긴장감을 가지게 된다.



-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정상적으로 느끼기 위해 술을 마시는 알코올의 존의 단계이다. 기분 좋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고, 우울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느낌을 얻기 위해 술을 마신다. 그러나 결국 더 고통을 느끼는 상태가 되어 심각한 상태이다.



다. 음주의 유형과 건강영향의 근거

알코올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인류가 섭취해온 식품의 일종이기도 하며 약물이기도 하다. 음주를 금하거나 자제하는 것은 사회문화적, 종교적 교의에 의하여 다양한 규범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따라서 절주의 정의는 단일하게 내릴 수 없다. 영어로는 moderate drinking, low risk drinking 등으로 표현되며 정확하게 한 가지 정의로만 존재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고위험 음주에 대한 정의가 다양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위험도 수준에 따라 저위험, 중간위험, 고위험 음주로 나누어 알코올 섭취의 위험량을 분류하고 있다. WHO에서 제시하는 저위험 음주기준은 주 5일, 하루 20g이하이다(주2일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권고). 저위험 또는 중간정도의 위험음주 기준량은 성별 차이가 있다. 이는 여성이 신체적 특성상 상대적으로 술에 취하기 쉽고 건강에 해를 받기 쉽기 때문이다. 성별, 몸무게 등에 따라 같은 양을 섭취하여도 혈중알코올 농도는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음주의 효과 면에서나 폐해 면에서 볼 때 전체 주류소비량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음주패턴도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규칙적인 음주의 빈도가 주 4일 하루 1~2잔인 경우와, 주중의 어느 하루에 같은 양의 주간 소비량을 한번에 섭취하는 경우가 다르다는 연구들도 있지만 다양한 음주패턴을 고르게 반영하는 연구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게 된다.

알코올 소비와 관련된 건강결과에 대한 연구들은 긍정적 결과와 부정적 결과들이 상치되고 있으며 아직 많은 논란 속에 있다. 저위험 음주가 약간의 건강이득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 관상동맥질환, 심근병, 뇌졸중, 당뇨병, 골다공증, 치매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약간의 음주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일부 연구들에서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의 FDA에서는 관상동맥심장질환 위험을 감소시키는 약물로서 알코올을 처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알코올을 사용하는 사람의 약 10%가 중독이나 알코올의존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고 알코올을 사용하는 사람 주변의 가족과 친척, 심지어 모르는 사람까지도 피해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호주정부에서도 음주의 장점보다 피해가 크다는 점 때문에 건강이득을 위해 음주를 권하지 않도록 지침을 개발한 바 있다. 특히 심장질환 위험요인감소를 위해 음주보다는 운동과 금연, 적절한 식이요법을 권장하고 있다. 긍정적인 건강효과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운동이나 영양등의 생활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긍정적 효과를 위해 술을 마시는 것을 권장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고찰에서는 부정적인 결과에 더 비중을 두고 고찰하였다.

정진규, 김종성(2005)의 연구에서는 알코올 소비와 관련된 연구를 고찰하였고, 절주의 가니드를 제시한 바 있다(표 5-3 참조). 건강한 성인 남성은 하루 2잔 이내를 권고하며 여성의 경우 하루1잔 이내로 권고한 바 있다. 노인의 권고량도 성인의 절반으로 하고 있다. 알코올의 소비는 인체의 여러 기능에 손상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각종 만성질병에 걸릴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한편 정영호(2006)의 연구에서는 각종 음주관련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산하였는데 음주로 인한 비용이 총 2조 7,917억원이었고, 음주로 인한 질병 비용 중에서 정신질환 및 행동장애의 비중이 남자는 약 38%, 여자는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 과음의 건강피해에 대한 연구요약

| · 심혈관계질환 | |
|-----------|--|
| 관상동맥 질환 | 하루 30g이상 음주는 돌연사를 증가시킴 |
| 고혈압 | 하루 30g이상 음주는 혈압상승 및 고혈압치료제 내성증가 |
| 알코올성 심근병 | 하루 90-100g을 초과하는 음주시 심장과 골격근육에 손상 수술환자는 음주량이 하루60g이상이면 심장병이환율이 5배증가하고, 심근손상이 광범위한 경우는 단주하는 것이 효과적임. |
| 뇌졸중 | 비음주자에 비하여 하루 6잔이상 음주자는 허혈성 뇌졸중이 2.1배 증가 |
| · 내분비계 질환 | |
| 당뇨병 |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환자는 금주해야 하며 당뇨병이 잘 조절되는 경우에도 남성은 하루 2잔이하, 여성은 1잔이하만 허용함. |
| 고지혈증 | 과도한 음주는 고지혈증을 유발함.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은 금주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성기능 | 가임기여성의 과음은 생리주기이상, 무배란월경, 불임원인이 됨. 남성의 과음은 정자생산감소의 영향이 있음. |
| 알코올성 간질환 | 1일 120mg의 알코올을 25년간 마시면 간 경변으로 이행된다. 다른 음식과 함께 먹지 않고 하루에 미시는 횟수가 많을수록, 매일 마실수록 간 독성의 정도가 심하다. |
| · 소화기계 질환 | |
| 구강 및 식도질환 | 과음하는 사람에서 점막손상이 나타남 증류주를 마실 때 더 심각 |

210 여성 흡연과 음주의 요인 및 정책대안

| | |
|-----------------|--|
| | 함. 맥주를 과음하면 10배, 위스키를 과음하면 25배의 식도암 위험이 증가한다. |
| 위염 | 알코올의존환자에서 위염이 흔히 발생한다. |
| 췌장염 | 췌장효소의 증가로 췌장의 피사를 초래한다. |
| 대장질환 | 직장근육의 수축력과 빈도가 감소하여 설사를 유발하고 만성적 과음은 대장암 및 대장용종을 발생시킬 수 있다. 증류주보다는 맥주를 마시는 사람에서 직장암 위험이 증가함. |
| · 신경계질환 | |
| 알코올성 지속성 치매 | 알코올로 인하여 중추신경이 손상되어 발생하는 치매이다. |
| · 알코올성 지속성 기억장애 | |
| 베르니케-코르사코프 증후군 | 35세 이후 발생하는 기억장애로 급성은 베르니케 증후군, 만성은 코르사코프 증후군이며 코르사코프증후군은 치료해도 약 20%만 회복된다. |
| 알코올성 신경병증 | 알코올의존환자의 약 9%에서 발생하며, 치료하면 수 주에서 1년에 걸쳐 회복된다. |
| · 기타 관련 질환 | |
| 태아알코올증후군 | 태아의 성장지연, 중추신경계이상, 다양한 형태의 안면기형을 동반하는 장애이다. 임신 중 폭음이 더 영향을 준다. 안면기형은 임신1기의 음주와 관련이 있고, 신경계이상은 임신 전체기간의 음주와 관련이 있다. |
| 면역계통의 이상 | 알코올의존환자는 면역력이 저하되어 감염이 잘되고 암에 걸릴 확률이 높게 된다. |
| 암 | 만성적인 과음은 구강, 인후, 식도, 간암의 발병률을 10-12배 높이고, 대장, 유방, 난소암의 발병률을 1.2-3.5배 증가시킨다. |

자료: 정진규, 김종성, 건강증진영역에서 음주의 득과 실, 가정의학회지, 27(4), 2006, p. 251-260.

Rehm et al.(2003)의 연구에서는 알코올소비량과 음주패턴이 주는 폐해의 부담을 연구하였다. 알코올 소비량은 구강암, 인두암, 식도암, 유방암, 단극성 우울증, 간질, 알코올사용장애, 고혈압, 출혈성 경색증, 간경화 등에 부정적으로 관련이 있었고, 심장병, 손상은 특히 소비량과 더불어 음주패턴과 부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소량의 음주자도 많은 위험에 노출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하루에 1~2잔 정도의 술을 마시는

농부들이 미국의 농부들이 작업중 손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Stallones et al, 2003). 다른 연구에서도 권고수준이상의 음주를 하는 사람은 알코올 의존 및 알코올사용장애의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Dawson et al, 2005).

문제음주자(problem drinker)는 알코올중독자라는 표현이 갖는 alcoholic, non-alcoholic으로 범주화시키는 용어가 아니고, 과도한 음주소비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김혜련, 최윤정, 2003 재인용; Sweeney, 1998). 문제음주(Problem drinking)란 음주관련 문제를 유발시키는 음주행위를 말하며 음주관련 문제란, 술을 적당한 정도로 통제하여 마시지 못하여 알코올 남용 또는 알코올 의존, 중독에 이르게 되는 것 뿐 아니라 음주로 인해 자신 또는 주변의 타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한다(백성희 등, 2002).

과음이나 의존 증상 또는 음주문제와 관련하여, 의료적,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학업·직업적, 법적, 경제적, 영적 기능 및 가족관계와 대인관계 등에 다양한 수준의 문제를 야기하는 음주행동을 말한다(Institute of Medicine, 1990).

박창승(2003)의 직장인 문제음주자의 절주단계 관련변인 분석 연구에서는 알코올 사용 장애 진단검사(AUDIT: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를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된 결과 총점이 8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음주양태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이원재(2003)의 연구에서는 AUDIT검사법과 NAST선별검사(Alcoholism Screening Test of Seoul Mental National Hospital)에 의하여 알코올의존을 정의하고 있다.

음주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법적, 경제적 및 영적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음주는 알코올 남용, 알코올 의존과 같은 병리적 음주와

음주로 초래되는 가정, 직장, 법적인 문제를 포함한 음주관련문제를 유발하는 음주행위를 포함한다(김남초 외, 2004, 재인용; Pollock, 2000). 김남초 외(2004)의 연구에서는 AUDIT 10문항의 총점이 8점 이상인 경우를 문제음주로 분류했다. 위험하고 유해한 음주추적 즉, 초기 문제 음주자 확인에 유용한 WHO에서 개발한 알코올사용장애확인검사(AUDIT) 결과를 의미한다(도은영, 도복늬, 2004).

음주관련 문제는 음주로 초래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지칭하는 것으로 알코올 남용이나 의존과 같은 병리적 문제 뿐 아니라 음주로 인해 초래되는 음주자의 건강, 가정문제, 직장문제 및 법적인 문제 등까지를 포함한다(김명순 외, 2001).

4. 우리나라 여성음주 관련요인 고찰

여성의 음주 관련요인의 중요성은 음주폐해 및 고위험음주로 인한 결과의 심각성에서 비롯된다. 음주하는 여성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고위험음주후 원치않는 임신, 태아성알코올 증후군, 간질환 등 주요 만성질환 등의 건강결과를 겪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여성음주의 폐해와 관련 요인에 관한 논문은 많지 않다. 한국교육학술정보서비스를 검색하면 태아성 알코올 증후군에 대한 논문이 5편, 학술지논문이 4편 정도 검색된다. 우리나라 성인 음주율 및 고위험음주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태아성알코올증후군은 양적인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박경일, 2008).

여성음주에 대한 인식, 음주의 상황적 기대감, 직장의 음주상황 등이 여성의 위험음주와 관련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전현진, 2007). 성인의 음주행동은 음주에 대한 기대감과 음주에 대한 인식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양승희, 2006). 여성의 문제음주는 아동기 신체적 학대 경험, 친구와 가족요인, 사교동기, 대처동기 등이 주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최근도, 2005).

우리나라 여성의 음주에 영향을 주는 관련 요인에 대한 논문들을 찾기 위하여 “여성음주”라는 키워드로 문헌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인구학적 특성으로 볼 때 20세 이상 성인여성의 경우는 젊은 층일수록 음주빈도 및 음주량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38개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여성음주와 관련된 공통요인은 연령, 교육수준, 우울, 높은 음주빈도와 높은 음주량 등이었다(표 5-4 참조).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경제적인 문제, 부모의 음주, 개인의 학업성취도 및 학교적응도와도 관련이 있었다. 병원입원환자나 쉼터 등에 입소해 있는 사람일수록 가족력 및 폭력경험, 이혼 등의 결혼문제가 관련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4〉 국내 여성음주관련 영향요인 개요

| | 유형 | 청소년 | 대학생 | 직장인 | 특수집단* | 일반성 인전체 |
|----------------|-----------|-----|-----|-----|-------|------------|
| 연구표본 | 대상 | 4 | 8 | 5 | 10 | 11 |
| 영향요인 변수 | 연령 | 1 | | 2 | 4 | 5 |
| | 교육수준 | | | 2 | 4 | 2 |
| | 종교 | | | | 3 | 3 |
| | 결혼상태 | | | 3 | 5 | 1 |
| | 경제문제 | 2 | | | 1 | |
| | 남편의 음주 | | | | 1 | |
| | 폭력경험 | 1 | | 1 | 4 | 3 |
| | 가족력 | 2 | 2 | 2 | 8 | 3 |
| | 대도시 및 광역시 | 4 | 7 | 5 | 3 | 4 |
| | 지방 | | 1 | | 1 | 3 |
| | 높은 음주빈도 | 1 | 5 | | 3 | 4 |
| | 높은 음주량 | 1 | 5 | | 4 | 4 |
| | 우울 | 1 | 4 | 1 | 6 | 4 |
| | 스트레스 | 1 | 5 | 2 | 1 | |
| | 사회적 지지 | | 4 | 3 | 1 | 2 |
| 흡연 | | 2 | 1 | | 3 | |
| 비만 등 다른 건강위험요인 | | | | | 2 | |

주: * 병원 입원환자, 쉼터 재소자

제6장 우리나라 여성음주 관련요인 분석 결과

제1절 추정 음주율

1. 여성음주의 폐해 관련 고위험 음주의 범위

음주는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연구도 있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위궤양을 유발하고, 지방간이나 알코올성 간염, 알코올 의존 등을 발생시킨다. 또한 판단이나 감정조절능력을 저하시켜 언행, 기억력, 운동기능 등에 장애가 오고, 이것이 계속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노인철 등, 1997).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위험도 수준에 따라 저위험, 중간위험, 고위험 음주로 나누어 알코올 섭취의 위험량을 분류하고 있다. WHO에서 제시하는 저위험 음주기준은 주 5일, 하루 20g이하이다(주2일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권고). 저위험 또는 중간정도의 위험음주 기준량은 성별 차이가 있다. 이는 여성이 신체적 특성상 상대적으로 술에 취하기 쉽고 건강에 해를 받기 쉽기 때문이다. 성별, 몸무게 등에 따라 같은 양을 섭취하여도 혈중알코올 농도는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2. 여성 음주율, 고위험 음주율

우리나라여성의 음주율에 대한 조사결과들에 의하면 성인여성의 음주율은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2007년도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41.5%였고, 통계청의 '2008년 보건·가족부문 사회조사 결과'에서는 여성음주율이 55.3%였다. 조사마다 조사항목과 조사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조사의 결과들만 가지고 직접적인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나 전

반적인 추세는 여성 음주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0년까지의 여성음주율 목표치는 34%로 설정된 바 있다.

여성 고위험 음주율 월 1회이상 비율은 2005년도의 22.3%에서 2007년도에 28.7%로 남성의 고위험음주율 변화에 비하여 상당히 높게 증가한 것이다. 고위험 음주율 빈도는 평소 음주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최은진 외, 2007).

3. 음주율이 높은 집단

연구논문이나 조사결과를 통해 볼 때, 젊은 여성일수록 음주빈도와 음주량이 높은 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자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음주경험, 어릴적 학대경험으로 인한 낮은 자아존중감, 우울 및 스트레스, 흡연 등 다른 약물의 사용, 학교부적응 등이 관련 변수들이다. 따라서 저소득층 청소년, 학교 부적응 청소년 등이 주된 위험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성인여성의 경우는 여대생이나 직장인들은 음주빈도와 음주량이 문제음주의 경향을 높인다. 결혼관계에서 가정폭력의 경험이나 가족력, 개인의 과거 음주력 등이 영향을 주는 변수들인데, 개인적인 문제경험이 가장 큰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음주문제와 우울 및 스트레스, 학력수준 등이 주된 영향요인이 된다.

제2절 여성청소년 음주관련 요인

1. 분석 방법

여성청소년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흡연과 동일한 데이터인 제2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대상자들의 음주와 관련된 특성은 아래 <표 6-1>과 같다.

<표 6-1> 제2차 청소년 행태조사 분석대상자 일반적 특성

| | | | 남자 | | 여자 | |
|------|-----------------------|-------------|--------|--------|--------|--------|
| | | | 빈도 | 백분율 | 빈도 | 백분율 |
| 전체 | | | 37,204 | 100.00 | 34,200 | 100.00 |
| 건강행태 | 처음음주 시기 ²⁾ | 초등학교 혹은 그이전 | 7,163 | 32.45 | 5,129 | 25.20 |
| | | 중학교 | 10,617 | 48.10 | 12,190 | 59.90 |
| | | 고등학교 | 4,293 | 19.45 | 3,033 | 14.90 |
| 정책환경 | 술구입용이 | 산적 없음 | 29,484 | 79.25 | 27,957 | 81.75 |
| | | 구입불가능 | 1,022 | 2.75 | 752 | 2.20 |
| | | 노력하면 가능 | 3,534 | 9.50 | 3,125 | 9.14 |
| | | 쉽게 가능 | 3,163 | 8.50 | 2,364 | 6.91 |
| | 술건강교육 | 받지않음 | 27,286 | 73.35 | 25,459 | 74.44 |
| | 받음 | 9,916 | 26.65 | 8,740 | 25.56 | |

주: 1) 현재음주자(남성청소년 11,211명, 여성청소년 9,256명)를 대상으로 함.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는 <표 6-2>와 같이, 무음주율, 현재음주율, 고위험음주율 등이며, 이에 대한 설명변수로 인구요인, 건강상태요인, 건강행태요인, 학업수준, 가족환경, 정책환경 등으로 구분하였다.

<표 6-2> 여성청소년 흡연요인 분석에 사용된 변수 및 설명

| 변수 | 설명 |
|--------|---|
| 무음주율 | 지금까지 음주한 경험이 없는 사람의 비율 |
| 현재흡연율 | 지난 달에 음주한 사람의 비율 |
| 고위험음주율 | 현재 음주자 중에서 한번에 마시는 술이 남자의 경우 소주 7잔 이상, 여자의 경우 5잔 이상인 경우 |
| 인구요인 | 학년 |
| 건강상태 |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감, 자살생각 |
| 건강행태 | 신체활동, 흡연, 흡입제 사용, 아침식사 |
| 학업수준 | 본인이 스스로가 평가한 학업성적 |
| 가족환경 | 부모학력, 경제상태, 거주형태, 부모동거 |
| 정책환경 | 술건강교육 |

2. 대상자의 특성

청소년 중 전체의 40%가 음주경험이 없었으며, 여성청소년의 경우는 59%가 음주경험이 없었다. 청소년의 현재음주율은 28.6%로 조사되었으며, 성별로는 여성청소년 26.5%, 남성청소년 30.5%로 나타났다. 이 중 한번에 마시는 술이 남자의 경우 7잔 이상, 여자의 경우 5잔 이상인 고위험음주자는 여성청소년 음주자의 9.1%, 남성청소년 음주자의 9.96%로 조사되었다(표 6-3).

〈표 6-3〉 청소년 성별 음주무경험률, 현재음주율, 고위험음주율

| | | 남자 | | 여자 | | 전체 | |
|--------------------------|---------|--------|--------|--------|--------|--------|--------|
| | | N | % | N | % | N | % |
| 계 | | 37,204 | 100.00 | 34,200 | 100.00 | 71,404 | 100.00 |
| 현재 음주율 ¹⁾ | 음주함 | 11,211 | 30.46 | 9,256 | 26.54 | 20,467 | 28.60 |
| | 음주안함 | 25,250 | 69.54 | 24,646 | 73.46 | 49,896 | 71.40 |
| 고위험 음주율 ²⁾ | 고위험음주 | 3,451 | 9.96 | 3,087 | 9.10 | 6,538 | 9.55 |
| | 고위험음주아님 | 30,820 | 90.04 | 29,366 | 90.90 | 60,186 | 90.45 |
| 음주 무경험율 ³⁾ | 음주경험 없음 | 14,575 | 40.06 | 13,535 | 40.65 | 28,110 | 40.34 |
| | 음주경험 있음 | 22,629 | 59.94 | 20,664 | 59.35 | 43,293 | 59.66 |

주: 1) 백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무응답 1,041명

2) 백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무응답 3,680명

3) 백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무응답 1명

가. 현재음주율

1) 학년별·학업수준별 음주율

청소년의 음주율을 학년별, 학업수준별로 나누어 구해본 결과 학년이 높아질수록 음주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변수간의 전후관계는 명확하지 않으나,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의 음주율이 높았다.

〈표 6-4〉 청소년 학년별·학업수준별 음주율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학년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중학교 1학년 | 14.34 | 0.39 | 14.11 | 0.56 | 14.55 | 0.53 |
| 중학교 2학년 | 17.94 | 0.44 | 18.12 | 0.62 | 17.77 | 0.62 |
| 중학교 3학년 | 22.23 | 0.49 | 20.84 | 0.67 | 23.49 | 0.71 |
| 고등학교 1학년 | 35.02 | 0.61 | 33.22 | 0.88 | 36.63 | 0.84 |
| 고등학교 2학년 | 44.12 | 0.61 | 40.38 | 0.87 | 47.47 | 0.84 |
| 고등학교 3학년 | 43.61 | 0.76 | 40.37 | 1.05 | 47.62 | 1.03 |
| 학업수준별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상 | 21.98 | 0.55 | 18.61 | 0.79 | 24.67 | 0.76 |
| 중상 | 23.79 | 0.41 | 21.66 | 0.58 | 25.80 | 0.59 |
| 중 | 27.78 | 0.43 | 26.21 | 0.63 | 29.24 | 0.59 |
| 중하 | 33.31 | 0.54 | 31.32 | 0.71 | 35.10 | 0.80 |
| 하 | 40.75 | 0.74 | 39.14 | 1.10 | 42.11 | 1.00 |

주: 백분율은 각 집단별 음주율임.

2) 건강상태별 음주율

주관적 건강상태별로는 남녀모두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음주율이 높았고, 여성청소년의 경우 스스로 비만인 편이라고 응답한 집단에서 음주율이 높았다. 또한,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생각 등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집단에서의 음주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5〉 청소년 건강상태별 음주율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주관적 건강상태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매우 건강함 | 30.34 | 0.56 | 24.57 | 0.83 | 34.07 | 0.75 |
| 건강함 | 28.01 | 0.35 | 25.19 | 0.47 | 30.50 | 0.51 |
| 보통 | 27.37 | 0.41 | 26.98 | 0.57 | 27.76 | 0.59 |
| 건강하지 못함 | 31.48 | 0.78 | 32.97 | 1.09 | 29.74 | 1.09 |
| 매우 건강하지 못함 | 39.88 | 3.18 | 40.91 | 5.67 | 39.17 | 3.65 |
| 주관적 체형 | p=0.8675 | | p=0.0002 | | p=0.0749 | |
| 매우 마른 편 | 28.35 | 0.91 | 22.18 | 1.46 | 31.01 | 1.13 |
| 마른 편 | 28.90 | 0.51 | 25.40 | 0.71 | 31.15 | 0.69 |
| 정상체중 | 28.60 | 0.34 | 26.17 | 0.45 | 30.78 | 0.50 |
| 과체중인 편 | 28.89 | 0.50 | 28.28 | 0.68 | 29.53 | 0.72 |
| 비만인 편 | 28.61 | 0.98 | 30.01 | 1.66 | 27.62 | 1.18 |
| 스트레스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대단히 많이 느낀다 | 38.78 | 0.64 | 36.93 | 0.84 | 41.07 | 0.99 |
| 많이 느낀다 | 29.97 | 0.41 | 27.88 | 0.55 | 32.38 | 0.60 |
| 조금 느낀다 | 26.00 | 0.37 | 22.52 | 0.50 | 28.68 | 0.53 |
| 별로 느끼지 않는다 | 22.66 | 0.58 | 19.89 | 0.92 | 24.35 | 0.74 |
| 전혀 느끼지 않는다 | 23.44 | 1.51 | 18.77 | 2.92 | 25.21 | 1.71 |
| 우울증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느낀 적이 없다 | 23.09 | 0.27 | 20.40 | 0.40 | 25.16 | 0.37 |
| 느낀 적이 있다 | 36.44 | 0.40 | 33.69 | 0.51 | 39.52 | 0.60 |
| 자살생각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생각 한 적이 없다 | 26.16 | 0.26 | 23.50 | 0.35 | 28.29 | 0.36 |
| 생각 한 적이 있다. | 36.66 | 0.52 | 34.35 | 0.70 | 39.67 | 0.78 |

주: 백분율은 각 집단별 음주율임.

3) 건강행태별 음주율

신체활동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건강행태가 좋지 못한 군(흡입제 사용, 마약사용, 아침식사 안함, 라면 자주먹음)에서의 음주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 집단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특히 여성청소년 중 흡입제를 사용하는 집단에서의 음주율은 남성청소년 보다 높았다.

〈표 6-6〉 청소년 건강행태별 음주율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중등도신체활동 | p=0.0000 | | p=0.0045 | | p=0.0000 | |
| 운동안함 | 27.96 | 0.24 | 26.33 | 0.33 | 29.59 | 0.36 |
| 운동함 | 34.02 | 0.71 | 30.20 | 1.38 | 35.19 | 0.82 |
| 격렬한 신체활동 | p=0.0000 | | p=0.0254 | | p=0.1034 | |
| 운동안함 | 27.82 | 0.28 | 26.22 | 0.35 | 29.98 | 0.45 |
| 운동함 | 30.30 | 0.40 | 28.09 | 0.77 | 31.05 | 0.47 |
| 흡입제사용여부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안마심 | 27.77 | 0.23 | 26.02 | 0.32 | 29.36 | 0.33 |
| 과거에 마심 | 60.86 | 2.27 | 61.12 | 3.91 | 60.74 | 2.79 |
| 마심 | 82.45 | 4.58 | 82.58 | 4.15 | 82.40 | 5.96 |
| 마약사용여부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안먹음 | 28.00 | 0.23 | 26.20 | 0.32 | 29.64 | 0.33 |
| 과거에 먹음 | 85.70 | 2.52 | 84.01 | 5.16 | 86.29 | 2.90 |
| 먹음 | 82.60 | 2.77 | 78.91 | 6.20 | 84.04 | 3.01 |
| 아침식사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매일먹음 | 22.48 | 0.28 | 19.41 | 0.39 | 24.99 | 0.39 |
| 안먹음 | 35.84 | 0.37 | 34.14 | 0.51 | 37.54 | 0.54 |
| 라면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안먹음 | 22.73 | 0.41 | 21.80 | 0.56 | 23.87 | 0.61 |
| 하루미만 | 30.02 | 0.29 | 28.26 | 0.40 | 31.47 | 0.41 |
| 하루이상 | 40.80 | 1.00 | 37.87 | 1.73 | 42.12 | 1.21 |

주: 백분율은 각 집단별 음주율임.

4) 흡연 및 음주관련 변수별 음주율

현재 흡연자일수록 음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현재흡연자 특히 하루 반갑 이상 흡연하는 집단에서의 음주율이 높았다.

<표 6-7> 청소년 흡연 및 음주 관련 변수별 음주율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현재흡연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흡연함 | 79.98 | 0.64 | 83.35 | 0.95 | 78.24 | 0.83 |
| 흡연안함 | 21.21 | 0.22 | 20.88 | 0.30 | 21.53 | 0.33 |
| 흡연경험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핀적있음 | 56.63 | 0.48 | 58.03 | 0.76 | 55.75 | 0.61 |
| 핀적없음 | 17.89 | 0.23 | 17.32 | 0.30 | 18.46 | 0.36 |
| 흡연량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반갑미만 | 26.24 | 0.23 | 25.05 | 0.31 | 27.35 | 0.33 |
| 반갑이상 | 92.28 | 0.96 | 91.18 | 2.76 | 92.68 | 0.84 |
| 음주시작시기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초등학교 | 43.07 | 0.59 | 42.74 | 0.90 | 43.30 | 0.78 |
| 중학교 | 52.07 | 0.45 | 47.91 | 0.59 | 56.57 | 0.67 |
| 고등학교 | 42.31 | 0.76 | 35.45 | 1.23 | 47.09 | 0.97 |

주: 백분율은 각 집단별 음주율임.

5) 가족환경별 음주율

가족환경별로는 가정내에서 간접흡연을 매일 경험하는 집단, 부모의 학력이 낮은 청소년 집단, 경제적 상태가 낮은 청소년 집단, 가족과 떨어져 사는 청소년 집단, 그리고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청소년 집단에서의 음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6-8).

〈표 6-8〉 청소년 가족환경별 음주율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가정내 간접흡연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없음 | 21.71 | 0.28 | 19.93 | 0.39 | 23.20 | 0.40 |
| 1~6일 | 36.10 | 0.43 | 33.36 | 0.59 | 38.73 | 0.63 |
| 매일 | 47.51 | 0.77 | 41.47 | 1.04 | 54.38 | 1.14 |
| 아버지학력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중졸이하 | 36.79 | 0.78 | 34.75 | 1.10 | 38.56 | 1.11 |
| 고졸 | 31.25 | 0.36 | 29.56 | 0.51 | 32.91 | 0.51 |
| 대졸이상 | 25.25 | 0.38 | 21.66 | 0.48 | 28.57 | 0.57 |
| 잘 모름 | 25.57 | 0.59 | 26.95 | 0.98 | 24.71 | 0.74 |
| 어머니학력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중졸이하 | 37.00 | 0.73 | 35.98 | 1.05 | 37.99 | 1.03 |
| 고졸 | 29.70 | 0.31 | 27.73 | 0.44 | 31.65 | 0.45 |
| 대졸이상 | 25.03 | 0.49 | 21.00 | 0.61 | 28.69 | 0.74 |
| 잘 모름 | 25.51 | 0.58 | 25.55 | 0.99 | 25.50 | 0.72 |
| 가정 경제적상태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상 | 25.92 | 0.79 | 21.69 | 1.26 | 28.36 | 1.00 |
| 중상 | 24.57 | 0.43 | 21.88 | 0.63 | 26.76 | 0.60 |
| 중 | 27.61 | 0.33 | 25.68 | 0.45 | 29.51 | 0.46 |
| 중하 | 34.53 | 0.65 | 32.68 | 0.81 | 36.35 | 1.01 |
| 하 | 40.73 | 1.02 | 40.02 | 1.51 | 41.32 | 1.38 |
| 거주형태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가족함께 | 27.80 | 0.23 | 25.95 | 0.32 | 29.47 | 0.33 |
| 친척집 | 47.22 | 2.74 | 46.33 | 3.74 | 47.88 | 3.93 |
| 하숙등 | 44.18 | 1.56 | 37.71 | 2.04 | 48.57 | 2.19 |
| 보육시설 | .63.70 | 3.09 | 58.76 | 5.91 | 66.11 | 3.50 |
| 부모동거여부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부모동거 | 26.72 | 0.24 | 24.62 | 0.34 | 28.62 | 0.33 |
| 아버지만 | 39.15 | 1.25 | 37.88 | 1.76 | 40.11 | 1.74 |
| 어머니만 | 38.15 | 1.08 | 37.00 | 1.25 | 39.22 | 1.70 |
| 동거안함 | 46.03 | 1.40 | 43.97 | 2.03 | 47.65 | 1.91 |

주: 백분율은 각 집단별 음주율임.

6) 정책환경별 음주율

정책환경과 관련된 변수로는 술구입의 용이성과 절주교육 여부 등이 있는데, 술구입이 노력없이도 쉽게 가능했다는 집단, 그리고 절주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집단에서의 음주율이 높았다(표 6-9).

〈표 6-9〉 청소년 정책환경별 음주율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술구입용이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산적없음 | 15.15 | 0.21 | 13.72 | 0.28 | 16.47 | 0.32 |
| 구입불가 | 79.94 | 1.33 | 78.05 | 2.19 | 81.39 | 1.63 |
| 노력가능 | 89.33 | 0.51 | 88.63 | 0.76 | 89.97 | 0.67 |
| 쉽게가능 | 89.40 | 0.54 | 88.94 | 0.81 | 89.72 | 0.73 |
| 절주교육 | p=0.0000 | | p=0.0000 | | p=0.0037 | |
| 받지않음 | 29.30 | 0.26 | 27.33 | 0.38 | 31.09 | 0.37 |
| 받음 | 26.69 | 0.47 | 24.27 | 0.59 | 28.76 | 0.70 |

주: 백분율은 각 집단별 음주율임.

나. 고위험음주율

1) 학년별·학업수준별 고위험음주율

청소년 음주자 중 남성청소년의 10%, 여성청소년의 9%가 고위험음주를 하고 있었는데, 고위험음주자는 음주율과 마찬가지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였다. 다만, 음주율에 비해 그 증가폭이 상당히 커짐을 알 수 있었다. 여성청소년의 경우 중학교 1학년의 고위험음주율에 비해 고등학교 2학년의 고위험음주율은 13배 증가하였다(표 6-10).

〈표 6-10〉 청소년 학년별·학업수준별 고위험음주율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학년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중학교 1학년 | 1.29 | 0.13 | 1.40 | 0.18 | 1.18 | 0.18 |
| 중학교 2학년 | 2.59 | 0.18 | 3.27 | 0.30 | 1.98 | 0.22 |
| 중학교 3학년 | 5.53 | 0.30 | 5.56 | 0.38 | 5.50 | 0.46 |
| 고등학교 1학년 | 12.52 | 0.45 | 12.59 | 0.66 | 12.45 | 0.62 |
| 고등학교 2학년 | 18.83 | 0.49 | 18.20 | 0.70 | 19.42 | 0.67 |
| 고등학교 3학년 | 20.06 | 0.56 | 16.35 | 0.74 | 23.47 | 0.81 |
| 학업수준별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상 | 7.18 | 0.34 | 6.31 | 0.48 | 7.89 | 0.48 |
| 중상 | 6.92 | 0.25 | 6.73 | 0.37 | 7.13 | 0.34 |
| 중 | 8.30 | 0.27 | 8.27 | 0.39 | 8.33 | 0.38 |
| 중하 | 11.74 | 0.37 | 10.95 | 0.49 | 12.47 | 0.53 |
| 하 | 17.54 | 0.59 | 16.94 | 0.85 | 18.04 | 0.82 |

주: 백분율은 각 집단별 고위험음주율임.

2) 건강상태별 고위험음주율

주관적 건강상태가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집단에서의 고위험 음주율이 높았는데, 특히 여성청소년의 경우 그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스의 경우 “전혀 느끼지 않는” 집단에서 비해 “대단히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집단의 고위험 음주율이 8배 이상 높았다(표 6-11).

〈표 6-11〉 청소년 건강상태별 고위험음주율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주관적 건강상태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매우 건강함 | 11.58 | 0.41 | 9.18 | 0.61 | 13.16 | 0.55 |
| 건강함 | 8.54 | 0.21 | 7.68 | 0.28 | 9.32 | 0.30 |
| 보통 | 9.21 | 0.29 | 9.59 | 0.40 | 8.81 | 0.41 |
| 건강하지 못함 | 10.76 | 0.51 | 12.34 | 0.74 | 8.88 | 0.70 |
| 매우 건강하지 못함 | 24.47 | 3.16 | 31.03 | 6.03 | 19.73 | 2.94 |
| 주관적 체형 | p=0.3677 | | p=0.0298 | | p=0.0787 | |
| 매우 마른 편 | 9.23 | 0.63 | 7.05 | 0.87 | 10.18 | 0.82 |
| 마른 편 | 9.17 | 0.31 | 9.01 | 0.53 | 9.28 | 0.37 |
| 정상체중 | 9.67 | 0.23 | 8.80 | 0.29 | 10.64 | 0.35 |
| 과체중인 편 | 9.57 | 0.33 | 9.80 | 0.46 | 9.33 | 0.48 |
| 비만인 편 | 10.48 | 0.65 | 10.83 | 0.94 | 10.23 | 0.88 |
| 스트레스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대단히 많이 느낀다 | 16.84 | 0.52 | 15.56 | 0.66 | 18.46 | 0.85 |
| 많이 느낀다 | 9.95 | 0.28 | 9.29 | 0.37 | 10.72 | 0.42 |
| 조금 느낀다 | 7.65 | 0.21 | 6.91 | 0.29 | 8.23 | 0.30 |
| 별로 느끼지 않는다 | 6.49 | 0.35 | 6.02 | 0.63 | 6.78 | 0.42 |
| 전혀 느끼지 않는다 | 8.86 | 1.02 | 1.91 | 1.91 | 9.61 | 1.20 |
| 우울증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느낀 적이 없다 | 6.89 | 0.17 | 6.34 | 0.26 | 7.32 | 0.23 |
| 느낀 적이 있다 | 13.38 | 0.27 | 12.36 | 0.35 | 14.55 | 0.43 |
| 자살생각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생각 한 적이 없다 | 8.25 | 0.16 | 7.74 | 0.23 | 8.67 | 0.22 |
| 생각 한 적이 있다. | 13.90 | 0.38 | 12.66 | 0.47 | 15.55 | 0.63 |

주: 백분율은 각 집단별 고위험음주율임.

3) 건강행태별 고위험음주율

건강행태별로는 현재 흡입제를 사용한다는 여성청소년 집단에서의 고위험음주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8배 이상 높았고, 현재 마약을 사용하는 집단에서의 고위험 음주율도 8배 가량 높았다(표 6-12).

〈표 6-12〉 청소년 건강행태별 고위험음주율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중등도신체활동 | p=0.0000 | | p=0.0001 | | p=0.0000 | |
| 운동안함 | 9.13 | 0.16 | 8.93 | 0.22 | 9.33 | 0.22 |
| 운동함 | 13.17 | 0.53 | 12.27 | 0.96 | 13.45 | 0.63 |
| 격렬한 신체활동 | p=0.0286 | | p=0.2024 | | p=0.4151 | |
| 운동안함 | 9.33 | 0.18 | 8.98 | 0.23 | 9.81 | 0.29 |
| 운동함 | 10.04 | 0.27 | 9.69 | 0.53 | 10.16 | 0.32 |
| 흡입제사용여부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안마심 | 8.99 | 0.14 | 8.76 | 0.21 | 9.21 | 0.20 |
| 과거에 마심 | 23.84 | 2.18 | 19.51 | 3.45 | 25.92 | 2.74 |
| 마심 | 55.43 | 4.37 | 69.28 | 6.08 | 51.00 | 5.11 |
| 마약사용여부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안먹음 | 9.10 | 0.15 | 8.79 | 0.21 | 9.39 | 0.20 |
| 과거에 먹음 | 44.73 | 5.04 | 54.26 | 10.49 | 41.56 | 5.71 |
| 먹음 | 57.97 | 3.87 | 65.84 | 7.60 | 54.87 | 4.37 |
| 아침식사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매일먹음 | 6.30 | 0.17 | 5.45 | 0.23 | 7.00 | 0.24 |
| 안먹음 | 13.43 | 0.26 | 13.02 | 0.36 | 13.84 | 0.38 |
| 라면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안먹음 | 6.99 | 0.26 | 6.94 | 0.35 | 7.05 | 0.39 |
| 하루미만 | 10.08 | 0.19 | 9.79 | 0.27 | 10.33 | 0.26 |
| 하루이상 | 15.98 | 0.73 | 16.06 | 1.28 | 15.95 | 0.89 |

주: 백분율은 각 집단별 고위험음주율임.

4) 흡연·음주관련 변수별 고위험음주율

현재 흡연집단의 고위험 음주율이 10배 정도 높았고, 흡연량에 있어서도 반갑 미만인 집단에 비해 반갑 이상인 집단의 고위험음주율이 9배 정도 높았다. 음주시작시기에 따라서도 고위험음주율에 차이가 있었다(표 6-13).

고위험음주율이 높은 집단은 전체적으로 흡연, 흡입제, 마약사용, 아침 식사 안함, 라면 등의 나쁜 건강습관들과 연관되어 있었다.

〈표 6-13〉 청소년 흡연음주 관련변수별 고위험음주율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현재흡연율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흡연함 | 42.83 | 0.76 | 46.61 | 1.34 | 40.81 | 0.92 |
| 흡연안함 | 4.77 | 0.11 | 5.33 | 0.16 | 4.21 | 0.15 |
| 흡연경험률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핀적있음 | 25.79 | 0.44 | 27.74 | 0.72 | 24.54 | 0.55 |
| 핀적없음 | 3.46 | 0.11 | 3.71 | 0.15 | 3.20 | 0.15 |
| 흡연량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반갑미만 | 7.73 | 0.14 | 7.98 | 0.20 | 7.50 | 0.19 |
| 반갑이상 | 62.97 | 1.73 | 62.14 | 4.50 | 63.27 | 1.70 |
| 음주시작시기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초등학교 | 13.87 | 0.44 | 14.30 | 0.70 | 13.55 | 0.57 |
| 중학교 | 19.52 | 0.37 | 18.41 | 0.48 | 20.77 | 0.56 |
| 고등학교 | 11.64 | 0.50 | 8.01 | 0.64 | 14.28 | 0.73 |

주: 백분율은 각 집단별 고위험음주율임.

5) 가족환경별 고위험음주율

고위험음주율은 부모학력이 낮을수록, 경제상태가 낮을수록, 가족과 함께 살지 않을수록, 부모와 함께 살지 않을 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음주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표 6-14).

〈표 6-14〉 청소년 가족환경별 고위험음주율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가정내 간접흡연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없음 | 6.09 | 0.16 | 5.94 | 0.23 | 6.21 | 0.21 |
| 1-6일 | 12.14 | 0.31 | 11.55 | 0.41 | 12.71 | 0.45 |
| 매일 | 22.77 | 0.69 | 18.66 | 0.90 | 27.50 | 1.07 |
| 아버지학력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중졸이하 | 14.72 | 0.61 | 15.38 | 0.89 | 14.12 | 0.82 |
| 고졸 | 11.14 | 0.25 | 10.49 | 0.34 | 11.79 | 0.37 |
| 대졸이상 | 7.35 | 0.22 | 6.46 | 0.30 | 8.18 | 0.32 |
| 잘모름 | 8.19 | 0.39 | 8.93 | 0.64 | 7.75 | 0.50 |
| 어머니학력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중졸이하 | 13.92 | 0.53 | 13.62 | 0.74 | 14.23 | 0.75 |
| 고졸 | 10.16 | 0.21 | 9.66 | 0.29 | 10.68 | 0.31 |
| 대졸이상 | 7.49 | 0.28 | 6.52 | 0.40 | 8.39 | 0.41 |
| 잘모름 | 8.17 | 0.40 | 8.45 | 0.66 | 8.01 | 0.49 |
| 가정 경제적상태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상 | 9.42 | 0.56 | 8.45 | 0.91 | 9.98 | 0.70 |
| 중상 | 6.90 | 0.25 | 6.13 | 0.35 | 7.55 | 0.36 |
| 중 | 8.68 | 0.21 | 8.28 | 0.29 | 9.09 | 0.30 |
| 중하 | 12.93 | 0.45 | 12.94 | 0.61 | 12.91 | 0.65 |
| 하 | 18.56 | 0.85 | 17.70 | 1.20 | 19.28 | 1.18 |
| 거주형태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가족함께 | 8.94 | 0.15 | 8.59 | 0.21 | 9.26 | 0.21 |
| 친척집 | 22.04 | 2.45 | 24.49 | 4.09 | 20.16 | 2.87 |
| 하숙등 | 22.13 | 1.48 | 19.05 | 1.74 | 24.26 | 2.17 |
| 보육시설 | 37.96 | 3.42 | 41.92 | 6.10 | 35.99 | 4.12 |
| 부모동거여부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부모동거 | 8.34 | 0.15 | 7.81 | 0.21 | 8.83 | 0.22 |
| 아버지만 | 16.51 | 1.02 | 17.72 | 1.65 | 15.59 | 1.28 |
| 어머니만 | 14.64 | 0.70 | 14.96 | 1.00 | 14.34 | 0.99 |
| 동거안함 | 23.66 | 1.29 | 23.20 | 1.80 | 24.04 | 1.82 |

주: 백분율은 각 집단별 고위험음주율임.

6) 정책환경별 고위험음주율

정책환경별로는 술구입이 용이하다고 응답한 집단 그리고 절주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집단에서의 고위험음주율이 높았다(표 6-15).

〈표 6-15〉 청소년 정책환경별 고위험음주율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술구입용이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산적없음 | 2.15 | 0.08 | 2.34 | 0.12 | 1.98 | 0.11 |
| 구입불가 | 23.06 | 1.38 | 22.14 | 1.93 | 23.80 | 1.94 |
| 노력가능 | 40.86 | 0.84 | 41.40 | 1.23 | 40.35 | 1.15 |
| 쉽게가능 | 50.86 | 0.93 | 48.64 | 1.40 | 52.43 | 1.23 |
| 절주교육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받지않음 | 10.18 | 0.18 | 9.64 | 0.26 | 10.69 | 0.25 |
| 받음 | 7.80 | 0.27 | 7.56 | 0.36 | 8.01 | 0.40 |

주: 백분율은 각 집단별 고위험음주율임.

다. 음주무경험률

1) 학년별·학업수준별 음주무경험률

분석대상 청소년 중 남성청소년의 40%, 여성청소년의 41%가 음주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다.

학년별로는 상급 학년일수록 음주무경험률이 낮아지는데, 고등학교 3학년의 여성청소년의 경우 음주무경험률이 20% 미만이었다(표 6-16).

〈표 6-16〉 청소년 학년별·학업수준별 음주무경험률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학년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중학교 1학년 | 61.21 | 0.54 | 63.72 | 0.78 | 59.02 | 0.73 |
| 중학교 2학년 | 53.83 | 0.57 | 54.22 | 0.80 | 53.49 | 0.81 |
| 중학교 3학년 | 46.79 | 0.59 | 46.51 | 0.85 | 47.04 | 0.82 |
| 고등학교 1학년 | 31.90 | 0.57 | 30.50 | 0.79 | 33.14 | 0.82 |
| 고등학교 2학년 | 22.37 | 0.51 | 22.60 | 0.76 | 22.17 | 0.69 |
| 고등학교 3학년 | 18.60 | 0.71 | 19.17 | 1.29 | 18.08 | 0.69 |
| 학업수준별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상 | 50.13 | 0.65 | 52.02 | 0.98 | 48.66 | 0.88 |
| 중상 | 44.29 | 0.48 | 44.96 | 0.69 | 43.65 | 0.67 |
| 중 | 39.73 | 0.45 | 39.83 | 0.65 | 39.64 | 0.63 |
| 중하 | 35.30 | 0.56 | 35.29 | 0.86 | 35.31 | 0.72 |
| 하 | 30.28 | 0.72 | 29.35 | 1.14 | 31.06 | 0.92 |

주: 백분율은 각 집단별 음주무경험률임.

2) 건강상태별 음주무경험률

여성청소년의 경우 스스로의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집단에서 음주무경험률이 높았다. 또한,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 집단에서는 음주무경험률이 50% 이상이었으나, 반대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집단에서의 음주무경험률은 30% 미만이었다(표 6-17).

〈표 6-17〉 청소년 건강상태별 음주무경험률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주관적 건강상태 | p=0.0000 | | p=0.0000 | | p=0.0008 | |
| 매우 건강함 | 40.26 | 0.61 | 43.23 | 0.99 | 38.38 | 0.76 |
| 건강함 | 40.80 | 0.38 | 42.22 | 0.57 | 39.55 | 0.51 |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보통 | 41.18 | 0.44 | 40.04 | 0.62 | 42.34 | 0.64 |
| 건강하지 못함 | 35.56 | 0.77 | 32.28 | 1.02 | 39.33 | 1.16 |
| 매우 건강하지 못함 | 37.76 | 3.01 | 35.86 | 5.06 | 39.09 | 3.69 |
| 주관적 체형 | p=0.0000 | | p=0.0000 | | p=0.2280 | |
| 매우 다른 편 | 42.50 | 1.00 | 47.21 | 1.88 | 40.49 | 1.18 |
| 다른 편 | 42.18 | 0.51 | 44.99 | 0.79 | 40.37 | 0.66 |
| 정상체중 | 40.49 | 0.38 | 41.18 | 0.54 | 39.75 | 0.53 |
| 과체중인 편 | 37.30 | 0.52 | 35.50 | 0.70 | 39.19 | 0.76 |
| 비만인 편 | 39.98 | 1.00 | 36.36 | 1.53 | 42.55 | 1.30 |
| 스트레스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대단히 많이 느낀다 | 31.00 | 0.60 | 29.91 | 0.79 | 32.32 | 0.91 |
| 많이 느낀다 | 36.57 | 0.45 | 37.62 | 0.64 | 35.38 | 0.61 |
| 조금 느낀다 | 43.07 | 0.39 | 45.01 | 0.58 | 41.60 | 0.53 |
| 별로 느끼지 않는다 | 49.61 | 0.68 | 51.68 | 1.11 | 48.36 | 0.86 |
| 전혀 느끼지 않는다 | 53.78 | 1.86 | 57.88 | 4.5 | 52.28 | 1.87 |
| 우울증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느낀 적이 없다 | 45.94 | 0.32 | 47.32 | 0.48 | 44.90 | 0.42 |
| 느낀 적이 있다 | 32.40 | 0.38 | 32.89 | 0.55 | 31.86 | 0.53 |
| 자살생각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생각 한 적이 없다 | 43.01 | 0.28 | 44.19 | 0.41 | 42.07 | 0.38 |
| 생각 한 적이 있다. | 31.62 | 0.54 | 31.56 | 0.77 | 31.70 | 0.74 |

주: 백분율은 각 집단별 음주무경험률임.

3) 건강행태별 음주무경험률

신체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여성청소년의 경우 격렬한 신체활동을 하는 집단에서 음주무경험률이 높았고, 남녀 모두 흡입제나 마약을 사용하지 않는 집단, 아침식사를 하는 집단에서 음주무경험률이 높았다(표 6-18).

<표 6-18> 청소년 건강행태별 음주무경험률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중등도신체활동 | p=0.0000 | | p=0.0335 | | p=0.0000 | |
| 운동안함 | 40.91 | 0.26 | 40.85 | 0.37 | 40.97 | 0.37 |
| 운동함 | 35.51 | 0.74 | 37.06 | 1.72 | 35.04 | 0.81 |
| 격렬한 신체활동 | p=0.8334 | | p=0.0182 | | p=0.1322 | |
| 운동안함 | 40.37 | 0.30 | 40.27 | 0.40 | 40.51 | 0.46 |
| 운동함 | 40.26 | 0.43 | 42.52 | 0.87 | 39.50 | 0.50 |
| 흡입제사용여부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안마심 | 40.69 | 0.25 | 40.87 | 0.37 | 40.53 | 0.34 |
| 과거에 마심 | 27.26 | 2.04 | 26.30 | 3.37 | 27.66 | 2.52 |
| 마심 | 22.02 | 2.29 | 20.45 | 4.26 | 22.52 | 2.71 |
| 마약사용여부 | p=0.0000 | | p=0.0596 | | p=0.0001 | |
| 안먹음 | 40.50 | 0.25 | 40.74 | 0.36 | 40.28 | 0.34 |
| 과거에 먹음 | 28.11 | 3.01 | 26.56 | 6.11 | 28.67 | 3.45 |
| 먹음 | 29.31 | 3.04 | 31.65 | 6.58 | 28.41 | 3.37 |
| 아침식사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매일먹음 | 45.93 | 0.33 | 47.94 | 0.48 | 44.31 | 0.45 |
| 안먹음 | 33.78 | 0.37 | 32.93 | 0.55 | 34.62 | 0.50 |
| 라면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안먹음 | 44.61 | 0.47 | 44.23 | 0.65 | 45.07 | 0.70 |
| 하루미만 | 38.95 | 0.30 | 39.16 | 0.45 | 38.77 | 0.40 |
| 하루이상 | 36.08 | 0.97 | 35.67 | 1.70 | 36.26 | 1.18 |

주: 백분율은 각 집단별 음주무경험률임.

4) 흡연관련 변수별 음주무경험률

흡연경험이 없거나 현재 흡연하지 않는 집단에서, 그리고 흡연을 하더라도 비교적 흡연량이 적은 집단에서 음주무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표 6-19).

〈표 6-19〉 청소년 흡연관련 변수별 음주무경험률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현재흡연율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흡연함 | 8.61 | 0.40 | 6.00 | 0.58 | 9.94 | 0.52 |
| 흡연안함 | 44.99 | 0.27 | 44.17 | 0.38 | 45.77 | 0.37 |
| 흡연경험률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핀적있음 | 12.05 | 0.30 | 9.17 | 0.43 | 13.84 | 0.41 |
| 핀적없음 | 51.32 | 0.29 | 49.97 | 0.41 | 52.69 | 0.42 |
| 흡연량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반갑미만 | 41.72 | 0.25 | 41.54 | 0.37 | 41.89 | 0.35 |
| 반갑이상 | 5.60 | 0.77 | 4.29 | 1.18 | 6.06 | 0.94 |

주: 백분율은 각 집단별 음주무경험률임.

5) 가족환경별 음주무경험률

가족환경별로는 가정내 간접흡연이 없는 집단, 아버지 학력이 낮은 집단, 부모 학력이 높은 집단, 그리고 가족과 함께 사는 집단, 부모가 모두 함께 동거하는 집단에서의 음주무경험률이 높았다(표 6-20).

〈표 6-20〉 청소년 가족환경별 음주무경험률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가정내 간접흡연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없음 | 46.76 | 0.33 | 47.12 | 0.50 | 46.47 | 0.44 |
| 1~6일 | 32.86 | 0.41 | 33.35 | 0.57 | 32.36 | 0.59 |
| 매일 | 24.53 | 0.66 | 27.92 | 0.92 | 20.72 | 0.92 |
| 아버지학력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중졸이하 | 33.36 | 0.76 | 33.10 | 1.07 | 33.58 | 1.08 |
| 고졸 | 35.79 | 0.37 | 35.92 | 0.53 | 35.67 | 0.52 |
| 대졸이상 | 43.69 | 0.42 | 45.14 | 0.62 | 42.36 | 0.58 |

234 여성 흡연과 음주의 요인 및 정책대안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잘모름 | 48.45 | 0.65 | 48.03 | 1.06 | 48.71 | 0.83 |
| 어머니학력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중졸이하 | 32.11 | 0.69 | 31.13 | 0.97 | 33.01 | 0.99 |
| 고졸 | 37.52 | 0.33 | 37.59 | 0.46 | 37.44 | 0.47 |
| 대졸이상 | 45.01 | 0.54 | 47.53 | 0.80 | 42.74 | 0.72 |
| 잘모름 | 47.74 | 0.64 | 48.19 | 1.08 | 47.50 | 0.80 |
| 가정 경제적상태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상 | 50.02 | 0.91 | 53.01 | 1.57 | 48.33 | 1.10 |
| 중상 | 45.10 | 0.51 | 46.52 | 0.76 | 43.97 | 0.68 |
| 중 | 40.18 | 0.36 | 40.53 | 0.53 | 39.84 | 0.50 |
| 중하 | 32.48 | 0.57 | 32.67 | 0.78 | 32.30 | 0.83 |
| 하 | 30.94 | 0.94 | 28.90 | 1.39 | 32.57 | 1.28 |
| 거주형태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가족함께 | 40.86 | 0.25 | 41.12 | 0.37 | 40.62 | 0.34 |
| 친척집 | 30.35 | 2.07 | 26.04 | 2.79 | 33.35 | 2.96 |
| 하숙등 | 26.29 | 1.37 | 27.82 | 1.92 | 25.28 | 1.88 |
| 보육시설 | 32.35 | 2.96 | 32.95 | 5.98 | 32.08 | 3.32 |
| 부모동거여부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부모동거 | 41.97 | 0.27 | 42.43 | 0.40 | 41.55 | 0.36 |
| 아버지만 | 32.09 | 1.14 | 30.72 | 1.65 | 33.10 | 1.57 |
| 어머니만 | 31.74 | 0.87 | 30.38 | 1.17 | 32.98 | 1.29 |
| 동거안함 | 25.63 | 1.18 | 25.94 | 1.80 | 25.39 | 1.57 |

주: 백분율은 각 집단별 음주무경험률임.

6) 정책환경별 음주무경험률

남녀 모두 절주교육을 받지 않는 집단에 비해 절주교육을 받은 집단에서 음주무경험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표 6-21).

〈표 6-21〉 청소년 정책환경별 음주무경험률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절주교육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받지않음 | 39.00 | 0.29 | 38.93 | 0.43 | 39.06 | 0.38 |
| 받음 | 44.05 | 0.49 | 45.58 | 0.69 | 42.75 | 0.69 |

주: 백분율은 각 집단별 음주무경험률 임.

3. 현재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여성청소년의 현재 음주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인구학적 요인으로서 학년, 건강상태 요인으로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증, 자살생각, 건강행태요인으로서 신체활동, 흡연, 흡입제 경험, 아침식사 여부, 가족환경으로서 아버지 학력, 부모동거 여부 등이었다.

여성청소년의 현재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현재흡연 (OR=12.87), 흡입제 경험(OR=3.15), 학년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청소년의 경우와 비교해 볼때, 현재흡연 여부, 흡입제 경험, 아버지 학력 등에 더 영향을 많이 받았다(표 6-22).

〈표 6-22〉 청소년 현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 | | Odds Ratio | |
|------|----------|----------|------------|---------|
| | | | 여자 | 남자 |
| 인구 | 학년 | 중학교 1학년 | 1.00 | 1.00 |
| | | 중학교 2학년 | 1.29*** | 1.08 |
| | | 중학교 3학년 | 1.47*** | 1.43*** |
| | | 고등학교 1학년 | 2.65*** | 2.60*** |
| | | 고등학교 2학년 | 3.69*** | 3.99*** |
| | | 고등학교 3학년 | 3.14*** | 4.28*** |
| 건강상태 | 주관적 건강상태 | 매우 건강한 편 | 1.00 | 1.00 |
| | | 건강한 편 | 0.97 | 0.85*** |

236 여성 흡연과 음주의 요인 및 정책대안

| | | | Odds Ratio | |
|-------|----------|--------------|------------|---------|
| | | | 여자 | 남자 |
| 건강상태 | | 보통 | 0.93 | 0.71*** |
| | | 건강하지 못한 편 | 0.99 | 0.68*** |
| | |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 | 0.68* | 0.65** |
| | 우울증 | 느낀적 없음 | 1.00 | 1.00 |
| | | 느낀적 있음 | 1.47*** | 1.48*** |
| | 자살생각 | 한적 없음 | 1.00 | 1.00 |
| 한적 있음 | | 1.18*** | 1.22*** | |
| 건강행태 | 격렬한 신체활동 | 지난주 한적 없음 | 1.00 | 1.00 |
| | | 지난주 한적 있음 | 1.25*** | 1.26*** |
| | 현재흡연 | 흡연안함 | 1.00 | 1.00 |
| | 흡연함 | 12.87*** | 8.94*** | |
| 건강행태 | 흡입제 경험 | 마셔본 적 없음 | 1.00 | 1.00 |
| | | 과거에 마셨음 | 3.15*** | 2.21*** |
| | | 지금도 마심 | 2.56*** | 2.43* |
| 아침밥 | | 주 6~7일 먹음 | 1.00 | 1.00 |
| | | 주 5일 미만 먹음 | 1.54*** | 1.31*** |
| 학업수준 | 학업성적 | 상 | 1.00 | 1.00 |
| | | 중상 | 1.12* | 1.11 |
| | | 중 | 1.30*** | 1.23*** |
| | | 중하 | 1.39*** | 1.33*** |
| | | 하 | 1.50*** | 1.48*** |
| 가족환경 | 아버지 학력 | 대졸 이상 | 1.00 | 1.00 |
| | | 중졸 이하 | 1.21*** | 1.11 |
| | | 고졸 | 1.24*** | 1.03 |
| | | 학력 모름 | 1.15** | 0.87** |
| | 경제상태 | 상 | 1.00 | 1.00 |
| | | 중상 | 1.01 | 0.86** |
| | | 중 | 0.92 | 0.84** |
| | | 중하 | 0.96 | 0.87 |
| | | 하 | 0.95 | 0.76*** |
| | 거주형태 | 가족과 함께 거주 | 1.00 | 1.00 |

| | | | Odds Ratio | |
|--------------|--------------|-------------|------------|--------|
| | | | 여자 | 남자 |
| 가족환경 (계속) | 거주형태 (계속) | 친척집 거주 | 1.05 | 0.73 |
| | | 하숙, 자취, 기숙사 | 1.02 | 1.03 |
| | | 보육시설 | 1.09 | 1.15 |
| | 부모동거 여부 | 부모 모두 동거 | 1.00 | 1.00 |
| | | 아버지만 동거 | 1.12 | 1.03 |
| | | 어머니만 동거 | 1.27*** | 1.21** |
| 부모 모두 동거 안함 | | 1.19 | 1.53*** | |
| 정책환경 | 술건강 | 교육받음 | 1.00 | 1.00 |
| | 교육 | 교육 받은적 없음 | 0.98 | 0.93 |

4. 고위험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성청소년의 고위험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년, 주관적 건강상태, 현재흡연 여부, 처음 음주시기, 흡입제 경험, 아버지 학력, 거주형태, 그리고 주류구매의 용이성 등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고학년이 될수록 위험음주를 할 확률이 높아져서 중학교 1학년에 비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위험음주 확률이 5배 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흡연 여부, 흡입제 경험 등과 함께 처음 음주한 시기도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23).

〈표 6-23〉 청소년 고위험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 | | Odds Ratio | |
|----|----|----------|------------|---------|
| | | | 여자 | 남자 |
| 인구 | 학년 | 중학교 1학년 | 1.00 | 1.00 |
| | | 중학교 2학년 | 1.46* | 1.63* |
| | | 중학교 3학년 | 2.11*** | 2.51*** |
| | | 고등학교 1학년 | 3.35*** | 4.09*** |

238 여성 흡연과 음주의 요인 및 정책대안

| | | | Odds Ratio | |
|-----------|-------------|--------------|------------|---------|
| | | | 여자 | 남자 |
| 건강상태 | | 고등학교 2학년 | 4.99*** | 5.40*** |
| | | 고등학교 3학년 | 4.63*** | 6.73*** |
| | 주관적 건강상태 | 매우 건강한 편 | 1.00 | 1.00 |
| | | 건강한 편 | 0.77** | 0.72*** |
| | | 보통 | 0.90 | 0.79** |
| | | 건강하지 못한 편 | 0.91 | 0.70** |
| | |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 | 2.95** | 1.03 |
| | 우울증 | 느낀적 없음 | 1.00 | 1.00 |
| | | 느낀적 있음 | 1.02 | 1.06 |
| | 자살생각 | 한적 없음 | 1.00 | 1.00 |
| 한적 있음 | | 1.03 | 1.30*** | |
| 건강행태 | 격렬한 신체활동 | 지난주 한적 없음 | 1.00 | 1.00 |
| | | 지난주 한적 있음 | 1.09 | 1.17** |
| | 현재흡연 | 흡연안함 | 1.00 | 1.00 |
| | | 흡연함 | 2.53*** | 2.38*** |
| | 처음음주 | 고등학교 | 1.00 | 1.00 |
| | | 초등학교 및 그 이전 | 2.87*** | 1.87*** |
| | | 중학교 | 2.37*** | 1.47*** |
| 흡입계 경험 | 마셔본 적 없음 | 1.00 | 1.00 | |
| | 과거에 마셨음 | 0.49** | 0.91 | |
| | 지금도 마심 | 2.61** | 1.38 | |
| 아침밥 | 주 6~7일 먹음 | 1.00 | 1.00 | |
| | 주 5일 미만 먹음 | 1.12 | 1.01 | |
| 학업수준 | 학업성적 | 상 | 1.00 | 1.00 |
| | | 중상 | 0.88 | 0.88 |
| | | 중 | 0.86 | 0.89 |
| | | 중하 | 0.88 | 1.09 |
| | | 하 | 0.91 | 1.08 |
| 가족환경 | 아버지 학력 | 대졸 이상 | 1.00 | 1.00 |
| | | 중졸 이하 | 1.40*** | 1.05 |
| | | 고졸 | 1.08 | 1.23** |
| | | 학력 모름 | 1.14 | 1.02 |

| | | | Odds Ratio | |
|--------------|------------|-------------|------------|---------|
| | | | 여자 | 남자 |
| 가족환경 (계속) | 경제상태 | 상 | 1.00 | 1.00 |
| | | 중상 | 0.68* | 0.70** |
| | | 중 | 0.70 | 0.70** |
| | | 중하 | 0.75 | 0.79 |
| | | 하 | 0.69 | 0.76 |
| | 거주형태 | 가족과 함께 거주 | 1.00 | 1.00 |
| | | 친척집 거주 | 1.48 | 0.84 |
| | | 하숙, 자취, 기숙사 | 1.53** | 1.04 |
| | | 보육시설 | 1.23 | 0.66 |
| | 부모동거 여부 | 부모 모두 동거 | 1.00 | 1.00 |
| | | 아버지만 동거 | 1.13 | 0.89 |
| | | 어머니만 동거 | 1.03 | 0.98 |
| 부모 모두 동거 안함 | | 1.16 | 1.60** | |
| 정책환경 | 주류구매 용이 | 주류 구매 불가능 | 1.00 | 1.00 |
| | | 노력하면 구입 가능 | 1.88*** | 1.63*** |
| | | 주류 구매 쉬움 | 2.16*** | 2.29*** |
| | 술건강 교육 | 교육받음 | 1.00 | 1.00 |
| | | 교육받은적 없음 | 1.01 | 1.14 |

5. 음주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여성청소년의 음주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년,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감, 자살생각, 현재흡연, 흡입제 경험, 학업성적, 아버지 학력, 부모동거 여부 등이었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여성청소년(OR=0.15), 현재흡연하는 여성청소년(OR=0.12), 학업성적이 낮은 여성청소년(OR=0.59), 부모 모두 같이 살지 않는 여성청소년(OR=0.68) 등의 집단에서 음주를 안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함께, 스스로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고 응답한 집단과 보육시설에

거주하는 여성청소년 집단에서 음주하지 않을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6-24).

〈표 6-24〉 청소년 음주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 | | Odds Ratio | |
|------------|----------|--------------|------------|---------|
| | | | 여자 | 남자 |
| 인구 | 학년 | 중학교 1학년 | 1.00 | 1.00 |
| | | 중학교 2학년 | 0.70*** | 0.88*** |
| | | 중학교 3학년 | 0.53*** | 0.71*** |
| | | 고등학교 1학년 | 0.28*** | 0.42*** |
| | | 고등학교 2학년 | 0.19*** | 0.25*** |
| | | 고등학교 3학년 | 0.15*** | 0.19*** |
| 건강상태 | 주관적 건강상태 | 매우 건강한 편 | 1.00 | 1.00 |
| | | 건강한 편 | 1.08 | 1.07 |
| | | 보통 | 1.12** | 1.26*** |
| | | 건강하지 못한 편 | 1.03 | 1.28*** |
| | |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 | 1.93*** | 1.59** |
| | 우울증 | 느낀적 없음 | 1.00 | 1.00 |
| | 느낀적 있음 | 0.74*** | 0.73*** | |
| 자살생각 | 한적 없음 | 1.00 | 1.00 | |
| | 한적 있음 | 0.72*** | 0.80*** | |
| 건강행태 | 격렬한 신체활동 | 지난주 한적 없음 | 1.00 | 1.00 |
| | | 지난주 한적 있음 | 0.87*** | 0.79*** |
| | 현재흡연 | 흡연안함 | 1.00 | 1.00 |
| | | 흡연함 | 0.12*** | 0.18*** |
| | 흡입계 경험 | 마셔본 적 없음 | 1.00 | 1.00 |
| | | 과거에 마셨음 | 0.64** | 0.81 |
| | | 지금도 마심 | 1.40 | 1.36 |
| | 아침밥 | 주 6~7일 먹음 | 1.00 | 1.00 |
| 주 5일 미만 먹음 | | 0.70*** | 0.87*** | |
| 학업수준 | 학업성적 | 상 | 1.00 | 1.00 |
| | | 중상 | 0.85*** | 0.84*** |

| | | | Odds Ratio | |
|-------------|-------------|-----------|----------------|----------------|
| | | | 여자 | 남자 |
| 가족환경 | | 중 | 0.74*** | 0.73*** |
| | | 중하 | 0.69*** | 0.69*** |
| | | 하 | 0.59*** | 0.62*** |
| | 아버지 학력 | 대졸 이상 | 1.00 | 1.00 |
| | | 중졸 이하 | 1.03 | 0.98 |
| | | 고졸 | 0.83*** | 0.90*** |
| | | 학력 모름 | 1.14** | 1.19*** |
| | 경제상태 | 상 | 1.00 | 1.00 |
| | | 중상 | 0.85* | 0.93 |
| | | 중 | 0.87 | 0.92 |
| | | 중하 하 | 0.81** 0.87 | 0.85** 1.02 |
| | 거주형태 | 가족과 함께 거주 | 1.00 | 1.00 |
| 친척집 거주 | | 1.08 | 1.81*** | |
| 하숙, 자취, 기숙사 | | 1.22* | 1.08 | |
| 보육시설 | | 2.12* | 2.34*** | |
| 부모동거 여부 | 부모 모두 동거 | 1.00 | 1.00 | |
| | 아버지만 동거 | 0.83** | 0.91 | |
| | 어머니만 동거 | 0.77*** | 0.86** | |
| | 부모 모두 동거 안함 | 0.68*** | 0.50*** | |
| 정책환경 | 술건강 교육 | 교육받음 | 1.00 | 1.00 |
| | | 교육받은적 없음 | 1.00 | 1.07* |

제3절 성인여성 음주관련 요인

1. 분석방법

성인여성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2005년에 실시된 제3기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대상자들의 특성은 앞의 표와 동일하며, 분석대상자중 음주와 관련된 변수는 다음 <표 6-25>와 같다.

<표 6-25> 제3기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대상자 일반적 특성

| | | | 남자 | | 여자 | |
|------------------|------------------|--------|-------|--------|-------|--------|
| | | | 빈도 | 백분율 | 빈도 | 백분율 |
| 전체 ¹⁾ | | | 1,395 | 100.00 | 1,683 | 100.00 |
| 건강행태 | 음주시작 | 19세 미만 | 787 | 60.63 | 476 | 34.27 |
| | 연령 ¹⁾ | 19세 이후 | 511 | 39.37 | 913 | 65.73 |

주: 1) 현재음주자(남자 1,298명, 여자 1,390명)를 대상으로 함.

성인여성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변수는 현재음주율, 고위험음주율, 비음주율이며, 이에 대한 설명변수로 인구·사회·경제적요인, 건강상태요인, 건강행태요인 등으로 구분하였다(표 6-26).

<표 6-26> 성인여성 음주요인 분석에 사용된 변수 및 설명

| 변수 | 설명 |
|-------------|---|
| 현재흡연율 | 한달에 한번이상 음주한 사람의 비율 |
| 고위험음주율 | 현재 음주자 중에서 한번에 마시는 술이 남자의 경우 소주 7잔 이상, 여자의 경우 5잔 이상인 경우 |
| 비음주율 | 지난 1년간 음주한 경험이 없는 사람의 비율 |
| 인구·사회·경제적요인 | 연령, 결혼상태, 교육, 월소득, 직업 |
| 건강상태 |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감, 자살생각 |
| 건강행태 | 신체활동, 흡연 |

2. 대상자의 특성

국민건강영양조사 성인보건의식행태조사 결과 나타난 19~39세 성인 전체의 음주율은 60.42%였고, 여자는 45.6%, 남자는 77.8%로 나타났다. 이 중 음주자의 73% 정도가 고위험음주를 하고 있었으며, 성별로는 여자 음주자의 59.0%, 남자 음주자의 84.4%가 고위험음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중 지난 1년간 음주하지 않은 사람은 남자 6.7%, 여자 17.1%였다(표 6-27).

〈표 6-27〉 성인 성별 현재음주율, 고위험음주율, 비음주율

| | | 남자 | | 여자 | | 전체 | |
|----------------------|---------|-------|-------|-------|-------|-------|-------|
| | | N | % | N | % | N | % |
| 계 | | 1,395 | 100.0 | 1,683 | 100.0 | 3,078 | 100.0 |
| 현재 음주 ¹⁾ | 현재음주함 | 1,084 | 77.76 | 775 | 46.05 | 1,859 | 60.42 |
| | 현재음주안함 | 310 | 22.24 | 908 | 53.95 | 1,218 | 39.58 |
| 고위험 음주 ²⁾ | 고위험음주 | 1,099 | 84.38 | 797 | 59.02 | 1,896 | 72.88 |
| | 고위험음주아님 | 199 | 15.62 | 590 | 40.98 | 789 | 27.12 |
| 비음주율 ³⁾ | 비음주자 | 97 | 6.66 | 293 | 17.10 | 390 | 11.79 |
| | 비음주자아님 | 1,298 | 93.34 | 1,390 | 82.90 | 2,688 | 88.29 |

주: 1) 백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무응답 1명
 2) 백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무응답 393명
 3) 백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가. 음주율

1) 인구·사회·경제적 상태별 음주율

19~39세 여성 전체의 음주율이 46%인데 반해 20대 초반 여성의 음주율이 59%로 높게 나타나는 등 30대의 여성에 비해 20대 여성의 음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상태 또한 미혼인 여성의 음주율이 높았다. 이는 남성의 경우 30대 후반의 음주율이 가장 높고, 미혼 집단의 음주율

이 가장 낮은 것과 반대되는 양상이다.

사회경제적 상태별로는 교육수준 및 월소득이 낮을수록 음주율이 높았고, 육체노동 종사자의 음주율이 높았다(표 6-28).

〈표 6-28〉 성인 인구·사회·경제적 상태별 음주율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연령별 | p=0.0015 | | p=0.0000 | | p=0.6808 | |
| 19-24 | 69.10 | 1.91 | 58.72 | 2.71 | 79.05 | 2.53 |
| 25-29 | 62.00 | 2.04 | 44.74 | 2.81 | 77.55 | 2.55 |
| 30-34 | 59.65 | 1.78 | 42.77 | 2.44 | 75.91 | 2.26 |
| 35-39 | 60.37 | 1.77 | 39.61 | 2.49 | 79.65 | 2.14 |
| 결혼상태 | p=0.0000 | | p=0.0000 | | p=0.8111 | |
| 미혼 | 67.85 | 1.37 | 53.40 | 2.12 | 77.84 | 1.67 |
| 유배우 | 57.71 | 1.30 | 41.25 | 1.70 | 78.01 | 1.69 |
| 기타 | 61.82 | 6.38 | 48.26 | 7.92 | 84.03 | 7.99 |
| 교육 | p=0.4071 | | p=0.0059 | | p=0.5055 | |
| 고졸미만 | 57.82 | 5.47 | 51.09 | 6.74 | 69.63 | 8.69 |
| 고졸 | 64.00 | 1.47 | 50.95 | 2.00 | 78.91 | 1.94 |
| 대졸이상 | 62.13 | 1.25 | 42.29 | 1.81 | 77.84 | 1.52 |
| 월소득 | p=0.3234 | | p=0.4501 | | p=0.0001 | |
| 100만 이하 | 56.99 | 3.77 | 47.54 | 5.37 | 64.40 | 5.05 |
| 100~200만원 | 62.04 | 1.80 | 49.16 | 2.60 | 72.84 | 2.33 |
| 200~300만원 | 64.39 | 1.74 | 47.25 | 2.47 | 81.11 | 2.11 |
| 300만원 이상 | 62.58 | 1.55 | 43.92 | 2.09 | 82.32 | 1.91 |
| 직업별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무직 | 52.89 | 3.42 | 37.17 | 4.75 | 62.24 | 4.45 |
| 육체노동군 | 73.82 | 1.46 | 58.72 | 2.79 | 80.51 | 1.64 |
| 비육체노동군 | 63.61 | 1.70 | 46.56 | 2.43 | 80.35 | 2.03 |
| 기타 | 51.69 | 1.83 | 41.58 | 2.00 | 78.85 | 3.15 |

주: 백분율은 각 집단별 음주율임.

2) 건강상태별 음주율

여성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를 “매우 나쁨”이라고 응답한 집단에서는 음주를 하지 않았으며, 이 외에도 주관적 체형, 스트레스 등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표 6-29).

〈표 6-29〉 성인 건강상태별 음주율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주관적 건강상태 | p=0.0003 | | p=0.0091 | | p=0.1048 | |
| 매우 좋음 | 66.24 | 3.87 | 44.31 | 5.76 | 81.06 | 4.45 |
| 좋음 | 65.66 | 1.35 | 50.22 | 1.96 | 79.07 | 1.68 |
| 보통 | 59.40 | 1.52 | 42.65 | 2.03 | 76.77 | 1.94 |
| 나쁨 | 60.97 | 3.52 | 47.05 | 4.65 | 77.12 | 4.89 |
| 매우 나쁨 | 16.52 | 10.59 | 0.00 | 0.00 | 32.95 | 18.74 |
| 주관적 체형 | p=0.1314 | | p=0.0525 | | p=0.5481 | |
| 매우 마름 | 58.34 | 5.92 | 36.12 | 8.82 | 71.31 | 7.30 |
| 마름 | 67.28 | 2.19 | 47.73 | 3.76 | 77.23 | 2.50 |
| 보통 | 60.91 | 1.41 | 43.37 | 1.87 | 80.09 | 1.75 |
| 비만 | 63.47 | 1.71 | 51.55 | 2.36 | 76.22 | 2.31 |
| 매우 비만 | 59.84 | 4.53 | 42.96 | 5.71 | 79.37 | 6.07 |
| 스트레스 | p=0.0297 | | p=0.0124 | | p=0.1985 | |
| 대단히 많이 느낀다 | 70.85 | 3.40 | 56.17 | 5.45 | 83.01 | 4.00 |
| 많이 느낀다 | 64.47 | 1.74 | 51.31 | 2.47 | 76.99 | 2.30 |
| 조금 느낀다 | 61.61 | 1.26 | 43.16 | 1.73 | 78.93 | 1.54 |
| 거의 느끼지 않는다 | 57.76 | 3.46 | 44.24 | 4.40 | 70.92 | 4.73 |
| 우울증 | p=0.0198 | | p=0.4516 | | p=0.0534 | |
| 느낀 적이 없다 | 56.86 | 2.75 | 48.69 | 3.36 | 70.48 | 4.54 |
| 느낀 적이 있다 | 63.54 | 1.00 | 45.94 | 1.43 | 78.78 | 1.22 |
| 자살생각 | p=0.8303 | | p=0.0053 | | p=0.5988 | |
| 생각 한 적이 없다 | 62.22 | 2.46 | 54.16 | 3.05 | 76.16 | 3.84 |
| 생각 한 적이 있다 | 62.79 | 1.02 | 44.72 | 1.45 | 78.23 | 1.25 |

주: 백분율은 각 집단별 음주율임.

3) 건강행태별 음주율

신체활동에 따라서는 남녀 모두 집단간 음주율의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운동을 하는 사람이 더 음주하는 경향이 있었다(표 6-30).

〈표 6-30〉 성인 건강행태별 음주율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중등도 신체활동 | p=0.9502 | | p=0.2314 | | p=0.3867 | |
| 운동안함 | 62.74 | 1.04 | 47.09 | 1.45 | 77.54 | 1.31 |
| 운동함 | 62.59 | 2.26 | 42.90 | 3.16 | 80.29 | 2.78 |
| 격렬한 신체활동 | p=0.0018 | | p=0.6952 | | p=0.2910 | |
| 운동안함 | 61.47 | 1.02 | 46.21 | 1.39 | 77.41 | 1.33 |
| 운동함 | 69.87 | 2.36 | 47.92 | 4.14 | 80.62 | 2.61 |

주: 백분율은 각 집단별 음주율임.

4) 흡연 관련 변수별 음주율

현재 흡연자의 음주율은 71%로 19~39세 여성 전체 음주율 46%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흡연량에 따른 집단간 음주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6-31).

〈표 6-31〉 성인 흡연관련 변수별 음주율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평생흡연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평생흡연 | 80.99 | 1.21 | 69.73 | 4.31 | 82.11 | 1.25 |
| 비흡연 | 49.64 | 1.26 | 44.40 | 1.37 | 66.72 | 2.73 |
| 현재흡연 | p=0.0000 | | p=0.0000 | | p=0.0000 | |
| 흡연 | 82.43 | 1.35 | 70.52 | 5.35 | 83.44 | 1.38 |
| 비흡연 | 53.25 | 1.16 | 45.04 | 1.35 | 70.58 | 2.03 |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흡연량 | p=0.6252 | | p=0.3992 | | p=0.8269 | |
| 반갑미만 | 80.54 | 2.93 | 65.96 | 7.02 | 84.63 | 3.11 |
| 한갑미만 | 83.86 | 2.02 | 81.73 | 7.33 | 83.99 | 2.09 |
| 한갑이상 | 82.05 | 2.24 | 64.18 | 18.80 | 82.52 | 2.23 |
| 직장내간접흡연 | p=0.0000 | | p=0.0041 | | p=0.0280 | |
| 없다 | 61.85 | 1.71 | 47.94 | 2.37 | 76.64 | 2.24 |
| 있다 | 76.06 | 1.47 | 59.26 | 3.09 | 82.52 | 1.57 |
| 가정내간접흡연 | p=0.5835 | | p=0.0006 | | p=0.5574 | |
| 없다 | 62.44 | 1.05 | 43.58 | 1.52 | 77.72 | 1.28 |
| 있다 | 63.73 | 2.09 | 53.92 | 2.58 | 79.72 | 3.07 |

주: 백분율은 각 집단별 음주율임.

나. 고위험음주율

1) 인구·사회·경제적 상태별 고위험음주율

남성음주자의 84% 여성음주자의 59%가 고위험음주를 하고 있었는데, 여성의 경우 20대초반, 미혼 집단에서 고위험음주율이 높았다. 사회경제적 위치별로는 고졸미만, 월소득 100만원 미만인 여성 집단에서 고위험음주율이 높았다(표 6-32).

〈표 6-32〉 성인 인구·사회·경제적 상태별 고위험음주율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연령별 | p=0.0013 | | p=0.0000 | | p=0.9428 | |
| 19~24 | 78.44 | 1.76 | 71.61 | 2.56 | 84.90 | 2.35 |
| 25~29 | 73.70 | 1.94 | 60.73 | 3.02 | 83.92 | 2.32 |
| 30~34 | 70.22 | 1.78 | 54.08 | 2.75 | 83.56 | 2.04 |
| 35~39 | 69.05 | 1.80 | 48.03 | 2.89 | 85.16 | 1.91 |

248 여성 흡연과 음주의 요인 및 정책대안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결혼상태 | p=0.0000 | | p=0.0000 | | p=0.9557 | |
| 미혼 | 78.21 | 1.24 | 69.02 | 2.04 | 84.28 | 1.52 |
| 유배우 | 67.38 | 1.34 | 50.65 | 1.96 | 84.53 | 1.55 |
| 기타 | 68.13 | 6.57 | 59.50 | 8.40 | 81.85 | 9.73 |
| 교육 | p=0.9673 | | p=0.4832 | | p=0.6385 | |
| 고졸미만 | 72.91 | 5.40 | 65.88 | 7.08 | 84.40 | 7.52 |
| 고졸 | 72.59 | 1.43 | 59.87 | 2.12 | 85.74 | 1.66 |
| 대졸이상 | 73.07 | 1.22 | 57.76 | 1.99 | 83.61 | 1.43 |
| 월소득 | p=0.7186 | | p=0.1657 | | p=0.0351 | |
| 100만 이하 | 70.92 | 3.78 | 67.40 | 5.41 | 73.63 | 5.22 |
| 100~200만원 | 73.45 | 1.75 | 61.17 | 2.81 | 82.79 | 2.06 |
| 200~300만원 | 73.90 | 1.70 | 59.98 | 2.68 | 85.60 | 1.99 |
| 300만원 이상 | 71.68 | 1.50 | 55.52 | 2.28 | 86.54 | 1.71 |
| 직업별 | p=0.9673 | | p=0.0000 | | p=0.5033 | |
| 무직 | 74.58 | 3.08 | 64.18 | 5.13 | 80.28 | 3.73 |
| 육체노동군 | 80.11 | 1.37 | 68.51 | 2.76 | 84.87 | 1.54 |
| 비육체노동군 | 74.08 | 1.61 | 61.02 | 2.53 | 85.86 | 1.88 |
| 기타 | 60.77 | 1.99 | 50.88 | 2.32 | 83.19 | 3.14 |

주: 백분율은 각 집단별 음주율임.

2) 건강상태별 고위험음주율

주관적 건강상태별로는 집단간 고위험음주율의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고, 주관적 체형별로는 비만인 여성 집단의 고위험음주율이 높았다.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는 여성 집단 또한 고위험 음주율이 높아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욱 스트레스와 고위험음주와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었다(표 6-33).

〈표 6-33〉 성인 건강상태별 고위험음주율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주관적 건강상태 | p=0.0382 | | p=0.2445 | | p=0.3762 | |
| 매우 좋음 | 80.52 | 3.25 | 64.79 | 6.13 | 89.61 | 3.21 |
| 좋음 | 74.41 | 1.29 | 60.79 | 2.06 | 85.14 | 1.51 |
| 보통 | 70.16 | 1.52 | 55.44 | 2.29 | 83.38 | 1.80 |
| 나쁨 | 70.81 | 3.51 | 62.90 | 4.75 | 79.01 | 5.15 |
| 매우 나쁨 | 59.95 | 18.77 | 36.12 | 28.56 | 73.39 | 22.61 |
| 주관적 체형 | p=0.0638 | | p=0.0098 | | p=0.0473 | |
| 매우 마름 | 57.96 | 6.50 | 40.42 | 9.96 | 67.76 | 8.24 |
| 마름 | 73.62 | 2.21 | 52.98 | 4.13 | 83.17 | 2.44 |
| 보통 | 71.98 | 1.36 | 56.74 | 2.06 | 86.24 | 1.54 |
| 비만 | 74.44 | 1.62 | 64.96 | 2.43 | 83.62 | 2.04 |
| 매우 비만 | 76.77 | 4.11 | 64.38 | 6.19 | 89.77 | 4.53 |
| 스트레스 | p=0.1371 | | p=0.0049 | | p=0.9964 | |
| 대단히 많이 느낀다 | 78.44 | 3.09 | 71.24 | 5.06 | 83.88 | 3.81 |
| 많이 느낀다 | 74.31 | 1.67 | 62.99 | 2.55 | 84.37 | 2.09 |
| 조금 느낀다 | 71.22 | 1.24 | 54.90 | 1.94 | 84.54 | 1.42 |
| 거의 느끼지 않는다 | 74.39 | 3.21 | 62.57 | 4.74 | 83.74 | 4.03 |
| 우울증 | p=0.4296 | | p=0.1317 | | p=0.4587 | |
| 느낀 적이 없다 | 70.92 | 2.70 | 63.94 | 3.54 | 81.77 | 3.91 |
| 느낀 적이 있다 | 73.15 | 0.97 | 58.07 | 1.55 | 84.62 | 1.12 |
| 자살생각 | p=0.9928 | | p=0.0034 | | p=0.3673 | |
| 생각 한 적이 없다 | 72.90 | 2.39 | 67.60 | 3.05 | 81.37 | 3.76 |
| 생각 한 적이 있다 | 72.87 | 0.99 | 57.11 | 1.59 | 84.69 | 1.13 |

주: 백분율은 각 집단별 고위험음주율 임.

3) 건강행태별 고위험음주율

신체활동별로는 남녀모두 유의한 집단간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격렬한 신체활동을 하는 경우는 남녀 모두에서 고위험음주율이 약간 높았

다. 중등도 신체활동을 남자의 경우만 음주율이 높았다(표 6-34).

〈표 6-34〉 성인 건강행태별 고위험음주율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중등도 신체활동 | p=0.1968 | | p=0.9875 | | p=0.1096 | |
| 운동안함 | 72.35 | 1.01 | 59.03 | 1.56 | 83.60 | 1.22 |
| 운동함 | 75.43 | 2.10 | 58.97 | 3.52 | 87.97 | 2.21 |
| 격렬한 신체활동 | p=0.0057 | | p=0.9377 | | p=0.1390 | |
| 운동안함 | 71.79 | 1.00 | 58.98 | 1.51 | 83.59 | 1.23 |
| 운동함 | 78.82 | 2.15 | 59.34 | 4.35 | 87.62 | 2.22 |

주: 백분율은 각 집단별 고위험음주율임.

4) 흡연·음주 관련 변수별 고위험음주율

흡연여성의 고위험 음주율이 높고 흡연량이 많을수록 고위험 음주율이 높았으나, 흡연량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음주시작 시기가 빠를수록 고위험음주율이 높았다(표 6-35).

〈표 6-35〉 성인 흡연·음주관련변수별 고위험음주율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평생흡연 | p=0.0000 | | p=0.0000 | | p=0.0029 | |
| 평생흡연 | 85.84 | 1.12 | 81.67 | 3.70 | 86.23 | 1.17 |
| 비흡연 | 62.14 | 1.33 | 56.91 | 1.50 | 78.58 | 2.54 |
| 현재흡연 | p=0.0000 | | p=0.0000 | | p=0.0165 | |
| 흡연 | 86.36 | 1.25 | 84.50 | 4.20 | 86.50 | 1.31 |
| 비흡연 | 65.50 | 1.20 | 57.44 | 1.47 | 81.20 | 1.85 |
| 흡연량 | p=0.7638 | | p=0.5397 | | p=0.6599 | |
| 반갑미만 | 86.03 | 2.60 | 81.66 | 5.59 | 87.28 | 2.93 |
| 한갑미만 | 87.26 | 1.94 | 84.19 | 7.61 | 87.44 | 2.00 |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한갑이상 | 85.23 | 2.09 | 100.00 | 0.00 | 84.97 | 2.13 |
| 직장내간접흡연 | p=0.0000 | | p=0.0002 | | p=0.2247 | |
| 없다 | 71.54 | 1.67 | 59.40 | 2.48 | 83.66 | 2.05 |
| 있다 | 83.36 | 1.32 | 74.16 | 2.79 | 86.66 | 1.47 |
| 가정내간접흡연 | p=0.6600 | | p=0.0057 | | p=0.4384 | |
| 없다 | 72.66 | 1.03 | 56.50 | 1.69 | 84.00 | 1.18 |
| 있다 | 73.66 | 1.99 | 65.31 | 2.62 | 86.42 | 2.73 |
| 음주시작시기 | p=0.0000 | | p=0.0000 | | p=0.0659 | |
| 고교이전 | 85.20 | 2.20 | 75.62 | 4.95 | 88.91 | 2.30 |
| 고교 | 79.65 | 1.41 | 69.08 | 2.57 | 85.13 | 1.63 |
| 고교이후 | 65.10 | 1.35 | 52.81 | 1.78 | 81.73 | 1.80 |

주: 백분율은 각 집단별 고위험음주율임.

다. 비음주율

1) 인구·사회·경제적 상태별 비음주율

분석대상자 중 지난 1년간 음주하지 않은 비음주자 비율은 남성 6.7%, 여성 17.1%에 불과하였다.

연령별로는 여성의 경우 낮은 연령층에서의 비음주율이 낮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음주율 또한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유배우인 집단에서 비음주율이 높았다. 연령과 결혼상태에 따른 비음주율의 차이는 여성집단에서만 관찰되었다(표 6-36).

〈표 6-36〉 성인 인구·사회·경제적 상태별 비음주율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연령별 | p=0.0029 | | p=0.0000 | | p=0.4836 | |
| 19~24 | 8.44 | 1.17 | 8.80 | 1.64 | 8.09 | 1.66 |
| 25~29 | 10.50 | 1.21 | 16.49 | 2.12 | 5.14 | 1.18 |
| 30~34 | 13.53 | 1.23 | 20.20 | 2.00 | 7.10 | 1.38 |
| 35~39 | 14.21 | 1.24 | 22.61 | 2.10 | 6.40 | 1.26 |
| 결혼상태 | p=0.0000 | | p=0.0000 | | p=0.9913 | |
| 미혼 | 8.31 | 0.80 | 10.58 | 1.36 | 6.75 | 0.96 |
| 유배우 | 15.20 | 0.93 | 22.19 | 1.43 | 6.58 | 1.00 |
| 기타 | 8.01 | 3.37 | 9.04 | 3.96 | 6.33 | 6.10 |
| 교육 | p=0.0898 | | p=0.1511 | | p=0.1837 | |
| 고졸미만 | 18.30 | 4.28 | 20.47 | 5.62 | 14.49 | 6.25 |
| 고졸 | 10.70 | 0.92 | 14.82 | 1.40 | 5.98 | 1.10 |
| 대졸이상 | 12.02 | 0.82 | 18.68 | 1.43 | 6.76 | 0.88 |
| 월소득 | p=0.0176 | | p=0.9042 | | p=0.0000 | |
| 100만 이하 | 18.94 | 3.08 | 19.90 | 4.79 | 18.19 | 4.00 |
| 100~200만원 | 11.98 | 1.14 | 16.47 | 1.85 | 8.22 | 1.40 |
| 200~300만원 | 10.72 | 1.08 | 17.19 | 1.85 | 4.45 | 1.05 |
| 300만원 이상 | 11.13 | 1.00 | 17.09 | 1.62 | 4.84 | 1.03 |
| 직업별 | p=0.0000 | | p=0.0018 | | p=0.3350 | |
| 무직 | 11.50 | 2.08 | 15.43 | 3.81 | 9.17 | 2.37 |
| 육체노동군 | 7.43 | 0.83 | 12.07 | 1.75 | 5.38 | 0.90 |
| 비육체노동군 | 10.98 | 1.14 | 14.79 | 1.82 | 7.23 | 1.33 |
| 기타 | 17.83 | 1.35 | 21.70 | 1.65 | 7.44 | 2.03 |

주: 백분율은 각 집단별 비음주율임.

2) 건강상태별 비음주율

주관적 건강상태가 매우 나쁘다고 응답한 집단에서의 비음주율이 여성의 경우 60% 이상으로 매우 높았고, 스트레스 여부에 따른 차이 또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표 6-37).

〈표 6-37〉 성인 건강상태별 비음주율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주관적 건강상태 | p=0.0002 | | p=0.0054 | | p=0.0834 | |
| 매우 좋음 | 11.16 | 2.73 | 19.37 | 5.15 | 5.62 | 2.74 |
| 좋음 | 10.17 | 0.82 | 14.64 | 1.35 | 6.29 | 0.95 |
| 보통 | 13.22 | 1.03 | 19.27 | 1.63 | 6.95 | 1.16 |
| 나쁨 | 11.84 | 2.30 | 16.03 | 3.54 | 6.98 | 2.65 |
| 매우 나쁨 | 49.69 | 13.28 | 63.61 | 17.33 | 35.84 | 17.93 |
| 주관적 체형 | p=0.3414 | | p=0.3029 | | p=0.2888 | |
| 매우 마름 | 14.00 | 3.92 | 16.37 | 6.32 | 12.61 | 4.97 |
| 마름 | 10.99 | 1.41 | 16.49 | 2.69 | 8.20 | 1.61 |
| 보통 | 12.85 | 0.95 | 19.10 | 1.52 | 6.03 | 1.00 |
| 비만 | 10.68 | 1.06 | 15.00 | 1.66 | 6.06 | 1.26 |
| 매우 비만 | 8.49 | 2.30 | 12.69 | 3.62 | 3.63 | 2.53 |
| 스트레스 | p=0.0001 | | p=0.0002 | | p=0.1977 | |
| 대단히 많이 느낀다 | 7.25 | 1.91 | 11.92 | 3.58 | 3.37 | 1.75 |
| 많이 느낀다 | 8.64 | 0.94 | 11.74 | 1.46 | 5.70 | 1.18 |
| 조금 느낀다 | 12.74 | 0.84 | 18.82 | 1.37 | 7.05 | 0.96 |
| 거의 느끼지 않는다 | 18.47 | 2.70 | 27.08 | 4.28 | 10.09 | 2.84 |
| 우울증 | p=0.1749 | | p=0.6684 | | p=0.1301 | |
| 느낀 적이 없다 | 13.89 | 1.84 | 16.15 | 2.36 | 10.12 | 2.92 |
| 느낀 적이 있다 | 11.40 | 0.64 | 17.28 | 1.10 | 6.32 | 0.70 |
| 자살생각 | p=0.8364 | | p=0.1199 | | p=0.8876 | |
| 생각 한 적이 없다 | 11.41 | 1.53 | 13.98 | 2.00 | 6.97 | 2.31 |
| 생각 한 적이 있다 | 11.76 | 0.66 | 17.77 | 1.13 | 6.63 | 0.72 |

주: 백분율은 각 집단별 비음주율임.

3) 건강행태별 비음주율

신체활동에 따른 비음주율의 차이는 남녀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여성은 격렬한 신체활동을 하지 않을수록 비음주율이 높았다(표 6-38).

〈표 6-38〉 성인 건강행태별 비음주율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중등도 신체활동 | p=0.2749 | | p=0.1025 | | p=0.8479 | |
| 운동안함 | 11.41 | 0.66 | 16.37 | 1.08 | 6.72 | 0.76 |
| 운동함 | 13.14 | 1.51 | 20.67 | 2.57 | 6.38 | 1.58 |
| 격렬한 신체활동 | p=0.0103 | | p=0.10.62 | | p=0.5735 | |
| 운동안함 | 12.35 | 0.68 | 17.62 | 1.07 | 6.85 | 0.78 |
| 운동함 | 8.04 | 1.31 | 12.48 | 2.64 | 5.89 | 1.44 |

주: 백분율은 각 집단별 비음주율임.

4) 흡연 관련 변수별 비음주율

평생비흡연자, 현재비흡연자 집단에서 남녀 모두 비음주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여성집단에서 흡연량이 한갑이상인 집단에서 비음주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여성의 경우 한갑이상 흡연하는 집단의 숫자가 작은 데서 비롯되었다(표 6-39).

〈표 6-39〉 성인 흡연관련 변수별 비음주율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평생흡연 | p=0.0000 | | p=0.0282 | | p=0.0000 | |
| 평생흡연 | 4.26 | 0.61 | 9.54 | 2.80 | 3.74 | 0.61 |
| 비흡연 | 17.05 | 0.92 | 17.74 | 1.05 | 14.78 | 1.93 |

| | 전체 | | 여자 | | 남자 | |
|---------|----------|-----------|----------|-----------|----------|-----------|
| | % | Std. Err. | % | Std. Err. | % | Std. Err. |
| 현재흡연 | p=0.0000 | | p=0.0456 | | p=0.0000 | |
| 흡연 | 3.76 | 0.66 | 8.25 | 3.33 | 3.38 | 0.66 |
| 비흡연 | 15.52 | 0.83 | 17.59 | 1.03 | 11.16 | 1.34 |
| 흡연량 | p=0.4592 | | p=0.0033 | | p=0.6992 | |
| 반갑미만 | 3.22 | 1.36 | 1.98 | 1.98 | 3.56 | 1.64 |
| 한갑미만 | 3.14 | 0.92 | 8.33 | 5.00 | 2.82 | 0.93 |
| 한갑이상 | 4.88 | 1.22 | 35.82 | 18.80 | 4.06 | 1.11 |
| 직장내간접흡연 | p=0.0002 | | p=0.2411 | | p=0.0075 | |
| 없다 | 11.61 | 1.11 | 14.15 | 1.66 | 8.93 | 1.44 |
| 있다 | 6.37 | 0.86 | 10.95 | 2.05 | 4.61 | 0.89 |
| 가정내간접흡연 | p=0.2653 | | p=0.0048 | | p=0.8431 | |
| 없다 | 12.07 | 0.69 | 18.83 | 1.21 | 6.60 | 0.74 |
| 있다 | 10.38 | 1.29 | 12.45 | 1.70 | 7.00 | 1.90 |

주: 백분율은 각 집단별 비음주율임.

3. 현재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9~39세 성인여성의 현재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현재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으로 독립변수의 영향들이 뚜렷하지 못하였다.

연령의 경우 20대 초반(OR=2.50)에 가장 음주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상태로는 유배우가 아닌 경우(미혼 OR=1.89, 사별 등 OR=2.53), 그리고 학력이 낮은 경우(고졸 OR=1.78) 음주를 많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과는 달리 여성의 경우 현재 흡연 여부가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가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6-40).

〈표 6-40〉 성인 현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 | | Odds Ratio | |
|-------------------------|--------------|-----------|------------|-------|
| | | | 여자 | 남자 |
| 인구· 사회· 경제적 상태 | 연령 | 35~39세 | 1.00 | 1.00 |
| | | 19~24세 | 2.50*** | 0.81 |
| | | 25~29세 | 1.38 | 1.14 |
| | | 30~34세 | 1.26 | 1.01 |
| | | | | |
| | 결혼상태 | 유배우 | 1.00 | 1.00 |
| | | 미혼 | 1.89** | 1.18 |
| | | 사별·별거·이혼 | 2.53* | 0.90 |
| | 교육수준 | 대졸이상 | 1.00 | 1.00 |
| | | 고졸미만 | 1.13 | 0.33* |
| | | 고졸 | 1.78*** | 0.85 |
| | 직업 | 비육체노동 | 1.00 | 1.00 |
| | | 무직 | 0.61 | 1.13 |
| | | 육체노동 | 1.30 | 1.66* |
| | | 학생·주부 등 | 0.75 | 1.74 |
| 월평균 가구소득 | 300만원 이상 | 1.00 | 1.00 | |
| | 100만원 미만 | 0.60 | 0.21*** | |
| | 100~200만원 미만 | 0.90 | 0.47** | |
| | 200~300만원 미만 | 0.94 | 0.98 | |
| 건강상태 | 주관적 건강상태 | 매우 좋음/ 좋음 | 1.00 | 1.00 |
| | | 보통 | 0.73** | 0.78 |
| | | 나쁨/매우 나쁨 | 0.78 | 0.82 |
| | 우울증 | 아니오 | 1.00 | 1.00 |
| | | 예 | 0.86 | 0.66 |
| | 자살생각 | 아니오 | 1.00 | 1.00 |
| 예 | | 1.34 | 1.15 | |
| 건강행태 | 격렬한 신체활동 | 지난주에 안했음 | 1.00 | 1.00 |
| | | 지난주에 했음 | 1.48 | 1.23 |
| | 현재흡연 | 흡연안함 | 1.00 | 1.00 |
| | 흡연함 | 1.64 | 4.13*** | |

4. 고위험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성의 고위험음주를 한번에 소주 5잔 이상 마시는 경우라고 정의 할 때, 고위험음주 집단은, 20대초반군(OR=1.80), 미혼군(OR=1.71), 육체노동군(OR=1.49), 자살생각을 한 경험이 있는 군(OR=1.38), 현재흡연군(OR=3.04), 그리고 처음 음주시기가 19세 이전인 군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 결혼상태, 직업, 자살생각, 현재 흡연 등의 변수는 남성 집단에 비해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6-41).

〈표 6-41〉 성인 고위험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 | | Odds Ratio | |
|-------------------------|-------------|----------|------------|--------|
| | | | 여자 | 남자 |
| 인구· 사회· 경제적 상태 | 연령 | 35~39세 | 1.00 | 1.00 |
| | | 19~24세 | 1.80** | 1.13 |
| | | 25~29세 | 1.28 | 0.95 |
| | | 30~34세 | 1.34* | 0.89 |
| | 결혼상태 | 유배우 | 1.00 | 1.00 |
| | | 미혼 | 1.71*** | 1.10 |
| | | 사별·별거·이혼 | 0.80 | 0.80 |
| | 교육수준 | 대졸이상 | 1.00 | 1.00 |
| | | 고졸미만 | 1.53 | 1.29 |
| | | 고졸 | 1.24 | 1.23 |
| | 직업 | 비육체노동 | 1.00 | 1.00 |
| | | 무직 | 0.69 | 0.63 |
| | | 육체노동 | 1.49* | 0.85 |
| | | 학생·주부 등 | 0.74* | 0.85 |
| | 월평균 가구소득 | 300만원 이상 | 1.00 | 1.00 |
| | | 100만원 미만 | 1.38 | 0.46** |
| 100~200만원 미만 | | 1.16 | 0.72 | |
| 200~300만원 미만 | | 1.24 | 0.88 | |
| 건강상태 | 주관적 건강상태 | 매우좋음/좋음 | 1.00 | 1.00 |
| | | 보통 | 0.73** | 0.83 |
| | | 나쁨/매우나쁨 | 0.95 | 0.69 |
| | 우울증 | 아니오 | 1.00 | 1.00 |

| | | | Odds Ratio | |
|------|----------|----------|------------|---------|
| | | | 여자 | 남자 |
| | 자살생각 | 예 | 0.94 | 0.99 |
| | | 아니오 | 1.00 | 1.00 |
| 건강행태 | 격렬한 신체활동 | 예 | 1.38* | 0.82 |
| | | 지난주에 안했음 | 1.00 | 1.00 |
| | 지난주에 했음 | 1.08 | 1.33 | |
| | 현재흡연 | 흡연안함 | 1.00 | 1.00 |
| | | 흡연함 | 3.04*** | 1.60*** |
| 처음음주 | 19세 미만 | 1.00 | 1.00 | |
| | 19세 이후 | 0.55*** | 0.78 | |

5. 비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9~39세 성인여성 중 연령이 19~24세인 여성집단(OR=0.40), 미혼인 여성집단(OR=0.53), 사별·별거·이혼인 여성집단(OR=0.40), 고졸인 여성집단(OR=0.56)에서는 비음주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이거나 교육수준이 고졸미만인 집단에서 비음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집단에 비해 보통인 집단에서 음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표 6-42).

<표 6-42> 성인 비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 | | Odds Ratio | |
|--------------|------|--------|------------|------|
| | | | 여자 | 남자 |
| 인구·사회·경제적 상태 | 연령 | 35~39세 | 1.00 | 1.00 |
| | | 19~24세 | 0.40*** | 1.24 |
| | | 25~29세 | 0.73 | 0.88 |
| | | 30~34세 | 0.79 | 0.99 |
| | 결혼상태 | 유배우 | 1.00 | 1.00 |

| | | | Odds Ratio | |
|---------------------------------|-------------|-----------|------------|---------|
| | | | 여자 | 남자 |
| 인구· 사회· 경제적 상태 (계속) | | 미혼 | 0.53** | 0.85 |
| | | 사별·별거·이혼 | 0.40* | 1.12 |
| | 교육수준 | 대졸이상 | 1.00 | 1.00 |
| | | 고졸미만 | 0.88 | 3.05* |
| | | 고졸 | 0.56*** | 1.18 |
| | 직업 | 비육체노동 | 1.00 | 1.00 |
| | | 무직 | 1.63 | 0.89 |
| | | 육체노동 | 0.77 | 0.60* |
| | | 학생·주부 등 | 1.33 | 0.57 |
| | 월평균 가구소득 | 300만원 이상 | 1.00 | 1.00 |
| 100만원 미만 | | 1.66 | 4.69*** | |
| 100~200만원 미만 | | 1.11 | 2.11** | |
| 200~300만원 미만 | | 1.06 | 1.02 | |
| 건강상태 | 주관적 건강상태 | 매우 좋음/ 좋음 | 1.00 | 1.00 |
| | | 보통 | 1.38** | 1.29 |
| | | 나쁨/매우나쁨 | 1.28 | 1.22 |
| | 우울증 | 아니오 | 1.00 | 1.00 |
| | | 예 | 1.17 | 1.51 |
| | 자살생각 | 아니오 | 1.00 | 1.00 |
| 예 | | 0.75 | 0.87 | |
| 건강행태 | 격렬한 신체활동 | 지난주에 안했음 | 1.00 | 1.00 |
| | | 지난주에 했음 | 0.68 | 0.81 |
| | 현재흡연 | 흡연안함 | 1.00 | 1.00 |
| | | 흡연함 | 0.61 | 0.24*** |

제4절 여성음주 관련요인 요약

1. 여자 청소년

여자 청소년의 경우 주관적 불건강한 상태, 비만, 스트레스, 우울, 자살 생각 등이 주요 관련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활동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건강행태가 좋지 못한 군(흡입제 사용, 마약사용, 아침식사 안함, 라면 자주먹음)에서의 음주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청소년과 여성 청소년 집단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특히 여성청소년 중 흡입제를 사용하는 집단에서의 음주율은 남성청소년 보다 높았다. 남녀 모두 현재흡연자 특히 하루 반갑이상 흡연하는 집단에서의 음주율이 높았다.

가족환경별로는 가정내에서 간접흡연을 매일 경험하는 집단, 부모의 학력이 낮은 청소년 집단, 경제적 상태가 낮은 청소년 집단, 가족과 떨어져 사는 청소년 집단, 그리고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청소년 집단에서의 음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환경과 관련된 변수로는 술구입의 용이성과 절주교육 여부 등이 있는데, 술구입이 노력없이도 쉽게 가능했다는 집단, 그리고 절주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집단에서의 음주율이 높았다.

청소년 고위험음주자는 음주율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였지만, 음주율에 비해 그 증가폭이 상당히 커짐을 알 수 있었다. 여성청소년의 경우 중학교 1학년의 고위험음주율에 비해 고등학교 2학년의 고위험음주율은 13배 증가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집단에서의 고위험음주율이 높았는데, 특히 여성청소년의 경우 그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스의 경우 “전혀 느끼지 않는” 집단에서 비해 “대단히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집단의 고위험 음주율이 8배 이상 높았다.

고위험음주율은 부모학력이 낮을수록, 경제상태가 낮을수록, 가족과 함

게 살지 않을수록, 부모와 함께 살지 않을 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음주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정책환경별로는 술구입이 용이하다고 응답한 집단 그리고 절주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집단에서의 고위험음주율이 높았다.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여성청소년의 현재 음주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인구학적 요인으로서 학년, 건강상태 요인으로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증, 자살생각, 건강행태요인으로서 신체활동, 흡연, 흡입제 경험, 아침식사 여부, 가족환경으로서 아버지 학력, 부모동거 여부 등이었다.

여성청소년의 현재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현재흡연(OR=12.87), 흡입제 경험(OR=3.15), 학년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청소년의 경우와 비교해 볼때, 현재흡연 여부, 흡입제 경험, 아버지 학력 등에 더 영향을 많이 받았다.

여성청소년의 고위험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년, 주관적 건강상태, 현재흡연 여부, 처음 음주시기, 흡입제 경험, 아버지 학력, 거주형태, 그리고 주류구매의 용이성 등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고학년이 될수록 위험음주를 할 확률이 높아져서 중학교 1학년에 비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위험음주 확률이 5배 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흡연 여부, 흡입제 경험 등과 함께 처음 음주한 시기도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여성청소년의 음주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년,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감, 자살생각, 현재흡연, 흡입제 경험, 학업성적, 아버지 학력, 부모동거 여부 등이었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여성청소년(OR=0.15), 현재흡연하는 여성청소년(OR=0.12), 학업성적이 낮은 여성청소년(OR=0.59), 부모 모두 같이 살지 않는 여성청소년(OR=0.68) 등의 집단에서 음주를 안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함께, 스스로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고 응답한 집단과 보육시설에 거주하는 여

성청소년 집단에서 음주하지 않을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성인 여성

성인 여성의 경우 주관적 건강이 안 좋을수록 음주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높거나 우울상태가 높을 경우 음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은 연령의 경우 20대 초반에 가장 음주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경제적 상태로는 유배우가 아닌 경우, 학력이 낮은 경우 음주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과는 달리 여성의 경우 현재 흡연 여부가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가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성 고위험음주 집단은, 20대초반군, 미혼군, 육체노동군, 자살생각을 한 경험이 있는 군, 처음 음주시기가 19세 이전인 군 등으로 나타났다.

제7장 여성음주 감소를 위한 정책방향

제1절 여성음주 동향 및 시사점

1. 대상별 단계별 음주관련요인

가. 여성청소년 음주 경험과 관련 요인

청소년의 음주율을 학년별, 학업수준별로 나누어 구해본 결과 학년이 높아질수록 음주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변수간의 전후관계는 명확하지 않으나,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의 음주율이 높았다.

중고등학교 여자청소년의 음주무경험과 관련된 인구학적 요인은 학년이 었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음주경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주관적 건강상태로 볼 때 건강하지 못한 경우일수록 음주경험이 없을 가능성이 높았다. 다른 건강관련 행태를 볼 때 격렬한 신체활동을 하는 경우일수록 음주경험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경험, 흡입제 경험이 음주경험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음주경험의 가능성이 높았다.

주관적 건강상태별로는 남녀모두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음주율이 높았고, 여성청소년의 경우 스스로 비만인 편이라고 응답한 집단에서 음주율이 높았다. 또한,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생각 등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집단에서의 음주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신체활동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건강행태가 좋지 못한 군(흡입제 사용, 마약사용, 아침식사 안함, 라면 자주먹음)에서의 음주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 집단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특히

여성청소년 중 흡입제를 사용하는 집단에서의 음주율은 남성청소년 보다 높았다. 남녀 모두 현재흡연자 특히 하루 반갑이상 흡연하는 집단에서의 음주율이 높았다.

가족환경별로는 가정내에서 간접흡연을 매일 경험하는 집단, 부모의 학력이 낮은 청소년 집단, 경제적 상태가 낮은 청소년 집단, 가족과 떨어져 사는 청소년 집단, 그리고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청소년 집단에서의 음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환경과 관련된 변수로는 술구입의 용이성과 절주교육 여부 등이 있는데, 술구입이 노력없이도 쉽게 가능했다는 집단, 그리고 절주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집단에서의 음주율이 높았다.

청소년 고위험음주자는 음주율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였지만, 음주율에 비해 그 증가폭이 상당히 커짐을 알 수 있었다. 여성청소년의 경우 중학교 1학년의 고위험음주율에 비해 고등학교 2학년의 고위험음주율은 13배 증가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집단에서의 고위험 음주율이 높았는데, 특히 여성청소년의 경우 그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스의 경우 “전혀 느끼지 않는” 집단에서 비해 “대단히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집단의 고위험 음주율이 8배 이상 높았다.

고위험음주율은 부모학력이 낮을수록, 경제상태가 낮을수록, 가족과 함께 살지 않을수록, 부모와 함께 살지 않을 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음주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정책환경별로는 술구입이 용이하다고 응답한 집단 그리고 절주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집단에서의 고위험음주율이 높았다.

나. 여자청소년 현재 음주 및 고위험 음주 관련 요인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여성청소년의 현재 음주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인구학적 요인으로서 학년, 건강상태 요인으로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증, 자살생각, 건강행태요인으로서 신체활동, 흡연, 흡입제 경험, 아침식사 여부, 가족환경으로서 아버지 학력, 부모동거 여부 등이었다(표 7-1 참조).

여성청소년의 현재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현재흡연(OR=12.87), 흡입제 경험(OR=3.15), 학년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청소년의 경우와 비교해 볼때, 현재흡연 여부, 흡입제 경험, 아버지 학력 등에 더 영향을 많이 받았다.

여성청소년의 고위험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년, 주관적 건강상태, 현재흡연 여부, 처음 음주시기, 흡입제 경험, 아버지 학력, 거주형태, 그리고 주류구매의 용이성 등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고학년이 될수록 위험음주를 할 확률이 높아져서 중학교 1학년에 비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위험음주 확률이 5배 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흡연 여부, 흡입제 경험 등과 함께 처음 음주한 시기도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여성청소년의 음주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년,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감, 자살생각, 현재흡연, 흡입제 경험, 학업성적, 아버지 학력, 부모동거 여부 등이었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여성청소년(OR=0.15), 현재흡연하는 여성청소년(OR=0.12), 학업성적이 낮은 여성청소년(OR=0.59), 부모 모두 같이 살지 않는 여성청소년(OR=0.68) 등의 집단에서 음주를 안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함께, 스스로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고 응답한 집단과 보육시설에 거주하는 여성청소년 집단에서 음주하지 않을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 여자 청소년의 음주 관련요인 종합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음주무경험 | 음주율 | 고위험 음주율 | |
|-----------------|-----------|--------------------|-----------------------|-------------------|------------------------|----------------------------------|
| 개인적 환경 | 건강상태 | 인구 | 학년 | 저학년+ | 중 + 고1 ++ 고2 +++ | 중2+ 중3 ++ 고1 +++ 고2 +++ |
| | | 주관적 건강상태 | 보통/건강하지 못한 편+ | 건강하지 못한 편 | 건강하지 못한 편 | 건강하지 못 한편 |
| | | 우울증 | 느낀적 없음+ | 느낀적 있음+ | 느낀적 있음+ | 느낀적 있음+ |
| | 건강행태 | 자살생각 | 경험없음+ | 경험 있음+ | 경험 있음+ | 경험 있음+ |
| | | 격렬한 신체활동 | 운동함+ | 한적 있음+ | 한적 있음+ | 한적 있음+ |
| | | 흡연 | 흡연안함+ | 흡연함+++ | 흡연함+++ | 흡연함++ |
| | | 흡입제 사용 경험. 현재사용 | 사용경험없음+ | 과거+++ 및 지금 사용+ | 과거 및 지금 사용+ | 과거 및 지금 사용+ |
| | 아침식사 여부 | 거의매일식사함+ | 거를 때 있음+ | 거를 때 있음+ | 거를 때 있음 | |
| | 사회적 환경 | 학교환경 | 본인이 평가한 학업성적 | 상층+ | 중상 /중/중하+ | 중상 /중/중하 |
| | | 가족환경 | 부의학력 | 대학이상+ | 고졸이하+ | 중졸이하+ |
| 경제상태 | | | 상+ | 중이하 | 중이하 | |
| 거주형태 | | | 가족과 함께 거주 | 하숙자취, 보육시설 | 하숙자취, 보육시 설+ | |
| 부모동거 여부 | 동거+ | 어머니만 동거+ | 부모한쪽과 동거 및 모두 동거안함 | | | |
| 문화 정책적 환경 | 정책환경 | 주류구입용이 | 용이하지 않음+ | 용이함+ | 용이함++ | |
| | | 음주예방교육 | 교육받음 | 받은 적 없음+ | 받은 적 없음 | |

주: 오즈비 + 두배 미만, ++두배이상 +++세배이상

2. 성인 여성

주관적 건강상태가 매우 나쁘다고 응답한 집단에서의 비음주율이 여성의 경우 60% 이상으로 매우 높았고, 스트레스 여부에 따른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우울감 경험이 높을수록 음주할 가능성이 높다 (표 7-2 참조). 19~39세 성인여성의 현재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현재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으로 독립변수의

영향들이 뚜렷하지 못하였다.

연령의 경우 19~24세(OR=2.50)에 가장 음주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상태로는 유배우가 아닌 경우(미혼 OR=1.89, 사별 등 OR=2.53), 그리고 학력이 낮은 경우(고졸 OR=1.78) 음주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과는 달리 여성의 경우 현재 흡연 여부가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가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성 고위험음주 집단은, 20대초반군(OR=1.80), 미혼군(OR=1.71), 육체노동군(OR=1.49), 자살생각을 한 경험이 있는 군(OR=1.38), 처음 음주시기가 19세 이전인 군 등으로 나타났다.

〈표 7-2〉 성인 여성의 음주 관련요인 종합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음주무경험 | 음주율 | 고위험 음주율 |
|-----------|------|----------|----------|---------------|---------|
| 개인적 환경 | 인구 | 연령 | 24세 이상+ | 19~24세++ | 19~24세+ |
| | | 결혼상태 | 유배우 | 미혼+ 기타독신++ | 미혼+ |
| | | 교육수준 | 대졸이상 | 고졸+ | 고졸이하 |
| | | 직업 | 학생/주부 등 | 육체노동 | 육체노동+ |
| | | 월평균가구소득 | 200만원미만+ | 300만원 이상 | 200만원미만 |
| | 건강상태 | 주관적건강상태 | 보통+ | 건강한 편 | 보통+ |
| | | 우울증 | 느낀적 있음 | 느낀적 없음. | 느낀적 있음 |
| | | 자살생각 | 경험없음 | 경험있음+ | 경험있음+ |
| | 건강행태 | 격렬한 신체활동 | 운동안함 | 한적 있음 | 한적 있음+ |
| | | 흡연 | 흡연안함 | 흡연함 | 흡연함+++ |

주: 오즈비 + 두배 미만, ++두배이상 +++세배이상

제2절 여성 대상 절주정책

1. 여자 청소년 대상의 절주정책

여자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며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음주예방정책의 체계적인 집행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음주예방을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연합된 노력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음주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주류접근성을 떨어뜨리는 환경적인 여건조성이 필요하고 청소년들이 건강한 생활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청소년음주예방 정책의 기본방향은 보호적 정책, 교육홍보 정책, 지원적 환경조성 정책, 이차적 위험감소정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보호대책 : 주류제조업자가 어린이나 청소년을 타겟으로 광고 및 판촉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주류접근성 통제, 알코올 사용연령, 가격 정책 등을 추진해야 함. 또한 알코올의존부모 및 가족을 가진 청소년을 위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교육홍보 정책 : 교육기관, 사업장, 청소년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음주예방교육활동이 촉진되어야 한다. 부모, 교사, 또래, 청소년지도자 등은 학습지도, 생활기술훈련, 위기관리 등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 또한 청소년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지원적 환경 조성 정책 : 음주와 같은 위험행동 대신 할 수 있는 행동의 모델과 기회가 제공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청소년의 웰빙을 증진하도록 가족과 사회의 역할을 개발해야 한다. 학교외의 다른 교육기관에서 청소년이 음주하지 않도록 규제해야 한다.

넷째, 이차적 위험감소 정책 : 음주로 인한 이차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도록 한다. 청소년이나 취한 사람에게 술을 팔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종업원을 교육시키고, 주류소매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함.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자신 및 다른 사람의 음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에게 적절한 보건 및 사회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

2. 성인여성 대상의 절주정책

가. 가임기 여성의 태아성 알코올증후군예방 홍보사업

태아성 알코올증후군(FAS)은 우리나라에서의 발생율이 정확하지 않으나 임신 중 단주함으로써 100%예방 가능한 장애라는 측면에서 가임기 여성 대상의 절주홍보사업이 절실하다. 특히 임신초기의 여성은 임신중임을 모르고 음주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사회문화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지역사회를 관할하는 지방정부기관에서는 지역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기초로 사업의 전략과 세부사업을 계획할 수 있다. 지역주민의 음주폐해에 대한 인식과 절주에 대한 의지의 단계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여 대상별로 세분화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의 참여가 보건사업에 필수적이라는 것은 많은 문헌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공공부문의 사업이 지역주민의 요구와 거리가 멀 때가 자주 나타나는 것은 지역주민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되지 못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특히 음주문제는 주류를 소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대중매체의 대표, 학교장, 사업주, 주류판매업자 등이 참여하여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 효과를 볼 수 있다.

나. 고위험 음주예방 정책

고위험 음주는 개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급성알코올중독 위험을 높일 뿐

만 아니라 각종 사고나 폭력의 위험을 높인다. 또한 장기적인 고위험 음주는 알코올사용장애 및 알코올의존에 걸리게 하고, 간질환 및 각종 만성 질환에 걸릴 가능성을 높인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저위험 음주의 수준은 1-20g이며, 남성성인 음주량의 절반이다. 그러나 실제 우리나라 여성의 음주량은 고위험음주수준을 상회하기 때문에 강력한 고위험 음주예방 홍보사업과 규제정책이 필요하다. 주류판매업소에서 술취한 사람에게 주류를 팔지 않는 등의 자율적인 규제도 필요하다.

다. 음주운전예방의 홍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제도적 규제장치가 있으나 음주운전규제를 순응하는 사회문화적 분위기는 계속 이어져가야 한다. 특히 젊은 층일수록 음주를 많이 하므로, 음주후 운전할 가능성도 높다. 음주운전 예방사업은 음주폐해를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며, 절주필요성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기회가 된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고위험 음주를 감소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라. 인프라 및 네트워크의 구축

음주폐해예방을 위하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음주폐해예방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하며 평가할 수 있는 인력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하다. 교육훈련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음주폐해예방사업에 대한 정보와 교육자료 등에 대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웹기반의 홈페이지구축과 운영도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의료기관과 민간단체, 시민단체, 매스컴과 협력이 필요하다.

마. 주류판매에 대한 법적인 규제강화

주류광고와 주류 마케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류에 건강경고문구와 청소년유해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담배와 달리 많은 주류제품에서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정기혜 외, 2001). 주류에 이러한 기본적인 규제와 더불어 주류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청소년들과 같은 취약계층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규제를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주류를 정해진 장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거나 주류판매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하는 방안이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 이러한 접근이 어려울 것이지만, 공공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지 않도록 하거나 공원 및 스포츠경기장에서 주류반입을 못하도록 하는 것부터 실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규제가 될 수 있다. 학교주변이나 유원지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단속이 필요하다.

바. 캠퍼스의 음주예방

20대 청년기의 고위험음주율이 높고 대학생 음주로 인한 사고가 매년 자주 발생하므로 지속적인 음주폐해예방교육이 필요하다. 캠퍼스의 음주정책과 교육홍보의 정책이 같이 시행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규제적인 방안으로는 캠퍼스내에 주류반입을 금하는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 대학생들이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연중캠페인을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음주문제 및 관련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사. 직장의 음주예방 지원

직장인들이 절주하기 위해서 직장상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데는 별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직장에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주와 상사의 역할은

중요하다. 더욱이 심각한 음주문제를 직장의 상사들이 제대로 인지하면, 직장의 규율과 문화를 바꾸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 직장에서 이러한 노력이 시작될 수 있도록 공공보건기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도 직장인 음주폐해예방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직장인 대상 음주폐해예방사업은 음주운전, 업무 중 음주 등 업무나 생산성 손실과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두도록 해야 한다. 미국에서와 같은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감신, 이규희, 박기수, 김주열, 이영자, 강윤식, 김상우. 대구지역 중·고등학생의 흡연과 음주실태 및 그 관련요인. 한국모자보건학회지, 2000;4(2):233-253.
- 고순자. 흡연 여고생의 충동성 및 자아방어기제에 관한 연구. 인하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곽정옥. 일부 여대생의 흡연실태와 그 관련요인 분석.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1995;12(2):120-138.
- 권혜경, 정문숙, 홍해숙, 김신정. 실업계 고등학생의 흡연실태와 관련요인 및 니코틴 의존도. 경북간호과학지, 2001;5(2):77-92.
- 김경원, 임채연, 김주영, 김정희. 여고생 흡연자의 영양소 섭취 실태 및 흡연 관련 사회심리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1999;32(8):908-917.
- 김경희, 정혜경. 여자 중학생의 흡연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아동간호학회지, 2005;11(1):14-22.
- 김계하. 미혼 여성의 음주양상과 흡연정도 및 우울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김남순, 송현중, 김명희, 강영아, 이희영, 곽민선. 한국 여성의 건강통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03.
- 김남초, 박호란, 이소영, 유소영. 「청소년 부모의 음주행태와 문제음주 관련요인」, 『아동간호학회지』, 10(1), 2004, 37-47.
- 김동주. 중학생 흡연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대구지역 3학년 여학생 중심으로. 명지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김명순, 허은정, 김광기, 15(1), 「일부 지역 여성의 음주양태 및 음주관련 문제」, 『보건간호학회지』, 2001, 202-215.
- 김미혜, 정문희, 「농촌주민의 걱정음주를 위한 보건교육 전략」, 『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지』, 20(3), 2003, 171-188.
- 김복순. 청소년의 흡연실태와 태도에 관한 연구 : 실업계 여고생을 중심으로. 경희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김선효, 신호상, 임우경. 일부 농촌 지역 흡연 여고생의 영양 섭취 및 혈액 성상 조사. 한국영양학회지, 2001;34(3):338-347.
- 김소희. 여고생의 흡연경험에 관한 연구. 명지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김애숙. 흡연군과 비흡연군간 우울 및 스트레스정도 비교 분석 연구: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경희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김연분. 일부 농촌지역 중·고등학생의 흡연실태 및 관련요인. 충남대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김영희. 중·고등학교 여학생의 흡연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김옥수, 김계하. 여대생과 직장여성들의 사회적지지, 우울, 음주, 흡연에 대한 비교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2001;13(3):363-372.
- 김옥수, 김애정, 김선화, 백성희. 미혼 흡연여성들의 불안, 우울 및 자아존중감이 흡연양 및 니코틴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 성인간호학회지, 2001;13(4):509-516.
- 김행미. 여고생의 자아존중감, 우울성향, 또래동조성과 흡연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김현철, 김은경, 최은실 등.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성별 및 학교종류별 흡연 결정요인. 예방의학회지, 2006;39(5):379-388.

- 김혜련, 최윤정, 『아버지의 문제음주와 자녀의 적응』, 『한국아동복지학』, 16호, 2003, 37-69.
- 나영화. 일 농촌지역 여고생의 흡연실태와 자아존중감 및 문제행동.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남옥희. 여고생 흡연집단과 비흡연집단의 자아개념 비교.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도은영, 도복늬, 『직장 근로자들의 문제음주 및 직무스트레스』, 『경북간호과학지』, 8(1), 2004, 17-30.
- 박경일, 태아 알코올증후군 대상자의 삶의 체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박남희.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흡연, 음주와 심리사회적 요인과의 관계연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05;22(4):123-136.
- 박선애, 고효정. 여대생의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계명간호과학, 2005;9(1):25-38.
- 박인석, 신정호, 안정숙, 김춘배, 허혜경. 흡연 및 음주 여 청소년에서의 정신병리와 식이행동. 중독정신의학, 2003;7(2):102-109.
- 박인혜, 류현숙, 조인숙. 일부 여대생들의 흡연경험과 흡연 지식, 태도,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관계 연구. 간호과학논집, 2001;6(1):175-188.
- 박준희. 흡연 및 비 흡연 여고생의 자아개념 분석 :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인하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박창승, 『직장인 문제음주자의 절주단계 관련변인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3.
- 백경신, 최연희. 일 지역 고등학생의 흡연상태에 따른 흡연지식과 흡연 태도.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004;15(2):277-288.

서영숙, 윤희정, 권진희, 이성국.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의 흡연실태 및 니코틴 의존도.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003;16(1):105-119.

손정남. 서울시내 여고생의 흡연행위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000;6(2):316-329.

송미령. 여대생의 가정환경과 흡연과의 관계연구. 인하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송연희. 중학교 여학생의 흡연 실태 및 관련 요인 분석 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신승훈. 중학생의 흡연실태 및 흡연요인에 관한 연구. 명지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신효정. 여성 흡연자의 흡연 욕구 및 성역할 태도.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안인숙. 실업계 여고생의 흡연 경험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도의 차이. 전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안진희. 여고생의 우울성향과 흡연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안홍석, 이금주, 김나영. 흡연여대생의 지질섭취와 혈중지질 및 지방산 조성에 관한 연구.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2002;7(1):102-110.

안황란, 오현숙. 흡연, 비흡연 여고생의 일반적인 특성과 인생태도 비교. 정신건강간호학회지 2002;11(3):375-387.

양승희, 일지역 여성의 음주인식, 음주행태, 문제음주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 7권 2호, 2006, pp. 23-45.

- 양인욱. 여고생의 흡연실태와 흡연예방교육의 활성화 방안 :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 여고생을 중심으로. 대전대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이경미, 박재용, 한창현. 초등학교 학생의 흡연지식·태도 및 흡연경험과 가족환경과의 관련성.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000;13(1):85-96.
- 이계은, 김명. 여고생의 흡연실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1992;9(1):39-47.
- 이근우. 농촌지역 여고생들의 흡연 실태에 관한 연구 : 부여군 소재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건양대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이길희. 일부 도시지역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흡연실태와 관련요인. 충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이석구, 권윤형, 이길희. 일부 도시지역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흡연실태와 관련요인. 가정의학회지, 2000;21(8):1042-1052.
- 이선행. 실업계 여고생의 흡연실태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이선희, 서경현. 성별에 따른 고등학생의 흡연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자아개념.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06;23(2):29-45.
- 이성희. 일부 여고생의 흡연실태. 경북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이숙희. 우리나라 성인여성의 흡연실태. 인제대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이원재, 「대학생 문제음주 관련요인」,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3), 2003, 109-124.
- 이윤수, 이혜리, 강윤주. 청소년의 흡연, 음주 및 기타 약물 사용 실태 -서울시내 일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정의학회지, 1998;19(1):43-57.

- 이은립. 여고생의 흡연 유혹 관련 요인 분석. 연세대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이철, 고복상, 이무식, 이미영. 일부 중소도시 고교생 흡연에 대한 부모 및 학교의 태도가 흡연에 미치는 영향. 가정의학회지, 2006;27(4):278-287.
- 이희곤, 황환식, 박훈기, 이정권. 청소년 흡연과 가족기능의 관련성. 가정의학회지, 2005;26(3):138-144.
- 임우경, 김선효. 일부 농촌 지역 여고생의 흡연 행동 특성 조사. 한국영양학회지, 2000;33(7):755-762.
- 전현진, 직장내 음주환경이 여성직장인의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정기혜 등, 청소년유해약물 유해표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 정래순, 피승용, 강윤주, 이상현, 윤방부. 서울지역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흡연실태 및 니코틴 의존도에 대한 조사. 가정의학회지, 1996;17(6):425-437.
- 정선남. 실업계 여고생의 스트레스, 우울, 흡연과의 관계 연구. 서울대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정승은. 미혼직장여성의 흡연행위와 성역할 정체성 및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최신의학, 2002;45(7):25-34.
- 정애경. 여고생의 흡연실태와 학교사회복지적 접근. 대전대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정지훈. 일부 서울지역 여고생의 흡연결정요인 분석. 연세대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정진규, 김종성, 건강증진영역에서 음주의 득과 실, 가정의학회지, 27(4), 2006, p.251-260.

- 조재학. 여고생의 흡연경험과 환경요인의 관계. 상주대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조주희. 여고생의 흡연 의식과 학교생활 적응도와의 상관성 연구.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지부용. 강릉시 중학교 여학생의 흡연실태 및 관련요인 조사연구. 관동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최근도, 성인여성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최순옥, 박정환. 산업체 근로여성들의 흡연율과 흡연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조사. 한국역학회지, 1991;13(2):146-158.
- 한병중. 중학교 여학생의 흡연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관동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허혜숙. 실업계 여고생의 흡연과 스트레스 수준 및 대처 방식.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현영주. 실업계 여고생의 흡연과 불안·우울과의 관계. 효성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홍경의. 한국 여자대학생의 흡연행동 원인 분석.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02;19(3):13-34.
- 황승주, 오상우, 김순남, 황환식, 조비룡, 허봉렬. 성인 여성흡연자의 흡연 양상 및 흡연과 관련된 요인들. 가정의학회지 2000;21(3):344-356.
- Babor T. et al, Alcohol no ordinary commodity -Research and public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Dawson DA, Grant BF, Chou PS. Gender differences in alcohol intake, In: Hunt WA & Zakhari S, eds, Stress, Gender and Alcohol-seeking behavior,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Research Monograph No29. NIH Pub. No95, Bethesda, MD. pp, 1-21, 1995.

Dawson DA, Grant BF, Li TK, Quantifying the risks associated with exceeding recommended drinking limits, Alcohol Clin Exp Res, 2005 May; 29(5): 902-908.

McFarland, B et al. Organization and financing of alcohol and substance abuse programs for American Indians and Alaska Natives, AJPH, 96(8), 2006, 1469-1477.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Women and Alcohol: Issues for Prevention and Research, 1996.

Osterberg E, What are the most effective and cost-effective interventions in alcohol control? Copenhagen,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Health Evidence Network report; <http://www.euro.who.int/document/E82969.pdf>) 2004.

US, Public Health Service & National Center for Chronic Disease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 "Women and Smoking : A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 2001.

부 록

부 록. 여성흡연연구논문요약표 / 283

부록. 여성흡연연구논문요약표

| 출 처 | [1] 이철 등. 가정의학회지 2006;27(4):278-287 | [2] 이선훈 등,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06;23(2):29-45 |
|----------|---|--|
| 조사 기간 | 2002. 9-10 | 기술 안됨 |
| 대상 집단 | 남녀 일반계 및 전문계 고교생 | 남녀 고등학생 |
| 대상 자수 | 여학생 512명 (전체 977명) | 584명 (전체 10,095명) |
| 표집 방법 | 편의추출 | 편의표집 |
| 조사 지역 | 충남소재 일반계 및 전문계 7개교 | 천안시 소재 7개 고등학교(일반계 3개, 전문계 4개) |
| 연구 설계 | 단면조사 | 단면조사 |
| 종속 변수 | 흡연여부 (흡연자 정의: 규칙적으로 하 루 1개비 이상 흡연) | 흡연 여부 (흡연자 정의: 특별한 기술 없 음, Bogus pipeline 방식 적용) |
| 통계 분석 | 카이자승 및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 | Chi-square 검정, 이원변량분석 |
| 흡연율 | 일반계 2.6% (1학년 0%, 2학년 4.5%, 3 학년 2.9%) 전문계 7.9% (1학년 8.5%, 2학년 5.6%, 3학년 17.9%) | 21.4% |
| 관련 요인 | ▶유의: 적은 동거가족수, 흡연자 친구, 학교의 흡연에 대한 엄격한 태도(남자: 자가거주, 부 직업, 높은 가계소득, 흡 연자 친구가 있는 경우, 부모의 자녀흡 연에 대한 엄격한 태도, 학교의 흡연에 대한 엄격한 태도) ▶경계선 유의: 자가거주, 자가비소유 (남자: 자가소유, 높은 부 교육수준) ▶비유의: 부 직업, 부 교육 수준, 출생 순위, 가계소득, 부 흡연 여부, 담임교 사 흡연 여부, 부모의 자녀흡연에 대한 태도 (남자: 동거가족수, 출생순위, 부 흡연 여부, 담임교사 흡연 여부) | ▶유의: 높은 흡연에 대한 긍정적 태도, 낮은 흡연에 대한 부정적 태도, 낮은 비 흡연 의지, 부정적인 금연정책에 대한 태도, 낮은 금연권유 의지, 높은 흡연관 련 지식, 낮은 자아존중감 (남자: 높은 흡연에 대한 긍정적 태도, 낮은 흡연에 대한 부정적 태도, 낮은 비 흡연 의지, 부정적인 금연정책에 대한 태도, 낮은 금연권유 의지) ▶비유의: 자기효능감 (남자: 흡연관련지식, 자기효능감, 자아 존중감) |
| 비 고 | 다변량 분석은 남녀 합쳐서 함 | |

| | |
|------|---|
| 출 처 | [3] 김현철 등. 예방의학회지 2006;39(5):379-388 |
| 조사기간 | 2005. 7 |
| 대상집단 | 중고등학생 (전학년) |
| 대상자수 | 6,990명(전체 13,279명) |
| 표집방법 | 도시규모별, 성별 인구비례 무작위표집 (전문계고: 과다추출) |
| 조사지역 | 서울, 인천, 부천, 광주, 포항 및 주변 읍면 지역 |
| 연구설계 | 단면조사 |
| 종속변수 | 현재흡연(정의: 최근 6개월 이내 담배를 1개비 이상 피운 경우) 과거흡연(정의: 과거에 흡연, 최근 6개월간 1개비도 피우지 않은 경우) 비흡연자(정의: 지금까지 담배를 피워보지 않은 경우) |
| 통계분석 |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 |
| 흡연율 | 중학생 3.2%, 고등학생 11.5%(일반계 4.9%, 전문계 20.0%) |
| 관련요인 | <p>○ 중학생</p> <p>▶유의: 키(OR=1.07, 연속), 학년(OR=2.26, 연속), 종교(불교, OR=0.18, vs 무교), 학업성적(하 OR=3.67, vs 상), 월간용돈(3만원 이상 OR=4.92, 1만원-3만원 OR=3.83, vs 1만원 미만), 주간 부모와의 대화(3시간 이상 OR=0.39, vs 1시간 미만), 흡연의 해로움에 대한 인식(없음 OR=26.77, vs 있음) [남자: 키(OR=1.05, 연속), 학년(OR=1.93, 연속), 학업성적(하 5.19, 중 3.02 vs 하), 인지 스트레스 있음(OR=2.02 vs 없음), 주간 부모와의 대화(1-3시간 OR=0.52 vs 1시간 미만), 흡연의 해로움에 대한 인식(없음 OR=20.03, 보통 OR=4.56 vs 있음) ▶비유의: 체질량지수, 인지 스트레스, 흡연자 가족 유무 (남자: 체질량지수, 종교, 용돈, 흡연자 가족 유무)</p> <p>○ 고등학생(일반계)</p> <p>▶유의: 키(OR=1.06, 연속), 학업성적(하 OR=3.27, vs 상), 월간용돈(1만-3만원 OR=2.41, vs 1만원 미만), 흡연의 해로움에 대한 인식(없음 OR=12.52, 보통 OR=5.64 vs 있음) [남자: 키(OR=1.04, 연속), 학년(OR=1.29, 연속), 종교(불교, OR=1.69, 가톨릭 OR=2.29 vs 무교), 학업성적(하 OR=5.46, 중 OR=2.78 vs 상), 월간용돈(3만원 이상 OR=2.51, 1만-3만원 OR=1.76, vs 1만원 미만), 인지 스트레스 있음(OR=1.83 vs 없음), 주간 부모와의 대화(3시간 이상 OR=0.62, 1-3시간 OR=0.73 vs 1시간 미만), 흡연의 해로움에 대한 인식(없음 OR=4.76, 보통 OR=3.57 vs 있음) ▶비유의: 체질량지수, 학년, 종교, 인지 스트레스, 흡연자 가족 여부, 주간 부모와의 대화 시간 (남자: 체질량지수, 흡연자 가족 유무)</p> <p>○ 고등학생(전문계)</p> <p>▶유의: 체질량지수(OR=0.93, 연속), 학년(OR=0.74, 연속), 학업성적(하 OR=2.73, 중 OR=1.69 vs 상), 월간용돈(3만원 이상 OR=3.50, 1만-3만원 OR=1.76, vs 1만원 미만), 주간 부모와의 대화(3시간 이상 OR=0.61, vs 1시간 미만), 흡연의 해로움에 대한 인식(보통 OR=2.09 vs 있음) [남자: 학년(OR=0.74, 연속), 학업성적(하 OR=2.73 vs 상), 월간용돈(3만원 이상 OR=4.28, 1만-3만원 OR=3.21, vs 1만원 미만), 인지 스트레스 있음(OR=1.92 vs 없음), 흡연의 해로움에 대한 인식(보통 OR=2.57 vs 있음) ▶비유의: 키, 종교, 인지 스트레스, 흡연자 가족 유무 (남자: 키, 체질량지수, 종교, 흡연자 가족 유무, 주간 부모와의 대화 시간)</p> |
| 비 고 | 흡연율에 대한 가중치 부여 |

| 출 처 | [4] 이근우. 건양대 경영행정대학원 석사, 2006 | [5] 한병중. 관동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6 | [6] 허혜숙.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6 |
|------|--|--|---|
| 조사기간 | 2005. 11-12 | 2005. 12 | 2005. 9 |
| 대상집단 | 여고생 (1-3학년) | 여자중학생 | 실업계 여고생 (1-3학년) |
| 대상자수 | 350명 | 450명 | 606명 |
| 표집방법 | 임의표집 | 편의표집 | 편의추출 |
| 조사지역 | 부여군 소재 4개 학교 (인문계 및 실업계) | 속초시 소재 여자중학교 2개 | 서울시 소재 여자 실업계 고 1개 |
| 연구설계 | 단면연구 | 단면연구 | 단면연구 |
| 종속변수 | 흡연여부 (흡연자 정의 없음) | 흡연력 (흡연자, 흡연경험자, 비흡연자) (흡연자 정의 없음) | 흡연여부 (흡연자 정의 없음) |
| 통계분석 | Chi-square 검정, t 검정,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 | 통계적 검정 하지 않음 | Chi-square 검정, t 검정 |
| 흡연율 | 22.0% | 8.7% | 32.5% |
| 관련요인 | <p>■ 단변량분석</p> <p>▶유의: 실업계, 고학년, 높은 가정경제적 수준, 높은 모학력, 부모결혼, 많은 용돈, 많은 방과후 친구수, 부모흡연, 이성친구, 이성친구 흡연, 흡연에 대한 긍정적 태도, 음주경험, 성경험, 적은 금연교육 경험</p> <p>▶비유의: 학업성적, 종교, 거주형태, 부학력, 가정생활 만족도</p> <p>■ 다변량분석</p> <p>학교계열, 용돈, 이성친구, 음주경험</p> | <p>▶유의: 여성흡연에 대한 긍정적 태도. 부모결혼, 부모흡연, 낮은 가정 화목도, 부모의 비민주적 양육태도, 낮은 학업성적, 학교생활 불만족</p> | <p>▶유의: 음주, 부흡연, 모흡연, 높은 학교생활문제, 가정생활문제, 대인관계문제, 자아영역문제, 스트레스에 대한 정서중심적대처 높은 점수</p> <p>▶비유의: 스트레스에 대한 문제중심적대처</p> |
| 비 고 | | | |

286 여성 흡연과 음주의 요인 및 정책대안

| 출 처 | [7] 정선남. 서울대 보건대학원 석사, 2006 | [8] 이휘곤 등, 가정의학회지 2005;26(3):138-144 |
|------|--|--|
| 조사기간 | 2005. 10 | 2001. 5. |
| 대상집단 | 실업계 여고생 (1-3학년) | 남녀 일반계 고등학생 |
| 대상자수 | 1,330명 | 여학생 531명 (전체 1,033명) |
| 표집방법 | 임의표집 | 임의추출 |
| 조사지역 | 서울시 소재 실업계 여고 3개 | 서울시 소재 4개교 |
| 연구설계 | 단면연구 | 단면조사 |
| 종속변수 | 흡연여부 (흡연자: 현재 흡연 및 과거 한두번 이상 흡연) | 흡연여부 (흡연자 정의: 현재 담배를 피우는 경우) |
| 통계분석 | Chi-square 검정, t 검정, 로지스틱 회귀 분석 | Chi-square 검정, t 검정 |
| 흡연율 | 25.2% | 14.5% (1학년 11.7%, 2학년 10.0%, 3학년 21.7%) |
| 관련요인 | <p>■ 단변량 분석</p> <p>▶유의: 고학년, 많은 친구수, 높은 친구 흡연율, 많은 용돈, 낮은 부모 관심도, 부모흡연, 낮은 경제수준, 낮은 학교생활 만족도, 낮은 학업성적, 높은 스트레스 점수, 높은 우울 점수</p> <p>▶비유의: 친구관계, 부직업, 모직업, 부학력, 모학력, 상담 대상 교사 유무</p> <p>■ 다변량 분석</p> <p>▶유의: 흡연친구(OR=3.70), 많은 용돈(OR=2.59), 부모흡연(OR=1.61), 높은 모학력(OR=0.45), 높은 흡연태도 점수(OR=0.12)</p> <p>▶비유의: 학년, 친구수, 친구관계, 부모관심도, 부직업, 모직업, 경제수준, 학교생활만족, 교사와의 관계, 성적, 스트레스, 우울</p> | <p>▶유의: 신체학대, 정서학대 과거력, 낮은 가족기능 점수 (남자: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과거력, 낮은 가족기능 점수)</p> <p>▶경계선 유의: 낮은 모 학력, 종교 종류</p> <p>▶비유의: 부 교육 수준, 가계소득, 부 흡연 여부, 방임, 성학대 과거력 (남자: 모 교육수준, 부 교육수준, 가계 소득, 부 흡연, 종교, 성학대 과거력)</p> |
| 비 고 | | |

| | | | |
|------|---|---|---|
| 출 처 | [9] 박선애 등. 계명간호과학 2005;9(1): 25-38 | [10] 박남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지 2005;22(4):123-136 | [11] 김정희 등. 아동간호학회지 2005;11 (1):14-22 |
| 조사기간 | 2004. 5. | 2002. 3 | 2003. 11-12 |
| 대상집단 | 여자 대학생 | 남녀 고등학생 | 여자 중학생(1-3학년) |
| 대상자수 | 1,237명 | 460명 (전체 925명) | 433명 |
| 표집방법 | 편의추출 | 층화집락추출 | 편의추출 |
| 조사지역 | 대구, 경북 소재 2, 3년 제 대학 10개 | B시 16개 전문계 및 일 반계 고등학교 | 충남 소재 중학교 |
| 연구설계 | 단면연구 | 단면조사 | 단면조사 |
| 종속변수 | 흡연여부 (흡연자 정의: 과거 흡연, 가끔 흡연, 매일 흡연) | 흡연여부 (흡연자 정의: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사람) | 흡연경험 여부 (정의: 기 술없음) |
| 통계분석 | Chi-square 검정, t 검정 | t 검정 | Chi-square 검정, t 검정,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 |
| 흡연율 | 매일흡연: 14.0%, 가끔흡 연: 7.9%, 과거흡연: 18.1% | 15.9% | 흡연경험률 17.6% |
| 관련요인 | ▶유의: 낮은 흡연관련 지식, 흡연에 대한 수용 적 태도, 높은 스트레스 ▶비유의: 자아정체감 | ▶유의: 사회적 지지망, 자아존중감 (남자: 스트레스, 우울) ▶경계선 유의: 우울 ▶비유의: 스트레스, 사 회적지지 만족도 (남자: 사회적 지지망, 사 회적 만족도, 자아존중감) | ■ 단변량분석 ▶유의: 낮은 학교 성적, 이성친구, 성경험, 음주경 험, 높은 음란물 접촉 빈 도, 부모와 비동거, 낮은 모 양육태도 점수 ▶비유의: 학년, 부 직업, 모 직업, 부 양육태도 ■ 다변량분석 2학년, 음주, 성경험, 음란 물 접촉, 부모와 비동거 |
| 비 고 | 과거 흡연도 흡연자에 포함 | | |

288 여성 흡연과 음주의 요인 및 정책대안

| 출 처 | [12] 나영화.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5 | [13] 박준희. 인하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5 | [14] 김행미. 경남대 대학원 석사, 2005 | [15] 안인숙. 전주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5 |
|-------|---|---|--|--|
| 조사 기간 | 2004. 3 | - | - | 2005. 4 |
| 대상 집단 | 여고생 (1-3학년) | 실업계 여고생 | 여자고등학생 2학년 | 실업계 여고생 1-3학년 |
| 대상 자수 | 693명 | 284명 | 312명 | 267명 |
| 표집 방법 | 전수조사 | 편의표집 | 편의표집 | 편의표집 |
| 조사 지역 | C도 K군 소재 1개 인문계, 4개 실업계 고등학교 | 인천시 소재 실업계 여자고등학교 3개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각각 1개의 인문계 및 실업계 여자고등학교(총 8개) | 전북 J시 소재 실업계고 3개 |
| 연구 설계 | 단면조사 | 환자대조군 연구 | 단면연구 | 단면연구 |
| 종속 변수 | 흡연여부 (흡연자 정의 없음) | 흡연여부 (흡연자: 매일 혹은 규칙적으로 흡연) | 흡연여부 (흡연자 정의 없음) | 흡연여부 (흡연자 정의 없음) |
| 통계 분석 | Chi-square 분석, t 분석, 분산분석 | Chi-square 검정, t 검정 | Chi-square 검정, 다중선행회귀분석 | Chi-square 검정, t 검정, 분산분석 |
| 흡연율 | 3.3% | - | 11.7% | 15.0% |
| 관련 요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의: 낮은 성적, 비자가 거주, 높은 가정경제수준, 가정의 비화목, 가족 흡연, 높은 문제행동 점수 ▶비유의: 학년, 자이존중감 점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의: 낮은 일반 자아개념, 낮은 학급자아개념, 낮은 능력자아개념, 높은 사회자아개념 ▶비유의: 가족 자아개념, 정서 자아개념, 신체 자아개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의: 많은 용돈 액수, 높은 친구흡연 비율, 높은 우울점수, 낮은 학교 생활만족도, 높은 또래동조성 경계선: 낮은 자이존중감 점수 ▶비유의: 부모흡연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의: 낮은 자이존중감 점수, 낮은 학교생활적응 점수 |
| 비 고 | | | 다변량분석의 경우 통계적용 오류(선형회귀분석 적용함) | |

| 출처 | [16] 백경신 등,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004; 15(2):277-288 | [17] 신승훈. 명지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4 | [18] 김복순. 경희대 행정대학원 석사, 2004 |
|-------|---|--|--|
| 조사 기간 | 2002. 12. | 2003. 12 | 2004. 4 |
| 대상 집단 | 남녀 고등학생(1-3학년) | 중학생 (1-3학년) | 실업계 여고생 1-3학년 |
| 대상 자수 | 264명 (전체 515명) | 492명 (전체 990명) | 373명 |
| 표집 방법 | 편의추출 | - | 편의표집 |
| 조사 지역 | J시 소재 6개 고등학교 (일반계 3개, 전문계 3개) | 서울시, 강원도 소재 중학교 | 서울시 소재 1개 실업계 여고 |
| 연구 설계 | 단면연구 | 단면연구 | 단면연구 |
| 종속 변수 | 현재흡연, 과거흡연, 비흡연 (흡연자 정의: 조사 당시 간헐적 혹은 주기적으로 흡연) | 흡연빈도(규칙적(매일), 불규칙적, 비흡연) | 흡연여부 (흡연자 정의 없음) |
| 통계 분석 | Chi-square 검정, 분산분석 검정 | 회귀분석 | Chi-square 검정, t 검정, 분산분석 |
| 흡연율 | 18.6% | 3.0% | 30.0% |
| 관련 요인 | ▶유의: 낮은 흡연태도 점수 (남자: 낮은 흡연태도 점수) ▶비유의: 흡연지식 (남자: 흡연지식) | - | ▶유의: 고학년, 많은 용돈, 이성친구, 학교생활 불만족, 많은 노는 시간, 고민상담 빈도, 형제자매 흡연, 잦은 음주 빈도, ▶비유의: 종교, 부모결혼, 생활수준, 학업성적, 친한 친구수, 선생님과의 관계/부모와의 관계, 문제의 상의 여부, 문제발생시 상담 대상, 형제자매와의 관계, 부모흡연 여부, 흡연지식 |
| 비고 | 기타 특성에 대한 비교에서는 남녀 구분 안함 | 교차분석에서 통계적 검정을 실시하지 않음, 상관성 및 회귀분석에서 통계분석 상 오류 | |

290 여성 흡연과 음주의 요인 및 정책대안

| | |
|------|---|
| 출 처 | [19]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003;16(1):105-119 |
| 조사기간 | 2000. 3 |
| 대상집단 | 고등학생 |
| 대상자수 | 681명 (전체 1,539명) |
| 표집방법 | 임의추출 |
| 조사지역 | 대구시 고등학교 13개 (일반계; 남자 4개, 여자 4개, 전문계: 남자 3개, 여자 3개) |
| 연구설계 | 단면연구 |
| 종속변수 | 흡연여부 (흡연자 정의: 현재 흡연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 |
| 통계분석 | Chi-square 검정,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 |
| 흡연을 | 5.0% (일반계 1.1%, 전문계 7.9%) |
| 관련요인 | <p>■ 단변량 분석</p> <p>○ 일반계</p> <p>▶유의: 부모 결손, 학교생활 불만족, 학교처벌 경험, 많은 흡연자 친구 (남자: 학년, 가출경험, 적절하지 못한 양육태도, 부모결손, 낮은 학업 성적, 학교생활 불만족, 학교처벌 경험, 어머니 흡연, 형제자매 흡연, 많은 흡연자 친구, 금연교육 필요성 불인지)</p> <p>▶비유의: 학년, 가출경험, 부모양육태도, 가정경제상태, 부학력, 모학력, 학업성적, 부흡연, 모흡연, 형제자매흡연, 흡연예방 교육 경험, 금연교육 필요성 인지 (남자: 가정경제상태, 부학력, 모학력, 부흡연, 금연교육 경험)</p> <p>○ 전문계</p> <p>▶유의: 가출경험, 부적절한 부모 양육 태도, 낮은 모학력, 낮은 학업성적, 학교처벌경험, 형제자매 흡연, 많은 흡연자 친구, 금연교육 필요성 불인지 (남자: 학년, 낮은 학업성적, 학교처벌경험, 형제자매 흡연, 많은 흡연자 친구, 금연교육 필요성 인지)</p> <p>▶비유의: 학년, 부 학력, 부모결손, 학교생활만족, 부흡연, 모흡연, 흡연예방 교육 경험(남자: 가출경험, 부모양육태도, 가정경제사태, 부학력, 모학력, 부모결손, 학교생활 만족도, 부흡연, 모흡연, 금연교육 경험)</p> <p>■ 다변량 분석</p> <p>▶유의: 가출경험(OR=16.96), 음주(OR=21.26)</p> <p>[일반계 남자: 학년(OR=3.79), 가출경험(OR=8.80), 음주(OR=4.45), 적절하지 못한 부모 양육 태도(OR=1.91), 낮은 학교성적(OR=3.99), 금연교육 필요성 없음(OR=2.04), 모흡연(OR=10.92), 형제자매흡연(OR=3.00); 전문계 남자: 학년(OR=2.81), 음주(OR=17.25), 낮은 학교성적(OR=3.42), 처벌경험(OR=3.19), 금연교육 필요성 없음(OR=2.00)]</p> <p>▶비유의: 학년, 부모양육태도, 부모결손, 학교성적, 학교생활만족도, 처벌경험, 금연교육필요성, 모흡연, 형제자매 흡연</p> <p>[일반계 남자: 부모결손, 학교생활만족도, 처벌경험; 전문계 남자: 가출경험, 부모양육태도, 부모결손, 학교생활만족도, 모흡연, 형제자매 흡연]</p> |
| 비 고 | |

| | | |
|------|---|---|
| 출 처 | [20] 박인석 등, 중독정신의학 2003;7(2):102-109 | [21] 김애숙. 경희대 행정대학원 석사, 2003 |
| 조사기간 | 2002 (2차 자료) | 2003. 4-5 |
| 대상집단 |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 20대 여성 |
| 대상자수 | 여중생 405명, 여고생 459명 | 342명 |
| 표집방법 | - | 편의추출 |
| 조사지역 | 강원도 원주시 소재 | 서울시 소재 간호조무사학원 수강생 |
| 연구설계 | 단면연구 | 단면연구 |
| 종속변수 | 흡연여부 (흡연자: 3회 이상의 흡연을 한 경우) | 흡연여부 (흡연자 정의: 없음) |
| 통계분석 | Chi-square 검정, t 검정,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 | t 분석, Chi-square 분석,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 |
| 흡연율 | 중학생 8.6%, 고등학생 14.0% | 34.3% |
| 관련요인 | <p>■ 단변량 분석</p> <p>○ 여중생</p> <p>▶유의: 정신병리/높은 과잉행동 점수, 높은 행실문제 점수, 높은 총난점; 낮은 탈억제 점수, 높은 체질량지수, 높은 체형 인식 점수</p> <p>▶비유의: 사회지향행동, 정서증상, 또래문제, 섭식행동(탈억제, 배고픔, 의식적 식이제한)</p> <p>○ 여고생</p> <p>▶유의: 정신병리/높은 과잉행동 점수, 높은 행실문제 점수</p> <p>▶비유의: 사회지향행동, 정서증상, 또래문제, 총난점, 체질량지수, 체형 인식, 섭식행동(탈억제, 배고픔, 의식적 식이제한)</p> <p>■ 다변량분석</p> <p>○ 여중생</p> <p>▶유의: 행실문제(OR=2.12), 탈억제(OR=0.90)</p> <p>▶비유의: 사회지향행동, 과잉행동, 정서증상, 또래문제, 총난점, 배고픔, 의식적 식이제한, 체질량지수, 체형 인식</p> <p>○ 여고생: 모두 비유의</p> | <p>■ 단변량 분석</p> <p>▶유의: 출생순위(둘째), 부모의 권위적 양육태도, 가출경험, 직장생활/아르바이트 하는 경우, 낮은 학력수준, 낮은 흡연에 대한 태도 점수</p> <p>▶비유의: 종교, 부모결혼 여부, 가정 경제수준</p> <p>■ 다변량 분석</p> <p>▶유의: 흡연에 대한 태도점수 (OR=1.33)</p> <p>▶비유의: 우울증</p> |
| 비 고 | | |

292 여성 흡연과 음주의 요인 및 정책대안

| 출 처 | [22] 김연분. 충남대 보건대학원 석사, 2003 | [23] 양인옥. 대전대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석사, 2003 | [24] 김동주. 명지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2003 |
|------|--|---|--|
| 조사기간 | 2002. 11 | 2002. 7 | 2003. 4-5 |
| 대상집단 | 중고등학생 | 여고생 (1-3학년) | 중학교 여학생 |
| 대상자수 | 1,489명 (전체 3,016명) | 210명 | 696명 |
| 표집방법 | 전수조사 | 임의표집 | 편의표집 |
| 조사지역 | 충북 옥천군 소재 5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 대전시 소재 고등학교 | 대구시 소재 중학교 5개 |
| 연구설계 | 단면연구 | 단면연구 | 단면조사 |
| 종속변수 | 흡연여부(흡연자 정의 없음) | 흡연력 (현재, 과거 비흡연) (정의 없음) | 흡연력 (흡연, 비흡연, 과거흡연) (정의없음) |
| 통계분석 | Chi-square 분석 | Chi-square 검정 | Chi-square 검정, t분석 |
| 흡연율 | 3.4% (중학생 2.6%, 고등학생 7.1%) | 10.0% (과거흡연 11.5%) | 6.8% |
| 관련요인 | <p>▶유의: 학년, 높은 경제수준, 형제자매 흡연, 친구 흡연, 부모의 자녀 흡연에 대한 허용적 태도, 본인의 흡연에 대한 허용적 태도 (남자: 학년, 낮은 경제수준, 적은 가족수, 가족중 흡연자, 형제자매의 흡연, 친구흡연, 부모의 자녀 흡연에 대한 허용적 태도, 본인의 흡연에 대한 허용적 태도, 흡연예방 교육 경험, 흡연예방 교육 의향, 보건소 흡연예방교육 의향)</p> <p>▶비유의: 거주상태(자가여부), 부모교육수준, 가족수, 출생순위, 가족중 흡연자 유무, 가정에서의 흡연 허용도, 흡연예방 교육 경험, 흡연예방 교육 의향, 보건소 흡연예방교육 의향 (남자: 거주상태(자가여부), 부모교육수준, 출생순위, 가정에서의 흡연 허용도)</p> | <p>▶유의: 가정경제적수준 (추이없음), 부모 모두 직장생활, 많은 방과후 친구 교제시간, 흡연친구수, 낮은학교성적, 학교밖 흡연단속에 대한 반대 입장</p> <p>▶경계선유의: 학교생활 불만족, 결혼상대자의 흡연에 대한 긍정적 태도, 교사 흡연에 대한 긍정적 태도</p> <p>▶비유의: 부모흡연, 여성흡연에 대한 피해 인식, 임신부 흡연에 대한 인식, 금연교육 경험</p> | <p>▶유의: 종교, 한달용돈, 성격, 부모관계, 가정분위기, 부모흡연, 높은 흡연수용도 점수</p> <p>(백분율을 전체 셀에 대한 것을 제시하여 경향 분석에 대한 해석이 안됨)</p> |

| 출 처 | [27] 홍경의.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02;19(3):13-34 | [28] 안황란 등. 정신건강간호학회지 2002;11(3):375-387 | [29] 정승은. 최신의학 2002;45(7):25-34 |
|------|---|---|---|
| 조사기간 | 2001. 3-4. | 2001. 7 | 2000. 10 |
| 대상집단 | 여자대학생 | 여고생 | 직장 미혼여성(평균 연령: 23.9세) |
| 대상자수 | 326명 | 흡연자 80명, 비흡연자 105명 | 375명 |
| 표집방법 | 편의추출 | 흡연자: 금연프로그램 참여자, 비흡연자: 1개 여고에서 무작위선정 | 임의추출 |
| 조사지역 | 경기도 소재 2개 대학 | J 시 | 서울시, 경기도, 충남, 충북 소재 직장 |
| 연구설계 | 단면연구 | 환자-대조군 연구 | 단면조사 |
| 종속변수 | 흡연여부, 흡연의도(흡연자 정의: 실제 담배를 피우는 행동, 흡연의도 정의: 자신이 흡연을 하게 될 가능성에 대한 추정) | 흡연여부 (흡연자 정의: 흡연예방 프로그램 의뢰자) | 흡연여부 (흡연자 정의: 최근 한달 동안의 흡연 여부) |
| 통계분석 | Chi-square 검정, 다중회귀분석, 경로분석 | Chi-square 검정, t 검정 | t 검정 |
| 흡연율 | 38.3% | - | 16.3% |
| 관련요인 | <p>■ 단변량 분석</p> <p>○ 현재흡연: ▶유의: 고학년, ▶비유의: 학교생활 만족도, 주요 성장지, 가정 경제수준, 가족과의 관계</p> <p>○ 흡연의도: ▶유의: 태도, 통제력, ▶비유의: 규범</p> <p>○ 흡연행동: ▶유의: 흡연의도, ▶비유의: 통제력</p> <p>■ 다변량 분석</p> <p>○ 현재흡연: ▶유의: 성장지, 태도, 흡연의도, ▶비유의: 학년, 학교생활 만족도, 사회경제적지위, 가족과의 관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흡연 통제력</p> <p>○ 흡연의도: ▶유의: 태도, 통제력, 학년, 학교생활 만족도, 성장지, 사회경제적지위, 가족과의 관계, 주관적 규범, ▶비유의: 학년, 학교생활 만족도, 성장지, 사회경제적지위, 가족과의 관계, 주관적 규범</p> | <p>▶유의: 비자가거주, 부모 결혼, 낮은 가정경제수준, 낮은 부모 교육수준, 낮은 부모 교육수준,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족, 흡연에 대한 긍정적 태도, 흡연자 가족 존재, 높은 자기부정 점수, 낮은 자기긍정 점수, 낮은 타인 긍정 점수</p> <p>경계선: 종교(불교)</p> <p>▶비유의: 학교성적, 타인 부정 점수</p> | <p>▶유의: 낮은 남성 성역할 정체성 점수, 낮은 여성 성역할 정체성 점수, 높은 인지 스트레스 점수</p> |
| 비 고 | 표집방법에 대한 설명 없음 | | |

294 여성 흡연과 음주의 요인 및 정책대안

| 출 처 | [30] 이선행. 대구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2002 | [31] 이숙희. 인제대 보건대학원 석사, 2002 | [32] 조재학. 상주대 산업대학원 석사, 2002 |
|------|--|--|--|
| 조사기간 | 2002. 4 | 1998년 | 2002. 4 |
| 대상집단 | 실업계 여고등학생 1-3학년 | 전국민 20세 이상 성인 여성 | 여고생 2, 3학년 |
| 대상자수 | 228명 | 5,663명 | 420명 |
| 표집방법 | 임의표집 | 층화표본추출 | 편의표집 |
| 조사지역 | 대구시 소재 3개 실업계 여고등학교 | 전국 | 경북 상주시 소재 여고 2개, 남녀공학 1개 |
| 연구설계 | 단면연구 | 단면연구 | 단면연구 |
| 종속변수 | 흡연여부 (흡연정의 없음) | 흡연력 (현재, 가끔, 과거, 무경험) (용어정의 없음) | 흡연력 (현재, 경험, 무경험) (흡연경험자 정의: 현재 가끔 혹은 규칙적 흡연 및 과거에 가끔 혹은 규칙적 흡연, 현재는 비흡연) |
| 통계분석 | Chi-square 검정 | Chi-square 검정 | Chi-square 검정, 분산분석 |
| 흡연율 | 29.8% | 5.9% | 9.8% (흡연경험 20.2%) |
| 관련요인 | <p>▶유의: 고학년, 낮은 가정화목 수준, 낮은 부모 관심, 양친 및 모 흡연, 상 혹은 하의 학업성적, 이성친구 유, 친구흡연의 높은 비율, 체중조절 경험 유</p> <p>▶비유의: 거주지역, 생활수준, 학교생활 흥미정도, 교사의 지도방법, 대중매체 흡연장면에 의한 영향, 흡연의 인체에 대한 영향 인식도</p> | <p>▶유의: 고연령층, 결혼 상태(사별, 이혼, 별거), 직업(무직, 서비스/판매직, 기술/근로직), 낮은 교육수준, 의료보장(의료보호), 저소득, 잦은 음주빈도, 높은 주관적 스트레스</p> <p>▶비유의: 운동실천</p> | <p>▶유의: 잦은 음주 빈도, 낮은 학교생활 만족도, 높은 교우관계 점수, 낮은 수업의 활동의 즐거움 점수, 낮은 학교생활 중요성 인식 점수, 부모결혼, 낮은 보호자와의 관계 만족도, 낮은 가족 구성원 의견 수렴도, 낮은 부모와의 대화 점수, 낮은 부모 관심도, 자녀 성적에 대한 부모의 낮은 관심, 낮은 부모와의 상의, 거주지 유형(비농촌 지역), 잦은 유흥가 출입횟수, 매스컴 흡연 장면에 대한 긍정적 인식</p> <p>경계선 ▶유의: 고민상담자(친구), 낮은 가족관계 점수</p> <p>▶비유의: 선생님과의 관계, 학교성적, 가족중 흡연, 가계소득, 부모의 자녀 의견 존중, 금연교육 경험, 흡연예방교육 참여의사</p> |
| 비 고 | |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 |

| 출 처 | [33] 지부용. 관동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2 | [34] 고순자. 인하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2 | [35] 김옥수 등, 성인간호학회지 2001; 13(3):363-372 |
|------|--|---|--|
| 조사기간 | 2002. 2-3 | 2001. 6-7 | 기술 없음 |
| 대상집단 | 중학교 여학생 (1-3학년) | 여고생 (1-3학년) | 여대생 및 직장여성 |
| 대상자수 | 922명 | 275명 | 여대생 169명, 직장 여성 133명 |
| 표집방법 | 임의표집 | 편의표집 | 편의추출 |
| 조사지역 | 강릉시 소재 공학중학교 3개, 여자중학교 2개 | 경기도 부천시 및 시흥시 소 재 인문계 여자고등학교 4개 | 서울 및 지방 소재 5개 대학, 서울 소 재 5개 직장 |
| 연구설계 | 단면연구 | 환자대조군 연구(불명확) | 단면조사 |
| 종속변수 | 흡연력(현재, 경험, 비흡 연) (현재흡연자: 때때로 혹은 규칙적으로 흡연; 흡연형태: 이전에 흡연, 현재 비흡연, 비흡연자: 흡연 경험이 없는 경우) | 흡연여부 (흡연자: 매일 혹은 규칙적으로 흡연) | 흡연여부 (흡연자: 최근 한달간 담배를 피운 경우) |
| 통계분석 | Chi-square 검정 | t 검정 | t 검정 |
| 흡연율 | 5.7% | - | 여대생 21.9%, 직장 여성 13.5% |
| 관련요인 | ▶유의: 고학년, 많은 용 돈, 이성친구, 잦은 음주 빈도, 성격협, 여성흡연 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부 모결혼, 부모와의 좋지 않은 관계, 낮은 학업 성 적, 낮은 학교 생활 만족 도, 많은 방과후 친구와 의 어울리는 시간, 많은 흡연친구수, 좋지 않은 선생님과의 관계, 잦은 유흥가 출입 횟수, 매스 컴 흡연장면에 대한 강 한 흡연유희, 많은 금연 교육 경험 횟수 ▶비유의: 학교유형, 중 교, 주거지역 | ▶유의: 높은 충동성 총점수, 높은 운동 충동성 점수, 무계 획성 충동성 점수, 높은 부적 응적 자아방어기전 총점, 높은 불안정한 예민화 방식 총점, 높은 행동화 영역 점수, 높은 투사영역 점수, 높은 수동-공 격 영역 점수, 높은 승화영역 점수, 높은 자아부정적 방식 총점, 높은 반동형성 영역점 수, 높은 허세영역 점수, 낮은 행동억제적 방식 총점, 낮은 부정영역 점수, 낮은회피영 역 점수 ▶비유의: 인지 충동성 점수, 진지영역점수, 신체화 영역점 수, 해리 영역점수, 자아확대 적 방식 총점, 통제 영역 점 수, 왜곡 영역 점수, 이타주의 영역 점수, 유머영역 점수, 동 일시 영역점수, 퇴행영역점수, 합리화영역점수, 억제영역점 수, 예견영역점수 | ○ 여대생 ▶유의: 사회적 지 지망, 우울 ▶비유의: 사회적 만족도 ○ 직장여성 ▶비유의: 사회적 지지망, 사회적 만 족도, 우울 |

296 여성 흡연과 음주의 요인 및 정책대안

| 출 처 | [36] 김옥수등, 성인간호학회지 2001;13(4):509-516 | [37] 김선효 등, 한국영양학회지 2001;34(3):338-347 | [38] 권혜경 등, 경북간호과학지 2001;5(2):77-92 |
|------|--|---|---|
| 조사기간 | 2000. 1-5 | 1998. 8-10 | 1999. 11 |
| 대상집단 | 여대생 및 직장여성 | 여고생 (1.3학년) | 전문계 남녀 고등학생 2학년 |
| 대상자수 | 121명(여대생 56명, 직장여성 65명) | 895명 (과거흡연자 104명 제외) | 334명(전체 946명) |
| 표집방법 | 편의추출 | 표본 학교 내 무작위추출 | 편의추출 |
| 조사지역 | 서울소재 대학교 및 직장 | 충남 홍성군 | 대구시 소재 전문계 고등학교 5개 (남학교 3개, 여학교 2개) |
| 연구설계 | 단면연구 | 환자대조군 연구 | 단면연구 |
| 종속변수 | 흡연량 (지난 한 달동안의 하루 평균 흡연 개비수) | 흡연여부 (흡연자 정의: 하루에 5-10 개비 이상을 6개월 이상 피워오고 있는 사람) | 현재여부 및 흡연경험 (현재흡연자: 조사 당시 1주일에 1회 이상 규칙적으로 흡연, 과거흡연자: 과거에 흡연을 하였으나 조사 당시 1개월 이전부터 흡연을 하지 않은 경우) |
| 통계분석 | 다중회귀분석 | Chi-square 검정, t 검정 | Chi-square 검정,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 |
| 흡연율 | - | 11.6% | 110.8% |
| 관련요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의: 우울, 자아존중감 ▶비유의: 불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의: 높은 부학력, 높은 모학력, 높은 가계소득/ 음주, 탄산음료, 커피, 비타민/무기질 보조제 복용, 아침결식, 점심 결식, 간식의 잦은 섭취/불량한 영양섭취 및 영양 섭취 권장량에 미달/ 낮은 신장, 낮은 비만지수 ▶비유의: 식습관 등급, 저녁 결식, 영양지식 점수, 체중 | <p>■ 단변량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의: 학교생활 불만족, 낮은 학업성적, 모흡연, 음주경험, 약물남용경험, 음란물 접촉 경험 (남자: 낮은 학업성적, 음주경험, 음란물 접촉 경험) ▶비유의: 종교유무, 주거상태, 생활수준, 부모결혼, 부학력, 모학력, 부흡연여부, 흡연의 건강위험에 대한 인식도 (남자: 종교유무, 주거상태, 학교생활 만족도, 생활수준, 부모결혼, 부학력, 모학력, 부흡연여부, 모흡연여부, 약물남용경험, 흡연의 건강위험에 대한 인식도) <p>■ 다변량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의: 모흡연(OR=5.42), 학업성적(OR=2.21), 음주경험(OR=3.82), 약물남용경험(OR=2.53), 음란물 접촉 경험(OR=5.04) [남자:부교육수준(OR=1.70), 학업성적(OR=1.99), 음주경험(OR=15.60)] ▶비유의: 종교, 주거상태, 생활수준, 부모결혼, 부교육수준, 모교육수준, 부흡연, 학교생활만족도(남자: 종교, 주거상태, 생활수준, 부모결혼, 부교육수준, 부흡연, 학교생활만족도) |
| 비 고 | | 과거흡연자는 제외함 | |

| 출 처 | [39] 박인혜 등, 간호과학 논집 2001;6(1): 175- 188 | [40] 김계하. 이화여대 대학 원 석사, 2001 | [41] 신효정. 이화여대 대 학원 석사, 2001 |
|------|---|---|---------------------------------|
| 조사기간 | 2000. 11. | 2000. 8.-10 | 2000. 9 |
| 대상집단 | 여대생 | 여대생, 직장인 미혼 여성 | 여대생, 20대 전후 직장 인 여성 |
| 대상자수 | 375명 | 286명 | 196명 |
| 표집방법 | 편의추출 | 임의추출 | - |
| 조사지역 | G시 소재 1개 대학교 | 서울시 및 경기도 소재 1 개 여자대학, 2대 남녀공 학 대학, 7개 직장 | 서울시 |
| 연구설계 | 단면연구 | 단면연구 | 환자대조군(불명확) |
| 종속변수 | 흡연력 (현재흡연, 과거 흡연, 비흡연) (흡연정의 없음) | 흡연량 (지난 한달 동안 피운 하루 평균 흡연량) | 흡연여부 (흡연자: 흡연 기간이 6개월 이상) |
| 통계분석 | Chi-square 검정, t 검정, 분산분석 | 단순선행회귀분석 | t 검정 |
| 흡연율 | 8.5% | 15.0% | - |
| 관련요인 | ▶유의: 학교생활 불만 족, 이성친구 흡연, 동성 친구 흡연자수, 음주빈 도, 흡연에 대한 개방적 태도/ 낮은 흡연 지식 점 수, 낮은 흡연 태도 점 수, 높은 스트레스 점수 ▶비유의: 학년, 동거가 족, 금연교육경험, 가정 생활만족도, 커피 섭취 빈도, 자아존중감 점수 | ▶유의: 우울정도 | ▶비유의: 성역할태도 |
| 비 고 | | | |

298 여성 흡연과 음주의 요인 및 정책대안

| 출 처 | [42] 안진희. 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2001 | [43] 정애경. 대전대 경영행정대학원 석사, 2001 |
|------|--|---|
| 조사기간 | 2001. 3-4 | 2000. 9 |
| 대상집단 | 여고생 | 실업계 여고생 |
| 대상자수 | 381명 | 315명 |
| 표집방법 | 편의표집 | 편의표집 |
| 조사지역 | 서울시 소재 4개 인문계 여자고등학교 | 대전시 소재 실업계 여고 1개 |
| 연구설계 | 단면연구 | 단면연구 |
| 종속변수 | 흡연여부(흡연자: 지난 1년동안 흡연을 한적이 있는 경우) | 흡연경험 여부(흡연경험자: 현재 혹은 과거에 가끔 혹은 규칙적으로 흡연) |
| 통계분석 | Chi-square 검정, t 분석, 로지스틱 회귀 분석 | Chi-square 검정 |
| 흡연율 | 1학년 25.5%, 2학년 34.7%, 3학년 39.8% | 27.1% |
| 관련요인 | <p>■ 단변량 분석</p> <p>▶유의: 낮은 학업성적, 낮은 학교생활 만족도, 낮은 부모 관심도, 낮은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높은 우울 점수</p> <p>▶비유의: 학년, 종교, 가정경제수준</p> <p>■ 다변량분석</p> <p>▶유의: 우울성향점수(OR=1.33), 3학년(OR=3.38)</p> <p>▶비유의: 학업성적, 학교생활만족도, 가정경제수준, 부모와의 관계</p> | <p>▶유의: 학교생활 불만족, 많은 방과후 어울리는 시간, 가까운 친구 흡연 높은 비율, 여성 흡연에 대한 긍정적 태도, 결혼 상대자의 흡연에 대한 긍정적 태도</p> <p>▶비유의: 가정경제 수준, 학교성적</p> |
| 비 고 | | |

| | |
|------|--|
| 출 처 | [44] 황승주 등, 가정의학회지 2000;21(3):344-356 |
| 조사기간 | 1995. 5-1999. 4 |
| 대상집단 | 20세 이상 성인 여성 (2·30대, 4·50대, 60대 이상으로 구분) |
| 대상지수 | 흡연자 492명 및 비흡연자 984명 |
| 표집방법 | 연령군별 짝짓기 무작위 추출 |
| 조사지역 | 서울대학교병원 건강증진센터 방문자 |
| 연구설계 | 환자-대조군 연구 |
| 종속변수 | 흡연여부 (흡연자 정의: 조사당시 흡연을 하는 경우) |
| 통계분석 | Chi-square 검정, 다변량 로지스틱 분석 |
| 흡연을 | 해당사항 없음 |
| 관련요인 | <p>■ 단변량 분석</p> <p>○ 2·30대: 취업자(OR=2.38), 판매서비스직(OR=3.34), 독신(OR=3.67), 고수입, 좋지않은 가족/친구관계(OR=2.56), 불행한 사건 경험, 높은 스트레스량, 낮은 인생 만족도, 많은 음주량, 안전벨트 미착용</p> <p>○ 4·50대: 취업자 (OR=1.87), 판매서비스직(OR=2.30), 독신(OR=2.51), 좋지않은 가족/친구관계(OR=2.48), 불행한 사건 경험, 높은 스트레스량, 낮은 인생 만족도, 많은 음주량, 적은 운동량, 안전벨트 미착용, 많은 염분 섭취량, 비만</p> <p>○ 60대 이상: 낮은 교육수준(경향분석), 저수입(경향분석), 좋지않은 가족/친구관계(OR=2.53), 많은 음주량, 적은 운동량, 안전벨트 미착용</p> <p>■ 다변량 분석</p> <p>○ 2·30대: 음주(OR=4.04), 판매서비스직(OR=2.92), 독신(OR=2.76), 높은 스트레스(OR=1.75), 인생 불만족(OR=1.71)</p> <p>○ 3·40대: 음주(OR=4.02), 판매서비스직(OR=2.14), 독신(OR=2.03), 적은 운동(OR=1.89), 높은 스트레스(OR=1.93), 인생 불만족(OR=1.60)</p> <p>○ 60대 이상: 음주(OR=5.93), 적은 운동(OR=2.91), 낮은 교육수준(OR=3.14)</p> |
| 비 고 | |

300 여성 흡연과 음주의 요인 및 정책대안

| 출 처 | [45] 이석구 등, 가정의학회지 2000;21(8):1042-1052 | [46] 손정남,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000;6(2):316-329 |
|------|--|--|
| 조사기간 | 1999. 6. | 1999. 7 |
| 대상집단 | 남녀 고등학생(1학년) | 여자고등학생 |
| 대상자수 | 573명 (전체 1,516명) | 357명 |
| 표집방법 | 편의추출 | 편의추출 |
| 조사지역 | 일개 도농통합 중소도시 소재 6개교 |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 3개(일반계 여고 1개, 일반계 남녀공학고 1개, 여자 전문 계고 1개) |
| 연구설계 | 단면조사 | 단면연구 |
| 종속변수 | 흡연정도(비흡연, 가끔흡연, 자주흡연) 및 흡연여부 (흡연자 정의: 가끔 혹은 자주 피우는 경우) | 흡연여부 (흡연자 정의: 최근 1달간 지속적인 흡연) |
| 통계분석 | Chi-square 검정, t 검정, 다변량 로지스틱 분석 | 단변량 및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 |
| 흡연율 | 17.3% | 17.9% |
| 관련요인 | <p>■ 흡연정도 관련 요인(단변량 분석)</p> <p>▶유의: 높은 모 교육 수준, 형제 흡연, 친구 흡연, 음주 (남자: 평균 이상 신장, 형제 흡연, 친구 흡연, 음주)</p> <p>▶경계선 유의: 높은 부 교육수준</p> <p>▶비유의: 신장, 체중, 부 흡연력 (남자: 체중, 부 교육수준, 모 교육수준, 부 흡연력)</p> <p>■ 흡연관련 요인(다변량 로지스틱 분석)</p> <p>높은 지식점수, 낮은 흡연태도점수, 현재 및 과거음주, 친구흡연, 형제의 과거흡연 (남자: 낮은 흡연태도점수, 현재 및 과거음주, 친구흡연)</p> | <p>■ 단변량분석</p> <p>▶유의: 가족기능, 가족애착, 학교개입, 흡연동료와의 교제, 흡연에 대한 차별적 강화, 흡연모델링에의 노출 정도, 자아존중감, 우울, 자기주장</p> <p>▶비유의: 학교애착, 교사애착, 학업전념, 학업성적, 흡연에 대한 인식</p> <p>■ 다변량분석</p> <p>▶유의: 가족애착, 흡연동료와의 교제, 흡연에 대한 차별적 강화</p> <p>▶비유의: 가족기능, 학교개입, 교사애착, 학업전념, 학교개입, 학업성적, 흡연에 대한 인식, 흡연 모델링 노출 정도, 자아존중감, 우울, 자기주장</p> |
| 비 고 | | |

| 출 처 | [47] 감신 등, 한국모자보건학회지 2000;4(2):233-253 | [48] 임우경 등, 한국영양학회지 2000;33(7):755-762 |
|------|---|--|
| 조사기간 | 1999. 3 | 1998. 8-10 |
| 대상집단 | 남녀 고등학생 | 여고생 |
| 대상자수 | 중학생 586명 (전체 1,156명), 고등학생 420명 (전체 1,001명) | 895명 |
| 표집방법 | 편의추출 | 표본 학교내 무작위추출 |
| 조사지역 | 대구시 북구 소재 25개 중고등학교 | 충남 홍성군 4개 학교, 태안군 1개 학교 |
| 연구설계 | 단면연구 | 단면연구 |
| 종속변수 | 흡연경험 (현재흡연 및 과거흡연) 여부 (흡연자 정의: 현재 흡연을 하는 경우) | 흡연여부 (흡연자 정의: 하루에 5-10개 비 이상을 6개월 이상 피워오고 있는 사람) |
| 통계분석 | Chi-square 검정, 다중로지스틱분석 | Chi-square 검정, t 검정, 로지스틱회귀 분석 |
| 흡연율 | 중학교 1학년 0.0%, 2학년 2.0%, 3학년 3.1%, 고등학교 1학년 1.1%, 2학년 3.5%, 3학년 3.5% | 11.6% |
| 관련요인 | <p>■ 단변량 분석</p> <p>▶유의: 공장지역 거주, 낮은 생활수준, 낮은 학교성적, 높은 음주자 친구 비율, 높은 흡연자 친구 비율, 낮은 흡연에 의한 악영향 인식</p> <p>(남자: 상가지역 생활자, 낮은 생활수준, 가족과 비동거, 낮은 부모 교육수준, 부모 흡연, 모 흡연, 부 흡연, 모 흡연, 낮은 학교성적, 높은 음주자 친구 비율, 높은 흡연자 친구 비율, 낮은 흡연에 의한 악영향 인식)</p> <p>▶비유의: 출생순위, 부모생존 여부, 가족 동거 여부, 부모의 교육수준, 모 직업 유무, 부모 흡연, 부모 흡연</p> <p>(남자: 출생순위, 부모생존 여부, 모 교육수준, 모 직업 유무)</p> <p>■ 다변량 분석</p> <p>▶유의: 흡연친구비율</p> <p>▶비유의: 생활수준, 학교성적, 건강에 대한 악영향 인식</p> | <p>■ 단변량분석</p> <p>▶유의: 비자가거주, 낮은 학업성적, 높은 가정 사회경제적 수준, 부모 결손, 부모의 비민주적 양육 태도, 부모의 자녀 건강에 대한 적은 관심/ 부 흡연, 모 흡연, 여자친구의 흡연, 남자친구의 흡연, 오빠 흡연, 언니 흡연, 여동생 흡연/ 타인(성인, 남자, 여자, 남자 청소년, 여자 청소년, 교사)의 흡연 및 공공장소, 임부의 흡연에 대한 긍정적 태도</p> <p>▶비유의: 남동생 흡연</p> <p>■ 다변량분석</p> <p>거주형태, 여자친구 흡연, 학교성적,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태도, 부모 결손, 타인의 흡연에 대한 수용도, 부모흡연</p> |
| 비 고 | 남자의 경우 현재흡연, 과거흡연, 흡연 무경험으로 분류함 | 과거흡연자는 제외함 |

302 여성 흡연과 음주의 요인 및 정책대안

| | | |
|------|---|--|
| 출 처 | [49] 이경미 등.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000;13(1):85-96 | [50] 김소희. 명지대 대학원 석사, 2000 |
| 조사기간 | 1998. 11 | 1999. 7. |
| 대상집단 | 초등학생 (6학년) | 실업계 고등학교 여학생 1, 2학년 |
| 대상자수 | 676명 (전체 1,476명) | 814명 |
| 표집방법 | 임의추출 | 임의표집 |
| 조사지역 | 대구시 소재 6개교 | 서울시 및 부산시 소재 실업계 고등학교 |
| 연구설계 | 단면연구 | 단면연구 |
| 종속변수 | 흡연경험 (정의: 지금까지 한번이라고 담배를 피워 본적이 있는 경우) | 흡연력 정도 (용어 정의 없음) |
| 통계분석 | Chi-square 검정, t 검정, 분산분석, 다중 로지스틱회귀분석 | t 분석, Chi-square 분석, 분산분석 |
| 흡연율 | 현재흡연율 0.1%, 흡연경험률 4.7% | 32.5% |
| 관련요인 | <p>■ 단변량 분석</p> <p>▶유의: 낮은 모의 학력, 모의 흡연 (남자: 낮은 성적, 모의 종교 있음, 모 직업이 생산직 혹은 기타)</p> <p>▶비유의: 종교유무, 부모결혼, 부의 종교, 부학력, 부직업, 부음주 여부, 모의 종교, 모 직업, 모 음주, 부 흡연 여부 (남자: 종교유무, 부모결혼, 부의 종교, 부학력, 부직업, 부음주 여부, 모 학력, 모 음주 여부, 부 흡연 여부, 모 흡연 여부)</p> <p>■ 다변량 분석</p> <p>▶유의: 흡연지식, 흡연태도 (남자: 성적, 가족적응력, 흡연지식, 흡연태도)</p> <p>▶비유의: 본인 종교, 성적, 부모결혼, 부음주, 모음주, 부흡연, 모흡연, 가족결속력, 가족적응력 (남자: 본인 종교, 부모결혼, 부음주, 모음주, 부흡연, 모흡연, 가족결속력)</p> | <p>▶유의: 높은 모학력, 모 직업(판매 서비스업), 종교(불교), 낮은 학업성적, 외동딸, 많은 용돈, 모흡연, 여자형제 흡연, 남자형제 흡연, 여자친구 흡연, 남자 친구 흡연</p> |
| 비 고 | | 비유의에 대해서는 별도 제시없음 |

| 출 처 | [51] 김영희. 대구가톨릭대 대학원 석사, 2000 | [52] 이길희. 충남대 대학원 석사, 2000 |
|------|---|---|
| 조사기간 | 2000. 3. | 1999. 6 |
| 대상집단 | 여자 중고등학생 1-3학년 | 남녀 고등학교 |
| 대상자수 | 1,111명 | 518명 (전체 1,380명) |
| 표집방법 | 편의추출 | 편의표집 |
| 조사지역 | 대구시 소재 여중 1개교, 인문계고 1개교, 실업계고 1개교 | 천안시 소재 6개 고등학교 |
| 연구설계 | 단면조사 | 단면연구 |
| 종속변수 | 흡연여부 (흡연자 정의 없음) | 흡연여부 (흡연자: 가끔 및 자주흡연) |
| 통계분석 | Chi-square 분석 | Chi-square 검정, t 검정, 분산분석, 다중 로지스틱회귀분석 |
| 흡연율 | 6.7% (중학생 2.0%, 고등학생 8.8%) | 17.2% |
| 관련요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의: 부모와 비동거, 가정의 낮은 화목도,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 흡연자 친구수, 방과후 친구와의 많은 교제 시간, 이성친구 있음, 이성친구의 흡연, 낮은 학업성적, 교사흡연에 대한 긍정적 태도,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족, 1시간 미만 및 3시간 이상의 방과후 학습시간, 잦은 유흥가 출입횟수, 매스컴 흡연 장면에 대한 긍정적 태도 ▶ 경계선 유의: 낮은 가정경제수준, 부모흡연, 거주형태(상가, 공장지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변량 분석 ▶ 유의: 높은 모학력, 형제 흡연, 친구 흡연, 음주, 낮은 태도점수 (남자: 높은 신장, 형제 흡연, 친구흡연, 음주, 낮은 지식점수(가끔), 낮은 태도점수) 경계선: 높은 부학력, ▶ 비유의: 신장, 체중, 부흡연, 지식점수 (남자: 체중, 부학력, 모학력, 부흡연) ■ 다변량 분석 ▶ 유의: 지식(OR=3.86), 태도(OR=0.02), 음주(현재 OR=5.92, 과거 OR=3.92), 친구 흡연 (OR=6.83), 형제 흡연 (과거 OR=4.01) |
| 비 고 | | |

304 여성 흡연과 음주의 요인 및 정책대안

| 출 처 | [53] 김정원 등, 한국영양학회지 1999;32(8):908-917 | [54] 송연희.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 1999 |
|------|--|--|
| 조사기간 | 1998. 6-9 | 1998. 7. |
| 대상집단 | 여고생 2학년 | 여자 중학생 |
| 대상자수 | 300명 (흡연군 132명, 비흡연군 168명) | 472명 |
| 표집방법 | 편의표집 | 임의추출 |
| 조사지역 | 여자상업고 2개 (지역 불명) | 서울시 소재 4개 중학교 |
| 연구설계 | 환자대조군 연구 | 단면연구 |
| 종속변수 | 흡연여부 (흡연자 정의: 기술 없음) | 흡연경험 여부 (정의 없음) |
| 통계분석 | Chi-square 검정, t 검정 | Chi-square 분석 |
| 흡연율 | - | 현재흡연율 2.6%(흡연경험률 12.7%) |
| 관련요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의: 음주/ 낮은 지방분포, 흡연의 신체 영향에 대한 낮은 부정적 태도, 흡연에 심리적 영향에 대한 높은 긍정적 태도, 흡연의 이점에 대한 높은 인식, 흡연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낮은 인식/ 모의 흡연에 대한 덜 허용적인 태도, 흡연에 대한 형제, 친구, 선배의 더 허용적인 태도/ 흡연 욕구 억제에 대한 낮은 자신감, 흡연 유혹에 대한 낮은 대처 기술 ▶비유의: 키, 체중, 체질량지수, 혈압, 수면시간, 운동비율, 외식빈도, 키포섭취/ 지방분포를 제외한 체성분, 영양소 섭취 실태, /부, 교사의 흡연에 대한 허용적 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의: 여성흡연에 대한 긍정적 태도, 음주경험, 성경험, 낮은 가정화목도, 부모의 비민주적 양육태도, 부모의 무관심, 낮은 학업성적, 방과후 친구와 어울리는 많은 시간, 많은 흡연자 친구수, 잦은 유흥가 출입, 매스컴 흡연장면에 대한 긍정적 태도 ▶비유의: 남자친구 유무, 부모결혼, 부모흡연, 학교생활 만족도, 거주환경, 금연교육 경험 |
| 비 고 | | |

| 출 처 | [55] 정지훈. 연세대 보건대학원 석사, 1999 | [56] 이윤수 등, 가정의학회지 1998;19(1): 43-57 | [57]. 조주희.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석사, 1998 |
|------|--|--|--|
| 조사기간 | - | 1996. 7. | 1998. 4 |
| 대상집단 | 인문계 여고생 (1-3학년) | 남녀 중고등학생 | 인문계 여고생 (1, 2학년) |
| 대상자수 | 1,738명 | 2,364명 (전체 4,438명) | 766명 |
| 표집방법 | 편의표집 | 편의추출 | 임의표집 |
| 조사지역 | 서울시 소재 인문계 여고 1개 | 서울시 소재 중학교 2개, 일반계고 2개, 전문계고 2개 | 서울시 소재 인문계 여고 3개 |
| 연구설계 | 단면연구 | 단면연구 | 단면연구 |
| 종속변수 | 흡연경험여부 (흡연군: 현재 혹은 과거 흡연) | 흡연여부, 흡연빈도(흡연자의 정의: 가끔 흡연자 이상) | 흡연경험 여부 |
| 통계분석 | Chi-square 검정,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 | Chi-square 검정 및 교차비 계산 | Chi-square 검정, t 분석 |
| 흡연율 | - | 8.3% | 5.5% |
| 관련요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변량 분석 ▶유의: 고학년, 많은 용돈, 낮은 학업성적 ▶비유의: 종교 ■ 다변량 분석 ▶유의: 3학년, 많은 용돈, 낮은 학업성적, 아버지 결손, 낮은 생활수준 ▶비유의: 부교육수준, 모교육수준, 부흡연, 흡연에 대한 태도, 흡연에 대한 지식 | <p>현재음주(OR=330.2), 현재 수면제 복용(OR=10.1), 현재 각성제 복용(13.2), 현재 흡입제 사용(OR=3.1)</p> <p>[남자: 현재음주(OR=330.2), 현재 수면제 복용(OR=15.8), 현재 각성제 복용(10.1), 현재 흡입제 사용(OR=23.1)]</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의: 고학년, 낮은 학업성적, 낮은 혹은 높은 가정경제 수준, 과잉보호의 양육태도, 많은 용돈, 아르바이트 함, 모흡연, 오빠 흡연, 남동생 흡연, 낮은 흡연태도 점수, 낮은 학교생활 적응도, 낮은 학업 적응도 ▶비유의: 부흡연, 언니 흡연, 교사와의 관계, 교우관계 |
| 비 고 | | | |

306 여성 흡연과 음주의 요인 및 정책대안

| | |
|-------|---|
| 출 처 | [58] 정래순 등, 가정의학회지 1996;17(6):425-437 |
| 조사기간 | 1995. 2 |
| 대상집단 | 남녀 일반계 고등학생 |
| 대상자수 | 880명 (전체 1,793명) |
| 표집방법 | 편의추출 |
| 조사지역 | 서울시 소재 17개교 |
| 연구설계 | 단면조사 |
| 종속변수 | 흡연여부 (흡연자 정의: 가끔 이상 피우는 경우) |
| 통계분석 | Chi-square 검정, 다변량 로지스틱 분석 |
| 흡 연 율 | 6.6% (1학년 5.0%, 2학년 8.2%, 3학년 6.6%) |
| 관련요인 | <p>■ 단변량 분석</p> <p>▶유의: 부모결혼, 모 흡연, 형제 흡연, 낮은 가족기능 점수, 낮은 학업성적, 학교생활 불만족, 적은 방과후 공부 시간, 남자친구의 흡연, 높은 흡연자 여자친구 비율, 낮은 흡연유해성 인지, 흡연에 대한 허용적 태도 (남자: 형제흡연, 낮은 가족기능 점수, 낮은 학업성적, 학교생활 불만족, 적은 방과후 공부 시간, 높은 흡연자 남자친구 비율, 높은 흡연자 여자친구 비율, 낮은 흡연유해성 인지, 흡연에 대한 허용적 태도)</p> <p>▶비유의: 가정경제수준, 부 교육수준, 모 교육 수준, 부 흡연 (남자: 가정경제수준, 부모결혼, 부 교육수준, 모 교육 수준, 부 흡연, 모 흡연)</p> <p>■ 다변량 분석</p> <p>가족기능도 점수(1점당 OR=0.81), 높은 흡연자 여자친구 비율(OR=9.45), 낮은 흡연유해성 인지도(OR=3.31) [남자: 가족기능도 점수(1점당 0.91), 형제흡연(OR=1.94), 하위 학업성적(OR=1.91), 높은 흡연자 남자친구 비율(OR=4.96), 높은 흡연자 여자친구 비율(OR=2.37), 낮은 흡연유해성 인지도(OR=3.40), 흡연에 대한 허용적 태도(OR=1.85)]</p> |
| 비 고 | |

| | |
|------|---|
| 출 처 | [59] 광정옥.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1995;12(2):120-138 |
| 조사기간 | 1995. 5-6. |
| 대상집단 | 여자대학생 |
| 대상자수 | 1,045명 |
| 표집방법 | 4개 계열 9개 학과별 무작위추출 |
| 조사지역 | 서울시 소재 1개 여자대학교 |
| 연구설계 | 단면연구 |
| 종속변수 | 현재흡연, 과거흡연, 비흡연 및 흡연여부 (흡연자의 정의: 조사시점 현재 흡연) |
| 통계분석 | Chi-square 검정,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 |
| 흡연율 | 현재흡연자 7.4%, 과거흡연자 20.6% (전공계열: 예체능계열 18.5%, 인문사회계열 10.6%, 자연계열 1.0%, 의학계열 1.2%) |
| 관련요인 | <p>■ 단변량 분석</p> <p>▶ 유의: 여성흡연에 대한 긍정적 태도, 낮은 금연 의지, 배우자 흡연에 대한 긍정적 태도, 금연교육 필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무교, 이성친구 있음, 가정생활 불만족, 학교생활 불만족/ 부흡연, 모흡연, 남자형제 흡연, 여자형제 흡연, 남자친구 흡연, 여자친구 흡연/ 불규칙적 식사, 높은 커피복용 횟수, 음주, 체중조절함/ 낮은 흡연지식</p> <p>▶ 비유의: 부모 동거 여부, 부모</p> <p>■ 다변량 분석</p> <p>가정생활 만족도(OR=0.54), 커피음용(OR=0.61), 음주(OR=0.01) 여자형제 흡연(OR=0.20), 여자친구 흡연(OR=0.19), 흡연지식(OR=1.31)</p> |
| 비 고 | 로지스틱 분석시 더미처리 여부 및 기준치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OR에 대한 해석이 어려움 |

308 여성 흡연과 음주의 요인 및 정책대안

| 출 처 | [60] 남옥희.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 1995 | [61] 송미령. 인하대 교육대학원 석사, 1995 |
|------|---|--|
| 조사기간 | - | - |
| 대상집단 | 실업계 여고생 | 여대생 (1-4학년) |
| 대상자수 | 210명 | 535명 |
| 표집방법 | 임의추출 | 임의표집 |
| 조사지역 | 대구시 1개 실업계 여자고등학교 | 서울시 남녀 공학대학 2개, 여대 2개, 인천시 소재 3개 대학 |
| 연구설계 | 단면연구 | 단면연구 |
| 종속변수 | 흡연집단 (정의: 매일 혹은 규칙적 흡연하는 경우, 가끔 흡연자는 제외) | 흡연력(흡연, 흡연경험, 비흡연) (흡연자: 일주일에 한번 이상 흡연) |
| 통계분석 | Chi-square 분석, t 분석 | Chi-square 검정 |
| 흡연율 | - | 19.8% |
| 관련요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의: 고학년, 높은 경제수준, 부모 결손, 낮은 학급자아개념점수, 낮은 능력자아개념, 낮은 성취자아개념, 높은 사회자아개념, 낮은 가족자아개념, 낮은 정서자아개념, ▶비유의: 일반자아개념, 신체자아개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의: 부모와의 좋지 않은 관계, 부모의 자녀의견 비존중, 부흡연, 높은 생활수준, 학과(인문계), 고학년, 종교(무교), 부모 흡연에 대한 개방적 태도, 장래 배우자 흡연에 대한 개방적 태도, 흡연의 인체피해에 대한 낮은 인식임산부 흡연의 피해에 대한 낮은 인식, 흡연의 자녀교육 피해에 대한 낮은 인식 ▶비유의: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 모흡연, 부음주, 거주형태, 부학력, 모학력 |
| 비 고 | | |

| 출 처 | [62] 이성희. 경북대 대학원 석사, 1994 | [63] 현영주. 효성여대 교육대학원 석사, 1994 |
|------|---|---|
| 조사기간 | 1993. 9 | 1993. 7 |
| 대상집단 | 여고생 2학년 | 실업계 여고생 |
| 대상자수 | 982명 | 208명 |
| 표집방법 | 임의표집 | 임의표집 |
| 조사지역 | 대구시 소재 인문계 여고 4개, 실업계 여고 6개 | 대구시 소재 실업계 여고 1개 |
| 연구설계 | 단면연구 | 환자대조군연구 |
| 종속변수 | 흡연군, 흡연중단군, 비흡연군 (흡연자: 가끔 혹은 규칙적으로 흡연) | 흡연여부 (흡연자 정의 없음) |
| 통계분석 | Chi-square 검정 | t 검정 |
| 흡연율 | 12.3% | - |
| 관련요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의: 실업계, 많은 용돈, 용돈액수에 대한 불만족, 이성친구 있음, 대학진학에 대한 의지 약함, 잦은 음주 횟수, 학교생활 불만족/ 흡연에 대한 긍정적 태도, 흡연지식에 대한 낮은 점수, 금연교육 필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비유의: 종교유무, 부모동거 여부, 친한 친구수, 가족중 흡연자 유무, 동아리 가입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의: 높은 상태불안 점수, 높은 특성불안 점수 ▶비유의: 우울점수 |
| 비 고 | | |

310 여성 흡연과 음주의 요인 및 정책대안

| 출 처 | [64] 이계은 등,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1992;9(1):39-47 | [65] 최순옥 등, 한국역학회지 1991;13(2):146-158 |
|------|---|---|
| 조사기간 | 1992. 2. | 1990. 5-6 |
| 대상집단 | 여고생 | 산업체 여성 근로자 |
| 대상자수 | 1,136명 | 1,388명 |
| 표집방법 | 편의추출 | 편의추출 |
| 조사지역 | 서울시 소재 일반계 및 전문계 주야간 고등학교 4개 | 구미시 소재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총 6개 업체 |
| 연구설계 | 단면조사 | 단면연구 |
| 종속변수 | 흡연여부 (흡연자의 정의: 기술 없음) 및 현재흡연, 흡연경험, 비흡연 | 흡연자, 과거흡연자, 비흡연자 (흡연자 정의: 기술 없음) |
| 통계분석 | Chi-square 검정, 다중회귀분석 | Chi-square 검정 |
| 흡연율 | 일반계: 주간 2.7%, 야간 19.5%; 전문계 주간: 10.3%, 야간 25.5% | 7.3% |
| 관련요인 | <p>■ 단변량 분석</p> <p>▶유의: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족, 많은 용돈, 남자친구 있는 경우, 남자친구의 흡연, 여자 친구의 흡연, 낮은 부 학력수준, 낮은 모 학력 수준, 언니흡연, 오빠흡연 / 흡연에 대한 태도, 지식: 흡연의 해로움에 대한 낮은 인식, 간접흡연의 해로움에 대한 낮은 인식, 흡연의 이로움에 대한 높은 인식, 여성흡연에 대한 긍정적 태도, 영상매체의 흡연 장면에 대한 긍정적 태도, 금연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높은 인식/ 건강행태: 높은 아침식사 결식률, 불규칙적 식사, 맵고 짠 음식</p> <p>▶비유의: 부 직업, 부 흡연 여부, 모 직업 유무</p> <p>■ 다변량 분석</p> <p>학교생활만족도, 용돈, 부모의 관심도, 여자친구 흡연, 부모와 형제 흡연, 흡연지식, 흡연태도, 건강행위</p> | <p>▶유의: 흡연의 건강 피해에 대한 낮은 인식, 담배연기 성분의 피해에 대한 낮은 인식, 흡연에 의한 질환에 대한 낮은 인식, 흡연의 타인에 대한 피해의 낮은 인식, 흡연의 태아에 대한 피해의 낮은 인식</p> |
| 비 고 | 다변량 통계 분석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고찰 필요 | |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비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 - 발간자료 - 간행물회원등록을 통해 가입
-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가입

▶ 회비납부

- 신용카드 결제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019-219956-01-014) 예금주 :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 문의처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지식관리센터
간행물 담당자 (Tel : 02-380-8234)

도서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

| 보고서 번호 | 서 명 | 저자 | 가격 |
|------------|--|-----|-------|
| 연구 08-01 | 건강수명의 사회계층간 형평성과 정책과제 | 강은정 | 6,000 |
| 연구 08-02 | 여성 흡연과 음주의 요인 및 정책대안 | 서미경 | 9,000 |
| 연구 08-03 | 공공보건조직의 효율성 분석 및 운영 합리화 방안 | 신호성 | 7,000 |
| 연구 08-04 | 건강한 미래세대를 위한 영양 관련 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모유수유 및 아동·청소년 영양문제를 중심으로 | 김혜련 | 미정 |
| 연구 08-05 | 남북한간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효율적 수행체계 구축방안 연구 | 이상영 | 미정 |
| 연구 08-06 |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 강신욱 | 7,000 |
| 연구 08-07 | 건강보험 지불제도와 의료공급자의 진료행태: 의료공급자의 유인 수요와의 연관성 파악 | 허순임 | 미정 |
| 연구 08-08 |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연구: 재정적·정치적 지속 가능성 중심으로 | 윤석명 | 미정 |
| 연구 08-09 |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 평가 | 원종욱 | 7,000 |
| 연구 08-10 |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배제계층 지원방안 연구: 사회적 배제의 역동성 및 다차원성 분석을 중심으로 | 김안나 | 미정 |
| 연구 08-11 | 사회재정지출의 효율성과 형평성 분석 | 최성은 | 6,000 |
| 연구 08-12 | 한국복지모형에 대한 연구: 그 보편성과 특수성 | 노대명 | 미정 |
| 연구 08-13 |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 김승권 | 미정 |
| 연구 08-14 |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 김유경 | 미정 |
| 연구 08-15 | 아동·청소년복지 수요 추계 연구 I | 김미숙 | 미정 |
| 연구 08-16 |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사회자본형성의 실태와 과제 | 박세경 | 미정 |
| 연구 08-17 | 노년기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다차원적 구조분석 | 이소정 | 8,000 |
| 연구 08-18-1 |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조건부 수급자를 중심으로 | 이태진 | 미정 |
| 연구 08-18-2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 법, 조직, 정보 인프라를 중심으로 | 이현주 | 6,000 |
| 연구 08-18-3 | 2008 빈곤통계연보 | 김대원 | 8,000 |
| 연구 08-18-4 | 의료급여 사례관리 효과분석 II | 신영석 | 미정 |
| 연구 08-18-5 | 의료급여 선택병원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 | 신현웅 | 미정 |
| 연구 08-18-6 | 서구 근로빈곤문제의 현황과 쟁점 | 노대명 | 미정 |
| 연구 08-19-1 |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행사 기준개선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 | 원종욱 | 미정 |
| 연구 08-19-2 | 한국의 복지 GNP | 홍석표 | 미정 |
| 연구 08-20-1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실태와 효율화 방안 연구 | 오영희 | 미정 |
| 연구 08-20-2 | 저출산고령사회관련 주요 현안 및 대응방안 연구 | 오영희 | 미정 |
| 연구 08-20-3 | 저출산 대응 정책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 | 이상식 | 7,000 |
| 연구 08-20-4 |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 여성인적자본의 효율적 활용방안 | 신윤정 | 미정 |
| 연구 08-20-5 | 노인 장기요양보장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 선우덕 | 미정 |
| 연구 08-20-6 | 농촌지역 고령자의 생활기능 자립을 위한 보건복지 지원체계 모형 개발 | 선우덕 | 5,000 |
| 연구 08-20-7 |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인적 및 물적 자산 활용방안 | 김수봉 | 미정 |
| 연구 08-20-8 | 국제적 관점에서 본 고령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현황과 과제 | 정경희 | 미정 |

| 보고서 번호 | 서 명 | 저자 | 가격 |
|------------|--|------|--------|
| 연구 08-21-1 | 2008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 김미곤 | 15,000 |
| 연구 08-21-2 | 2007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 여유진 | 9,000 |
| 연구 08-22-1 | 한국의료패널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 | 정영호 | 9,000 |
| 연구 08-22-2 | 2008년 한국의료패널 조사 진행 보고서 | 정영호 | 미정 |
| 연구 08-23-1 | 사회재정사업의 평가 | 유근춘 | 미정 |
| 연구 08-23-2 | 사회재정평가지침-사례와 분류 | 유근춘 | 미정 |
| 연구 08-23-3 | 조세 및 사회보장 부담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연립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분석 | 남상호 | 미정 |
| 연구 08-23-4 | 의료급여 재정모형과 재정지출 전망 | 최성은 | 미정 |
| 연구 08-23-5 | 복지제도의 발전방향 모색-가족부문 투자 | 유근춘 | 미정 |
| 연구 08-23-6 | 정부의 복지재정지출 DB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2차년도) | 고경환 | 미정 |
| 연구 08-23-7 | 2008 사회예산 분석과 정책과제 | 최성은 | 미정 |
| 연구 08-24-1 | 건강영향평가제도 시행방안 | 최은진 | 미정 |
| 연구 08-24-2 | 드림스타트의 건강영향평가 | 강은정 | 미정 |
| 연구 08-24-3 | KTX의 건강영향평가 -의료이용을 중심으로 | 김진현 | 미정 |
| 연구 08-24-4 | 기후변화에 따른 전염병 감시체계 개선방안 | 신호성 | 미정 |
| 연구 08-24-5 | 국립소록도병원의 만성병 관리체계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 강은정 | 미정 |
| 연구 08-25 |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1년차) | 오영호 | 5,000 |
| 연구 08-26 |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송태민 | 8,000 |
| 연구 08-27-1 | 능동적 복지의 개념정립과 정책과제 | 김승권 | 미정 |
| 연구 08-27-2 | 보건복지재정 적정화 및 정책과제 | 유근춘 | 미정 |
| 연구 08-27-3 | 능동적 복지개념에 부합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체계개편 방안 | 신영석 | 6,000 |
| 연구 08-27-4 | 능동적 복지와 사회복지서비스 실천방안 | 김승권 | 미정 |
| 연구 08-27-5 | 능동적 복지 구현을 위한 건강투자 전략 | 최은진 | 미정 |
| 연구 07-01 | 한미 FTA 협상과 의약품 관리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 | 박실비아 | 8,000 |
| 연구 07-02 | 보건의료 인력자원의 지역별 분포의 적정성과 정책과제 | 오영호 | 9,000 |
| 연구 07-03 | 근거기반의 건강증진사업 추진 활성화 전략 | 최은진 | 7,000 |
| 연구 07-04 | 고령사회에 대비한 국가영양관리 발전전략 모색 | 김혜련 | 10,000 |
| 연구 07-05 | 건강보험 적정 보장성 확보방안 | 허순임 | 8,000 |
| 연구 07-07 | 국민연금운용시스템 및 관리감독체계 개선방안 | 원종욱 | 7,000 |
| 연구 07-08 | 근로빈곤층에 대한 국제비교연구: 실태와 정책을 중심으로 | 노대명 | 6,000 |
| 연구 07-09 | 교육 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 | 여유진 | 7,000 |
| 연구 07-10 | 사회재정지출 성과관리 및 효과분석 방안 | 최성은 | 8,000 |
| 연구 07-11 |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발전방안(11) -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 김승권 | 12,000 |
| 연구 07-12 | 사회서비스 공급의 역할분담 모형개발과 정책과제 - 국가·시장·비영리민간의 재정분담 및 공급참여 방식 | 강혜규 | 10,000 |
| 연구 07-13 | 한국의 아동빈곤실태와 빈곤아동지원방안 | 김미숙 | 7,000 |
| 연구 07-14 | 복지육구 다양화에 따른 장애인 복지지표 개발연구 | 변용찬 | 7,000 |

| 보고서 번호 | 서 명 | 저자 | 가격 |
|------------|---|-----|--------|
| 연구 07-15 | 유비쿼터스 기반의 e-Welfare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 정영철 | 7,000 |
| 연구 07-16 | 한국의 삶의 질 수준에 관한 연구 | 장영식 | 6,000 |
| 연구 07-17-1 | 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점검 평가 - 기초보장 수급자 및 담당자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 이태진 | 13,000 |
| 연구 07-17-2 | 의료급여 사례관리 및 효과분석 | 신영석 | 6,000 |
| 연구 07-17-3 | 2007년 빈곤통계연보 | 김태완 | 8,000 |
| 연구 07-17-4 | 기초생활보장제도 효과성에 관한 연구 | 노대명 | 5,000 |
| 연구 07-17-5 | 미국 Medicaid의 각주별 모니터링 체계 비교 연구 | 신영석 | 7,000 |
| 연구 07-17-6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산조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 최현수 | 8,000 |
| 연구 07-17-7 | 저소득층 의료육구 측정에 관한 연구 | 신현웅 | 6,000 |
| 연구 07-17-8 | 사회정책의 진단과 동향 | 이태진 | 16,000 |
| 연구 07-18-1 | Social Service Provision System: <i>the Issue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UK, US and Korea</i> | 강혜규 | 5,000 |
| 연구 07-18-2 | 외국의 민간의료보험 정책 연구 | 홍석표 | 5,000 |
| 연구 07-19-1 | 국제결혼가족의 결혼·출산 행태와 정책방안 | 이삼식 | 6,000 |
| 연구 07-19-2 | 양육 지원 정책의 향후 발전방향: 국제 비교를 중심으로 | 신윤정 | 7,000 |
| 연구 07-19-3 | 200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실시를 위한 기초연구 | 정경희 | 7,000 |
| 연구 07-19-5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의 경영전략 개발 연구 | 선우덕 | 9,000 |
| 연구 07-19-6 |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조직 및 평가체계 효율화 방안 | 조남훈 | 9,000 |
| 연구 07-19-7 | 사회교육기관의 저출산고령화대책 교육실태와 활성화 방안연구: 공공교육기관을 중심으로 | 오영희 | 6,000 |
| 연구 07-19-8 |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 분석 및 정책적 함의 | 이소정 | 6,000 |
| 연구07-19-9 | International Seminar on Low Fertility and Policy Responses in Selected Asian Countries | 강유구 | 7,000 |
| 연구 07-20 | 2006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 김미곤 | 7,000 |
| 연구 07-21 | 2007 한국복지패널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 김미곤 | 12,000 |
| 연구 07-22-2 | 정부의 사회복지재정 DB 구축에 관한 연구(일차년도)-세출예산을 중심으로- | 고경환 | 6,000 |
| 연구 07-22-3 | 사회회계행렬을 이용한 건강투자자의 경제성장효과 분석 | 남상호 | 5,000 |
| 연구 07-22-4 | 사회예산분석과 정책과제 | 최성은 | 8,000 |
| 연구 07-22-6 | 바우처 제도의 효과제고를 위한 평가 방안 | 최성은 | 6,000 |
| 연구 07-23 | 2007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송태민 | 9,000 |
| 연구 07-24 | 의료이용 및 의료비패널 구축을 위한 1차 예비조사 | 정영호 | 9,000 |